

새내기

무슬림을 위한 지침서

삶의 전반에 필요한 이슬람의 규정을 신규 입교자를 위해 알기 쉽게 풀이함

파흐드 이븐 살림 바함맘

NEW MUSLIM GUIDE

새내기 무슬림을 위한 지침서

삶의 전반에 필요한 이슬람의 규정을

신규 입교자를 위해 알기 쉽게 풀이함

파흐드 이븐 살림 바함맘

دليل المسلم الجديد

كوري

King Fahd National Library Cataloging-in-Publication Data

Bahammam, Fahd Salim

The new muslim guide. / Fahd Salim Bahammam ; Ioachi Sato - Riyadh , 1434

258 p ; 18.5X20.5 cm

ISBN: 978-603-01-1620-1

(Korean Language text)

1-Islamic preaching I-Larab Ben

210.7 dc 1434/2198

L.D. no. 1434/2198

ISBN: 978-603-01-1620-1

First Edition

1434/2014

For charitable printing and distribution of the book
Please contact

Modern Guide

Birmingham UK
B11 1A
Tel: + 441214399144

Kingdom of Saudi Arabia-Riyadh
Tel: + 96614486000
Fax: + 96614482181



감수 및 검토

Dr. 알리 무히웃딘 알-꾸르라 다기 교수

세계 무슬림 학자 연맹 사무총장

Dr. 압둘 파타흐 마흐무드 이드리스 교수

아즈하르 대학교 샤리아 및 실정법 단과대 피끄학과장

Dr. 무함마드 자브르 알-알피

이슬람 세미나 연맹 부속

국제 이슬람 피끄 전문가

Dr. 유수프 빈 압둘라 앗-슈바일리

이맘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 이슬람 대학교

법학학회 피끄 교수

집필	파흐드 이븐 살림 바함맘
번역	카람 김은수
프로젝트 총책임	칼리드 아흐마드 알-아흐마디
디자인	모던 가이드
사진	DPI STUDIO 웹사이트 및 스튜디오 전문
보급 및 유통	사마올 쿠툽 출판사
미디어 보급	모던 가이드



برعاية

Sponsored By

مؤسسة هيا الخيرية

출판사 서문

최근의 통계치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전파되고 있는 종교는 다름 아닌 이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가장 설득력이 강한 종교이며 이슬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이 모든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종교이며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본성에 일치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비무슬림들에게 이슬람을 알리는 단체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현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슬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력들은 보통 비무슬림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것에 집중되곤 합니다. 신앙증언(샤하다)를 통해 올곧은 길로 들어선 새내기 무슬림들을 위해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삶의 전반에 있어 이슬람을 실천하기 위해 새내기 무슬림은 앞으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마울 쿠툽' 출판사는 여러분께 <새내기 무슬림을 위한 지침서>를 드립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신규 입교자에게 이슬람의 기초 지식을 소개하는 책은 아마도 본 서가 처음이 아닐까 자부해봅니다. 또한 본서는 주요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본서에 소개된 주요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와 비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종교를 받아들인 새내기 무슬림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순수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판사 올림

차례

서론

1 믿음 (이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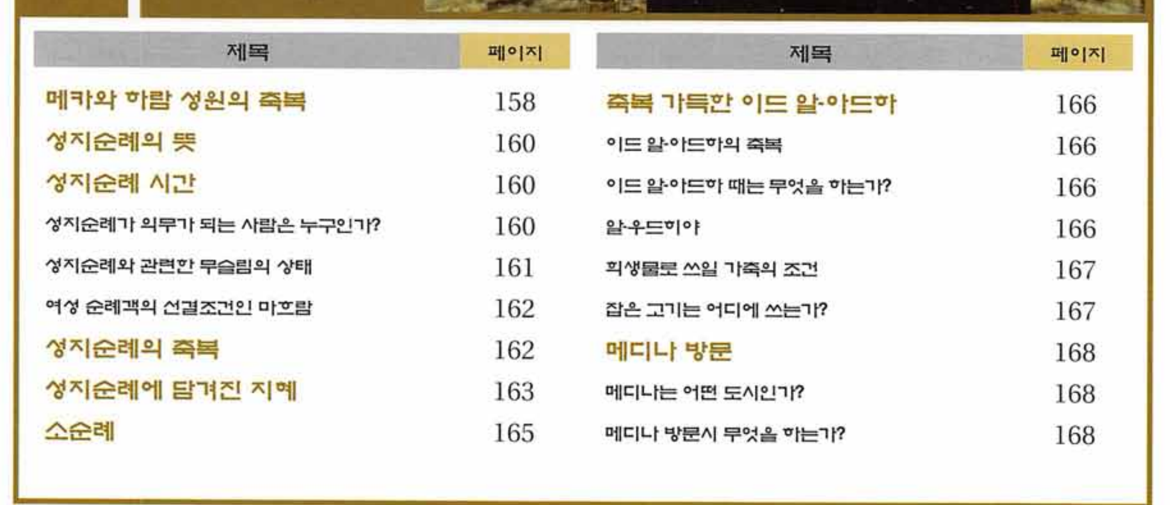
2 청결상태 (따하라)



3 예배

4 단식

5 의무희사금



6 성지순례(핫즈)

7 경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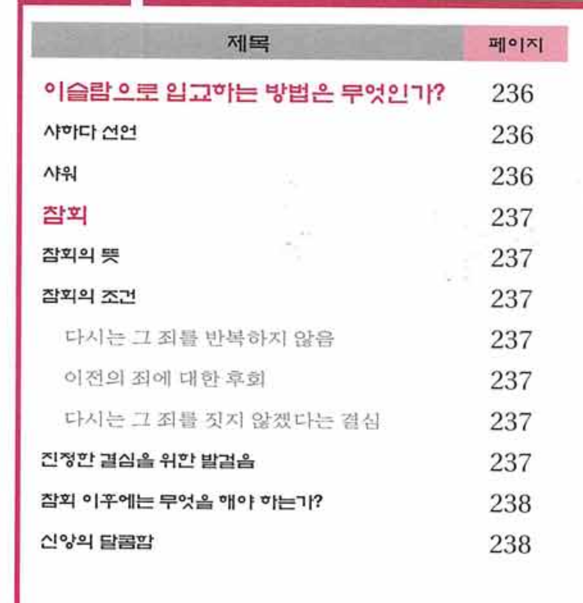
8 먹거리와 마실 거리

9 옷

10 가족

11 성품

12 새로운 삶



들어가는 말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자님께 성공과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자님을 인도하여 주셨고 암흑에 있던 독자님을 광명으로 이끌어주셨고 결국 독자님은 이슬람의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독자님의 용감한 결단과 진실을 추구함에 있어 보여주셨던 독자님의 편견 없는 모습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독자님은 그 무엇도 아닌 진실만을 추구하셨기에 결국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리실 수 있었던 것이며 마침내 이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전자제품을 산 사람은 해당 제품의 매뉴얼을 자세히 읽어볼 것이고 새로운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은 기존 멤버와 어떻게 교류해야 할지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쓸 것입니다.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받아 이슬람을 선택한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새로운 종교에 관해 여러 정보를 습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을지, 급격히 바뀐 삶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슬람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새내기 무슬림은 이 모든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슬람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독자님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실로 여러분이 앞으로 습득할 지식은 하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유산입니다. “선지자는 재산을 남기지 않으며 단지 종교에 관한 지식만을 남기노라. 따라서 그 지식을 습득하는 자는 커다란 것을 얻은 것이며, 선지자의 유산으로부터 풍부한 축복을 받은 것이라”(‘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하디쓰, no.88)

이 책은 독자분(새내기 무슬림)에게 이 위대한 종교, 인류에게 내려진 가장 커다란 축복인 이슬람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살아가면서 타인과 어떻게 교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여러분이 주위에서 일어난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하고 쉽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제공된 이러한 정보들은 꾸란(하나님의 마지막 성서)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그의 행위와 말씀)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해당 주제에 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을 위해 참고 서적 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특정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와 관련된 근거는 무엇인지, 독자님께서는 참고 서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내기 무슬림 여러분의 성공과 인도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자분의 마음을 공고히 해주시어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독자분께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선지자들과 진실된 신앙인들과 함께 명예로운 천국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길 기도하는 바입니다.

저자 올림



서론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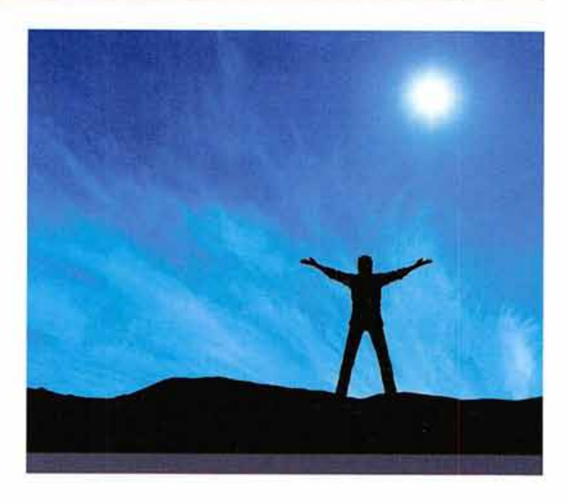
가장 커다란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은총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성과 건강과 재산과 가족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태양과 하늘과 땅을 유용케 하셨고 여러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세어보려 한들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 (꾸란 제 16장 18절)

그러나 이 모든 은총은 우리 현세의 짧은 삶이 마감하는 순간 끝이 납니다. 단 하나의 은총만은 예외니 이 은총은 현세 삶에서의 행복과 평안함을 가져다 주며 그 영향이 내세까지 지속됩니다. 이 은총은 바로 우리가 이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며 이 은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복에게 내리신 가장 커다란 은총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은총의 원인을 당신께로 돌리심으로써 이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찬미받으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대들의 종교를 완성하였고 그대들에게 베푼 나의 은총을 완전히 하였으며 그대들을 위하여 이슬람을 종교로 함에 흡족하였노라." (꾸란 제 5장 3절)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암흑에서 광명으로 이끌어주셨고 이슬람을 선택케 함으로써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된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 그대로를 실현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세에서의 행복과 내세에서의 아름다운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는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어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셨고 이전의 선지자들(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이 한결같이 전했던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말입니다.

이전의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이슬람을 선택한 이유가 자신이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입교 사실을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자랑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은총과 은혜는 모두 하나님께 귀결되는 것이며 그들이 이슬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슬람으로 향하는 길을 쉽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축복 가득하시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슬람을 받아들였음을 그대에게 자랑하더라. 말하라(오, 무함마드여!) '나에게 그대들의 이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지 않노라. 그대들이 진실된 자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그대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주신 것이라.' " (꾸란 제 49장 17절)

하나님의 은총은 셀 수 없이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은총만을 언급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종복인 우리를 이슬람으로 인도해주신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총에는 반드시 감사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은총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감사한다면 나는 실로 그대들에게 더해 줄 것이라."(꾸란 제 14장 7절)

그렇다면, 이러한 은총에 감사 드리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와중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

2

이슬람을 알리고 지혜와 인내로써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것.

우리 존재의 목적

우리 삶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과 일반인들은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성서인 꾸란은 인간 존재의 이유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과 인간을 창조한 것은 오직 그들이 나를 경배토록 하기 위함이라" (꾸란 제 51장 56절) 즉,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며 그 이외의 것들은 경배를 위한 수단이자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의 경배는 금욕의 수도원 생활에 임하는 것이 아니며 편안함과 즐거움을 멀리하며 자신을 현세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슬람의 경배는 예배와 단식과 의무희사금(자카)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행위, 즉 말, 행동, 생각, 타인과의 관계 등을 아우릅니다. 더 나아가 -좋은 의도와 건전한 목적을 가졌다면- 때로는 유희와 휴식조차도 경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간의 잠자리도 자선이라." ('무슬림'이 전하는 하디쓰, no.1006) 즉, 무슬림은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배는 우리 삶의 목적인 동시에 삶의 진정한 모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즉, 무슬림의 생활은 다양한 경배 행위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라(오, 무함마드여!) : '실로 나의 예배, 나의 희생물, 나의 삶, 나의 죽음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 (꾸란 제 6장 162절)

이슬람은 전 인류를 위한 종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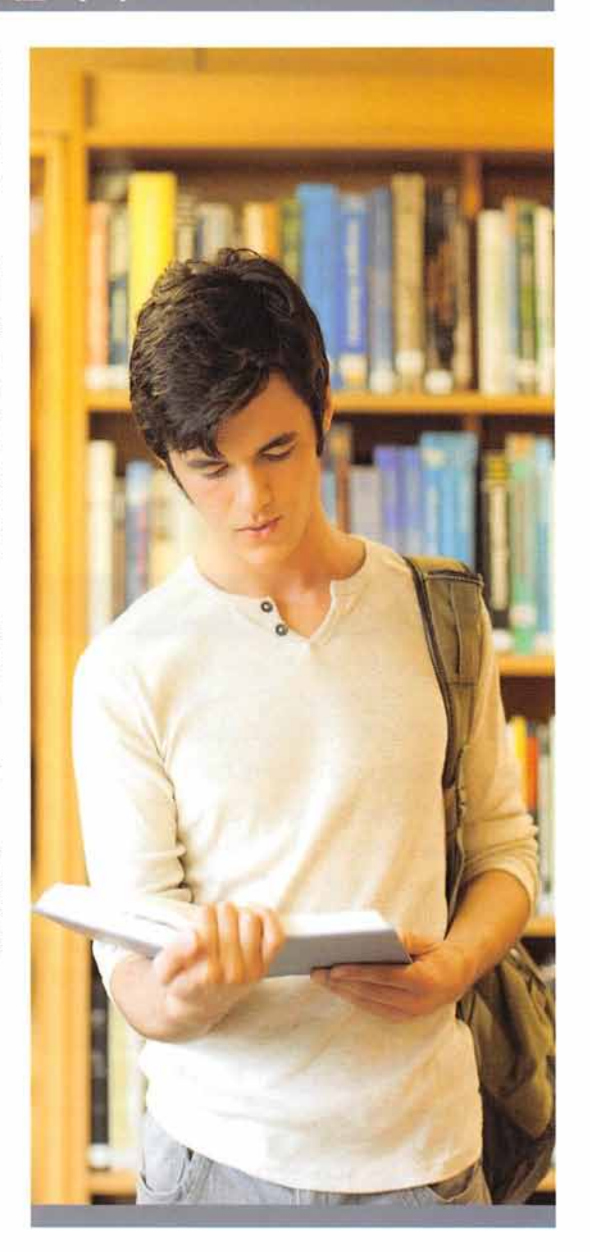
자비와 인도를 위해 계시된 이슬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종교이며 문화와 인종, 관습과 국가를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무함마드)를 사도로 보냄은 단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 (꾸란 제 21장 107절)

이슬람은 사람들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며, 이슬람에서 지정한 규정과 배치되지 않는 여러 관습과 전통이라면 새내기 무슬림이 굳이 이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슬람과 상반되는 관습이 있다면 그러한 관습은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고 금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찬미 받으시고 지고하신 그분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지정하신 이슬람법(샤리아)을 따르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슬람이나 샤리아와 연관이 없는 관습은 우리가 따라야 할 필요도 굳이 버려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관습은 사람들 사이의 습관이자 행동방식일 뿐입니다.

지구의 모든 곳이 하나님을 위한 경배의 장소입니다.

이슬람은 지구의 모든 곳을 거주와 경배를 위한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무슬림에게는 거주를 위한 특정 지역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경배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입니다.
즉, 어떤 무슬림이 하나님 경배가 금지된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그는 다른 곳으로 히즈라(이주)를 단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어떤 지역에서의 거주도 무방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 나의 믿는 종복들이여! 실로 나의 대지는 넓도다. 그러니 오직 나만을 경배하라." (꾸란 제 29장 5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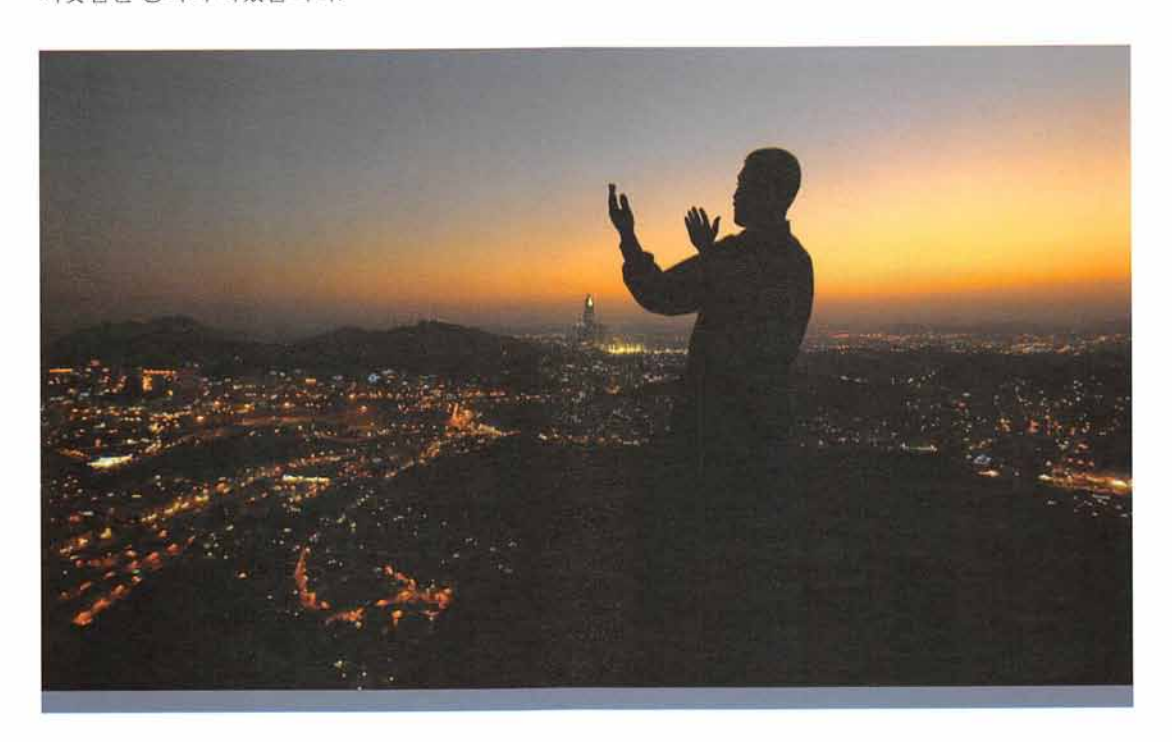


이슬람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많은 종교는 특정인들에게 종교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인들은 평신도의 믿음과 경배 행위에 자신들의 만족과 허락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신도와 신(神)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신을 대신해서 평신도를 용서해주기도 하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일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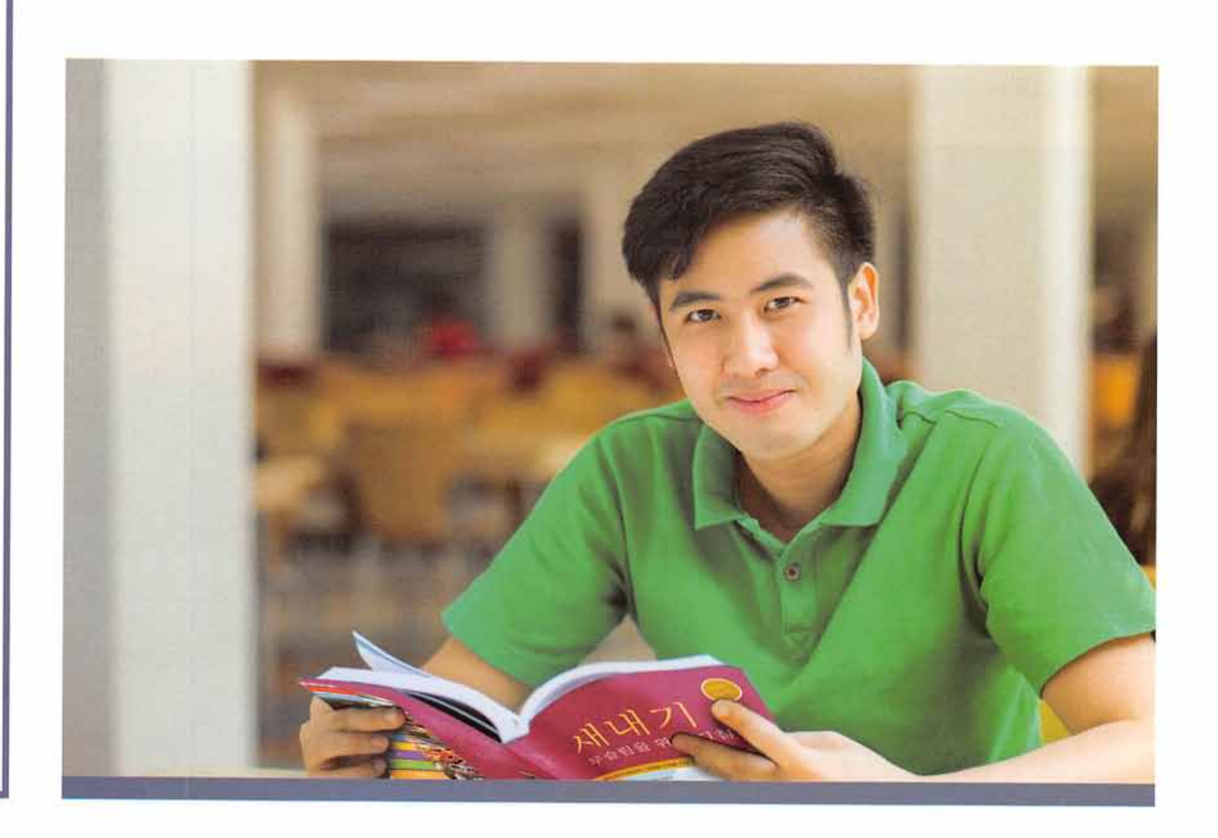
이슬람이 도래하였고 이슬람은 인간의 위치와 그 지위를 올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인간의 행복 혹은 참회 또는 경배 행위가 명예롭고 거룩한 특정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슬림의 경배 행위에는 그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중재자도 필요치 않습니다. 찬미 가득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지식으로써- 그분의 종복에게 가까이 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경배 행위와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군가를 용서해줄 수 없으며, 죄를 지은 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한분만을 위해 참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참회를 받아들여주시며 그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정해주신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슬람은 인간의 이성을 해방시켰으며 우리 인간에게 생각하고 이성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에는 꾸란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언행에 근거하여 판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언제나 옳을 수는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일치하는 말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말씀은 일반인과는 다르니, 그는 자신의 욕구에 의거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와 지침에 의거한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무함마드)는 욕구에 따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시라." (꾸란 제 53장 3-4절)

이러하니, 이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얼마나 위대한지요. 인간의 본성과 합치하며 인류에게 명예를 부여한 종교, 우리에게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 대한 노예성과 열등함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니 말입니다.



이슬람은 삶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현세와 내세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무슬림은 현세라는 텃밭에 선행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현세 그리고 내세에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커다란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결의와 열정으로 가득 찬,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원 활용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하나님)께서는 흙으로부터 그대들을 만드셨고 그곳에서 그대들이 정착하도록 하셨노라." (꾸란 제 11장 6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어 지구에 살도록 하셨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길 도시를 이루고 건물을 짓는 등 지구 자원을 활용하고 개발하며 이슬람법(샤리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구를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원을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경배 행위이며 아주 힘든 상황에서조차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무슬림이 묘목을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심판의 날이 시작된다면 무슬림은 서둘러 그 묘목을 심어 그것이 자신에게 선행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흐마드'가 수집한 하디쓰, no.2712)

타인과의 교류

이슬람은 건물을 짓고 도시를 이룸에 있어 사람들이 함께 교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또한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를지언정 사람들과 사귀고 어울림에 가장 훌륭한 성품과 매너로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사람들과 동떨어져 멀리하는 것은 이슬람을 알리고자 하는 자의 올바른 행동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지자ﷺ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에서 비롯되는 해악에 인내하는 자는, 사람들과 떨어져 그들을 멀리하는 자보다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븐 마자'가 수집한 하디쓰, no. 4032)

지식의 종교

선지자ﷺ께 계시된 가장 첫 번째 꾸란 구절이 '읽으라' 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슬람은 인류에게 유용한 것이라면 그 어떤 종류의 지식이라도 적극 습득하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면 그 길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선지자ﷺ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길을 나선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천국으로의 길을 쉽게 해주실 것이라." ('이븐 힙반'이 수집한 하디쓰, no.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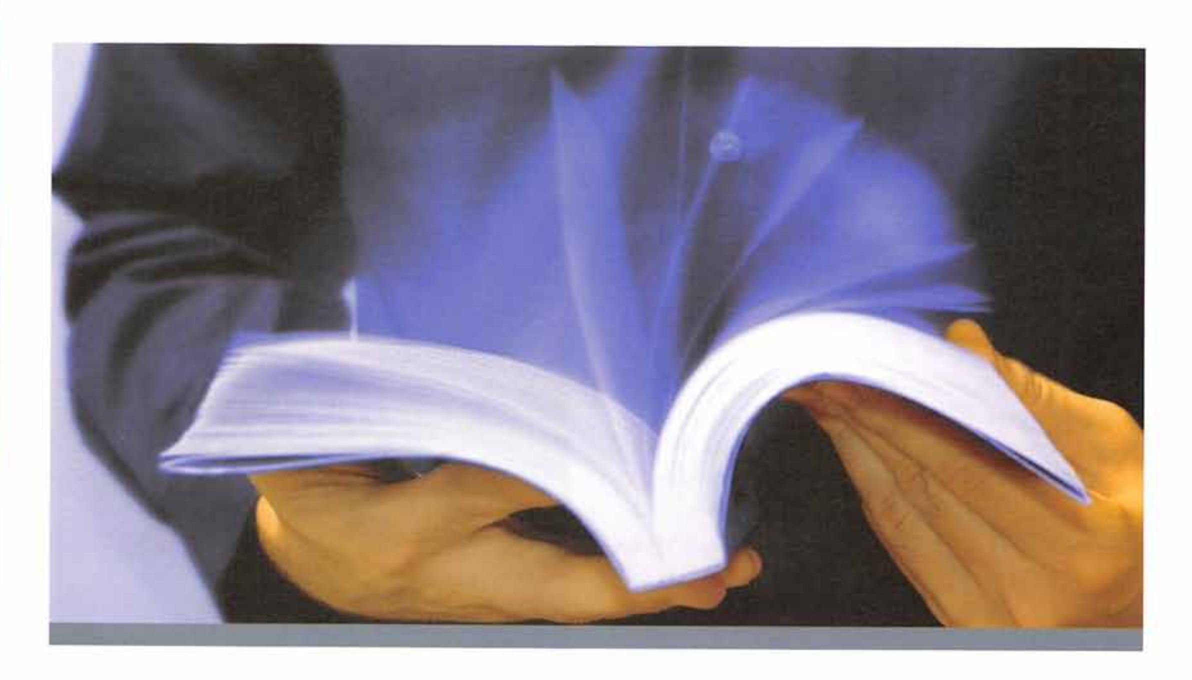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이슬람에서는 종교와 학문 간의 알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로, 이슬람은 지식의 등불로 인류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학문을 적극 권장하고 이슬람은 교육과 학습의 원동력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슬람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며 그들을 높은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선지자ﷺ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모든 피조물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학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앗-티르미디'가 수집한 하디쓰, no.2586)

이슬람의 규정(후큼) 배우기

무슬림은 경배 행위, 타인과의 교류 등 삶의 전반에서 이슬람법(샤리아)의 규정(후큼)이 무엇인지 잘 배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식과 증거에 기초한 경배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복에게 좋은 것을 뜻하시면 그가 이슬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노라." ('알-부카리'(no.71)와 '무슬림'(no.1037)이 수집한 하디쓰)

규정(후큼)을 배우는 것이 무슬림에게 의무가 되는 경우는 예배와 청결상태(따하라)에 관한 기초 정보, 먹거리와 마실거리 중 무엇이 허락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등의 경우입니다. 이외의 다른 경우, 규정(후큼)을 배우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입니다.



이슬람의 규정(후쿰)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다음 5가지 규정으로 분류됩니다.

의무사항(와집) :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항으로, 이 사항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보상이 있으며 실천하지 않을 때에는 응벌이 있습니다. 하루 다섯번 예배와 라마단 단식 등이 그 예입니다.

금지사항(하람) : 하나님께서 금지한 사항으로, 이 사항을 멀리할 경우 보상이 있으며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벌이 있습니다. 간통이나 음주 등이 그 예입니다.

권장사항(순나 또는 무스타합) : 이슬람이 권장하는 사항으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천하였을 때는 보상을 받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얼굴에 미소를 띄우는 것, 평화(앗-쌀람)의 인사를 먼저 건네는 것, 길거리에 놓인 장애물을 치우는 것 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기피사항(마크루) : 이슬람이 기피하는 사항으로, 멀리할 때 보상을 받지만 행동으로 옮긴다고 해서 벌이 주어지지는 않는 행위입니다. 예배시 손가락으로 장난을 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유사항(무바흐) : 명령이나 금지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행위로, 상거래나 장거리 이동, 대화 등은 - 의도를 배제하고 오직 그 행위로만 판단할 경우- 자유사항입니다.

이슬람의 다섯가지 실천 기둥 :

선지자ﷺ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슬람은 다섯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있노라 ;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언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의무희사금(자카)를 내는 것, 성지순례를 실시하는 것, 라마단 단식이 바로 그것이라." ('알-부카리'(no.8)와 '무슬림'(no.16)이 수집한 하디쓰)

이 다섯 가지 실천 기둥은 이슬람의 기본이자 근간입니다. 조만간 이 다섯 가지 기둥과 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둥은 믿음(이만)과 타우히드(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는 것)이며, 믿음의 장에서 관련 사항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두번째 기둥은 예배이며, 예배는 경배 행위 중 가장 위대하고 고결한 것입니다. 선지자ﷺ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의 기둥은 예배라" ('앗-티르미디'가 수집한 하디쓰, no.2749) 즉, 이슬람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예배라는 것이며 예배 없이는 이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 중의 하나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청결상태(따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 이후에 청결의 장, 그 후에 예배의 장이 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슬람의 실천 기둥 :

1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다' 라고 증언하는 것
2	예배를 드리는 것
3	의무희사금(자카)을 내는 것
4	라마단 단식에 임하는 것
5	핫즈(성지순례)를 수행하는 것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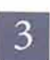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다' 라고 증언하는 것

2



예배를 드리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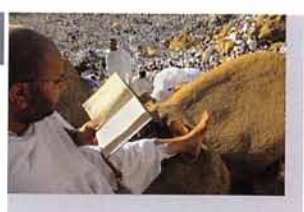
의무희사금(자카)을 내는 것

4



라마단 단식에 임하는 것

5



핫즈(성지순례)를 수행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슬람의 규정을 잘 알 수 있는가 :

병이 생겨 그 병을 고치고 싶을 때 우리는 가장 실력있는 의사를 찾아가 그로부터 진찰을 받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은 소중하기에 의사가 주는 처방을 받아들임에 있어 전혀 망설임이 없을 것입니다.

이슬람은 돈이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슬람의 지식을 쌓기 위해 학자들에게 질문하고 서적을 탐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서는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면 아는 자들에게 물어보라" (꾸란 제 16장 4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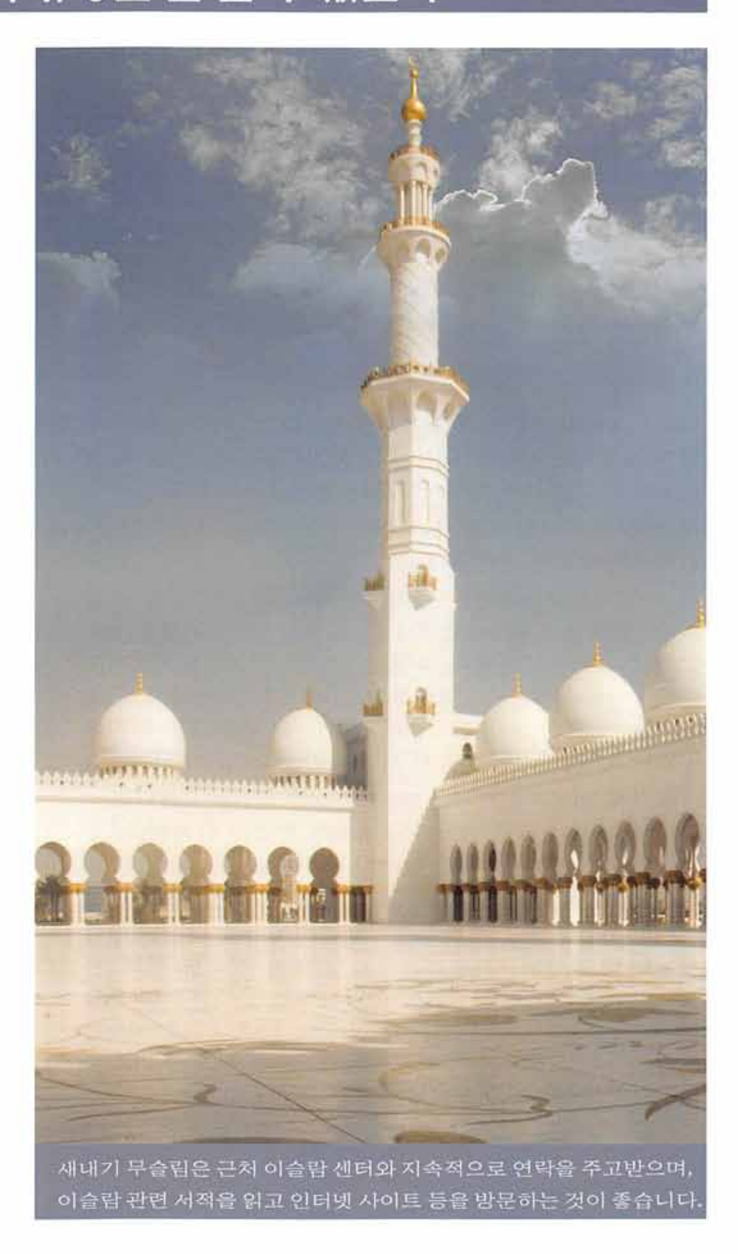
만약 모르는 것이 생기면 이슬람 센터나 근처 이슬람 성원에 문의함으로써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 인터넷 사이트(채팅으로 만나는 이슬람)를 방문하여 선배 무슬림들에게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www.chatislamonline.org/ko

다음 사이트들 역시 이슬람에 대한 훌륭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www.koreaislam.com

www.islamhouse.com



새내기 무슬림은 근처 이슬람 센터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슬람 관련 서적을 읽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슬람은 중용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태만하지도 그렇다고 경직되지도 않은 중용의 종교입니다. 이처럼 중도를 지향하는 이슬람의 특성은 경배 행위 곳곳에 녹아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도ﷺ와 그의 교우들과 신앙인들에게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따라서 이슬람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합니다.

1. 꾸준히 종교를 실천하는 것과 마음 속에서 경배의식의 위엄을 드높이는 것
2. 과장됨이나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를 멀리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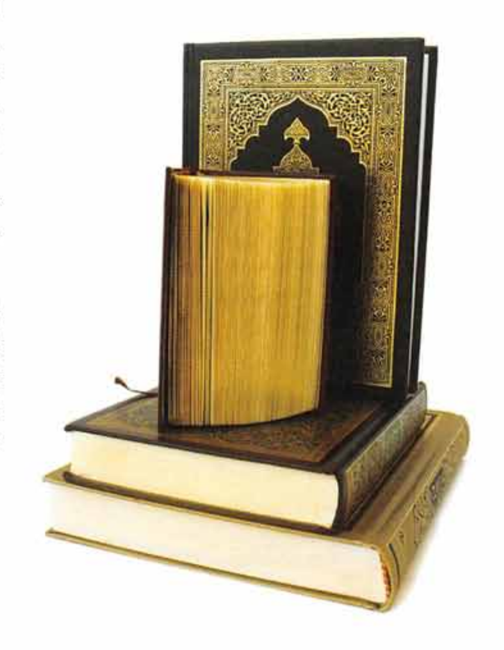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명령받은 것처럼 종교에 있어 굳건하라. 그대와 함께 뉘우치는 자들도 마찬가지라. 그리고 그대들은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실로 그분은 그대들의 행위 모두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 (꾸란 제 11장 112절)

즉, 진리를 추구함에 굳건하고 열심히 하라는 것이며 그렇지만 어려움을 추가함으로써 과장되게 종교에 임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ﷺ께서는 그의 교우들에게 성지순례 중의 일부 행위를 설명하시면서 과장됨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 공동체가 파멸한 이유는 과장됨이었다고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대들은 종교에 있어 과장하지 말라. 그대들 이전의 사람들은 과장되게 종교에 임하였기에 멸망한 것이라." ('이븐 마자'가 수집한 하디쓰, no.3029)

그렇기에 선지자ﷺ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선행을 실천하라."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1100)

하나님의 사도ﷺ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메시지를 명확히 설명하셨고, 이슬람은 사람들에게 능력 이상의 것을 부과하기 위함이 아닌 가르침과 지혜와 쉬움을 위해 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려움을 부과하는 자로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분께서는 나를 가르치는 자로서, 평이로움을 제공하는 자로서 보내신 것이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1478)



이슬람은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무슬림들이 성원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또한 단순한 사상이나 철학도 아닙니다.

또한 이슬람은 총체적인 경제 이론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이슬람의 다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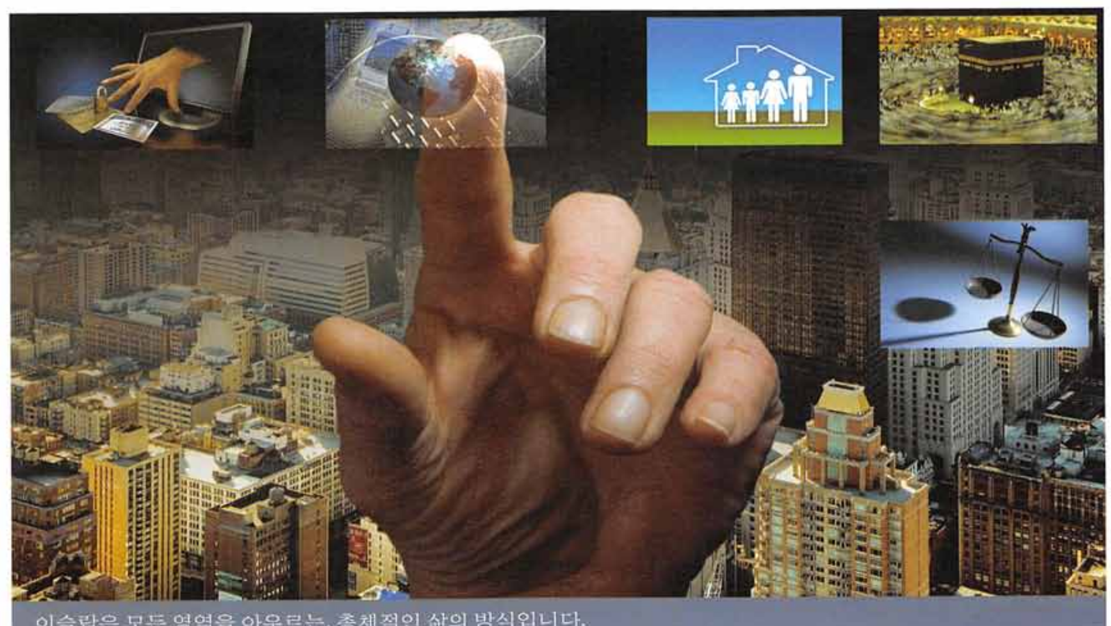
이슬람은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식을 제시하지만 그것만으로 이슬람의 전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슬람은 예의범절과 타인과의 교류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이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슬람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슬람은 삶의 그 어떤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있으며 이슬람의 지침은 삶의 전반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은총이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슬람을 종교로 두심에 흡족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대들의 종교를 완성하였고, 그대들에게 베풀어진 나의 은총을 완전히 하였으며 그대들을 위하여 이슬람을 종교로 함에 흡족하였노라."(꾸란 제 5장 3절)

어느날 우상숭배자가 선지자의 교우 '살만 알-파리시'에게 비웃듯이 얘기했습니다. "너의 동료(즉, 하나님의 사도)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었다고 들었소. 대변과 소변 보는 법까지도 말이오!" 이에 교우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소. 그는 우리를 가르쳐주셨다오." 그 후 그는 그에게 이와 관련된 이슬람의 규정과 예절에 대해 알려주었다.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스, no.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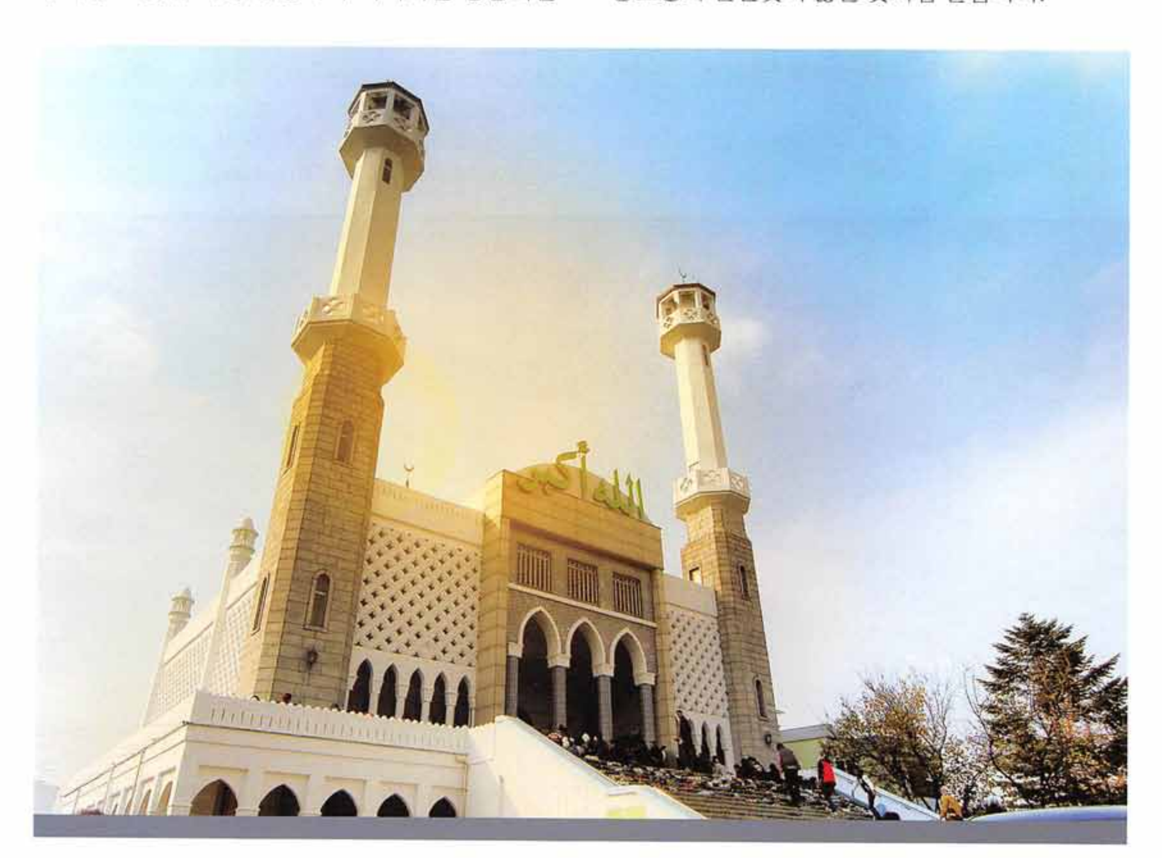
이슬람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일부 무슬림의 실수가 아니라 이슬람이 전달하는 실제 메시지입니다.

어떤 의사가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윤리 선생님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조차도 – 그가 가진 지식과 사회적 위치에 상반되는 그의 행동에 놀람에도 불구하고 – 우리는 의학적 지식이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의사나 선생님의 경우를 두고 우리는 그것을 해당 전공이나 지식과는 상충되는 좋지 못한 예시로 이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무슬림들에게서 좋지 못한 행동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행동이 이슬람의 진정한 메시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은 나약한 한 인간의 실수이며 이슬람과는 연관이 없는 지역 문화의 반영일 따름입니다. 의사나 선생님의 잘못된 행동을 의학적 지식이나 교육학의 중요성과 연관짓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 가지 중요 사안(앗-다루라툴 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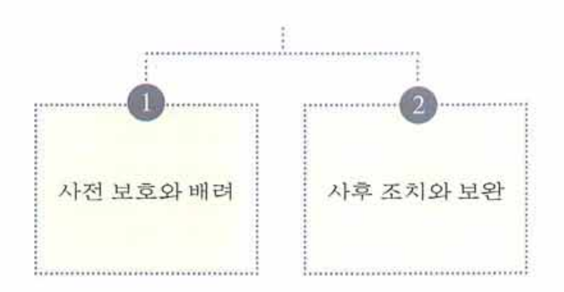
이 다섯 가지 사안은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슬람 이전의 하나님의 법률은 한결같이 이 다섯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명령을 내렸고 이 다섯 가지에 해가 되는 것들을 금하였습니다.

이슬람 역시 이 다섯 가지 중요 사안을 지키고 보호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무슬림은 현세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내세를 위한 준비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지된 행위를 멀리 하는 것보다 우리 육체를 보호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슬림 공동체는 상부상조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마치 건축물의 벽돌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신체의 일부가 병이 들면 다른 신체 부분 역시 고열과 불면으로 고통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요 사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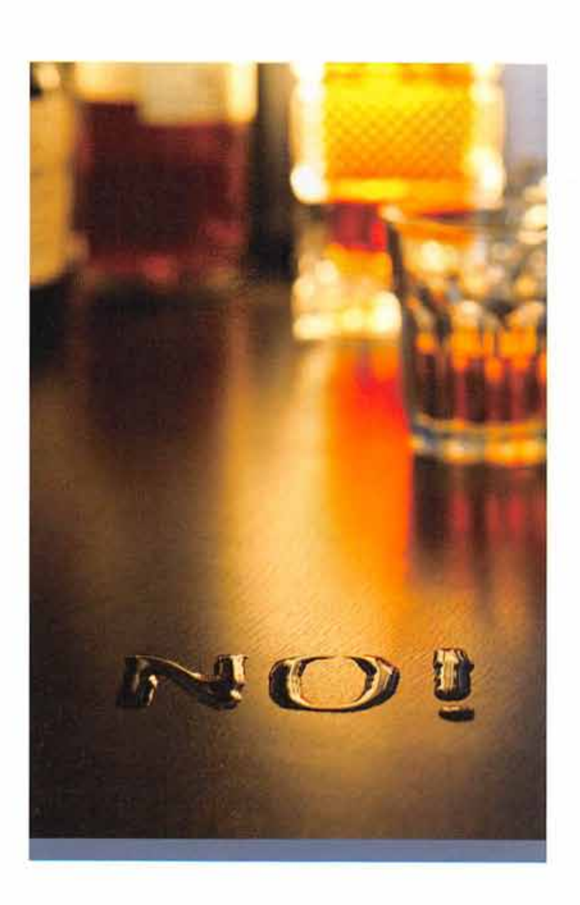
1 이슬람 :

이슬람을 지키는 것은 다섯 가지 사안 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은 우리가 이슬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사도들을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달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 나는 모든 공동체에 사도를 보냈도다. (사도가 말하길) '그대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을 멀리하라' " (꾸란 제 16장 36절)

이슬람은 이슬람에 반하는 우상숭배나 미신사상, 악행이나 금지사항 등을 멀리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우리가 이슬람의 순수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② 육체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지된 행위를 멀리 하는 것보다 우리 육체를 보호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강제된 상황에서는 금지된 행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그분(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금한 것은 오직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이 아닌 것의 이름으로 도살된 것이라. 그러나 원하지 않지만 강제된 상황에서 경계를 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죄가 없노라. 실로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는 분이시며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시라" (꾸란 제 2장 173절)



또한 그분께서는 자살이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들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지 말라" (꾸란 제 2장 195절)

그리고 이슬람법(샤리아)은 신체에 가해지는 부당한 적의적 공격에 대해 처벌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오, 믿는 자들이여! 그대들에게, 살해된 자들에 대한 보복형벌이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었노라." (꾸란 제 2장 178절)

③ 이성(理性) :

이슬람은 이성과 판단력에 해가 되는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커다란 은총 중의 하나이며 우리 인간이 타 피조물과 구분되는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성이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에 있기에 우리는 현세와 내세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주류와 마약을 금지사항으로 두셨고, 그것을 사탄의 추악한 짓으로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 믿는 자들이여! 술과 도박과 '안쌉'(우상에게 바칠 가축이 도살되던 제단)과 '아즐람'(점을 치기 위한 쓰이던 화살)은 오직 사탄의 추악한 짓일 뿐이니 그것을 멀리하라, 그대들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 (꾸란 제 5장 90절)

④ 건전한 혈통 :

이슬람은 건전한 혈통을 지키고, 자손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은 결혼을 적극 권장하고, 결혼 관련 제반 사항에 있어 어려움을 부과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그대들 중 배우자가 없는 자들을 혼인시키라" (꾸란 제 24장 32절)

그리고 이슬람은 결혼 전 성관계나 결혼 후 간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불법 성관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나'(불법 성관계)에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 그것은 추악한 행위이며 사악한 길이라." (꾸란 제 17장 32절)

이슬람은 혈통에 관한 거짓 주장이나 명예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대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현세에서의 처벌과 내세에서의 엄벌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남성과 여성의 명예를 존중하며 자신의 명예와 가족의 명예를 지키려다 숨진 사람을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하다 숨진 자(샤히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참조)

5 재산 :

이슬람은 재산 보호와 양식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거래와 물물교환, 상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산 보호를 위해 이슬람은 리바(이자)와 절도행위, 사기, 계약 위반, 소유물 부당 취득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꾸란은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그가 받을 혹독한 벌을 언급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참조)



건전한 혈통과 명예 보호는 이슬람법(샤리아)의 가장 중요한 제정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믿음(이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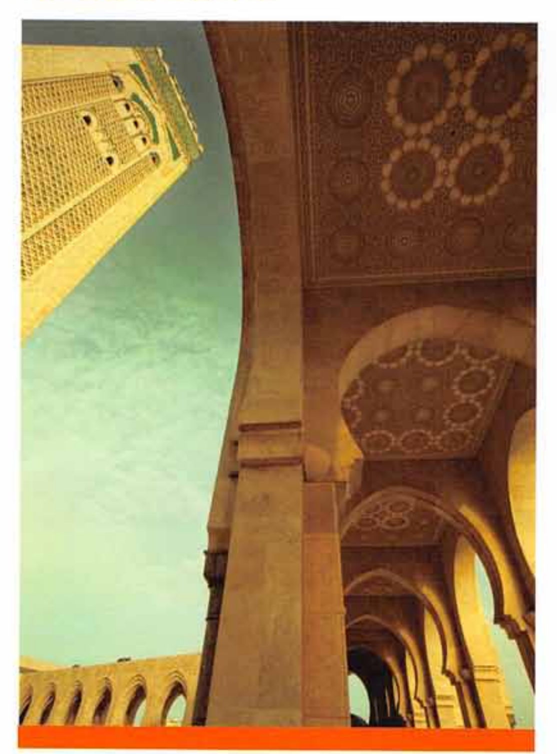
1

하나님의 사도들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한결 같은 메시지는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해야 하며 그분과 대등한 존재란 없으며 그분 이외의 모든 우상을 부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둔 라수룰라'(하나님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의 진정한 뜻이며 이슬람으로의 입교는 이러한 신앙 증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차례 :

신앙증언(샤하다)의 뜻과 그 내포된 의미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하며 또한 나는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왜 '라 일라하 일랄라'(하나님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다)인가?

●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무슬림에게 규정된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으로의 입교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이 문장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해당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이 신앙 선언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불지옥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라 일라하 일랄라'를 말하는 자에 대해 불지옥을 금하셨노라."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415)

● 왜냐하면 이 신앙 선언을 한 후 그 의미를 믿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 일라하 일랄라'의 뜻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라." ('아흐마드'가 수집한 하디쓰, no.464)

● 그렇기에 '라 일라하 일랄라'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라 일라하 일랄라'의 뜻

하나님 한분 이외에는 진정으로 경배 받을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축복가득하고 지고하신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존재도 경배 받을 자격이 없으며, 대등한 존재가 없는 하나님 오직 한분만이 경배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라 일라하'의 '일라'는 경배받는 존재(신)를 뜻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을 숭배한다면 그는 그 사물을 '일라'로 두고서 그것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라'는 거짓이며 오직 하나의 '일라', 즉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분만이 진정한 '일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경배 받을 권리를 지니는 존재는 오직 지고하신 하나님 한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과 찬양의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낮추고 복종하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의탁하며, 다른 존재가 아닌 오직 그분께만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며

의지합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그분이시며 우리가 바치는 희생물은 오직 그분만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의 진실성(이클라쓰)은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명령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 진실되게 종교에 임하는 것이었도다." (꾸란 제 98장 5절)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배하고 '라 일라하 일랄라'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는 자는 커다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느낄 것이며, 행복 가득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 속의 진정한 즐거움과 평온함과 휴식은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믿는 자로서 선행을 실천하는 자가 있다면 실로 나는 그에게 행복한 삶을 선사할 것이라" (꾸란 제16장 97절)

'라 일라하 일랄라'의 기둥

이 위대한 문장 속에는 두 가지 필수요소가 있으며 이 두 가지 필수요소에 관한 지식을 갖추었을 때만이 위 문장의 뜻과 내포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첫번째 필수요소: '라 일라하' (경배 받을 존재가 없다) 이 문장은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존재도 경배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그분과 대등한 존재를 두는 행위는 거짓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장은 하나님 이외에 -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조각상이든 별이든 - 그 어떤 존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

두번째 필수요소 : '일랄라' (하나님은 예외다) 이 문장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만이 진실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 기도, 의탁 등 이 모든 경배 행위를 받을 권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경배 행위는 오직 한분이신 하나님께만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 대해 경배 행위를 바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불신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자, 그에게는 그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그에 대한 심판은 그의 주님께 있노라. 불신자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노라."(꾸란 제 23장 117절)

'라 일라하 일랄라'와 그 필수요소에 대한 뜻은 다음의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손잡이를 움켜쥔 것이라" (꾸란 제 2장 256절)

'우상을 불신하고' : 이것은 첫번째 필수요소 '라 일라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 이것은 두번째 필수요소 '일랄라'의 의미입니다.

'무함마둔 라수룰라'(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하나님의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에 관한 기초 지식

① 출생 :

그는 서기 570년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고아로 태어난 그는 어린 나이에 다시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이에 그의 할아버지인 '압둘 무딸립'이 그를 돌보았고 그 후 삼촌 '아부 딸립'이 청년이 될 때까지의 그를 돌보았습니다.



② 계시 이전의 삶과 성장 :

사도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기 전 그는 40년 동안(570년~610년) '꾸라이쉬' 부족의 일원으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품성의 소유자였으며 굳건함과 출중함의 표본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져있던 그의 별명은 '앗-싸디끄'(정직한 자), '알-아민'(믿을 수 있는 자) 이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양치기 일을 하다가 후에는 무역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이슬람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도는 이브라힘(아브라함)의 종교를 따라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였고 우상 숭배 행위와 관습을 거부했습니다.

선지자의 성함 :

무함마드 븐 압둘라 븐 압둘 무딸립 븐 하쉼 알-꾸라쉬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아랍 부족 중 가장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 보내졌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모든 인류를 위해 보내셨고 성별과 인종을 초월하여 전 인류는 하나님의 사도가 전한 메시지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라(오, 무함마드여!) : '오, 사람들이여! 실로 나는 그대들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사도라.'" (꾸란 제 7장 158절)

③ 사도직 부여 :

40세가 되던 해 그는 종종 '히라' 동굴에서 명상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곤 했습니다. '히라' 동굴은 '자발룬 누르'(빛의 산)에 있는 동굴이며, 이 산은 메카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있습니다. 이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고 그에게 꾸란이 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계시된 꾸란의 구절은 '창조자이신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읽어라.'(꾸란 제 96장 1절) 였습니다. 이러한 사도직의 시작은 지식과 광명과 인도와 관련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꾸란은 23년동안 꾸준히 계시되었습니다.

④ 선교 초기 :

하나님의 사도께서는 첫 3년 동안 드러나지 않게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메카에서의 나머지 10년 동안은 공개적으로 선교를 하셨고 이 때 하나님의 사도와 그의 교우들은 꾸라이쉬 부족으로부터 많은 고초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도께서는, 성지순례차 메카를 방문했던 부족들에게도 이슬람을 소개하였고 그 중 '메디나'의 주민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때부터 메디나로의 이주(히즈라)가 조금씩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꾸란이 계시되었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가장 훌륭한 성서인 꾸란을 내리셨고, 꾸란 이전과 이후의 그 어떤 것도 꾸란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선지자와 사도의 끝막음

하나님께서는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마지막 선지자로서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며 선지자들의 끝막음이라." (꾸란 제 33장 4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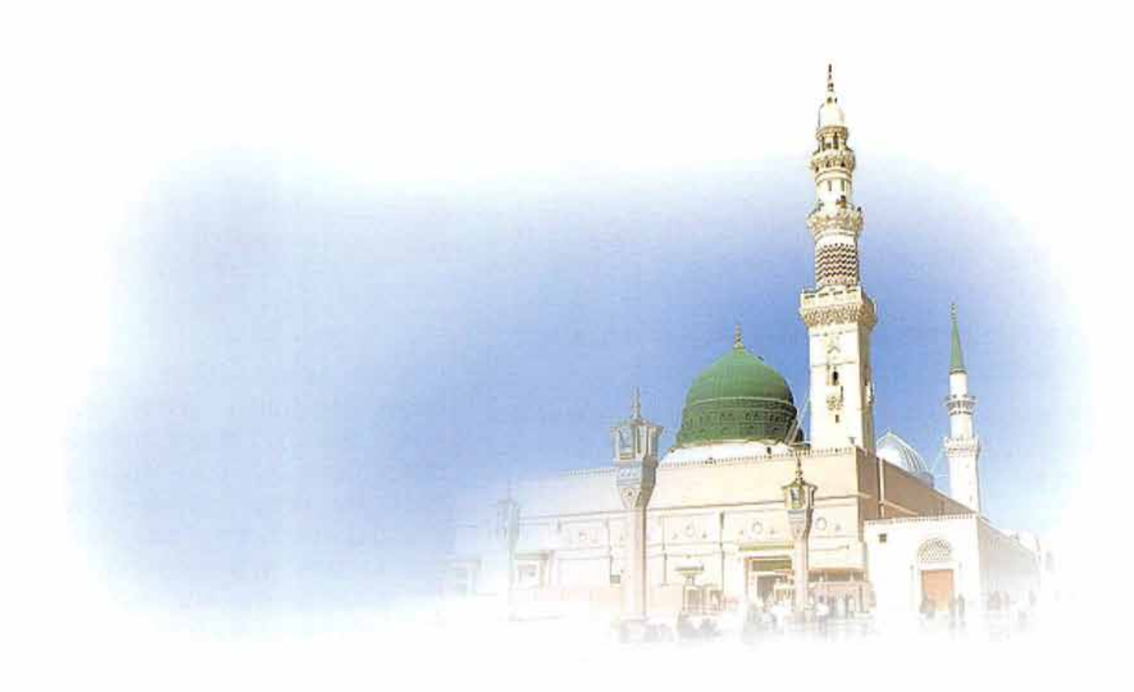
⑤ 이주(히즈라) :

선지자께서는 53세가 되던 해(서력 622년) 당시 '야쓰립'으로 불리던 광명의 도시 메디나로의 이주를 단행하셨습니다. 꾸라이쉬 부족의 지도자들은 그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이슬람을 거부하며 그를 살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께서는 메카에서의 13년 동안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였고 예배와 의무희사금(자카) 등 이슬람의 경배 행위를 실천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⑥ 이슬람 전파 :

하나님의 사도께서는 메디나로의 이주 후 그곳에서 정착하면서(서력 622년~632년) 이슬람의 초석을 가다듬고 무슬림 공동체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주의를 타파하고 지식을 퍼트렸으며 정의와 올곧음, 형제애와 상부상조 정신을 강조하면서 사회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몇몇 부족들은 이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에 전쟁과 여러 사건 등이 발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교와 사도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입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메카로의 무혈 입성이 실현되었고,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의 도시와 부족은 이 위대한 종교인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7 서거 :

하나님의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모두 전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이슬람을 완전히 하셨습니다.
이주(히즈라) 이후 11년, '싸파르'(이슬람력 2월) 달 선지자께 고열이
찾아왔고 병세가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선지자께서는 그 해 '라비울
아우왈'(이슬람력 3월) 월요일 오후(서력 632년 6월 8일) 63세의 나이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는 선지자 성원과 근접한, 아내 '아이샤'의 방에
묻히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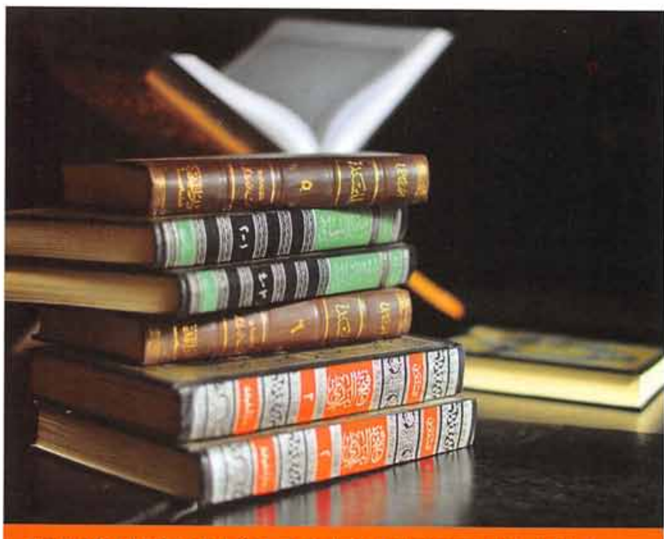
'무함마둔 라수룰라'의 뜻 :

그가 전하는 정보를 믿는 것이며 그가 명한 것을 따르고 그가 금한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가지고 온 이슬람법(샤리아)에 따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믿음은 무엇을 내포하는가?

1 모든 영역에 있어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알려준 정보를 사실로서 믿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보이지 않는 것, 최후의 날, 천국과 그곳에서의 기쁨, 지옥과 그곳에서의 벌 등에 관한 것들을 알려준 대로 믿는 것
- 심판의 날이 오기 전의 징조, 심판의 날의 양상과 심판의 날이 가까워올 때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관해 그가 알려준 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
- 이전 세대들에 관한 정보, 이슬람 이전의 선지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 그가 알려준 대로 믿는 것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로 확증된 사항을 믿는 것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 사항입니다.

2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명령한 것을 따르고 그가 금지한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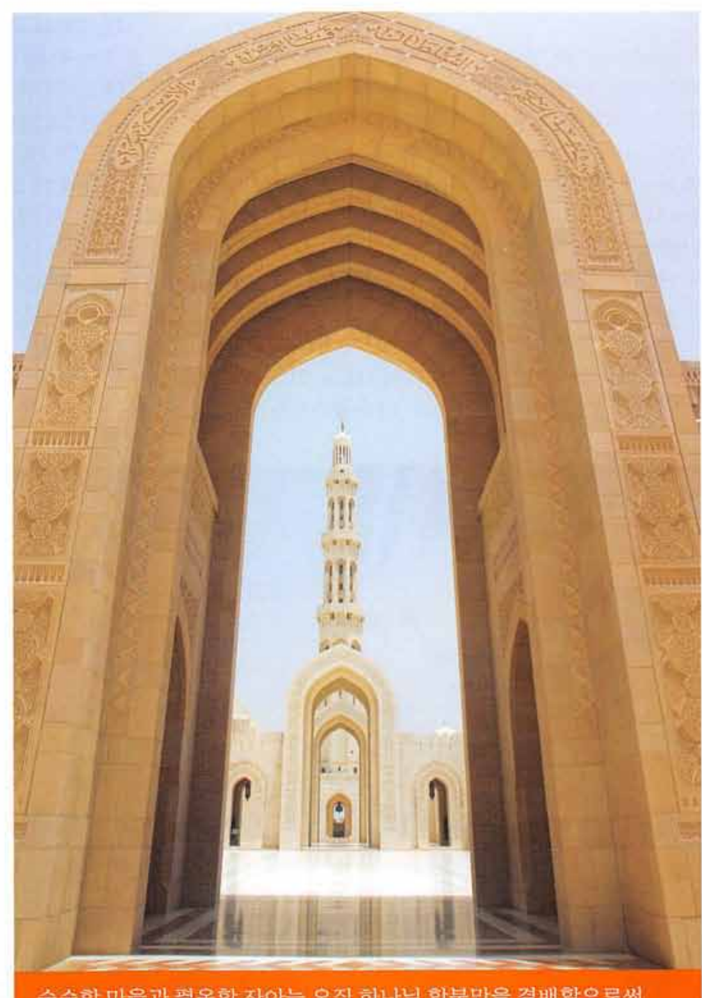
-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명령한 것을 따르는 것과, 그가 욕망에 의거하여 말하지 않으며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를 따르는 자는 실로 하나님을 따른 것이라"(꾸란 제 4장 80절)
- 그가 금지한 사항들을 멀리하는 것이며, 이는 올바르지 못한 예절과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방식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금지 사항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있다고 믿으며, 우리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일지라도 이러한 금지 사항들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유용함을 위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 그가 명령한 것을 지키고 그가 금한 것을 멀리함으로써 우리는 현세에서 좋은 것과 행복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도를 따르라, 그대들이 자비를 받게 될 것이라." (꾸란 제 3장 132절)

• 선지자□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고통의 벌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무함마드)의 명령을 어긴 자들은 그들에게 시련이 닥치거나 또는 그들에게 고통의 벌이 닥칠 수 있음에 유의하라." (꾸란 제 24장 63절)

3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은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우리에게 지정해준 방식 그대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중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그를 모범으로 삼는 것 :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와 그의 인도, 그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말씀과 행동과 침묵적 동의,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에서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들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그의 행위와 말씀)를 통해 그를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되며 우리가 거주할 천국의 단계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말하라(오, 무함마드여!) : '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사랑하실 것이며 그대들을 위해 그대들의 죄를 용서해주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는 분이시며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시라.' "(꾸란 제 3장 31절)

• 완벽한 이슬람법(샤리아) :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우리에게 이슬람과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완전한 형태로 알려주셨으며 샤리아에는 그 어떤 형태의 결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가져온 이 샤리아에 새로운 경배 행위를 추가하려는 시도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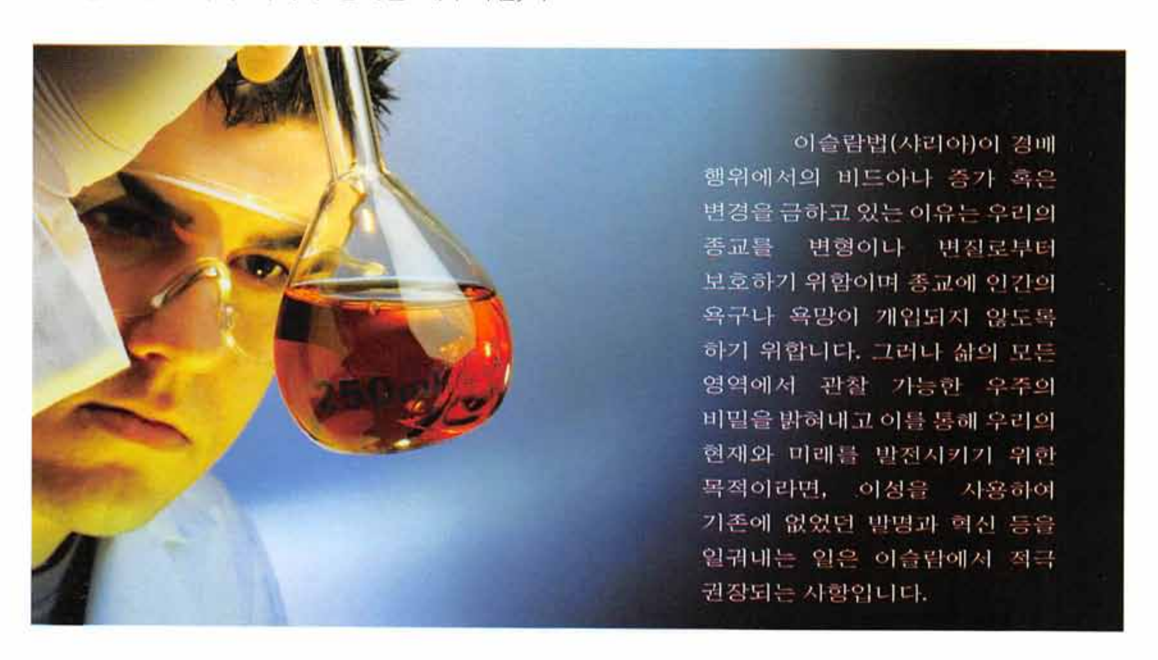


순수한 마음과 평온한 자아는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 하나님의 샤리아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적용됩니다 : 하나님의 성서인 꾸란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그의 행위와 말씀)를 통해 제시된 이슬람의 규정과 샤리아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적용됩니다. 무(無)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순나와의 부합성 : 경배 행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첫째, 그 의도가 순수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둘째, 그 경배행위가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샤리아와 부합해야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주님과의 만남을 염원하는 자 있다면 그는 선행을 실천하도록 하고, 주님을 위한 경배행위에 있어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과 대등한 존재를 두지 말지어다"(꾸란 제 18장 110절) 여기서 선행(쌀리흐)이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에 일치하고 부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비드아'(종교에 있어 새로운 것을 지어내는 행위)는 금지의 대상 :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에 없는 새로운 행위나 경배방식을 지어내 그것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하는 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선지자의 명령을 어긴 것이며 그의 그러한 행위로 그는 죄를 짓는 것이며 그의 행위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그(무함마드)의 명령을 어긴 자들은 그들에게 시련이 닥치거나 또는 그들에게 고통의 벌이 닥칠 수 있음에 유의하라."(꾸란 제 24장 63절)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종교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지어내는 자가 있다면 그는 거부당할 것이라"('알-부카리' (no.2550)와 '무슬림'(no.1718)이 수집한 하디쓰)



믿음(이만)의 필수요소는 6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뜻하는 바 :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과, 주님으로서의 하나님(루부비야)과 경배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울루히야)과 그분의 이름과 속성에 대해 굳게 믿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네가지 사항에 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

하나님께서 지정해주신 본성 :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본성이며 이러한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이 존재함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나 재앙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에 심어주신, 믿는 자로서의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본성을 지우고 잊어버리려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들어지고 요청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받으며 압박받는 자의 기도가 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겠지만 그 중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 모든 이들의 상식은, 발생한 일은 그 발생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보는 주변의 피조물들 역시 같은 이유로 그것을 창조한 창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그것을 창조한 창조자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존재도 자신을 스스로 창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피조물들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창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아니면 무(無)가 그들을 창조했던가 아니면 그들이 창조자란 말인가?"(꾸란 제 52장 35절) 이 꾸란 구절의 뜻은



깊이 관찰하고 숙고하는 자라면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과, 작은 것도 감지하는 오감을 주셨고 신체 시스템의 완벽함을 선사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지에는 굳건히 믿는 자를 위한 징표가 있도다. 그대들 자신에게도 징표가 있으니, 그대들은 보지 않겠는가?"(꾸란 제 51장 20~21절)

: 그들은 창조자 없이 창조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창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창조한 창조자의 존재는 필수이며, 그 존재는 바로 축복가득하고 지고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 그리고 하늘과 땅, 별과 나무 등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 우주의 시스템은 그것을 창조한 하나의 창조자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는 바로 지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 (꾸란 제 27장 88절)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별들과 행성들은 결코 변경되지 않는 확고한 시스템을 따라 움직이며 모든 별들에게는 궤도가 있어 그 별은 절대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태양이 달을 따라잡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밤이 낮을 추월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노라. 그리고 모두는 궤도를 따라 유영하노라."(꾸란 제 36장 40절)

2 주님으로서의 하나님(루부비야)을 믿는 것

하나님의 루부비야에 대한 믿음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님(랍브)이시며 모든 것의 소유주이자 창조주이며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라는 굳은 믿음과 신념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살리시고 숨을 거두어가시며 유용함과 해악 등 모든 것은 그분의 일이며, 그분의 손에 선(善)이 있으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과 대등한 존재는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신념은, 하나님의 행위는 그 무엇과도 비길 데 없는 유일무이한 속성을 지님을 믿는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신조를 포함합니다:

하나님 한분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그분 이외의 창조자는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라." (꾸란 제39장 62절)

사람의 창작물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단지 기존에 존재하는 사물의 속성 변경, 조합 혹은 조립일 뿐이며 그것을 진정한 창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도 아니며 죽음 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며 그분 이외에는 양식의 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지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정해주신 양식이 있노라."(꾸란 제 11장 6절)

그리고그분께서는모든것의소유주이시며 그분 이외에는 진정한 소유주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미받으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노라." (꾸란 제 5장 120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일을 결정짓는 분이시며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 한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대지로 일을 결정지으시며"(꾸란 제 32장 5절)

삶과 처해진 환경에 관한 인간의 의사결정과 조율은 인간의 제한된 능력과 한계 내에서 수행되기에 제한적이고 결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으로 이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고하시고 찬미받으실 창조주의 결정이란 그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결정은 반드시 실행되며 그 무엇도 그분의 결정을 바꾸거나 그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와 일의 결정은 그분의 소유가 아니던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축복이 가득하도다."(꾸란 제 7장 54절)



"대지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정해주신 양식이 있노라."(꾸란 제 11장 6절)

하나님의 사도 시절의 우상 숭배자들조차도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시절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소유주이시며 일의 최종 결정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그들의 이슬람 입교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들에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진실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꾸란 제 31장 25절)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이라는 사실, 즉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총으로써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자연스레 하나님 한분께만 자신의 경배 행위를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일의 최종 결정자이시며 살리시고 숨을 거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자신의 경배행위를 다른 존재로 돌린다면 이것은 가장 비판받을 부당행위이며 가장 커다란 죄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자 '루끄만'은 그의 아들에게 조언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 내 아들아!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지 말라.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는 행위는 실로 엄청난 부당행위라"(꾸란 제 31장 1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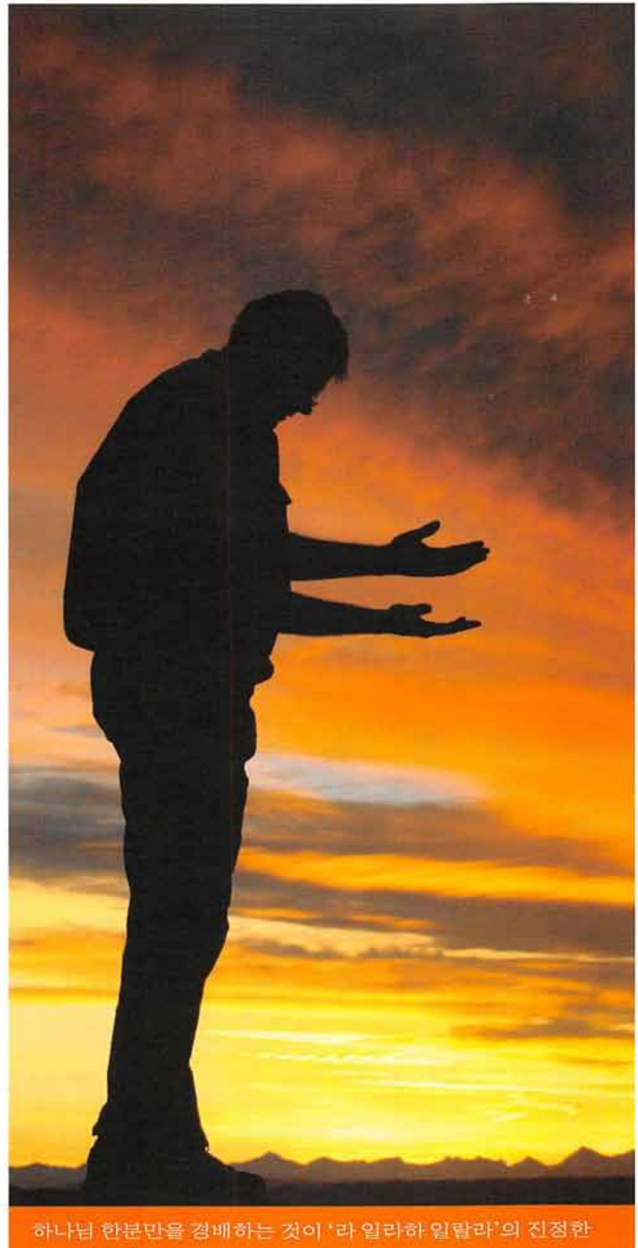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커다란 죄가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대등한 존재를 두는 행위가 가장 커다란 죄라." ('알-부카리'(no.420)와 '무슬림'(no.86)이 수집한 하디쓰)

루부비야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대로 그분의 지혜에 걸맞게 일을 조율하시며, 그분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시며, 그분 이외의 모든 것은 창조된 피조물이고 창조주 앞에서 가난할 뿐이며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함을 확신할 때, 그리고 모든 일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으며 그분 이외에는 창조자가 없으며 그분 이외에 양식을 제공하는 자가 없으며 오직 그분 한분만이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며, 그 어떤 작은 생명체도 그분의 허락이



하나님의 루부비야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는 것이 '라 일라하 일랄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있을 때만 움직이며, 그분의 결정이 있을 때만 멈춘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분에게로만 향할 것이며 그분께만 구하고 요청하며 삶의 전반에 있어 그분께만 의탁하며 우리 앞에 전개되는 삶을 열심히 그리고 용감히, 평안함과 결의와 확고부동함으로써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내바쳤기에 우리는 다른 이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향배는,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3 경배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울루히야)을 믿는 것

하나님의 울루히야에 대한 믿음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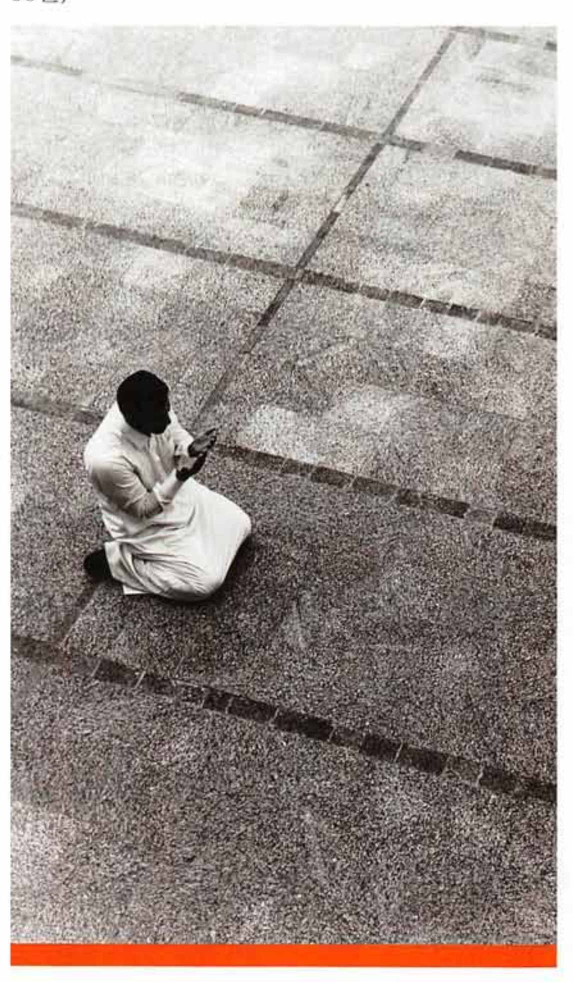
드러나는 혹은 드러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경배 행위를 받으실 권리는 오직 하나님 한분께만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도, 두려움, 의탁, 요청, 예배, 의무희사금(자카), 단식 등의 경배 행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외에는 진정으로 경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부처도, 예수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경배해야 할 존재는 오직 한분이라.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그분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노라."(꾸란 제 2장 163절)

하나님께서는 이 꾸란 구절을 통해, 경배 받을 존재는 하나님 한분이시며 그분 이외의 존재를 경배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루히야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

하나님의 울루히야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측면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그것은 '진'과 인간이 창조된 이유입니다. 그들 모두는, 대등한 존재가 없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찬미받으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과 인간을 창조한 것은 오직 그들이 나를 경배토록 하기 위함이라"(꾸란 제 51장 56절)



2 울루히야에 대한 믿음은 사도들(그들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이 보내지고 성서가 계시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도와 성서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 한분만이 경배 받을 권리를 가지시며 하나님 이외의 경배받는 존재를 불신해야 함을 잘 알게 됩니다. 찬미받으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실로 나는 모든 공동체에 사도를 보내었도다. (사도가 말하길) '그대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을 멀리하라'"(꾸란 제 16장 36절)

3 울루히야에 대한 믿음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기 위해 '무아드 븐 자발'을 예멘으로 보냈고, 이 때 그에게 건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는 성서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 그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다'는 증언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라' ('알-부카리'(no.1389)와 '무슬림'(no.19)이 수집한 하디쓰)

즉, 모든 경배 행위는 오직 하나님 한분께만 바쳐야 한다고 그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4 울루히야에 대한 믿음은 '라 일라하 일랄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일라'는 경배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진정으로 경배 받을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 이외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경배행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5 울루히야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소유주이며 일의 최종 결정자라는 믿음에 대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경배 행위란 무엇인가?

경배 행위란 :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행위의 총칭으로, 그분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시거나 권장하신 말과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경배 행위는 예배나 의무희사금(자카)이나 성지순례(핫즈)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있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의탁과 도움 요청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행위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실천한 모든 행위는 경배 행위로 인정되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경배 행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됩니다 :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의도가 동반된다면 믿는 자의 모든 행동이 경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슬람에서는, 널리 알려진 의식 예를 들어 예배나 단식만이 경배 행위로 한정되지는 않으며 좋은 의도와 선한 목적으로 행한 모든 유용한 행위가 경배 행위로 승화되며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보상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먹거나 마시거나 잘 때조차도,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하여 더 많은 경배 행위를 하기 위한 의도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 행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슬림의 삶의 전부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잘 복종하기 위해 몸을 건강히 할 의도로 음식을 먹었다면 그것은 경배행위이며, 이성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의도로 결혼을 하였다면 결혼은 경배행위가 되며, 자영업이나 직장생활, 그로 인한 소득 역시 좋은 의도를 통해 경배행위로 승화됩니다. 지식을 쌓고 학위를 취득하고 레포트를 작성하고 연구하고 발명하는 것도 경배행위이며 아내가 남편과 자식을 배려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경배행위입니다. 이렇듯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실천되는 그 어떤 행위도, 건전한 의도와 좋은 목적이 동반되었을 때 경배행위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경배 행위는 우리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과 인간을 창조한 것은 오직 그들이 나를 경배토록 하기 위함이라. 내가 그들로부터 양식을 원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길 원하는 것도 아니라. 실로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며 힘을 가지신 가장 강력하신 분이라" (꾸란 제 51장 56~58절)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 행위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시며 다만 우리가 그분에 대한 경배 행위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을 구하는 가난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인간이 이러한 창조 목적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 존재 이유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현세의 향락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추락하고 맙니다. 동물 역시 먹고 마시고 목적 없이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동물은 내세에서 심판받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향락을 추구하며 그들이 먹되 마치 가축이 먹는 것과 같으니 불(지옥)이 그들을 위한 거처라."(꾸란 제 47장 12절) 이처럼 꾸란은 불신자들의 행동과 목적을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둘의 차이점이라면 불신자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 이해하고 사고할 줄 알기에 자신의 행위에 댓가를 치러야 하며 동물은 반대로 이성이 없기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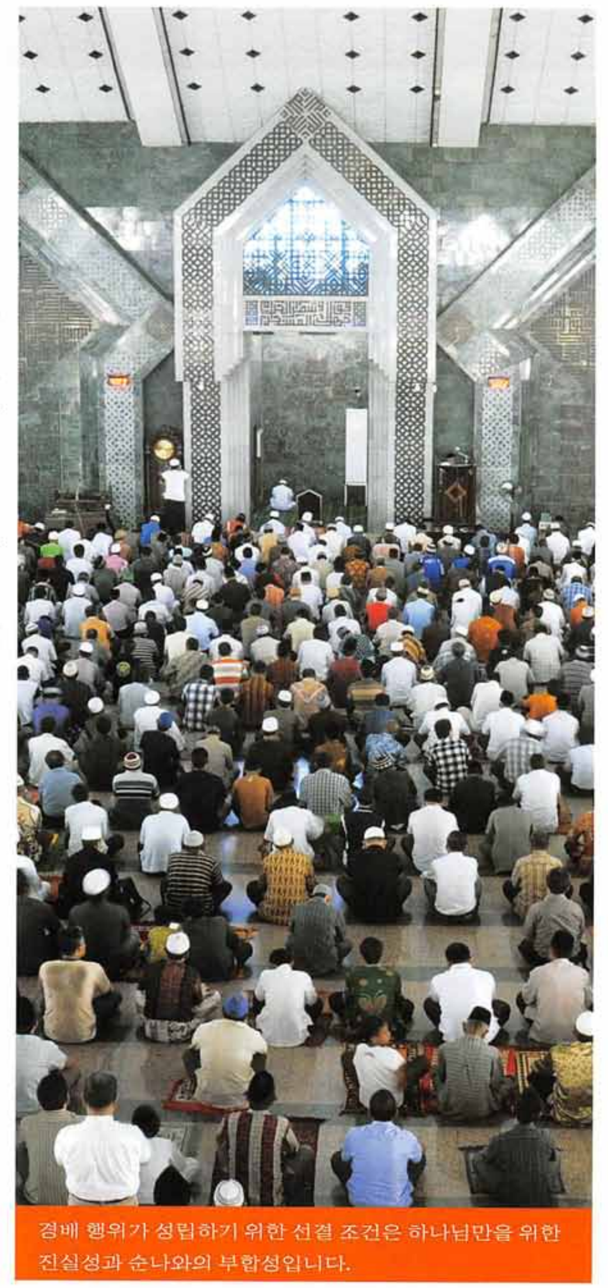
경배 행위의 기둥 :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경배 행위는 두 가지 기둥(필수 요소)가 떠받치고 있습니다:

첫째 기둥 :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겸허함과 두려움

둘째 기둥 :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경배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겸허함과 그분께 대한 복종과 두려움이 전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게로의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경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하나님만을 위한 진실성과 순나와의 부합성입니다.

따라서 두려움과 겸허함이 없는 사랑은 마치 음식이나 재산에 대한 사랑과 같기에 경배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는 두려움은 맹수나 폭군에 대한 두려움과 같기에 역시 경배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할 때만이 진정한 경배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 행위는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경배 행위의 선결 조건 :

경배 행위가 성립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다음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이 경배 행위가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위한 것이라는 진실성
2. 이 경배 행위가 선지자의 순나(그의 행위와 말씀)에 부합하고 일치할 것

이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노라.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그의 주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있을 것이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은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라."(꾸란 제 2장 112절)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고 진실되게 경배 행위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의미는 : 하나님의 법률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가져온 것을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순나(선지자의 행위와 말씀)와의 부합성은 단지 '순수한' 경배 행위 - 예를 들어 예배, 단식, 디크르(하나님 기억하기)- 의 선결 조건일 뿐입니다. 만약 특정 경배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을 얻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써, 자연스러운 일상 행위를 통해 실천되는 것이라면 – 예를 들어 경배 행위에 필요한 힘을 기르기 위한 의도로써 하는 운동이나, 배우자와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임하는 경제 활동- 순나와의 부합성은 더 이상 선결 조건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행위가 금지사항(하람) 이 아닌 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쉬르크'

• '쉬르크'(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는 행위)는 경배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울루히야)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울루히야에 대한 믿음과 오직 하나님 한분께만 바치는 경배 행위가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의무 사항이라면 쉬르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커다란 거역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쉬르크는 참회가 없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대등한 존재를 두는 행위를 용서치 않으시노라. 그러나 그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노라."(꾸란 제 4장 48절)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죄가 가장 커다란 죄인지 질문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대등한 존재를 두는 행위가 가장 커다란 죄라." ('알-부카리'(no.420)와 '무슬림'(no.86)이 수집한 하디쓰)

• 쉬르크는 경배 행위를 썩게 만들며 결국 그 경배 행위는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찬미받으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둔다면 실로 그들이 실천하던 행위는 그들에게 쓸모없게 되어버릴 것이라."(꾸란 제 6장 88절)

그리고 쉬르크를 저지른 자는 불지옥에 영원히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을 금하셨으며 그의 거주지는 불(지옥)이 될 것이라."(꾸란 제 5장 72절)

쉬르크는 작은 쉬르크(쉬르크 아쓰가르)와 큰 쉬르크(쉬르크 아크바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1 큰 쉬르크(쉬르크 아크바르) :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 경배 행위를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말이나 행동을 그분께만 바친다면 그것은 타우히드(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는 것)가 되고 믿음(이만)이 되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 바친다면 그것은 쉬르크가 되고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큰 쉬르크(쉬르크 아크바르)의 예는 :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거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 의탁하며 기대는 것,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그대들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도다.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들에게 응답해줄 것이라'" (꾸란 제 40장 60절)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의탁하라."(꾸란 제 5장 23절)

또한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라"(꾸란 제 53장 62절)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 바친다면 그는 우상숭배자이자 불신자인 것입니다.

2 작은 쉬르크(쉬르크 아쓰가르) : 큰 쉬르크(쉬르크 아크바르)를 저지르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예시 : '리야'(남에게 보이기 위한 경배 행위). 예를

들어 남이 보고 있기에 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는 행위,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아름답게 꾸란을 낭송하거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디크르) 목소리를 높이는 행위 등은 모두 리야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쉬르크 아쓰가르'이라." 사람들이 묻길 "오, 하나님의 사도시여. '쉬르크 아쓰가르'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하시길 "그것은 '리야'이라." ('아흐마드'가 수집한 하디쓰, no.23630)

이와는 달리, 경배 행위의 목적이 오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단식도 하지도 않는다면 이러한 행위는 '무나피끄'(위선자)의 행위입니다. 이는 큰 쉬르크(쉬르크 아크바르)에 해당하며 그는 더 이상 무슬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쉬르크인가?

이슬람은 미신과 거짓으로부터 인간 이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 대한 복종을 철폐하기 위해 도래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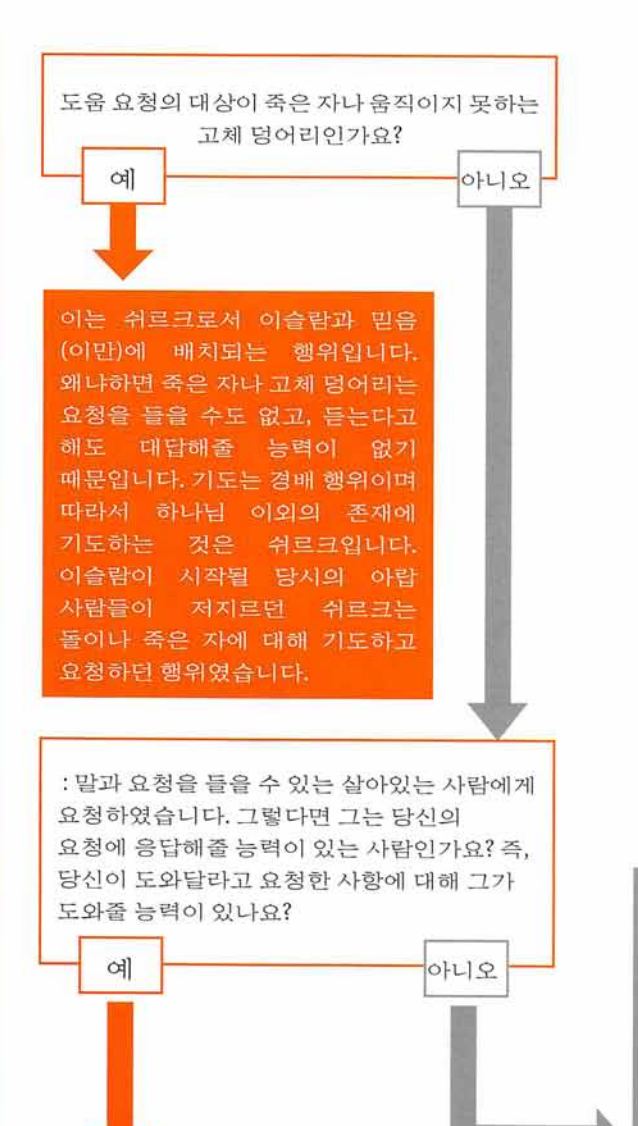
따라서 죽은 자나 돌이나 조각상 등에 대한 기도나 복종은 미신이자 쉬르크(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는 행위)로서, 허락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물에 빠져 익사 직전에 있을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거나,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행위는 허락됩니다.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교류에 해당하며 일상적인 인간관계로서, 허락되는 사항입니다.



인간의 능력 밖의 일에 대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예를 들어 불임의 여성이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큰 쉬르크(쉬르크 아크바르)이며 이슬람에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괜찮은 것이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람들과의 교류의 한 부분이며 일상적인 인간관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서인 꾸란을 통해 확증하셨거나 그분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통해 확증하신, 그분의 위엄에 걸맞는 그분의 이름과 속성을 믿는 것입니다.

찬미받으실 그분께는 가장 훌륭한 이름과 가장 완벽한 속성이 있으며 그 어떤 것도 그분과 유사한 이름과 속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과 비슷한 것이란 없노라.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라."(꾸란 제 42장 11절) 즉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이름이나 속성과 유사한 것을 지닐 수 없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가장 자애로우신 분" (꾸란 제 1장 3절)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라" (꾸란 제 42장 11절)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그분은 가장 존엄하신 분이시며 가장 현명하신 분이시라"(꾸란 제 31장 9절)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 그분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노라. 살아계신 분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꾸란 제 2장 255절)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무한한 감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있도다." (꾸란 제 1장 2절)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대한 믿음의 결과물 :

1.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며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아는 자는 그의 마음이, 지고하시고 찬미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과 겸허함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2.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이름들로써 그분을 칭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디크르(하나님 기억하기)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라" (꾸란 제 33장 4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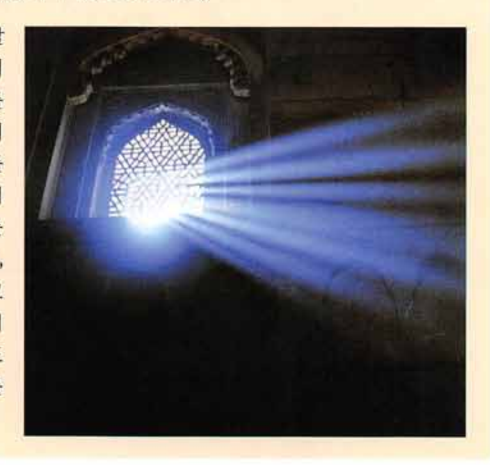
3.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으로써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찬미받으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가장 훌륭한 이름들이 있으니 그대들은 그것으로써 그분께 기도하라."(꾸란 제 7장 180절)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시여! 저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 용서하시는 분이시여!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시여! 저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장 높은 단계의 믿음(이만) :

믿음(이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하나님을 잊거나 죄를 지으면 믿음(이만)은 줄어들며 그분에 대한 복종과 경배 행위와 경외심을 증가시키면 믿음(이만)이 높아집니다.

이슬람법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믿음은 '이흐산'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이흐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신 바 있습니다. "그대가 마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라. 만약 그대가 그분을 보지 못한다면 그분께서는 그대를 지켜보고 계시노라." ('알-부카리'(no.50)와 '무슬림(no.8)이 수집한 하디쓰)

따라서 우리는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도, 진지할 때나 농담을 건넬 때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응시하고 계시니 우리는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잘 알기에 두려움이나 자포자기의 심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며, 우리가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만약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한대도 우리는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닥쳤을 때 믿는 자를 지켜주시고 시련이 다가왔을 때 믿는 자를 구해주시며 적의를 가진 자들의 계략으로부터 믿는 자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변호하여 주시노라." (꾸란 제 22장 38절)

2. 믿음(이만)은 행복한 삶과 기쁨의 원인입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믿는 자로서 선행을 실천하는 자, 실로 나는 그에게 행복한 삶을 선사할 것이라"(꾸란 제 16장 97절)

3. 믿음(이만)은 모든 종류의 미신으로부터 자아를 정화시키기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모든 일의 귀결을 오직 하나님 한분께 돌립니다. 그분이야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이시며 경배 받을 권리를 가지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니 그는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에 그는 모든 미신과 허위 믿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4. 믿음(이만)의 가장 위대한 결과물은 : 하나님의 기쁨과 천국으로의 입성, 그리고 그곳에서의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천사들에 대한 믿음

천사들에 대한 믿음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사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믿음과, 그들은 인간과 '진'의 영역이 아닌 보이지 않는 다른 영역에 있으며, 그들은 명예로우며 경외심으로 충만하고,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께서 명령한 사항을 빠짐없이 수행하며,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노라. (천사들은) 명예로운 종복들이라.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앞서 말하지 않으며 그들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노라."(꾸란 제 21장 26-27절)

천사들에 대한 믿음은 여섯가지 믿음의 필수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는 그의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내려진 것을 믿으며 믿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모두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성서들과 그분의 사도들을 믿더라."(꾸란 제 2장 285절)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믿음(이만)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성서들과, 그분의 사도들과, 최후의 날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운명을 믿는 것이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8)

천사들에 대한 믿음은 무엇을 내포하는가?

1. 천사들이 존재함을 믿는 것입니다 :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비유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은 빛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들의 본성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복종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2.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천사(예를 들어 '지브릴'(가브리엘))와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천사 모두를 믿는 것입니다.

3. 우리에게 알려진 그들의 속성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

-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으며, 피조물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으로서의 속성(루부비야)이나 경배 대상으로서의 속성(울루히야)이 없으며,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복이며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찬미받으실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거역하지 않으며 그들은 명령받은 것을 수행하노라."(꾸란 제 66장 6절)

- 그들은 빛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빛으로부터 창조되었노라."('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2996)

- 그들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그분께서는 천사에게 날개를 두셨고 날개의 숫자는 천사들마다 다르게 하셨습니다. 완벽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찬미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분. 천사들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두 개, 세 개, 네 개의 날개를 두신 분.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창조를 더하시노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전능하신 분이시라."(꾸란 제 35장 1절)

4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께서 지정해주신 그들의 임무를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

-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사도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가 있으니, 그는 '지브릴'(가브리엘) 천사(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입니다.

- 영혼을 거두어가는 임무를 맡은 천사들로는 '죽음의 천사'와 그를 도와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 우리의 선행과 악행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천사들은 '명예로운 기록자'(알-키라무 알-카티분)라고 불립니다.

천사들에 대한 믿음의 결과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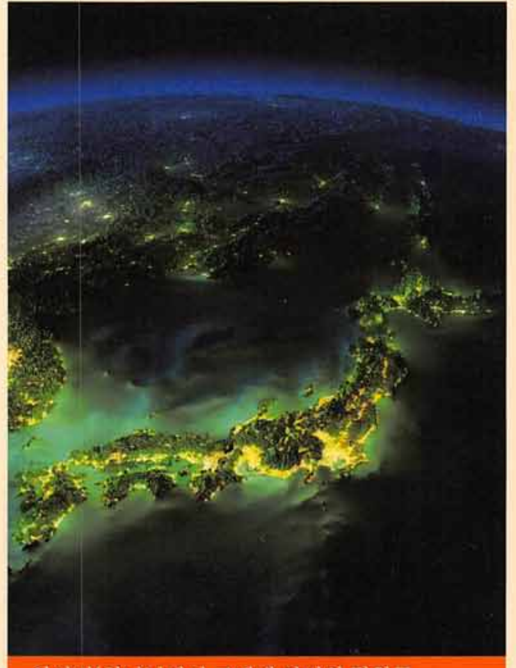
천사들에 대한 믿음은 믿는 자의 삶에 대단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물의 일부를 소개하면 :

1.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그분의 힘과 완벽한 능력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피조물의 명예는 창조자의 위엄에 비롯되는 것이며 따라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위엄을 드높이게 됩니다. 빛으로부터 천사를 창조하고 날개를 두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께 굳건히 그리고 꾸준히 복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행위 모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께 복종함에 인내하게 되며 포근함과 고요함을 느낄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 넓은 세상에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는,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수 천명의 천사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4.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 모두에게 천사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하늘들은 그 안에 있는 존재들로 무거우니, 서있거나 반절을 하고 있거나 엎드려 절하고 있는 천사들로 가득차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서들에 대한 믿음

성서들에 대한 믿음이 내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복을 위해 그분의 사도들에게 성서들을 계시하셨고, 이 성서들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성서를 통해 그분께서는 그분의 위엄에 걸맞게 실제로 말씀을 하신 것이며, 이 성서들 안에는 인류를 위한 진리와 빛과 인도가 있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성서들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만)의 여러 필수요소들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와, 그분께서 그분의 사도에게 내리신 성서와, 그분께서 이전에 내리신 성서를 믿으라."(꾸란 제 4장 136절)



꾸란의 필기법은 완벽을 추구하는 원칙과 자세함으로 유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사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사도인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계시하신 성서, 즉 꾸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꾸란 이전에 계시된 성서에 대한 믿음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믿음(이만)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성서들과, 그분의 사도들과, 최후의 날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운명을 믿는 것이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8)

성서들에 대한 믿음은 무엇을 내포하는가?

1.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성서들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2. 그 성서들은 찬미받으시고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
3. 하나님께서 이름을 언급하신 성서를 믿는 것, 예를 들어 꾸란은 우리의 선지자인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계시된 성서이며, '타우라'(모세오경)의 원본은 '무사'(모세,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에게 계시된 성서이며, '인질'(복음서)의 원본은 '이사'(예수,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에게 계시된 성서임을 믿는 것.
4. 꾸란과 순나를 통해 전승된, 성서들와 관련된 정보를 믿는 것.

다른 성서와는 구별되는 꾸란만의 특별한 속성 :

꾸란은 우리의 선지자인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계시된,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자는 꾸란의 위엄을 드높입니다. 그리고 꾸란에 제시된 여러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꾸란을 낭송하며 그 의미를 숙고합니다.

이 꾸란은 현세에서 우리의 길잡이이며 내세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원인이 됩니다.

꾸란에는 여러 특징이 있으며, 다른 기존의 성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꾸란만의 독특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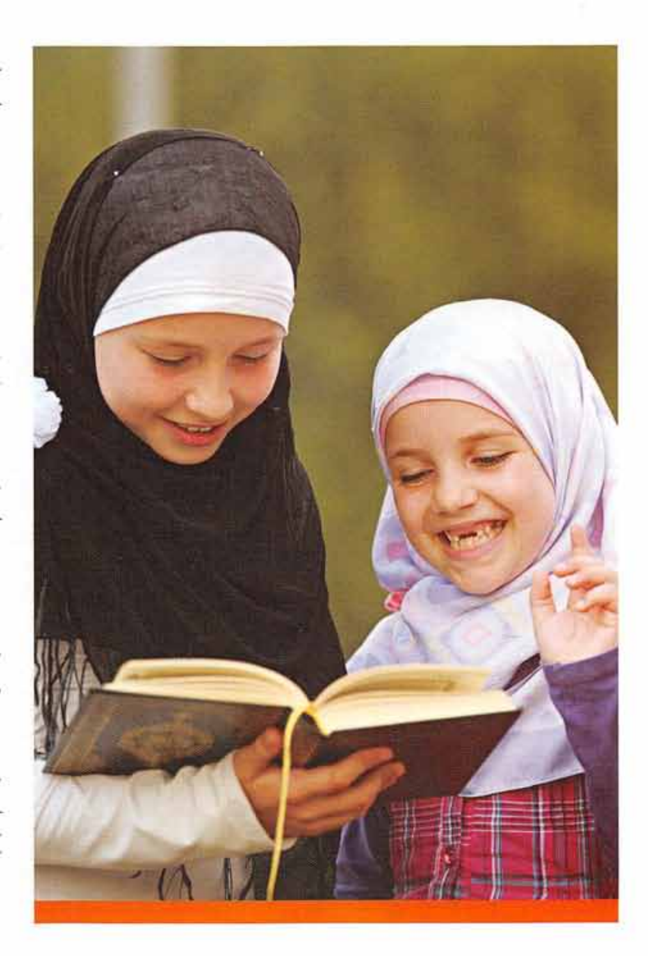
1. 꾸란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종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성서를 지지하고 확증하는 것이며, 그 중에는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지고하신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에게 진실로써 성서를 내렸으니 그 이전의 성서를 확증하며 증언하는 것이라."(꾸란 제 5장 48절)

   '그 이전의 성서를 확증하며'의 뜻은 : 이전 성서들의 여러 신조 및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이며 '증언하는 것'의 뜻은 : 기존 성서들의 기초가 되며 증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2. 꾸란은 언어와 종족을 초월한 모든 인류가 믿고 따라야 할 성서입니다. 이는, 꾸란이 계시된 이후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기존의 성서들은 특정 시대의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함마드)에게 이 꾸란이 계시되었으니 그것으로써 그대들과, 그것(꾸란)이 전달된 자들에게 내가 경고하기 위해서라."(꾸란 제 6장 19절)

3. 실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꾸란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 그 어떤 누구도 변형의 의도로 꾸란에 손을 뻗지 못합니다. 찬미받으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나는 꾸란을 내렸으며, 진실로 나는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꾸란 제 15장 9절) 따라서 꾸란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의무사항입니다.



꾸란과 관련된 우리의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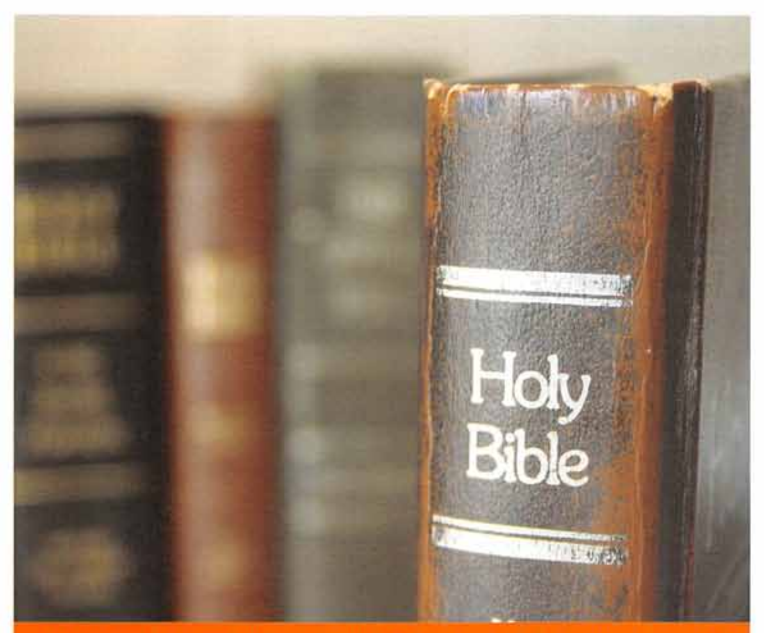
우리는 꾸란을 사랑하고 그 위엄을 드높이고 특별한 배려로써 꾸란을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꾸란은 창조주의 말씀이며 가장 정직한 말씀이며 가장 훌륭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꾸란을 낭송하고 그 의미를 숙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꾸란에 제시된 여러 교훈과 정보와 이야기를 음미해야 하며, 꾸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와 허위를 구분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꾸란에 제시된 규정을 따라야 하며, 꾸란에 내려진 명령과 예절을 지켜야 하며, 꾸란을 우리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아이야'(선지자의 아내,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쁘게 여기시길)에게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성품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그의 성품은 꾸란 그 자체였습니다." ('아흐마드'(no.24601)와 '무슬림'(no.746)이 수집한 하디쓰)

이 하디쓰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그의 삶과 행동을 통해 꾸란에 제시된 규정과 법률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셨고, 따라서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가장 훌륭한 방식으로 꾸란의 인도를 따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 모두의 모범입니다. 찬미받으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사도에게는 그대들을 위한 훌륭한 모범이 있으니, 하나님과 최후의 날을 바라고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는 자를 위한 것이라"(꾸란 제33장 21절)



무슬림은 '타우라'(모세오경)와 '인질'(복음서)의 원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후 두 책에는 많은 변형과 첨가가 있었고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타우라'와 '인질'에 관해서 우리는, 꾸란과 순나에 부합되는 것만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기존 성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무슬림은 '무사'(모세)(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에게 계시된 '타우라'(모세오경)의 원본과 '이사'(예수)(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에게 계시된 '인질'(복음서)의 원본이 하나님에게서 온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 두 성서의 원본에는 하나님의 판결과 교훈과 이야기들이 있었으며, 현세의 삶과 내세를 위한 인도와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꾸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성서의 사람들(기독교인, 유대교인)은 그들의 성서를 변형하였고 첨가와 삭제를 가하였으며 따라서 그 성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원본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약의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무사'(모세,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계시하신 '타우라'(모세오경)의 원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원본을 변형하고 바꾸었으며, 원본에 제시된 많은 판결들을 그들의 취향대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말씀의 위치를 변경하는 자들이 있으니"(꾸란 제 4장 46절)

마찬가지로 현재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약의 복음서 역시 '이사'(예수,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에게 계시된 '인질'(복음서)의 원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인질'을 변경하였고, '인질'의 많은 규정들을 바꾸었습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기독교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들 중의 한 무리는 그들의 혀로써 성서를 왜곡하니 그대들은 그것이 성서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서의 일부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말하길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에 관해 거짓을 말하더라."(꾸란 제 3장 78절)

"나는, '실로 우리는 기독교인이오'라고 말하는 자들로부터 성약을 맺었으나 그들은 그들이 받은 메시지의 대부분을 잊었도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 사이에 부활의 날까지 계속될 적의와 증오를 심었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오던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꾸란 제 5장 14절)

그렇기에 오늘날 기독교인과 유대인들 손에 쥐어져있는 소위 '성경'과 그 안의 '모세오경'과 '복음서'에는 그릇된 믿음과 허위 정보, 거짓 이야기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서가 제공하는 정보에 관해 우리는, 꾸란과 순나에 부합할 경우에만 그것을 진리로서 인정하며, 꾸란과 순나가 거짓으로 간주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거짓으로 간주하며, 해당 정보에 대해 꾸란과 순나가 침묵할 때는 우리 역시 그것에 관해 진리다 거짓이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슬림은 이러한 기존 성서를 배려해야 하며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일부일지라도 성경에, 변경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들에 대한 믿음의 결과물 :

그 결과물은 아주 많지만 중요한 것만을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히 배려해주시고 그분의 자애로써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성서를 보내시어 그들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현세와 내세에서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의 법률에 담긴 그분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그들의 환경과 민족성에 걸맞는 법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들 중 모두에게 법률과 명백한 길을 두었으니”(꾸란 제 5장 48절)

3. 성서들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서들은 현세와 내세에서의 빛이며 인도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은총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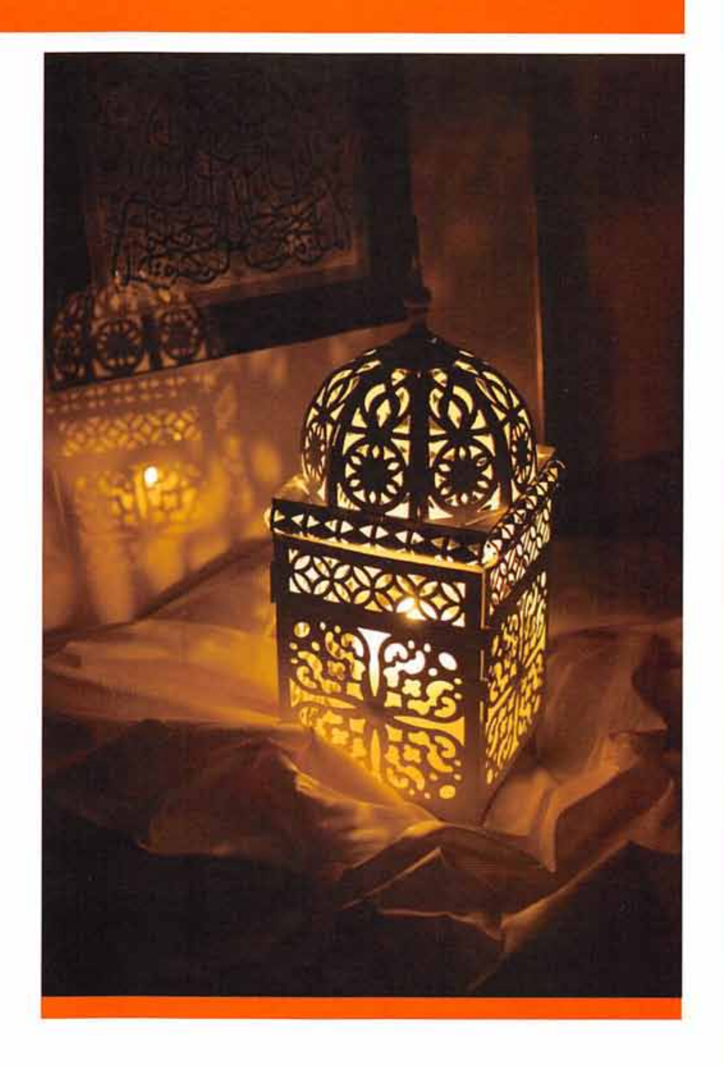
사도들에 대한 믿음

인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 :

인류는 그들에게 법률을 설명해주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해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영혼이며 빛이자 생명입니다. 영혼이 없고 생명이 없고 빛이 없다면 생명체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메시지를 '루흐'(영혼)라고 칭하셨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는 그대에게 내 명령으로써 영혼(꾸란)을 계시하였노라. 그대는 성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못했노라. 그러나 나는 그것(꾸란)을 빛으로 두었고 그것으로써 내 종복 중 내가 원하는 자를 인도하노라."(꾸란 제 42장 52장)

이성은 일반적인 측면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는 있지만 상세한 구분과 구체적 내용은 알아내지 못하며 경배 행위의 실천과 그 방법은 오직 계시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세와 내세에서의 행복과 성공은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좋고 나쁜 것의 상세한 정보는 그들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등을 돌리는 자는 불확실성에 방황할 것이며 그가 메시지를 거부하고 돌아설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믿음(이만)의 여러 필수요소 중의 하나 :

사도들에 대한 믿음은 이만의 여섯가지 필수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찬미받으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는 그의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내려진 것을 믿으며 믿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모두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와 그분의 성서들과 그분의 사도들을 믿더라. (그들이 말하길)'우리는 그분의 사도들 중 어떤 누구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꾸란 제 2장 285절)

위 꾸란 구절을 통해 우리는, 구분 없이 모든 사도들(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을 믿는 것이 의무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대인과 기독교인과는 달리- 어떤 사도는 믿고 어떤 사도는 믿지 않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믿음(이만)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성서들과, 그분의 사도들과, 최후의 날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운명을 믿는 것이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8)

사도들에 대한 믿음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님께서 모든 공동체마다 사도를 보내시어 당시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였고, 사도들 모두는 정직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을 수 있는 자들이며, 인도의 길을 제시하는 인도받은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메시지를 빠짐없이 전달하였으며, 메시지를 숨기거나 변경하지 않았으며, 철자 하나조차도 임의로 추가하지나 삭제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찬미받으실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임무는 오직 명백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뿐이라."(꾸란 제 16장 35절)

사도들에 대한 믿음은 무엇을 내포하는가?

1. 그들이 가지고 온 메시지는 진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이며, 사도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라는 것이었다는 믿음입니다. 찬미받으실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실로 나는 모든 공동체에 사도를 보내었도다. (사도가 말하길) '그대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을 멀리하라'"(꾸란 제 16장 36절)

그러나 선지자들의 법률은 세부적 사항에 있어서 서로 달랐으니, 당시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나는 그대들 중 모두에게 법률과 명백한 길을 두었으니" (꾸란 제 5장 48절)

2. 모든 선지자와 사도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언급하신 선지자들 – 예를 들어 무함마드, '이브라힘'(아브라함), '무사'(모세), '이사'(예수), '누흐'(노아)(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 을 믿으며,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들 역시도 믿는 것입니다. 만약 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모든 선지자를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 꾸란과 순나(선지자의 행위와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사도들의 정보와 그들이 행한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홍해를 가른 '무사'(모세)(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의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4. 우리에게 보내진 가장 훌륭한 사도이자 최후의 사도인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가져온 이슬람법(샤리아)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닙니다 :

1	그들 모두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들과 다른 이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 이전에 내가 보낸 사도는 모두 남자들로서 내가 그들에게 계시를 내리는 것이라."(꾸란 제 21장 7절) 따라서 그들에게는 주님으로서의 속성(루부비야)이나 경배 대상으로의 속성(울루히야)이 없으며, 다만 그들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신체를 소유하였고 가장 고결한 품성을 지녔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장 고귀한 혈통의 소유자이며 뛰어난 이성과 빼어난 웅변술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 겪을 고초와 선지자직을 수행함에 따르는 어려움을 잘 견디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러한 속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내심에 인간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사도를 따르고 그를 본보기로 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2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인간들과는 달리 그들을 선택하여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찬미받으실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말하라(오, 무함마드여!). '단지 나는 그대들과 같은 인간일 뿐이며 나에게 계시가 내려지니 그대들이 경배할 존재는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이라.'"(꾸란 제 18장 110절) 따라서 선지자직과 사도직은 영혼의 순수함이나 영리함 등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며 이성으로써 도달되는 영역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시어 그를 사도로 두시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두실지 가장 잘 아시노라."(꾸란 제 6장 124절)
3	그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항을 전달함에 그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림에 실수를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계시를 실천함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4	그들의 속성 중의 하나는 정직함이니 사도들은(그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말과 행동에 있어 정직합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서 약속하신 것이며 사도들은 진실을 말하였도다."(꾸란 제 36장 52절)
5	그들의 다른 속성은 인내심입니다. 사도들은 기쁜 소식의 전달자로서 또한 경고자로서 하나님의 종교로 사람들을 초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해를 입고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기 위한 과정을 인내하고 견뎌낸 것입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들 중 단호한 의지의 소유자들이 인내했던 것처럼 그대도 인내하라."(꾸란 제 46장 35절)

사도들의 징표와 그들이 행한 기적 :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도들(그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시어 그들의 정직성과 선지자성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그 예로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기적과 그들이 가진 명백한 징표가 있으며, 이 모두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직성과 선지자성을 사람들에게 재확인시키셨습니다.

기적이란 :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드러내시는,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는 여러 일들로서 그 어떤 인간도 그와 비슷한 것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다음은 그 예시입니다 :

- '무사'(모세)(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
- '이사'(예수)(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이 집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남겨 보관하는지 알려준 것.
- 우리의 선지자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를 위해 달이 두쪽으로 갈라진 것.

'이사'(예수)(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에 관한 무슬림의 믿음 :

1. 그는 가장 위대한 사도들 중의 하나이며 단호한 의지를 가진 사도들(우룰 아즘) 중의 하나입니다. 사도들 중 단호한 의지의 소유자들은 5명으로 무함마드, '이브라힘'(아브라함), '누흐'(노아), '무사'(모세), '이사'(예수)입니다(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하나님께서는 꾸란 구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그들을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선지자들 중에서 그들로부터의 성약을 맺었으니 그대와 누흐(노아)와 이브라힘(아브라함)과 무사(모세)와 마르얌(마리아)의 아들 이사(예수)로부터도 성약을 맺었노라. 그리고 나는 그들로부터 엄숙한 성약을 맺었도다."(꾸란 제 33장 7절)

2. '이사'(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아담의 자손 중의 하나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를 사도로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보내셨으며 그를 통해 여러 기적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으로서의 속성(루부비야)이나 경배 대상으로의 속성(울루히야)을 전혀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예수)는 오직 종복으로, 나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으며 그를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모범으로 두었노라."(꾸란 제 43장 59절)

   그리고 '이사'(예수)(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숭배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으며 예수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만을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은 나(예수)의 주님이자 그대들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꾸란 제 5장 11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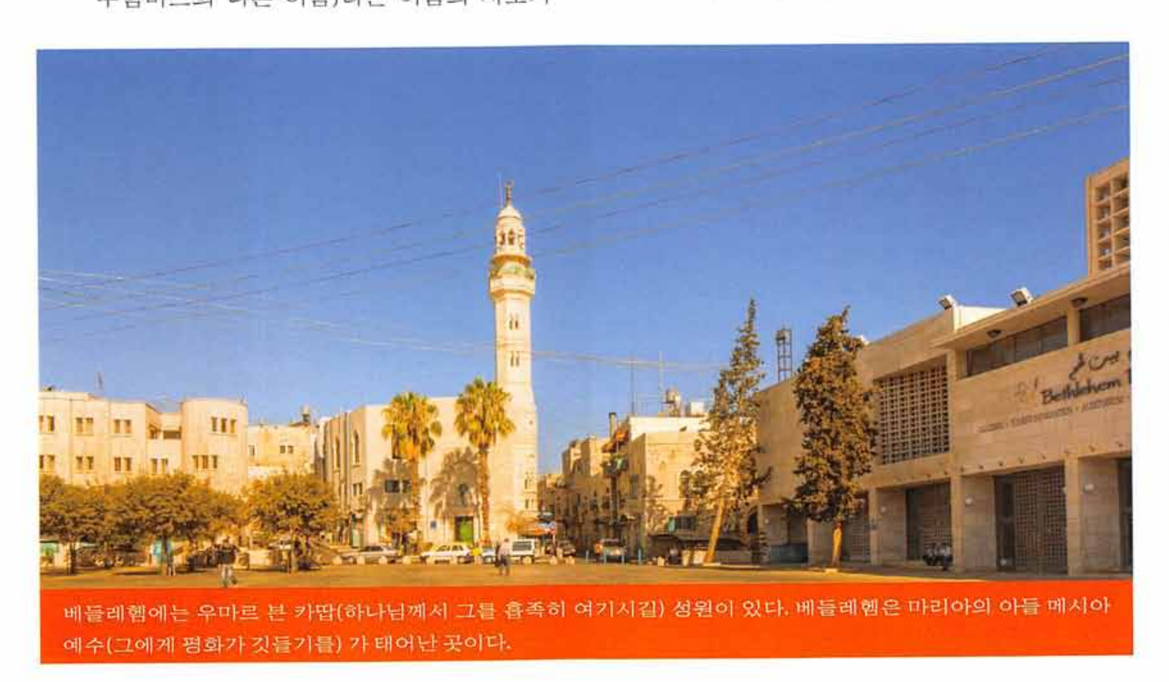
3. '이사'(예수)는 '마르얌'(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마르얌'은 선행을 실천하는 진실된 신앙인이었으며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경배하는 정숙하고 순결한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써 그녀는 아버지 없는 '이사'(그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를 잉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써 그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다른 여러 기적 중의 하나이며, 마치 아담이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창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사(예수)의 예는 아담의 예와 같노라. 그분께서는 그(아담)를 흙으로부터 창조하셨고 그 후 그에게 ' 있어라' 라고 말했으니 그가 있게 되더라."(꾸란 제 3장 59절)

4 그와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사이에는 그 어떤 사도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올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마르얌(마리아)의 아들 이사(예수)가 말하니 '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그대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도로서 나 이전의 모세오경을 확증하노라. 그리고 나 이후에 '아흐마드'(무함마드의 다른 이름)라는 이름의 사도가 올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나 그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도래했을 때, 그들이 말하길 '이것은 명백한 주술이라.'"(꾸란 제 61장 6절)

5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실현하신 여러 기적들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나병환자를 고치고 장님을 보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들이 집에서 먹는 것과 남겨 보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 모든 것은 찬미받으시고 지고하신 하나님의 허락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이사'의 선지자성과 그가 가져온 메시지의 진실성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6 '이사'(예수)가 하나님의 종복이며 그분의 사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의 믿음(이만)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유대인이 묘사하는 사악한



베들레헴에는 우마르 븐 카땁(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 성원이 있다. 베들레헴은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 예수(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가 태어난 곳이다.

속성과는 전혀 무관하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백을 확증하신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르얌'(마리아)의 아들 '이사'(예수)에 관한 진실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기독교인의 그릇된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그와 그의 어머니를 숭배하니 그들 중 일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다른 일부는 그에 관련하여 삼위일체를 주장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십니다.

7 '이사'(예수)는 살해당하지도 십자가에 못박히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유대인이 그를 살해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로 올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예수)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그와 유사한 형상을 입히셨고 따라서 유대인은 그 자를 살해하고 십자가에 못박았으며 그 자를 '이사'(예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때문이니 '실로 우리는 마르얌(마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도 메시아 이사(예수)를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않았으며 그를 십자가에 못박지도 않았도다. 그러나 그들에게 유사하게 보였을 뿐이라. 그리고 그에 관해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실로 그에 대해 불확실해 하니 그들에게는 그에 관해 어떠한 지식도 없으며 오직 추측만을 따를 뿐이라. 그리고 그들은 그를 확실히 살해하지 않았노라. 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분께로 올리셨으니 하나님은 가장 존엄하신 분이시며 가장 현명하신 분이시라. 성서의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그가 죽기 전에 그를 믿으니 부활의 날 그는 그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자가 될 것이라."(꾸란 제 4장 157~159절)

즉,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어 그를 그분 가까이 하늘로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가까워올 때면 그는 다시 지구로 내려와 선지자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가져온 이슬람법(샤리아)으로써 지구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죽음을 맞이하며 무덤에 묻힐 것이며, 부활의 날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것입니다. 마치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부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흙)으로써 나는 그대들을 창조하였고, 그리로 내가 그대들을 돌아가게 하며, 그곳에서 나는 그대들을 한번 더 꺼낼 것이라"(꾸란 제 20장 55절)



무슬림의 믿음은 '이사'(예수)(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가 가장 위대한 사도 중의 한 명이라는 것이며, 그렇지만 그는 신이 아니며 살해당하지도 십자가에 못박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의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 대한 믿음

- 우리는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하나님의 종복이며 그분의 사도이며, 모든 인류의 지도자이며, 선지자들의 끝막음으로 그 이후의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였으며, 무슬림 공동체(움마)에 조언을 주었고, 하나님의 길에서 진정으로 분투하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알려준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며, 그가 명령한 것을 따르고, 그가 금하고 비판한 것을 멀리하며, 우리는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언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실로 하나님의 사도에게는 그대들을 위한 훌륭한 모범이 있으니 하나님과 최후의 날을 바라고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는 자를 위한 것이라"(꾸란 제 33장 21절)

- 우리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 대한 사랑을 부모님이나 자식, 타인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나, 자식,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할 때, 그 때서야 진정으로 믿는 자라" ('알-부카리'(no.15)와 '무슬림'(no.44)이 수집한 하디쓰) 같은 맥락에서 찬미받으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그(무함마드)를 따른다면 그대들은 인도될 것이라. 그리고 사도의 임무는 오직 명백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뿐이라." (꾸란 제 24장 54절)



선지자 성원의 출입문. 가운데는 '무함마드 라수룰라'라는 문장이 각인되어 있다.

- 우리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가져온 것을 따라야 하며 그의 순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인도의 길을 존경과 경의로써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노라. 그대의 주님께 맹세코, 그들이 그들 사이에 논쟁하던 것을 그대에게 판결을 맡기고 그 후 그대가 내린 판결에 관해 마음 속에 불만을 느끼지 않고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때, 그 때서야 그들은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라."(꾸란 제 4장 65절)
- 그리고 우리는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내린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시련과 방황과 고통스런 벌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그(무함마드)의 명령을 어긴 자들은 그들에게 시련이 닥치거나 또는 그들에게 고통의 벌이 닥칠 수 있음에 유의하라." (꾸란 제 24장 63절)

무함마드가 받은 메시지의 독특함 :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받은 메시지에는 이전 사도들이 받은 메시지와 다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이전 사도들이 받은 메시지는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받은 메시지로써 최종 마무리됩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대 남성들 중의 여느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도이며 선지자들의 끝막음이라."(꾸란 제 33장 40절)
-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받은 메시지와 이전 사도들의 메시지가 상충할 때, 이전의 메시지는 그의 메시지로써



폐지됩니다. 따라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도래 이후에는 그 어떤 새로운 종교도 없으며 그가 가져온 것을 따르는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도인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제시된 길을 따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의 움마(무슬림 공동체)는 가장 훌륭한 공동체이며 그가 가져온 이슬람법(샤리아)은 가장 완벽한 법률입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이슬람 이외의 것을 종교로 삼길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내세에서 손실자 중의 한 명이 될 것이라"(꾸란 제 3장 85절)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함마드의 영혼을 손에 쥐고 계신 분께 맹세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나에 관해 들은 후, 사도로서 내가 가져온 것을 믿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였다면 그는 분명 불지옥의 거주자가 될 것이라." ('무슬림'(no.153)과 '아흐마드'(no.8609)가 수집한 하디쓰)

-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받은 메시지는 '진'과 인류, 즉 이성을 지닌 두 종족 모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꾸란을 통해 '진'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 계십니다. " 오, 우리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으로 초대하는 자에 응답하라."(꾸란 제 46장 31절) 그리고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를 사도로 보냄은 단지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경고하기 위해서라."(꾸란 제 34장 28절)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선지자들이 받지 못한 여섯 가지 은혜를 받았노라 ;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 자와미울 칼림'(적은 단어로 깊은 뜻을 구사하는 능력)을 주셨고, 적의 마음 속에 두려움을 불어넣으시어 나를 도와주셨으며, 나에게 전리품을 허락하셨도다. 그분께서는 나를 위해 대지를 세정의 도구로 그리고 예배의 장소로 두셨으며, 나를 사도로 보내셨으니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라. 그리고 나는 최후의 선지자라." ('알-부카리'(no.2815)와 '무슬림'(no.523)이 수집한 하디쓰)



사도들에 대한 믿음의 결과물 :

사도들에 대한 믿음의 결과물은 대단합니다만 그 중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고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종복에 대한 그분의 배려를 잘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사도들을 보내셨고 인간의 이성 하나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정보, 즉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는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를 사도로 보낸 것은 단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라. (꾸란 제 21장 107절)

2. 이 위대한 은총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3. 사도들(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의 지위에 걸맞게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그분의 종복들에게 조언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4. 사도들이 전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르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라는 것이며, 이를 따르고 실천할 때 믿는 자의 삶은 선과 인도와 행복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인도를 따르는 자 있다면 그는 방황하지도 불행해하지도 않을 것이라. 그러나 나의 메시지에 등을 돌리는 자 있다면 실로 그에게는 옹색한 삶이 있을 것이라."(꾸란 제 20장 123~124절)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아끄싸' 성원은 이슬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끄싸 성원은 '하람' 성원 이후 지구상에서 두번째로 세워진 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선지자들(그들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도 그 곳에서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님께서 무덤에 있던 사람들을 부활시켜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고 보응하시며, 그에 따라 천국의 거주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거주하고 지옥의 거주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은 이만(믿음)의 여러 필수요소들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 없이는 이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고 최후의 날을 믿는 것이라"(꾸란 2장 제 177절)

왜 꾸란은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가?

꾸란은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꾸란은 기회가 날 때마다 그에 대한 믿음을 상기시키고, 다양한 아랍어 표현법으로써 최후의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러 문맥을 통해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미받으시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 공평한 보상을 내리십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

실로 하나님께서는 부당행위나 악한 자를 반드시 응징하시며, 부당하게 다루어진 자를 반드시 정의로써 대우하시며, 선행을 행한 자에게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내리십니다. 그분께서는 권리를 지닌 자의 권리를 실현시켜주십니다. 우리는, 이 현세에서 악한 자로 살다가 악한 자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응징을 받지 않는 경우를 보며, 부당하게 다루어진 자가 그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여 그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당행위를 방치하시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현상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의 삶이 아닌 또 다른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약속이 있으니, 선행을 실천한 자는 그의 행위로 보상을 받으며 악행을 실천한 자는 그의 행위로 엄벌을 받아 결국 권리를 가진 자의 모든 권리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타인에 대한 친절로써 -그것이 비록 타무르(대추야자 열매)를 반쪽으로 나누어먹는 것일지라도 -불지옥을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은 무엇을 내포하는가?

최후의 날에 대한 무슬림의 믿음은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과 집결에 대한 믿음 :** 무덤에 있던 고인의 몸에 다시 영혼이 불어넣어져 그가 부활할 것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처음 창조될 때의 모습처럼 맨발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의 장소에 집결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꾸란과 순나, 이성과 순수한 창조본성(피뜨라)이 그 근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덤에 있던 고인을 부활시키실 것이며 죽어있던 우리의 몸에 다시 영혼이 불어넣어져,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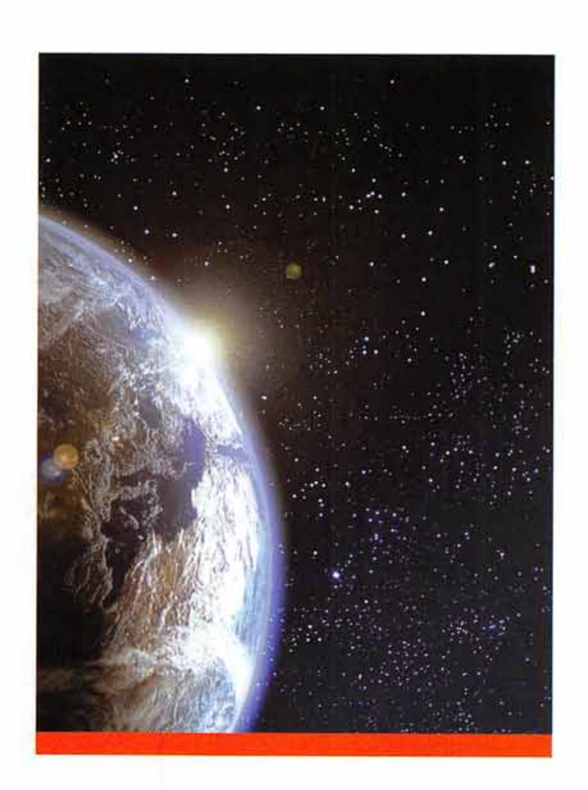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그대들은 그 후에 실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그런 후 그대들은 부활의 날에 부활할 것이라."(꾸란 제 23장 15~16절)

하나님의 모든 성서들은 부활의 날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날에 담겨있는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약속을 하셨으니, 그분의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제시한 경배 행위에 관해 우리는 정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장난으로 창조하였다고 생각했던가?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가?"(꾸란 제 23장 115절)

꾸란이 제시하는 부활에 관한 증거 :

- 실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로 인류를 창조하셨으며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가능한 그분이시기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시는 분이시며 그런 후 그것(창조)을 반복하실 것이라"(꾸란 제 30장 27절) 썩어버린 뼈다귀에 어떻게 다시 생명이 부여될 것이냐고 비웃는 자에 대해,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하라(오, 무함마드여!) : '처음에 그것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라. 그리고 그분은 모든 창조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꾸란 제 36장 79절)

- 푸른 나무가 설 수 없었던 불모의 대지였지만 비가 내려 다시 생명력 가득한 푸르른 대지가 되니 그곳에 아름다운 목초가 가득합니다. 이처럼 죽어 있던 대지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분께서는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축복의 비를 내리어 그것으로써 정원과 수확 가능한 곡물을 자라게 하노라. 또한 높이 뻗은 대추야자 나무를 자라게 하니 그것에는 갓 맺은 주렁진 열매가 있도다. 종복을 위한 양식이라. 그리고 그것으로써 죽어 있던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니, 부활도 그러할 것이라. "(꾸란 제 50장 9~11절)

• 아주 힘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가 그보다 쉬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성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쉽게 알고 있습니다. 찬미받으시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고 광대한 하늘들과 땅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또 다른 놀라운 피조물들을 두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에게는 썩어버린 뼈다귀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와 비슷한 것들을 창조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렇지 않노라! 그분은 위대한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라."(꾸란 제 36장 81절)

2 심판과 행위저울에 대한 믿음 : 하나님께서는 현세에서의 행위에 의거하여 피조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따른 자, 그의 심판은 쉬울 것이며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고 죄를 지은 자, 그의 심판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위대한 저울에 놓일 것입니다. 한쪽 접시에는 선행이 놓이며, 다른 쪽 접시에는 악행이 놓일 것입니다. 선행의 접시가 악행의 접시보다 무거우면 그는 천국의 거주자가 될 것이며, 악행의 접시가 선행의 접시보다 무거우면 그는 지옥의 거주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부당히 대우하시지 않으십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의 날을 위해 공평의 저울을 놓을 것이니 그 어떤 이의 그 어떤 것도 부당히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겨자씨의 무게만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가져올 것이니 계산자는 나로써 충분하노라. "(꾸란 제 21장 47절)

3 천국과 불지옥 :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장소이며 믿는 자와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따르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입니다. 그 곳에는 자아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며 원하는 모든 것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는 그분의 종복에게, 그분께 대한 지체없는 복종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너비는 하늘과 땅의 너비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들 주님으로부터의 용서와 천국을 얻기 위해 서두르라. 그 너비는 하늘들과 땅의 너비이며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꾸란 제 3장 133절)

반면 불지옥은 영원한 엄벌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사도들을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 그분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그곳에는 인간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벌과 고통과 징계가 있습니다.

찬미받으실 그분께서는 불신자를 위해 준비된 불지옥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그분의 종복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지옥)을 두려워하라, 그곳의 땔감은 사람들과 돌들로,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꾸란 제 2장 24절)

오, 하나님! 실로 저희들은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을 주시옵고 천국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말과 행동을 주십시오. 저희들을 지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옥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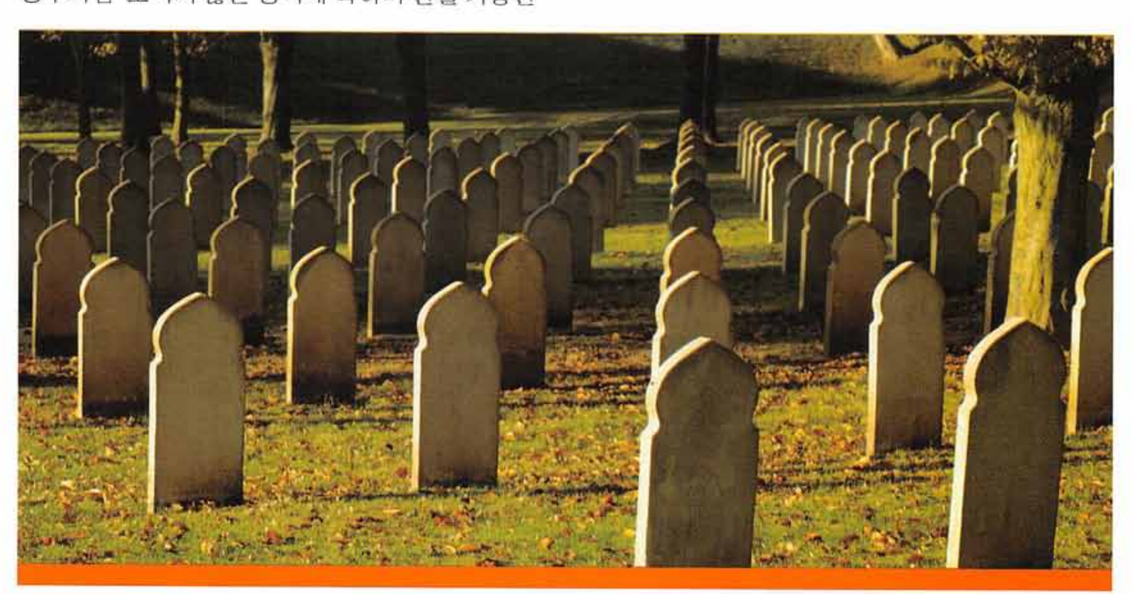
4 무덤에서의 벌과 기쁨 : 우리는 죽음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라(오, 무함마드여!) : '너희들에게 지정된 죽음의 천사가 너희들을 거두어갈 것이라. 그런 후 너희들의 주님께로 너희들은 돌아갈 것이라.' "(꾸란 제 32장 11절)

죽음은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아온 것이며, 죽음이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한, 자연사를 맞이한 자나 살해당한 자나 죽음의 이유가 무엇이든 그 모두는 정해진 시간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그들은 조금도 늦추어지거나 앞당겨지지 않을 것이라."(꾸란 제7장 34절)

•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 자는 이제 그가 내세의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 불신자와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는 무덤에서의 벌이 있고, 믿는 자와 선행을 실천한 자에게는 무덤에서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여러 말씀(하디쓰)을 통해 확증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으며 이에 관해 '어떻게?'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은 무덤에서의 벌과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천국과 불지옥의 경우처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하며 관찰 가능한 영역 밖의 일입니다. 유추나 논증, 판결 등의 사고력은 이론과 법칙 도출이 적용될 수 있는 현세의 관찰 가능한 세계에 한정됩니다.

• 마찬가지로 무덤에서의 양상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하며 우리의 감각이 도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 가능했더라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의 유용성이나 지혜가 사라져버렸을 것이고 사람들이 고인을 무덤에 묻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무덤에서 듣는 소리를 그대들도 듣는다면 그대들은 고인을 무덤에 묻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 그것만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께 그대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무슬림'(no.2868)과 '안-나사이'(no.2058)가 수집한 하디쓰) 이러한 지혜는 동물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이 무덤에서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의 결과물 :

1 우리가 꾸준히 선행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기심과 '리야'(남에게 보이기 위한 경배행위)를 멀리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믿음은 바로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꾸란에서는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과 선행이 동시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고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원을 관리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과 최후의 날을 믿는 자여야 하노라." (꾸란 제 9장 18절) 또 다른 그분의 말씀입니다. "최후의 날을 믿는 자들은 그것(꾸란)을 믿으며 그들은 그들의 예배에 있어 꾸준하더라."(꾸란 제 6장 92절)

2 부주의한 상태로 현세의 일로만 바쁜 자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여, 그들이 경배에 있어 서로 경쟁하고 하나님 경배를 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합니다. 현세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며 내세야말로 영원한 거주지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꾸란을 통해 사도들의 선행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이러한 선행으로 이끈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나는 그들을 선별하였으니 진실성으로 내세만을 떠올렸기 때문이라"(꾸란 제 38절 46절)

즉, 그들의 선행의 이유는 그들이 항상 내세만을 떠올렸기 때문이며 내세를 기억하였기에 그들이 그러한 선행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 무슬림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고 느꼈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내세가 아닌 현세의 삶에 기뻐하였단 말인가? 그러나 현세의 삶의 향락은 내세에 비하면 작은 것에 지나지 않노라." (꾸란 제 9장 38절)

따라서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을 지닌다면 우리는, 현세의 모든 기쁨은 내세의 기쁨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굳게 믿게 됩니다. 내세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현세의 고통도 감내할 만큼 그 기쁨은 커다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겪는 현세의 모든 고통은 내세의 고통과는 비유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됩니다. 내세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현세의 기쁨도 포기할 만큼 그 고통은 커다란 것입니다.

3 모든 이는 결국에는 자신의 몫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현세 삶의 향락 일부가 사라졌다고 해서 체념하거나 슬픔으로 자살을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실천한 자의 보상을 절대로 져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으로 우리는 더욱 분발하게 됩니다. 누가 강제로 혹은 사기를 당해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잃었다면 그는 부활의 날에, 즉 가장 절실한 시기에 그것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권리를 되찾게 될 것이라는 아는 자가 어떻게 슬퍼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와의 논쟁을 심판하실 분이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그 논쟁으로 슬퍼할 수 있을까요?

운명에 대한 믿음

운명에 대한 믿음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하나님의 판결과 그분의 운명에 의한 것이며,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며, 그 모든 것은 그분의 의지에 의한 것이며,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의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그분의 결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종복들에게 명령하시고 금지하시며,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 시험받으며, 그들의 행위는 강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과 의지에 따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능력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자비에 따라 원하는 자를 인도하시며, 그분의 지혜에 따라 원하는 자를 방황시키시며, 그분은 질문받지 않으시며 도리어 그들이야말로 질문받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운명에 대한 믿음은 무엇을 내포하는가 :

운명에 대한 믿음은 다음 네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운명에 대한 믿음은 이만(믿음)의 필수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지브릴'(가브리엘) 천사(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믿음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성서들과, 그분의 사도들과, 최후의 날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운명을 믿는 것이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8)

-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알고 계시며, 지고하신 그분께서는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될 존재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들의 양식과 나이와 말과 행위와 움직임과 정지함과, 그들이 숨기는 것과 드러내는 것을 알고 계시며, 그들 중 누가 천국의 거주자이며 누가 불지옥의 거주자인지 알고 계시다는 믿음을 내포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그분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노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아시는 분." (꾸란 제 59장 22절)

- 찬미받으실 그분께서,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보존 서판'(알-라우흐 알-마흐푸드)에 적으셨다는 믿음을 내포합니다. 그 증거는 지고하신 그분의 다음 말씀입니다. "대지에서나 그대들에게 닥친 모든 시련은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이미 '보존 서판'(알-라우흐 알-마흐푸드)에 기록되어 있으니"(꾸란 제 57장 22절)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말씀 역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기 오만년 전에 모든 피조물의 운명을 기록하셨노라."('무슬림'이 전하는 하디쓰, no.2653)

- 그 어떤 것도 감히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와, 그 어떤 것도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의지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의한 것이며, 그분께서 원하면 있고 그분께서 원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원하실 때만이 그대들이 원하게 되노라."(꾸란 제 81장 29절)

- 찬미받으실 그분이야말로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유일한 창조자이시며 그분 이외의 것은 피조물이며,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내포합니다. 찬미받으시고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모든 것을 완벽히 조절하셨도다."(꾸란 제 25장 2절)

인간은 선택하며 그에게는 능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운명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행위에 대한 선택권과 의지 및 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이슬람법(샤리아)과 실제 현상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법(샤리아)적 근거는,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의지와 관련하여 하신 다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날이라. 그러니 원하는 자 있다면 그의 주님에게로 귀착지를 두라."(꾸란 제 78장 39절)

능력에 관련하여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능력(우스으) 이상의 것을 짐지우지 않으시니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가 얻은 것이며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은 그가 저지른 것이라." (꾸란 제 2장 286절) '우스으'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현상적 근거는,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의지와 능력이 있으며 그에 의거하여 행위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지에 의해 일어난 일 – 예를 들어 걸음을 걷는 것 – 과 의지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 – 예를 들어 발을 헛짚거나 넘어지는 것 – 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능력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 중 올곧은 길을 걷고자 하는 이를 위한 것이라.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원하실 때만이 그대들이 원하게 되노라."(꾸란 제 81장 28~29) 인간의 의지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찬미받으시고 지고하신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분께서 소유한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지식과 의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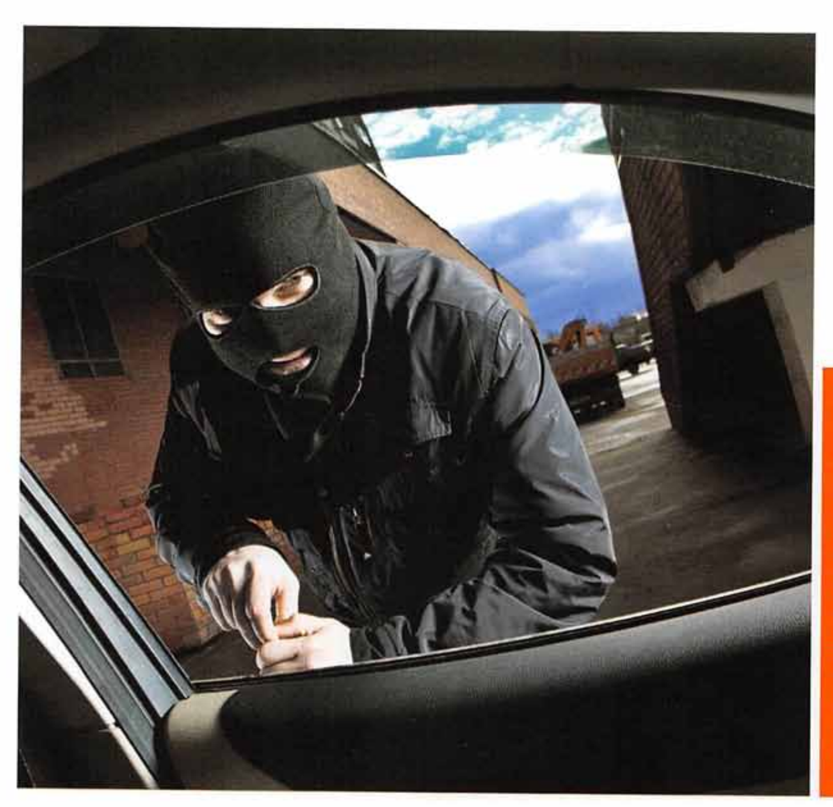
"실로 나는 그에게 길을 인도하였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거나 불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꾸란 제 76장 3절)

운명을 변명으로 삼는 행위 :

명령과 금지는 인간의 능력과 선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을 실천한 자는 인도의 길을 선택하였기에 보상을 받는 것이며, 악행을 저지른 자는 방황의 길을 선택하였기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능력 밖의 것을 짐지우지 않으시며 만약 경배 행위를 실천하지 않은 자가 운명을 변명으로 삼는다면 그분께서는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거역 행위를 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어떤 운명을 지정해놓았는지 알지 못하기에 그의 변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능력과 선택권을 주셨고 그를 위해 선과 악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가 거역했다는 것은, 그가 경배 행위를 제쳐두고 거역 행위를 선택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는 그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여 재산을 빼앗고 해를 입힌 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운명지은 행위' 라면서 그가 변명을 한다면 우리는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를 벌하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그의 선택이자 의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에 대한 믿음의 결과물 :

운명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운명은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가장 커다란 동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의탁을 명령받은 동시에, 원인이 되는 행위('사밥')를 실천할 것을 명령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인이 되는 행위('사밥')의 결과물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원인이 되는 행위를 창조하시고 결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그리고 체념하지 말라. 그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러이러했을 텐데…" 라고 말하지 말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이며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만약에' 라는 단어를 시초로 그의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2664)

2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게 되며 따라서 거만해하지도 오만을 떨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정된 운명이 무엇인지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허약함과 언제나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거만해하고 자기만족에 빠지며, 나쁜 일이나 시련이 생기면 걱정하며 슬퍼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좋은 일이 생겼을 때의 거만함과 나쁜 일이 생겼을 때의 슬픔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운명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만은 예외입니다. 모든 발생한 일은 운명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알고 계십니다.

3 악의 감정인 시기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선사한 것을 시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고 그분께서 운명지으신 것이기에, 만약 그것에 대해 누군가를 시기한다면 이 시기의 감정은 하나님의 운명에 역행하는 것임을 믿는 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운명에 대한 믿음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단호한 의지를 키워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명과 양식은 운명에 의해 정해져있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5 운명에 대한 믿음은 믿는 자의 내면에 참된 믿음(이만)의 실체를 심어줍니다. 즉, 그는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의탁하며 원인이 되는 행위('사밥')를 실천합니다. 또한 그는 항상 주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6 운명에 대한 믿음은 내면에 평온함을 심어줍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것으로 운명된 것은 반드시 일어나며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운명된 것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하라(예배를 위한 청결)



2

하나님께서는 무슬림에게 명령하시면서 우상숭배나 마음의 병 –예를 들어 시기심, 거만함, 증오심-으로부터 내면과 마음을 청결히 하라 하셨으며 외면 역시 불결한 것들과 오물로부터 청결히 하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됩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뉘우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분께서는 청결한 자들을 사랑하시노라."(꾸란 제 2장 222절)

차례 :

청결상태(따하라)의 뜻

청결상태(따하라)의 어원적 의미는 깨끗함, 청결함, 순수함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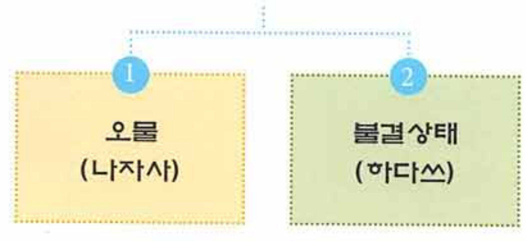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무슬림에게 외면과 내면을 청결히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외면의 청결함이란 외부에 드러나는 금지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오물로부터의 청결을 뜻하며, 내부의 청결함이란 우상숭배나 마음의 병 -예를 들어 시기심, 거만함, 증오심-으로부터의 청결을 뜻합니다. 따라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됩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뉘우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분께서는 청결한 자들을 사랑하시노라."(꾸란 제 2장 222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 청결(따하라)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찬미받으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나 왕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몸을 깨끗이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을 것입니다. 찬미받으시고 지고하신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기에 그분과 만나기 위해 우리는 청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청결상태(따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슬림에게 청결상태(따하라)에 머물 것을 명령하셨고, 특히 예배를 드릴 때나 꾸란을 만질 때나 따와프(카으바 주위를 도는 경배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청결상태(따하라)가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경우에 청결상태(따라하)는 권장사항이 됩니다. 그 예로는, 꾸란을 만지지는 않고 읽기만 할 때, 기도(두아)를 할 때, 잠을 자기 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슬림은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다음 두가지 사항으로부터 자유로운 청결상태(따하라)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슬림에게 내면의 청결, 즉 우상숭배나 마음의 병으로부터의 청결을 명령하셨고 외부의 청결, 즉 외부로 드러나는 금지된 것이나 오물로부터의 청결을 명령하셨습니다.

나자사로부터의 정결

- 오물(나자사) : 구체적인 사물들 중에서 이슬람법(샤리아)이 불결하다고 판결내린 것들로 샤리아는 경배 행위를 위해 오물(나자사)로부터의 청결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 모든 사물의 기본은 허락되고 깨끗하다는 것이며 오물(나자사)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만약 옷이 청결한 것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 오물(나자사)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 그것이 청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우리의 몸이나 옷, 그리고 예배 장소가 반드시 오물이 없는 청결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오물(나자사)의 예

1	인간의 소변과 대변
2	피, 그러나 소량의 피는 예외입니다.
3	먹을 수 없는 동물(187페이지 참조)의 똥과 오줌
4	개와 돼지
5	동물의 시체, 즉, 이슬람의 도살법을 따랐을 때 먹을 수 있는 동물(188페이지 참조)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시체. 그러나 고인의 몸과 물고기의 시체, 곤충의 시체는 깨끗한 것입니다.

오물(나자사)로부터의 정결 :

몸이나 옷, 혹은 장소 등에 있는 오물(나자사)은, 물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해당 물질이 제거되기만한다면 그것으로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법(샤리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세척의 횟수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에서 비롯된 오물(개의 침, 오줌, 똥)은 예외로, 반드시 일곱 번을 씻되 첫번째는 흙으로 씻어야 합니다. 그 이외의 오물(나자사)은 해당 물질이 제거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노력했는데도 색깔이나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을 경우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생리혈과 관련하여 한 여성 교우(싸하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옷에 묻은)피를 씻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흔적은 영향을 미치지 않노라."('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하디쓰, no.365)



어떠한 방법으로써든지 해당 오물(나자사)이 제거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화장실에서의 예절 :

-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왼쪽 발부터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권장사항(무스타합)입니다. "비스밀라, 알라훔마 인니 아우두 비카 미날 쿠브씨 왈 카바이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 하나님. 실로 저는 화장실의 '진'들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요청합니다.)

- 화장실에서 나갈 때는 오른쪽 발부터 나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권장사항(무스타합)입니다. "구프라나크"(하나님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 용무를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아우라'(가려야 할 부분)를 가리는 것은 의무사항(와집)입니다.

- 어떤 장소에서 용무를 보는 것이 결국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그 장소에서 용무를 보는 것은 금지사항(하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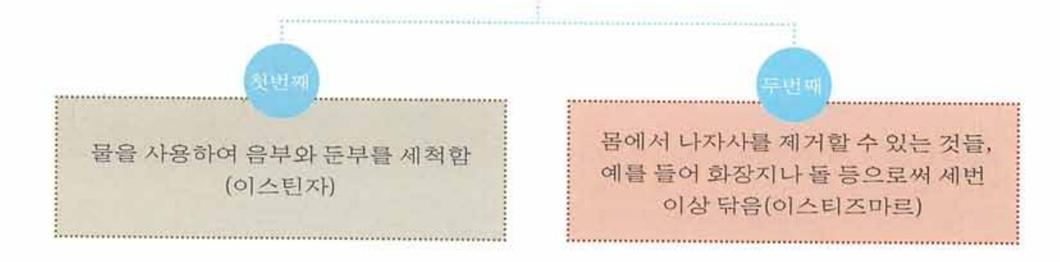
- 야외에 있는 굴과 같은 장소가 동물의 거주지라, 그 곳에 용무를 보는 것이 그 동물에게 해를 끼쳐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면 그 곳에서 용무를 보는 것은 금지사항(하람)입니다.

- 탁 트인 광야에 있을 때는 끼블라(예배 방향)를 향하여 용무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화장실이 건물 내에 있어 사방이 막혀있다면 방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지자ﷺ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서 얼굴을 끼블라 방향으로 돌리지 말며 소변이나 대변시에 등을 끼블라 방향으로 돌리지 말라."('알-부카리'(no.286)와 '무슬림'(no.264)이 수집한 하디쓰)

- 옷이나 몸에 오물이 튀겨 묻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의무사항(와집)입니다. 만약 오물이 묻었다면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 용무를 해결한 후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청결을 구합니다 :

오물(나자사)을 제거할 때는 왼쪽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불결상태(하다쓰)

- **불결상태(하다쓰) :** 인간의 상태를 추상적으로 묘사하는 단어로, 이 상태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구체적 사물인 오물(나자사)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 불결 상태(하다쓰)는 청정한 물로써 우두(세정)를 하거나 구슬(전체 세정)을 할 때 사라집니다. 청정한 물이란: 오물(나자사)이 섞이지 않아 색깔이나 맛이나 냄새가 바뀌지 않은 물을 뜻합니다. 우두(세정)를 하면 청결상태(따하라)가 되며, 다시 불결상태(하다쓰)가 되기 전까지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불결 상태(하다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두(세정)를 통해 사라지는 불결 상태(하다쓰)가 있으며, 이는 소불결상태(하다쓰 아쓰가르)라고 합니다.

구슬(전체 세정)을 통해 온 몸을 물로 씻었을 때만 사라지는 불결 상태(하다쓰)가 있으며, 이는 대불결상태(하다쓰 아크바르)라고 합니다.

하다쓰 아쓰가르와 '우두' :

청결상태(따하라)가 깨졌을 때에 예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두(세정)를 해야 하며, 우두를 통해 획득한 청결상태(따하라)가 깨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변이나 대변을 보았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 방귀처럼 음부나 둔부에서 무엇이 나왔을 때 청결상태(따하라)는 깨집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청결상태를 깨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그대들 중 누군가가 화장실에 다녀왔거나"(꾸란 제 4장 43절)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예배 중 방귀와 같은 불결상태(하다쓰)가 발생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들 경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기 전까지는 예배를 깨뜨리지 말도록 하라." ('알-부카리'(no.175)와 '무슬림'(no.361)이 수집한 하디쓰)

2 성욕을 가지고 맨손으로 성기를 만졌을 때 청결상태(따하라)는 깨집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기를 만진 자는 우두(세정)를 하도록 하라."('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하디쓰, no.181)

3 낙타 고기를 먹었을 때 청결상태(따하라)는 깨집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질문받았습니다. "낙타 고기를 먹은 후에 우두(세정)를 해야 합니까?" 이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노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360)

4 잠이나 정신이상이나 음주 등으로 이성이 사라진 경우 청결상태(따하라)는 깨집니다.

우두(세정)는 어떻게 하는가?

우두(세정)와 청결상태(따하라)에 머무는 것은 가장 좋은 선행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바라는 진실된 의도를 가졌을 때, 그분께서는 우두(세정)를 통해 우리의 실수와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슬림이 우두(세정)를 하여 얼굴을 씻을 때 그의 눈이 보았던 모든 나쁜 것들이 물과 함께 얼굴에서 빠져나오며, 손을 씻을 때 그의 손이 뻗쳤던 모든 나쁜 것들이 물과 함께 손에서 빠져나오며, 발을 씻을 때 그의 발이 걸었던 모든 나쁜 것들이 물과 함께 빠져나와 결국 무슬림은 죄가 없는 순수한 상태가 되노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244)

소불결상태(하다쓰 아쓰가르)를 사라지게 하는 우두(세정)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슬림이 우두(세정)를 하고 싶을 때는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도란 마음 속에서 생각으로 하는 의도를 뜻하며 의도는 모든 선행의 선결 조건입니다. 선지자ﷺ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행위는 오직 의도로써 평가되노라." ('알-부카리'(no.1)와 '무슬림'(no.1907)이 수집한 하디쓰) 그 후, 우두(세정)를 시작하는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실시하며 각 동작 사이에 오랜 간격을 두어서는 안 되며 연속적으로 실시합니다.



1

'비스밀라'(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합니다.



2

물로써 손을 세 번(권장사항) 씻습니다.



3

물로써 입을 헹굽니다. 즉 물을 입에 넣어 입 속의 물을 움직인 후 뱉어냅니다. 세 번 하는 것이 권장사항(무스타합)이며, 한 번 헹구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사항(와집)입니다.



4

물로써 콧속을 헹굽니다. 즉 콧속에 물을 넣은 후, 날숨을 통해 물을 밖으로 뱉어냅니다. 콧속에 물을 깊게 넣는 것이 권장사항(무스타합)이지만, 이것이 통증을 유발할 경우는 예외가됩니다. 세 번 하는 것이 권장사항(무스타합)이며, 한 번 헹구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사항(와집)입니다.



5

얼굴을 씻습니다. 얼굴은 이마의 가장 윗부분, 즉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부분부터 턱의 가장 아랫부분과 양 귀 사이까지입니다. 그리고 귀는 얼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 씻는 것이 권장사항(무스타합)이며, 한 번 씻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사항(와집)입니다.



6

손가락의 가장 끝부분부터 팔꿈치까지를 씻습니다. (오른쪽 후에 왼쪽의 순서로) 양 팔꿈치는 씻는 부분에 포함됩니다. 세 번 씻는 것이 권장사항(무스타합)이며, 한 번 씻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사항(와집)입니다.



7

물로 손을 적시어 젖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이마 부분부터 시작하여, 목덜미와 머리카락이 만나는 머리 끝부분까지 쓰다듬습니다. 그 후 다시 한번 머리 끝 부분에서 이마 부분까지 쓰다듬는 것이 순나입니다. 머리는 다른 신체 부분과는 달리 세 번 쓰다듬는 것이 권장사항(무스타합)은 아니며, 한번으로 족합니다.



8

귀를 쓰다듬습니다. 즉, 머리를 쓰다듬은 직후 검지 손가락으로 귀 내부를 쓰다듬고 엄지 손가락으로 귀 외부도 쓰다듬습니다.



9

발을 씻는데, 복숭아뼈까지를 씻습니다. 세 번 하는 것이 권장사항이며 (오른쪽 후에 왼쪽의 순서로) 한 번 씻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와집) 입니다. 양말을 신고 있다면 쓰다듬기(마스흐)를 해도 무방합니다. 단 쓰다듬기(마스흐)에는 갖추어야 할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p. 99 참조)



대불결상태(하다쓰 아크바르)와 구슬(전체 세정)

구슬(전체 세정)이 의무가 되는 경우 :

예배와 따와프(카으바 주위를 도는 경배행위)를 하기 위해서 구슬(전체 세정)이 의무사항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음에도 구슬(전체 세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 상태는 대불결상태(하다쓰 아크바르)라고 불립니다.

구슬(전체 세정)이 의무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고 있었든지 깨어 있었든지에 상관없이 쾌락이 동반된 정액(마니)의 분출이 있은 경우.

'마니'(정액)는 성적 흥분이나 쾌락 상태에서 나오는 흰색의 불투명한 액체를 말합니다.

2 성교가 이루어진 경우. 여기서 말하는 성교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속에 삽입된 경우를 뜻합니다. 비록 사정이나 정액의 분출이 없었던 경우일지라도 귀두가 삽입되었다면 그것은 성교로 간주되며 이 때는 구슬(전체 세정)이 의무가 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성교 후의) '자나바' 상태라면 몸을 청결히 하라."(꾸란 제 5장 6절)

3 **생리혈이나 출산혈이 나오는 경우 :**

- 생리혈이란 매월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피로서 칠일 정도 지속되는데 개인에 따라 지속 날짜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 출산혈이란 출산을 이유로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피로서 며칠 동안 지속됩니다.

생리혈이나 출산혈을 겪는 여성에게는 여러 규정이 완화되며 이 시기에는 예배와 단식이 면제됩니다. 출혈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하지 못했던 의무 단식을 메꾸어야 하지만 예배는 메꾸지 않습니다. 출혈의 시기에는 배우자와의 성교가 금지됩니다.



물이 몸의 전 부분에 닿는 것만으로도 구슬(전체 세정)이 성립됩니다.

그렇지만 성교 이외의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허락됩니다. 그리고 생리혈이 완전히 멎으면 해당 여성은 구슬(전체 세정)을 해야 합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생리 중에 있는 여성들을 멀리하라. 그리고 그녀들이 깨끗해질 때까지 그녀들에게 다가가지 말라. 그리고 그녀들이 청결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녀들에게로 가라." (꾸란 제 2장 222절) 여기서 '청결해졌다'는 것은 구슬(전체 세정)을 실시했다는 뜻입니다.

무슬림이 자나바(성적 이유로 발생한 불결함)나 큰 불결상태(하다쓰)에서 벗어나 청결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무슬림이 청결해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후 몸의 전 부분을 물로 씻었다면 그것으로 구슬(전체세정)이 성립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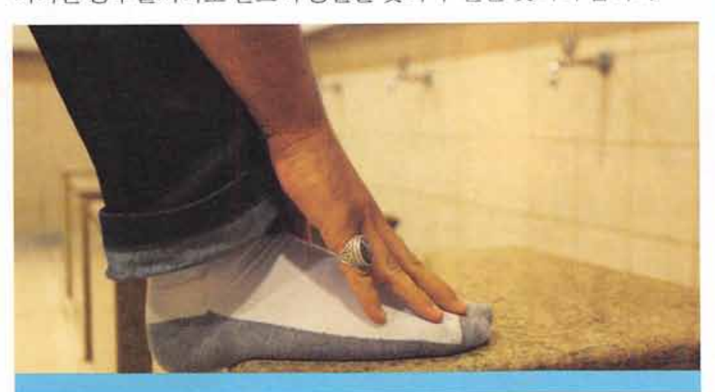
- 그러나 더 완벽한 구슬(전체 세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부와 둔부를 물로 씻고(이스틴자), 그 후 우두(세정)를 하며, 그 후 나머지 신체 부분을 물로 적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선지자ﷺ의 순나(언행)에 부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큰 보상이 있습니다.

- 무슬림이 자나바(성적 이유로 발생한 불결함)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슬(전체 세정)을 실시하였다면 이 구슬은 우두(세정)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에 구슬 뒤에 다시 우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구슬 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 안에 우두가 포함되어 있는 방식으로서 그것이 바로 선지자ﷺ의 순나(언행)입니다.

양말 위에 실시하는 쓰다듬기(마스흐) :

이슬람의 관용 중의 하나는 우두(세정)시에, 젖은 손으로 양말을 쓰다듬음(마스흐)으로써 발을 씻는 행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양말을 신기 전에 반드시 청결상태(따하라)에 있어야 하며 이 마스흐는 비여행자에게 24시간 동안, 그리고 여행자에게 72시간 동안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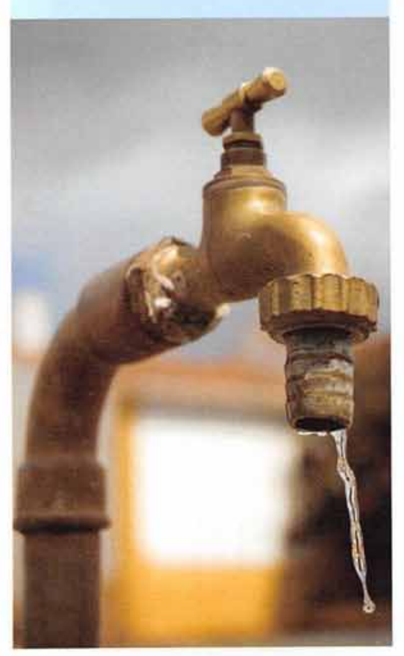
그렇지만 자나바(성적 이유로 발생한 불결함)로 인한 구슬의 경우,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반드시 양말을 벗어 두 발을 씻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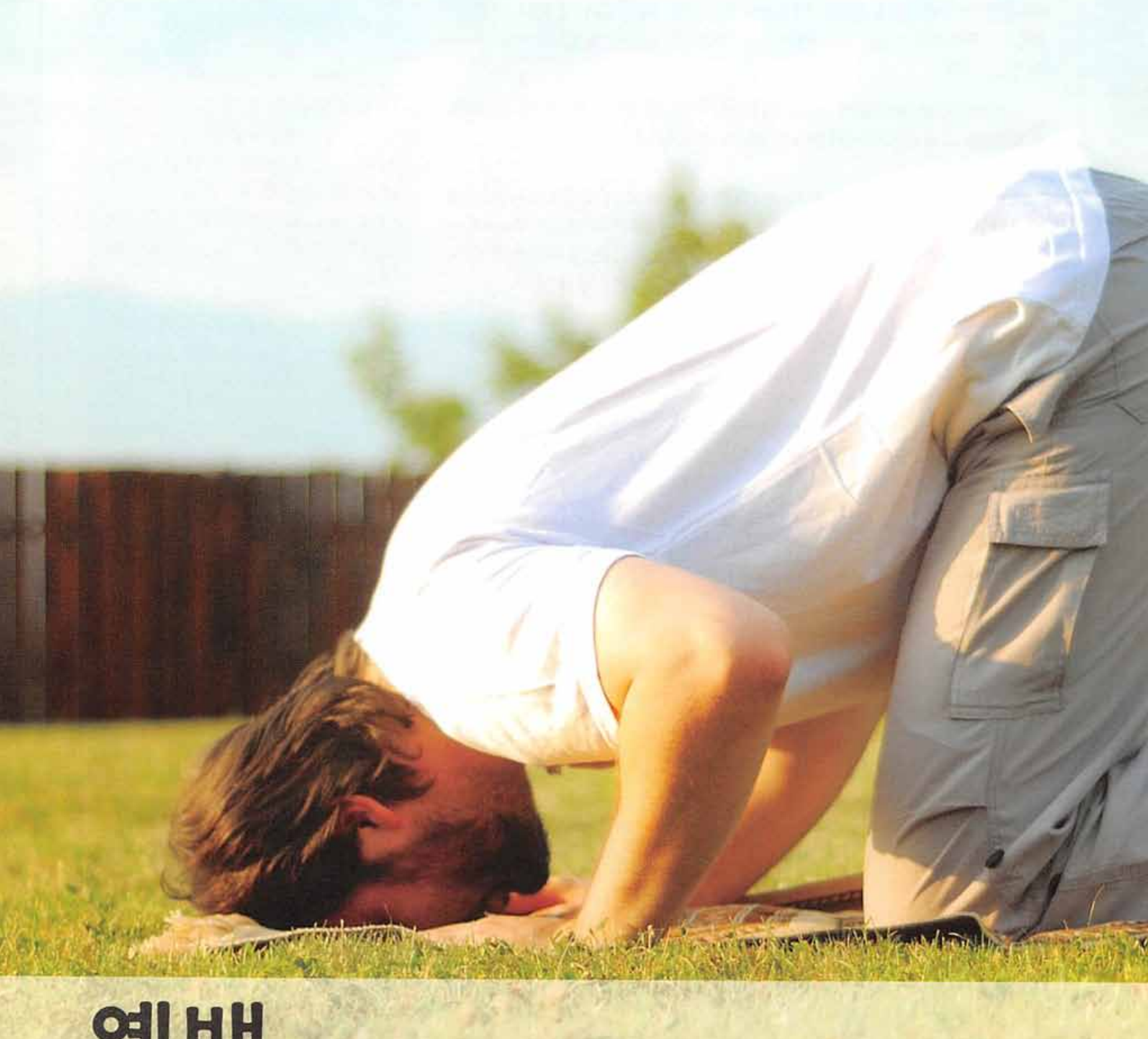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

병에 걸렸거나 물이 없거나 마실 물밖에 없을 경우 등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흙을 사용하여 타얌뭄(건조 세정)을 하여 우두(세정)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타얌뭄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타얌뭄(건조 세정)의 방법 : 두 손바닥으로 흙을 가볍게 한번 친 후, 흙이 남아 있는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그런 후 왼손바닥으로 오른손등을 쓰다듬고 오른손바닥으로 왼손등을 쓰다듬습니다.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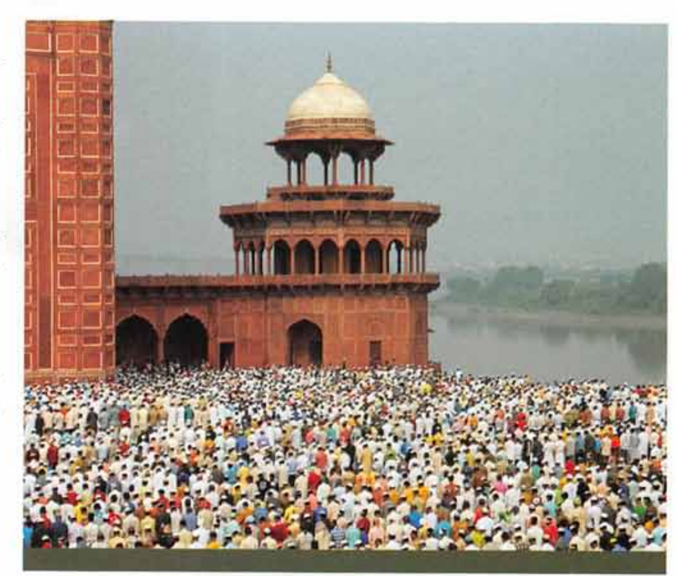
3

예배는 이슬람의 실천 기둥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경배행위 중의 하나이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슬림에게 예배를 꾸준히 드릴 것을 명령하셨고 장거리 여행 중이거나 아플 때조차도 예배는 의무 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차례 :

예배

예배의 언어적 의미는 '기도'입니다. 예배는 주님과 종복간의 그리고 창조자와 피조물간의 연결고리입니다. 예배는 복종 그 자체이며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안식처를 구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요청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을 기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영혼은 정화되며 우리 자신의 실제 위치를 알게 되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자애로움을 느낍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더욱 잘 따르게 되고 부당함과 수치스런 행위나 불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예배는 추악한 행위나 비난받을 행위를 예방하노라." (꾸란 제 29장 45절)



예배의 위치와 그 중요성

예배는 몸으로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경배행위로서 이슬람의 핵심적인 경배 행위입니다. 예배시에는 마음과 이성과 혀 모든 것이 사용되며 예배의 중요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

예배에는 다음과 같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

1. 예배는 이슬람의 실천 기둥 중의 두 번째입니다. 선지자ﷺ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슬람은 다섯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노라.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라는 증언,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알-부카리'(no.8)와 '무슬림'(no.16)이 수집한 하디쓰). 기둥은 건축물의 다른 요소들이 기대고 있기에, 기둥 없이는 건축물이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2. 이슬람법(샤리아)은 우리에게 무슬림과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로 선지자ﷺ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우상숭배와 불신 사이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음이 있노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82)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그들간의 계약은 예배라;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실로 불신한 것이라." ('앗-티르미디'(no.2621)와 '안-나사이'(no.463)가 수집한 하디쓰)

3.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장거리 이동 중이거나 그렇지 않을 때도, 평상시나 전쟁시에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도 능력껏 예배를 드릴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갈이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히 예배를 드리라"(꾸란 제 2장 238절) 또한 그분은 진정으로 믿는 자를 묘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 꾸준하더라." (꾸란 제 23장 9절)

예배의 축복 :

꾸란과 순나는 예배의 축복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으며, 예배의 축복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

1 예배는 죄를 씻어줍니다. 선지자ﷺ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다섯 번 의무 예배는 죄를 씻어주며 금요일 예배는 다음 금요일 예배 전까지의 죄를 씻어주노라. 이는 대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서라." ('무슬림'(no.233)과 '앗-티르미디'(no.214)가 수집한 하디쓰)

2 예배는 무슬림의 삶을 밝혀주는 빛이기에 그가 선행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예배는 추악한 행위나 비난받을 행위를 예방하노라."(꾸란 제 29장 45절) 그리고 선지자ﷺ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빛이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223)

3 예배는 심판의 날 가장 먼저 질문 받는 사항입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다면 나머지 행위도 받아들여질 것이며, 예배가 거부된다면 나머지 행위도 거부될 것입니다. 실로 선지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날 종복이 가장 먼저 심판 받을 사항은 예배라. 예배가 온당하다면 나머지 행위도 온당할 것이며, 예배가 부실했다면 나머지 행위도 부실할 것이라." ('앗-따바라니'가 수집한 하디쓰, no.1859)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으며, 전쟁 중에서나 재앙이 닥쳤을 때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믿는 자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휴식을 찾고 평온함을 느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는 선지자ﷺ께서 있어 가장 사랑스런 행위였습니다. "나에게 있어 예배는 즐거움이라." ('안-나사이'가 수집한 하디쓰, no.3940)

또한 선지자께서는 예배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했던 '빌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랄이여. 예배를 통해 우리를 기쁘게 하시오." ('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하디쓰, no.4985)

선지자ﷺ께 슬픈 일이 발생했을 때 그는 곧장 예배를 드리시곤 하셨습니다.('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하디쓰, no.1319)

예배가 의무사항이 되는 자는 누구인가?

예배는 이성을 지닌 모든 성인 무슬림에게 의무가 됩니다. 그러나 생리 중이거나 출산혈이 나오는 중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며, 그 때 드리지 못한 예배를 보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p.144 참조)

다음 기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인입니다.

만 15세가 된 경우

음부에 털이 나기 시작한 경우

몽정이나 사정을 경험한 경우

생리를 경험하거나 임신을 한 경우

예배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선결 조건은 무엇인가?

1 불결 상태(하다쓰)나 오물(나자사)로부터 자유로운 청결상태(따하라)에 있을 것 : 자세한 내용은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p.92 참조).

2 '아우라'(가려야 할 부분)를 가릴 것

옷으로써 아우라를 가려야 하며, 짧거나 비치는 옷을 입어 몸매가 드러난다면 제대로 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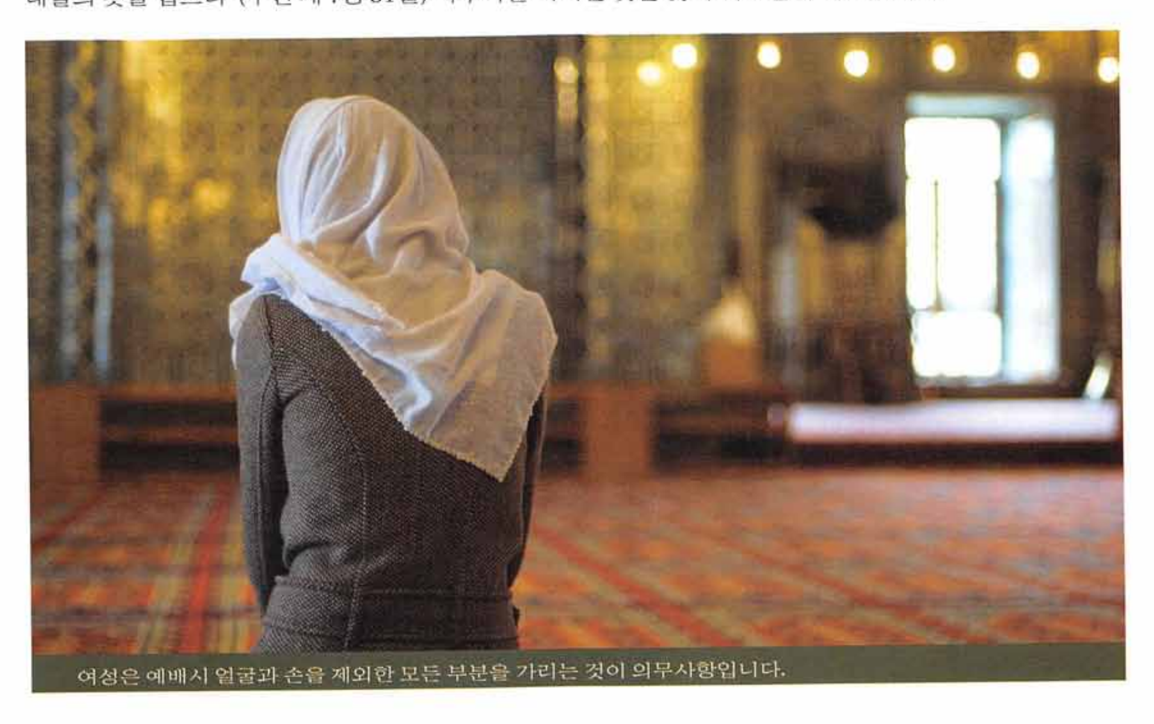
아우라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

예배시 성인 여성의 아우라 : 얼굴과 손을 제외한 모든 부분.

어린이의 아우라 : 음부와 둔부.

성인 남성의 아우라 : 배꼽에서 무릎까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담의 자손이여! (예배를 위해)성원에 있을 때는 언제나 그대들의 옷을 입으라"(꾸란 제 7장 31절) 아우라를 가리는 것은 옷의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여성은 예배시 얼굴과 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가리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3 끼블라(예배 방향)를 향할 것 :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그대가 어디에서 나왔든 그대의 얼굴을 하람 성원 쪽으로 돌리라" (꾸란 제 2장 14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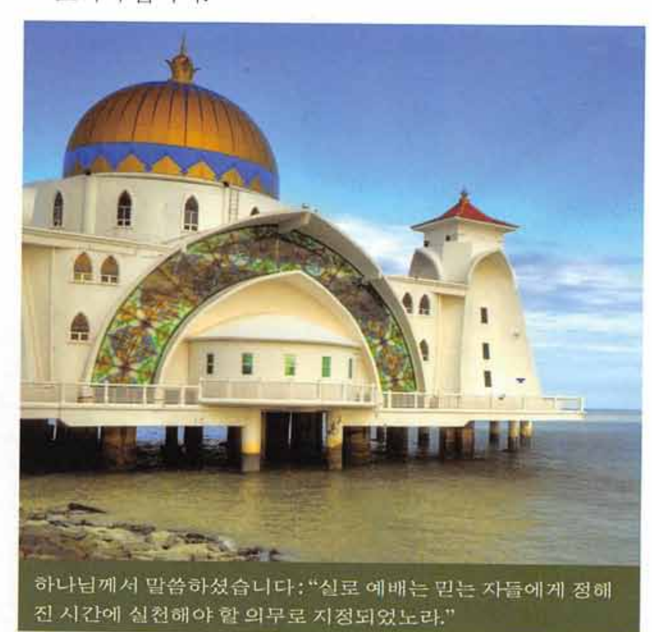
- 무슬림의 예배 방향은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에 위치한 하람 성원의 카으바(정육방체 건물, 한국기준으로 서쪽방향)입니다. 카으바를 세운 사람은 모든 선지자들의 아버지인 이브라힘(아브라함)(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입니다. 이후 선지자들(그들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역시 카으바로 성지순례를 실시하였습니다. 카으바는 단순한 건축물에 불과하며 우리에게 이익도 해악도 끼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시 카으바 방향으로 향할 것을 명령하셨고 이에 우리 무슬림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예배시 일제히 하나의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것입니다.
- 카으바가 바로 앞에 있다면 무슬림은 카으바로 예배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카으바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다면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카로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한국기준 약 285도). 방향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ﷺ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쪽과 서쪽 사이가 끼블라이라." ('앗-티르미디'가 수집한 하디쓰, no.342)
- 몸이 아프거나 기타 이유로 정확한 방향을 취할 수 없다면 끼블라는 더 이상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무사항이 면제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의 능력껏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꾸란 제 64장 16절)

4 예배 시간의 도래 :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은 예배 성립의 조건입니다. 정해진 시간 이전에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예배는 믿는 자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실천해야 할 의무로 지정되었노라." (꾸란 제 4장 103절)

예배 시간이 도래했음을 재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며 다음 사항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

- 가장 훌륭한 예배는 예배시간이 되었을 때에 곧바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 정해진 예배 시간 내에 예배를 드려야하며, 그 시간 이후로 예배를 늦추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 잠 때문에 혹은 깜빡하고 잊어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잠에서 깨거나 기억이 난 즉시 예배를 드리어 놓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실로 예배는 믿는 자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실천해야 할 의무로 지정되었노라."

다섯 번의 의무 예배와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무슬림에게 아침 저녁으로 하루 다섯 번의 예배를 의무로 지정하셨고, 예배는 이슬람의 기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각 예배마다 시간을 두셨으며 그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즈르 예배(새벽 예배): 두 라크아(예배를 세는 단위로서, 예배 시작 후부터 반절을 실시할 때까지를 뜻함)를 드립니다. 파즈르가 떴을 때 그 시간이 시작되는데, 파즈르는 동녘 지평선의 희미한 빛줄기를 뜻합니다. 태양이 뜨면 파즈르 예배 시간이 끝납니다.





두흐르 예배(정오 예배): 네 라크아를 드립니다. 태양이 하늘 꼭대기(천정)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 그 시간이 시작하여, 그림자 길이가 실제 사물의 길이와 같아질 때 예배 시간이 끝납니다.

아쓰르 예배(오후 예배): 네 라크아를 드립니다. 두흐르 예배 시간이 끝날 때 - 즉 그림자 길이가 실제 사물의 길이와 같아질 때 - 그 시간이 시작하여, 태양이 지평선에서 사라질 때 예배 시간이 끝납니다. 무슬림은 제 시간에 예배를 드리어, 태양빛이 약해지고 그 색깔이 노랗게 될 때까지 예배를 늦추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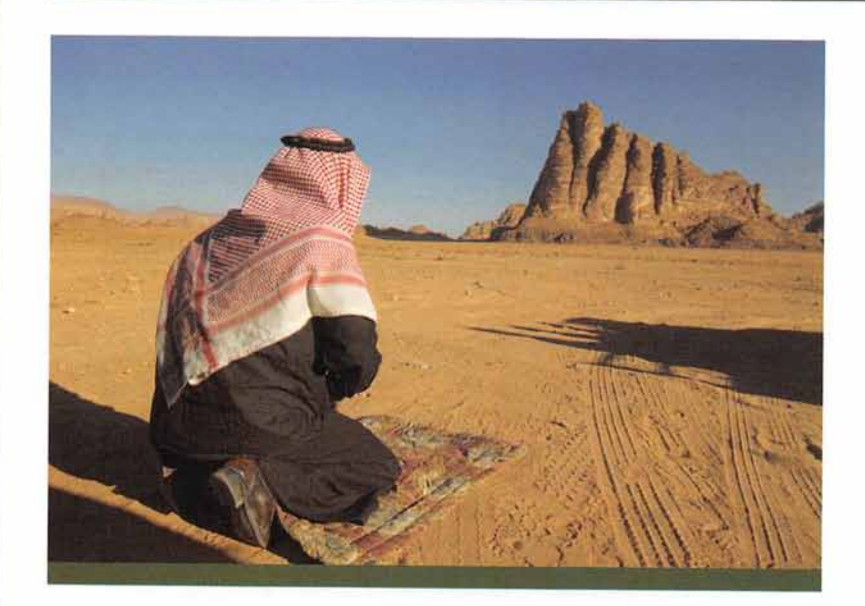
마그립 예배(저녁 예배): 세 라크아를 드립니다. 태양이 지면서 지평선 밑으로 내려가 더 이상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시간이 시작하며, 지평선에 남아있던 붉은 노을빛이 완전히 자취를 감출 때 예배 시간이 끝납니다.

이샤 예배(밤 예배): 네 라크아를 드립니다. 붉은 노을빛이 완전히 자취를 감출 때 그 시간이 시작하여, 한밤중에 예배 시간이 끝납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이샤 예배를 늦추었다면, 반드시 파즈르 예배 시간 이전에 이샤 예배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표를 통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가 직접 예배 시간을 계산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 장소



이슬람은 예배를 드릴 때 합동으로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으며, 그 예배 장소는 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원이 무슬림의 모임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 사이의 형제애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동 예배는 혼자서 드리는 개인 예배보다 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선지자ﷺ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합동 예배는 개인 예배보다 27배 더 많은 축복이 있노라." ('알-부카리'(no.619), '무슬림'(no.650), '아흐마드'(no.5921)가 수집한 하디쓰)

그러나 예배는 성원이 아닌 어느 곳에서도 성립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선지자ﷺ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대지를 예배의 장소로 그리고 청결의 도구로 두셨으니, 내 움마(공동체) 중의 누구라도 예배시간이 다가왔다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알-부카리'(no.328)와 '무슬림'(no.521)이 수집한 하디쓰)

예배 장소가 갖추어야 할 조건 :

이슬람은 예배 장소에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그 장소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브라힘(아브라함)과 이스마일(이스마엘)에게 나의 집을 정화하라고 명하였으니 (카으바 주위를) 도는 자들과 (하람 성원에서) 칩거하는 자들과 (예배하면서) 반절을 하는 자들과 부복을 하는 자들을 위함이라." (꾸란 제 2장 125절) 기본 원칙은, 모든 장소는 깨끗하다고 것이고 오물(나자사)은 예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오물(나자사)이 있다는 정보가 없다면 그 장소를 깨끗한 곳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배 깔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그 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권장 사항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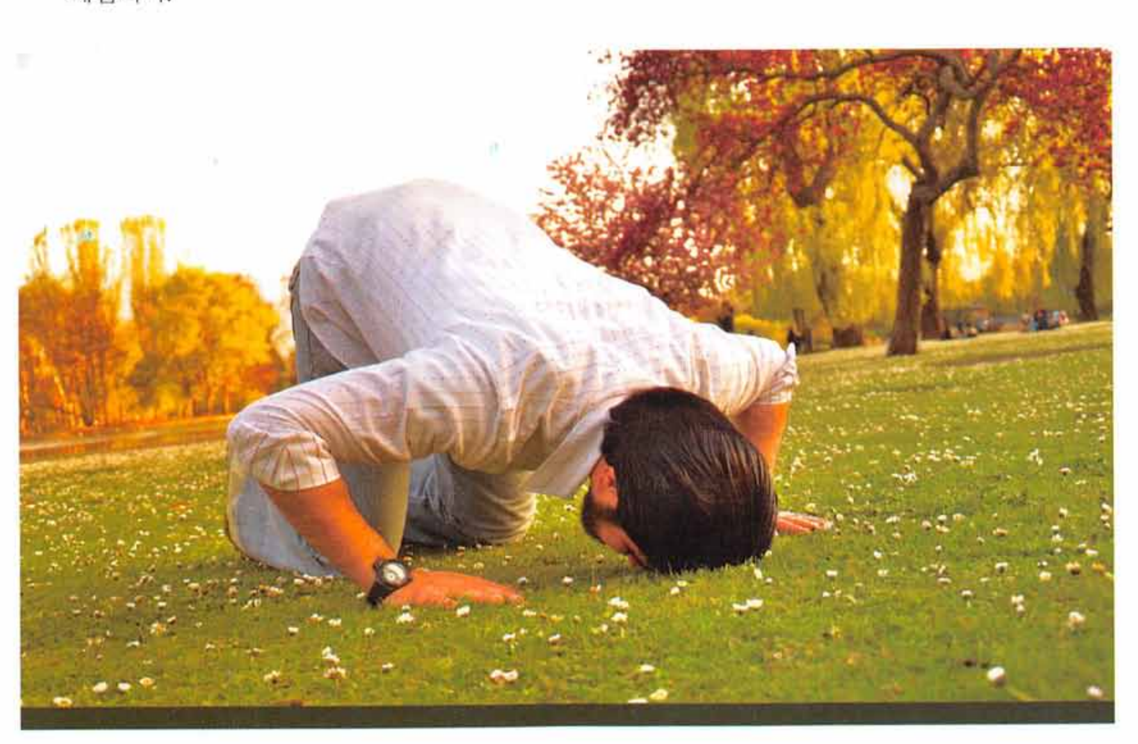
예배 장소를 선택함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

1.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면 해당 장소에서의 예배는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번잡하게 걸어다니는 길거리나 복도나 서 있으면 안 되는 장소 등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로 인해 사람들의 통행이 가로막히고 혼잡이 야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ﷺ)께서는 해를 끼치는 행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해악을 끼쳐서도 안 되노라." ('이븐 마자'(no.234)와 '아흐마드'(no.2865)가 수집한 하디쓰) ㅑ28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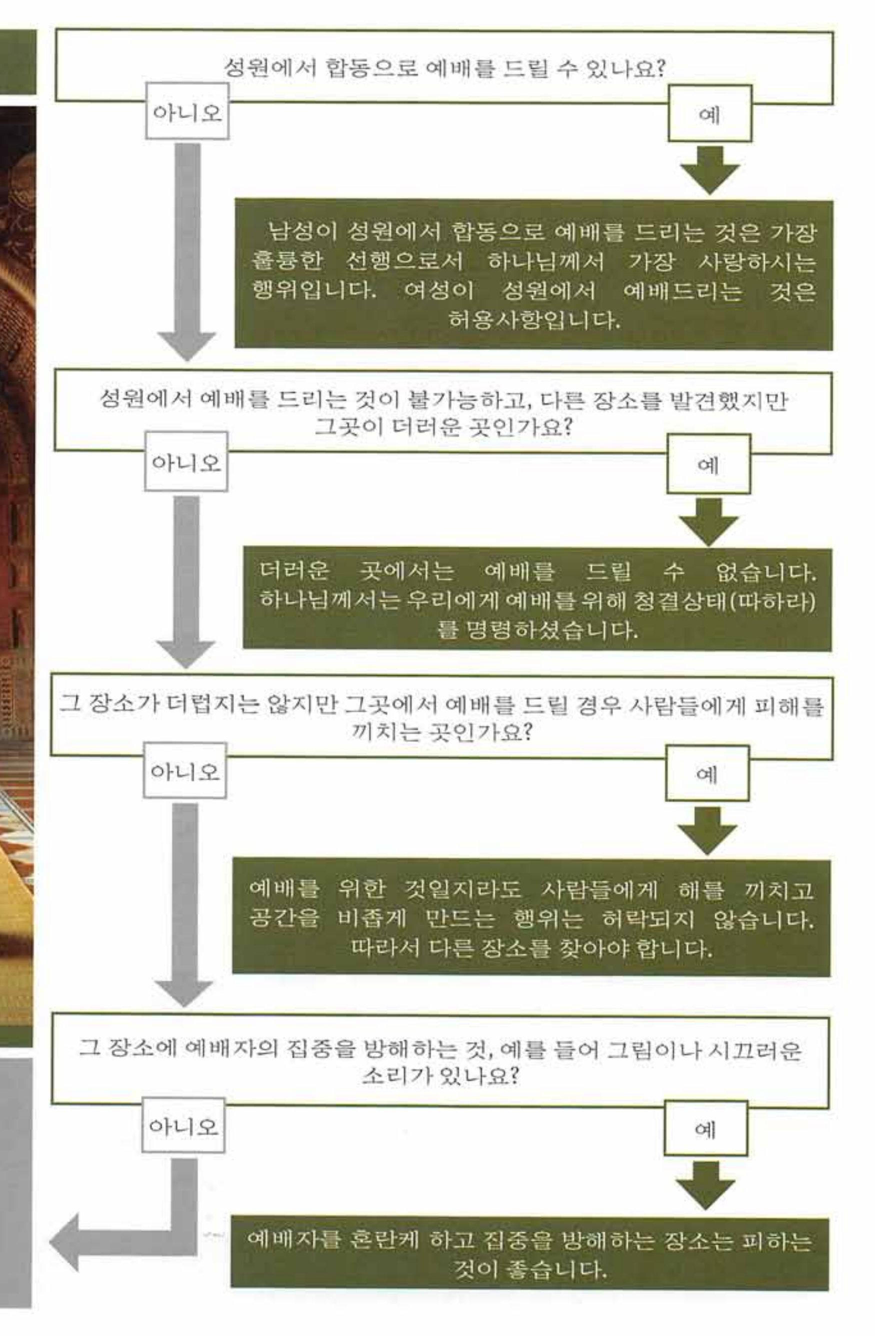
2. 그 장소에 예배자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란한 그림이 있거나 시끄러운 소리나 음악이 들리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3. 특정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할 수 있다면 그 장소에서의 예배는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취한 사람들이나 특정 종교의 광신도들이 근처에 있는 경우입니다. 실로, 축복 가득하시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우상을 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을 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의 것에 기도하는 그들을 욕하지 말라. 그럴 경우 그들이 적의에 차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욕할 것이니. "(꾸란 제 6장 108절)

4. 하나님에 대한 거역 행위가 만연한 장소에서의 예배는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피사항입니다.



예배 장소



우리 움마(공동체)의 특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그분의 자비 중의 하나는 대지 위의 어떤 곳일지라도 예배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법

1 의도 :

의도는 예배의 성립 조건입니다. 즉, 마음 속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의도를 가져야 하며 예배자가 예를 들어 지금 드리는 예배가 마그립 예배인지 이샤 예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리를 내어 의도를 말하는 것은 정확한 예배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의도는 머릿 속에서, 마음으로 가지는 의도입니다. 소리내어 의도를 말하는 것은 틀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ﷺ)께서도, 그의 교우들도 그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예배를 위해 선 상태에서 '알라후 아크바르'(타크비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두 손을 어깨까지 혹은 그보다 약간 위까지 올렸다 내립니다. 예배시 우리의 몸은 끼블라(예배 방향)를 향해야 합니다.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 이외의 다른 문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예를 드높인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 이외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위대하시며, 현세와 현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과 그 어떤 욕망이나 즐거움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향락을 제쳐둔 채 가장 위대하시고 지고하신 하나님 오직 한분께로만 우리 마음과 이성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3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한 뒤 가슴 위에 왼손을 놓고 그 위에 오른손을 놓습니다. 서 있는 상태라면 언제나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다.

4 예배를 여는 다음의 기도(두아)를 읽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수브하나칼라훔마 와 비함디카 와 타바라카스무카 와 타알라 잣두카 와라 일라하 가이루크'(오, 완벽하신 하나님, 찬미받으소서! 당신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은 축복 가득하며 당신의 부는 지고하며 당신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5 다음 구절을 읽습니다. '아우두빌라히 미낫샤이따 니르라짐' (저는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이 구절은 '이스티아다'(보호 요청)라고 하며, 사탄이 끼치는 악으로부터 하나님께 은신처를 구하고 그분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6 다음 구절을 읽습니다. '비스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구절은 '바스말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그분께 도움와 축복을 요청하면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파티하 장과 예배시에 쓰이는 여러 암기문을

외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교한지 얼마 되지 않아 파티하 장(꾸란 제 1장)과 예배시에 쓰이는 여러 암기문을 외우지 못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예배시에 의무적으로 암기해야 할 여러 문장들을 외우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그 문장들은 반드시 아랍어로 말해야만 유효합니다. 예배시 의무적으로 암기해야 할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티하 장,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 '수브하나 랍비얄 아딤'(가장 위엄하신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무한히 감사드리는 자를 들으셨습니다), '랍바나 와라칼 함드'(우리의 주님이시여! 무한한 감사는 당신께 있습니다), '수브하나 랍비얄 아을라'(지고하신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랍비그피르 리'(저의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앗-타샤후드(증언)와 앗-쌀라투 알란 나비(선지자를 위한 기도)라 불리는 두 개의 긴 문장, '앗쌀라무알라이쿰 와라흐마투라'(그대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깃들기를)입니다.

• 위 문장들을 암기하지 못한 무슬림은 예배시 기존에 외우고 있었던 짧은 문장, 예를 들어 '수브하날라'(하나님 찬미받으소서), '알함두릴라'(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 등을 반복해서 말하고, 예배시 서 있을 때는 기존에 외우고 있었던 짧은 꾸란 구절을 반복적으로 낭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의 능력껏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꾸란 제 64장 16절)

• 암기를 다 하지 못한 이 시기에는 합동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이맘(예배 인도자)의 예배는 그 뒤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기 때문입니다.

7 파티하 장(개경장, 즉 꾸란 제 1장)을 낭송합니다. 파티하 장은 꾸란의 모든 장 중에 가장 위대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티하 장을 계시함으로써 그분의 사도(ﷺ)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 나는 그대에게 반복되는 일곱개와 위대한 꾸란을 주었도다."(꾸란 제 15장 87절) '반복되는 일곱개'는 파티하 장을 뜻합니다. 파티하 장의 절이 총 7개이기에 이렇게 이름붙은 것입니다.

파티하 장을 배우는 것은 모든 무슬림에게 의무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나 합동 예배를 드릴 때나 파티하 장을 읽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 예배자가 파티하 장 낭송을 끝냈을 때나 혹은 이맘(예배 인도자)이 파티하 장 낭송을 끝냈을 때 '아민'이라고 말합니다. '아민'은 '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9 첫번째 두 라크아 때는 파티하 장을 낭송한 후 꾸란의 다른 장(수라)이나 절(아야)을 낭송합니다. 반면 세번째 라크아나 네번째 라크아에서는 파티하 장만을 낭송합니다.

• 파즈르 예배와 마그립 예배와 이샤 예배의 첫번째 두 라크아 때는 소리내어 꾸란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두흐르 예배나 아쓰르 예배시는 조용히 꾸란을 낭송합니다.

• 예배에 쓰이는 나머지 암기문들은 조용히 말합니다.

10 그 후 예배를 시작할 때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루쿠으(반절) 자세를 취하기 위해 양 손을 어깨나 그보다 조금 높은 위치까지 올렸다 내립니다. 이 때 우리의 몸은 끼블라(예배 방향)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파티하 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함두릴라히 랍빌 알라민'(무한한 감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있도다) : '알함두릴라'(무한한 감사는 하나님께 있도다), 즉 하나님의 속성과 행동, 그분의 드러나는 은총과 드러나지 않는 은총에 대해 그분은 사랑과 경외로써 칭송받는다는 뜻입니다. '랍브'(주님), 즉 창조자, 소유자, 최종의 결정자이자 은총을 베푸시는 분. '알-알라민'(존재하는 모든 것)은 위엄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물을 뜻하며, 인간과 '진'과 천사와 동물과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아르라흐마 니르라힘'(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분) :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라흐만'은 모든 것에 대한 자비를 지니신 분이라는 뜻이며, '알-라힘'은 그분의 종복 중 믿는 자들에 대한 자비를 지니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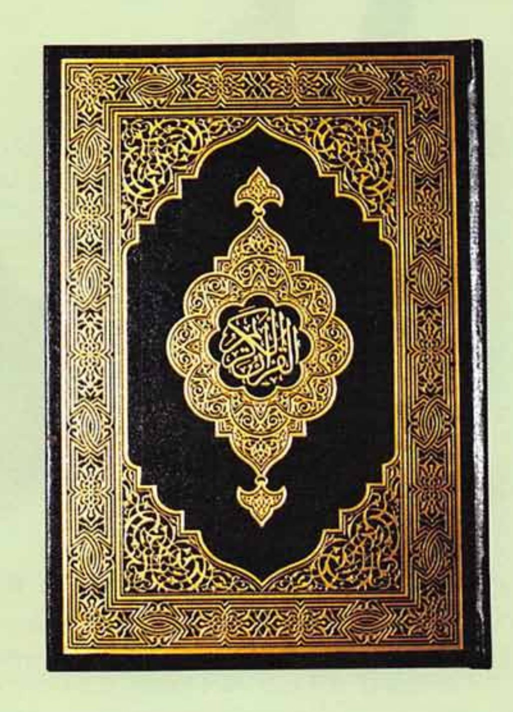
'말리키 야우밋 딘'(보응의 날(심판의 날)의 집권자.) : 보상과 응징이 있을 그날(야우뭇 딘)의 소유자이자 최종의 결정자(말리크). 이 절은 무슬림에게 최후의 날을 상기시키고 선행을 실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야카 나으부두 와 이야카 나스타인'(저희들은 당신만을 경배하며 당신께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오,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경배 행위는 당신 한분만을 위한 것이며(이야카 나으부두), 경배 행위에 있어 우리는 그 어떤 방식이 되었던간에 결코 당신께 대등한 존재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당신 한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이야카 나스타인) 모든 일은 당신 손에 달려 있으니 당신의 최종 결정에 있어 그 누구의 티끌만큼의 간섭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흐디낫 씨라딸 무스타낌' (저희들을 올곧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 '이흐디나'(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즉 우리에게 올곧은 길을 알려주시고 가리쳐주시어 성공케 해주시고, 당신을 뵐 때까지 우리가 그 길위에서 굳건히 머물게 해주십시오. '올곧은 길'(앗-씨라똘 무스타낌)은 이슬람을 뜻합니다. 이슬람은 분명한 길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그분께서 준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 올곧은 길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끝막음인 무함마드ﷺ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길이며, 인간의 행복은 이슬람을 꾸준히 실천할 때만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씨라딸라디나 안암타 알라이힘'(그 길은 당신께서 은총을 베푸신 자들의 길로서) : 올곧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당신께서 은총을 베푸셨던, 그리하여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을 따랐던 선지자들과 선행을 실천하는 자들이 걸었던 길을 뜻합니다.

'가이릴 마그두비 알라이힘 와랏달린'(당신의 노여움을 산 자들의 길도 아니며 방황하는 자들의 길도 아닙니다) : 즉, 당신께서 노여워하시고 분노하신 자들이 걸었던 길로부터 우리를 멀게하여 주십시오(가이릴 마그두비 알라이힘). 그들은 진리를 알고도 그 진리를 실천하지 않은 자들로 유대인들과 그들와 유사한 자들을 뜻합니다. 또한 방황하는 자들이 걸었던 길로부터 우리를 멀게하여 주십시오(와랏달린). 그들은 무지하여 진리로 향하는 길을 잡지 못한 자들로 기독교인들과 그와 유사한 자들입니다.



11 루쿠으(반절) 자세를 위해 우리의 허리를 끼블라방향으로 구부립니다. 그리고 등과 머리는 가로로 일직선을 이루어야 하며 양 손은 무릎 위에 둔 채로 다음을 말합니다. '수브하나 랍비얄 아딤'(가장 위엄하신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이 구절은 세 번 말하는 것이 권장사항이며, 한 번 말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사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예를 드높이기 위해 루쿠으(반절)를 하는 것입니다.

'수브하나 랍비얄 아딤'(완벽하시고 가장 위엄하신 저의 주님이십니다)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장 위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결함으로부터 자유로우신 가장 성스러운 분이심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 자신을 겸허히 낮춘 채로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반절을 합니다.'

12 루쿠으(반절)에서 일어나 다시 서 있는 자세로 돌아오며 이 때 이전에 했던 것처럼 양 손은 어깨 높이까지 올렸다 내리며 다음을 말합니다.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찬미드리는 자를 들으셨습니다) 이 때 우리 몸은 끼블라(예배 방향)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13 그 후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땅으로 엎드려 절을 하는데, 우리 몸의 일곱 부분, 즉 이마와 코, 양 손, 양 무릎, 양 다리가 땅에 맞닿아야합니다. 수주드(부복) 상태에서의 권장사항은 양 손을 옆구리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배를 양 허벅지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며 양 허벅지를 양 다리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팔 앞부분은 일으켜세워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립니다.

14 부복(수주드) 상태에서는 다음을 말합니다. '수브하나 랍비얄 아을라'(완벽하시고 지고하신 저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말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 사항이며 세번 말하는 것은 권장사항입니다.

부복(수주드)은 하나님께 기도(두아)를 하기에 가장 훌륭한 기회이며 따라서 우리는 부복시에 의무 디크르(하나님 기억하기)를 말한 후 현세와 내세에서의 좋은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복이 그의 주님과 가장 가까운 때는 그가 부복(수주드)

을 할 때라. 그러니 그 때 기도(두아)를 많이 하도록 하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482)

'수브하나 랍비얄 아을라'(완벽하시고 지고하신 저의 주님 이십니다)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가장 지고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전능을 드높이며, 가장 지고하신 그분께서는 하늘들 위에 계시며 모든 종류의 결함이나 단점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이마를 땅에 맞댄 채 자신을 겸허히 낮춘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 우리와, 지고하신 창조주간의 커다란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해 자신을 더욱 낮추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15 그 후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앉은 상태를 취하는데, 이 때의 권장사항은 왼쪽 발 위에 엉덩이를 올려 앉은 채로 오른쪽 발꿈치를 위로 올려세우고 양 손은, 무릎과 가장 가까운 허벅지 부분에 놓는 것입니다.

예배시 앉은 자세를 취할 때 항상 이 방법으로 앉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다만 앗-쌀라투 알란 나비(선지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오른쪽 발은 동일한 방식으로 하되 왼쪽 발은 밑에서 오른쪽으로 뻗어 왼쪽 발의 끝부분이 땅에 맞닿게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방식으로 앉을 시 무릎에 통증을 유발하거나 적응이 잘 되지 않아 힘든 경우, 언급된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을 취하여 앉은 자세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16 부복(수주드) 사이의 앉은 자세에서는 '랍비그피르 리'(저의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세번 말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17 그 후 두번째 부복(수주드)를 하는데, 첫번째 수주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합니다.

18 부복(수주드) 자세에서 일어나 서있는 자세(끼얌)로 돌아오면서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19 두번째 라크아를 시작합니다. 방식은 첫번째 라크아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20 두번째 라크아의 두번째 수주드 후에 앉은 자세에서 다음의 증언(앗-타샤후드)을 외웁니다. "앗타히야투 릴라히 왓쌀라와투 왓따이바트.(모든

인사와 예배와 좋은 말은 하나님을 위해 것입니다.) 앗쌀라무 알라이카 아이유한 나비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후.(오, 선지자시여!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와 축복이 당신께 깃들기를.) 앗쌀라무 알라이나 와알라 이바딜라힛 쌀리힌.(우리들에게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와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아브두후 와라술루후.(저는 하나님 이외에 경배 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하며, 저는 무함마드께서 그분의 종복이자 선지자임을 증언합니다.)'

21 그 후, 예배가 세 라크아거나 네 라크아일 경우에는 다시 일어나 서 있는 자세에서 꾸란을 낭송하는데, 첫번째나 두번째 라크아와는 달리 파티하 장(꾸란 제 1장)만을 외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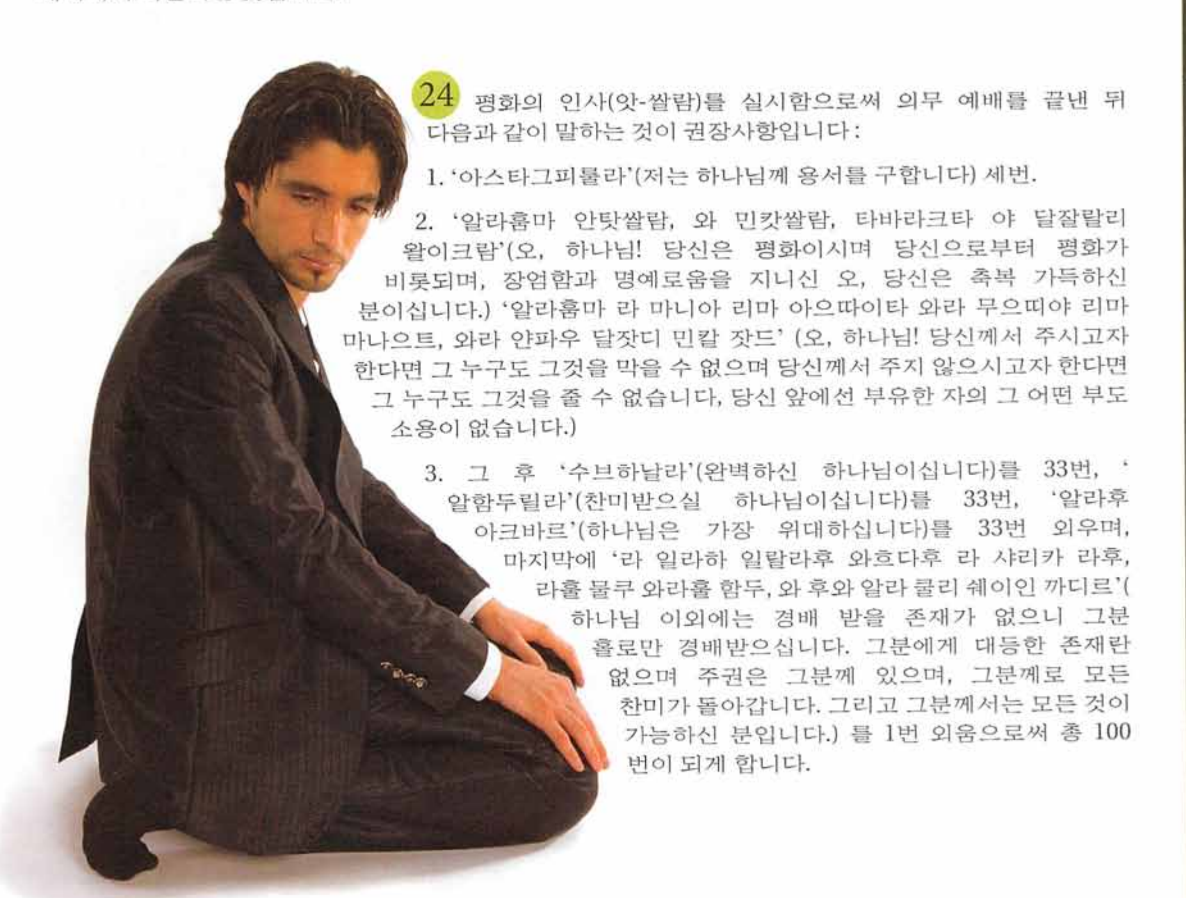
예배가 두 라크아, 예를 들어 파즈르 예배(새벽 예배)일 경우는 계속 앉은 상태에서 선지자를 위한 기도(앗-쌀라투 알란 나비)를 외웁니다. 상세한 설명은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 마지막 라크아의 두번째 수주드 후에 앉은 상태에서 증언(앗-타샤후드)과 선지자를 위한 기도(앗-쌀라투 알란 나비)를 외웁니다. '앗-쌀라투 알란나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라훔마 쌀리 알라 무함마드 와알라 알리 무함마드, 카마 쌀라이타 알라 이브라힘 와알라 알리 이브라힘, 인나카 하미둔 마지드' (오, 하나님! 당신께서 이브라힘(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주신 것처럼, 무함마드와 그의 가족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주십시오, 실로 당신께서는 가장 영광되신 분이시며 가장 영예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알라훔마 바리크 알라 무함마드 와 알라 알리 무함마드, 카마 바라크타 알라 이브라힘 와 알라 알라 이브라힘, 인나카 하미둔 마지드' (오, 하나님! 당신께서 이브라힘(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무함마드와 그의 가족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실로 당신께서는 가장 영광되신 분이시며 가장 영예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 후에 다음의 기도(두아)를 하는 것은 권장 사항입니다. '아우두빌라히 민 아다비 자한남, 와 아다빌 까브르, 와민 피트나틸 마흐야 왈마마트, 와민 피트나틸 마시힛 닷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의 고통과, 무덤의 고통과, 삶과 죽음의 유혹과, '닷잘'(적그리스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합니다).' 개인적으로 원하는 내용으로 기도(두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23 그 후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당신에게 평화와 하나님의 자비가 깃들기를)라고 말하며 그 후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이 동작(평화의 인사(앗-쌀람))으로써 예배가 종료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는 것(타크비르)이며 예배의 끝은 '앗쌀라무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하는 것 (타슬림)이라." ('아부 다우드'(no.61)와 '앗-티르미디'(no.3)이 수집한 하디쓰) 즉, 가장 첫번째 타크비르를 통해 예배로 들어간 후에 타슬림을 통해 예배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24 평화의 인사(앗-쌀람)를 실시함으로써 의무 예배를 끝낸 뒤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

1. '아스타그피룰라'(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세번.

2. '알라훔마 안탓쌀람, 와 민캇쌀람, 타바라크타 야 달잘랄리 왈이크람'(오, 하나님! 당신은 평화이시며 당신으로부터 평화가 비롯되며, 장엄함과 명예로움을 지니신 오, 당신은 축복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알라훔마 라 마니아 리마 아으따이타 와라 무으띠야 리마 마나으트, 와라 얀파우 달잣디 민칼 잣드' (오, 하나님! 당신께서 주시고자 한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으며 당신께서 주지 않으시고자 한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 앞에선 부유한 자의 그 어떤 부도 소용이 없습니다.)

3. 그 후 '수브하날라'(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33번, '알함두릴라'(찬미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를 33번,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를 33번 외우며, 마지막에 '라 일라하 일랄라후 와흐다후 라 샤리카 라후, 라훌 물쿠 와라훌 함두, 와 후와 알라 쿨리 쉐이인 까디르'(하나님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으니 그분 홀로만 경배받으십니다. 그분에게 대등한 존재란 없으며 주권은 그분께 있으며, 그분께로 모든 찬미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를 1번 외움으로써 총 100번이 되게 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서있기(끼얌) - 반절(루쿠으) - 부복(수주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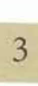
1

서 있는 자세에서,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양 손을 어깨와 귀 사이까지 올렸다가 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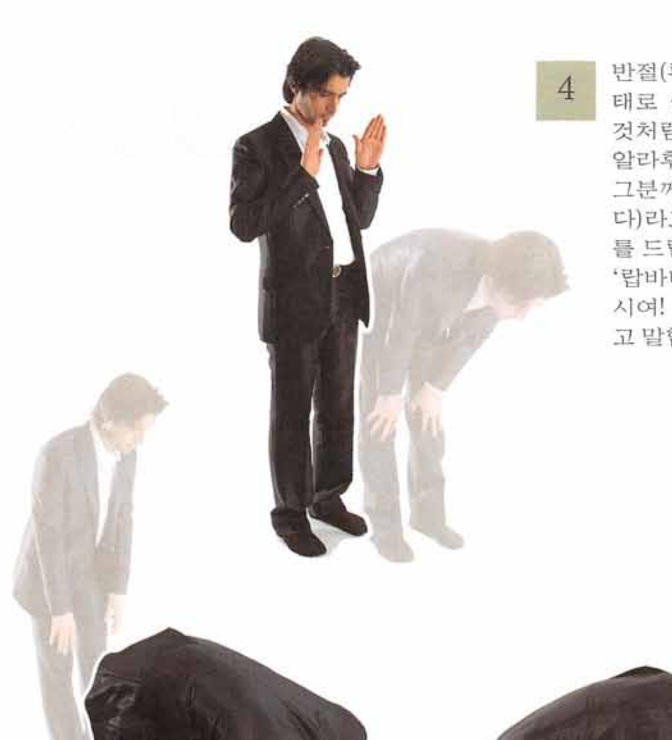
2

가슴 위에 왼손을 놓고 그 위에 오른손을 놓은 채 파티하 장(제 1장)을 암송합니다. 첫번째 라크아나 두번째 라크아일 경우에는, 파티하 장 후에 원하는 꾸란장이나 구절을 암송합니다.



선 상태에서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라고 말한 후 끼블라 방향으로 몸을 구부리면서 양 손을 무릎 위에 놓습니다 (반절(루쿠으)). 그 후 '수브하나 랍비얄 아딤'(완벽하시고 가장 위엄하신 저의 주님이십니다)을 세 번 말합니다.





4 반절(루쿠으) 자세에서 일어나 선 상태로 돌아오면서, 예배 시작시 했던 것처럼 양 손을 올리는데, 이 때 '사미 알라후 리만 하미다'(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찬미드리는 자를 들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맘 뒤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후 '랍바나 와라칼 함드'(우리의 주님이시여! 찬미받으실 당신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5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부복(수주드)을 위해 땅으로 엎드립니다. 부복 상태에서는 다음 일곱개의 신체 부분이 땅과 맞닿아있어야 합니다 : 이마와 코, 양 손, 양 무릎, 양 다리. 부복 상태에서는 '수브하나 랍비얄 아을라'(완벽하시고 지고하신 저의 주님이십니다)를 세 번 말합니다.

6 부복 후에는 앉은 자세를 취하는데, 오른쪽 발꿈치는 위로 세운 채 왼쪽 발 위에 엉덩이를 포개앉습니다. 동시에 손은 무릎과 가까운 허벅지 부분에 얹은 채로 '랍비그피르리'(저의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를 세번 말합니다. 그 후 다시 부복(수주드)을 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두번째 라크아 – 증언(앗-타샤후드) – 평화의 인사(앗-쌀람))

7

두번째 라크아를 위해 부복(수주드) 자세에서 일어서며, 그 후 첫번째 라크아 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서있기(끼얌)와 꾸란 낭송과 반절(루쿠으)과 부복(수주드)을 합니다.



8

두번째 라크아에서 두번째 부복(수주드)이 끝났으면 앉은 자세에서 증언(앗-타샤후드)을 외우는데, 여기서 앉은 자세는 부복 사이에 앉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앉습니다. 증언(앗-타샤후드)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앗타히야투 릴라히 왓쌀라와투 왓따이바트.(모든 인사와 예배와 좋은 말은 하나님을 위해 것입니다.) 앗쌀라무 알라이카 아이유한 나비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후.(오, 선지자시여!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와 축복이 당신께 깃들기를.) 앗쌀라무 알라이나 와알라 이바딜라힛 쌀리힌.(우리들에게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와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아브두후 와라술루후.(저는 하나님 이외에 경배 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하며, 저는 무함마드가 그분의 종복이자 선지자임을 증언합니다.)'



9

예배가 세 라크아거나(마그립 예배) 네 라크아일 경우(두흐르, 아쓰르, 이샤 예배) 세번째와 네번째 라크아 때는, 첫번째와 두번째 라크아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면 되지만,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세번째와 네번째 라크아 때는 파티하 장(꾸란 제 1장) 이후에 어떤 꾸란 구절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 마지막 라크아 때는 부복(수주드) 이후 앉은 상태에서 증언(앗-타샤후드)을 외우며, 그 후에 선지자를 위한 기도(앗-쌀라투 알란 나비)를 외웁니다. 그 발음과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라훔마 쌀리 알라 무함마드 와알라 알리 무함마드, 카마 쌀라이타 알라 이브라힘 와알라 알리 이브라힘, 인나카 하미둔 마지드' (오, 하나님! 당신께서 이브라힘(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주신 것처럼, 무함마드와 그의 가족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주십시오, 실로 당신께서는 가장 영광되신 분이시며 가장 영예스러우신 분이십니다.) ' 알라훔마 바리크 알라 무함마드 와 알라 알리 무함마드, 카마 바라크타 알라 이브라힘 와 알라 알라 이브라힘, 인나카 하미둔 마지드' (오, 하나님! 당신께서 이브라힘(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무함마드와 그의 가족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실로 당신께서는 가장 영광되신 분이시며 가장 영예스러우신 분이십니다.)



11 그 후 평화의 인사(앗-쌀람)를 하는데, 고개를 오른쪽 어깨로 돌리면서 '앗쌀라무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당신에게 평화와 하나님의 자비가 깃들기를)라고 말하고 그 후에 다시 고개를 왼쪽 어깨로 돌리면서 '앗쌀라무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라고 말하면 됩니다.

예배의 필수 요소와 의무 요소

예배의 필수 요소 :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고의적이든 아니면 깜빡 잊었든 이 동작을 하지 않았을 때 예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시작시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는 것(타크비라툴 이흐람), 서있기(끼얌)(능력이 안 되는 자는 제외), 파티하 장(꾸란 제 1장) 암송, 반절(루쿠으), 루쿠으에서 일어서는 동작, 부복(수주드), 부복사이의 앉은 자세, 선지자를 위한 기도와 그 때의 앉은 자세, 평온함, 평화의 인사(앗-쌀람).

예배의 의무 요소 : 예배에서 의무가 되는 부분으로, 고의로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예배가 무효가 되지만, 깜빡 잊었거나 부주의하여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 부주의시의 부복(수주둣 사흐우)을 통해 실시하지 못한 동작을 메꿀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후에 설명될 것입니다.

예배의 의무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배시작시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는 것(타크비라툴 이흐람) 이외의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는 것(타크비르),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완벽하시고 가장 위엄하신 저의 주님이십니다)을 최소한 1번 말하는 것, 혼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맘(예배인도자)으로서 예배를 인도할 때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찬미드리는 자를 들으셨습니다)를 말하는 것, '랍바나 와라칼 함드'(우리의 주님이시여! 찬미받으실 당신이십니다.)를 말하는 것, 부복(수주드)시 '수브하나 랍비얄 아을라'(완벽하시고 지고하신 저의 주님이십니다)를 최소한 1번 말하는 것, 수주드 사이에 잠시 앉을 때 '랍비그피르 리'(저의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를 최소한 1번 말하는 것, 증언(앗-타샤후드). 부주의하여 이같은 예배의 의무 요소를 빠뜨린 경우 부주의시의 부복(수주둣 사흐우)을 통해 그 결함을 메꿀 수 있습니다.

예배의 순나 요소 : 예배의 필수 요소나 의무 요소가 아닌, 예배시의 모든 말과 행동은 순나(권장사항)입니다. 순나를 통해 예배가 더욱 훌륭해지기 때문에 항상 순나를 지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순나 요소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예배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 하나님을 위해 더욱 경외할수록 그리고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로부터 멀어질수록 예배자의 천국의 단계가 올라가고 그가 받을 보상이 증가합니다.

부주의시의 부복(수주둣 사흐우) :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두번의 수주드로서 예배시의 결함과 부족을 메꾸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주의시의 부복(수주둣 사흐우)를 실시합니다 :

1 잊었거나 실수로 인해, 지정되지 않은 시기에 루쿠으(반절), 수주드(부복), 끼얌(서있기), 꾸우드(앉기) 등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

2 지정된 시기에 예배의 필수 요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화의 인사(앗-쌀람) 전에 놓친 필수 요소를 실시하고, 그 후 부주의시의 부복(수주둣 사흐우)을 함.

3 예배의 의무 요소, 예를 들어 증언(앗-타샤후드)을 깜빡하고 실시하지 않았을 때.

4 라크아를 몇 번 실시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헷갈리는 두 횟수 중 작은 횟수를 따르며 이 경우 부주의시의 부복(수주둣 사흐우)을 함.

부주의시의 부복을 실시하는 방법 : 두번의 부복(수주드)을 하며 그 사이에 앉은 자세를 취하는데 일반 예배시 부복 사이에 앉는 자세와 동일한 자세임.

부주의시의 부복을 실시하는 시간 :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예배자가 취향에 따라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선지자를 위한 기도(앗-쌀라투 알란 나비)와 평화의 인사(앗-쌀람) 사이에 부주의시의 부복을 한 후 평화의 인사(앗-쌀람)를 하는 방법.
- 평화의 인사(앗-쌀람)를 끝낸 후 부주의시의 부복을 하고 그 후에 다시 평화의 인사(앗-쌀람)를 하는 방법.

예배 중에 손이나 얼굴로 장난치는 행위는 기피사항입니다.

예배를 무효화시키는 것들 :

1. 능력이 있는 자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예배의 필수 요소나 선결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2. 예배의 의무 요소를 의도적으로 빠뜨린 경우.
3. 예배 중에 의도적으로 말을 한 경우.
4. 예배 중에 소리내어 웃은 경우.
5.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도 예배 중에 지속적으로 많이 움직인 경우.

예배시의 기피사항 :

예배로써 얻는 보상을 감소시키거나 예배시의 집중(쿠슈으)과 경외의 감정을 방해하는 행위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1. 예배 중에 여기 저기를 쳐다보는 행위 ; 선지자ﷺ께서 예배 중에 여기 저기를 쳐다보는 행위에 대해 질문받으셨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그것은 무슬림의 예배에서 사탄이 훔쳐가는 좀도둑질이라"('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718)
2. 손이나 얼굴로 장난치는 행위, 손을 허리 위에 놓는 행위, 손깍지를 끼고 손마디를 꺾어 소리를 내는 행위.
3. 화장실에 가야 할 때나, 배가 고파서 예배에 집중하기 힘듦에도 예배를 시작하는 행위. 선지자ﷺ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음식이 도착했을 때 예배드리지 말며 화장실을 참으면서 예배드리지 말라."('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560)

자발 예배란 무엇인가?

무슬림에게 의무가 되는 예배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하루 다섯번 예배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법(샤리아)은 자발 예배(의무 예배 이외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의무 예배시에 있었던 결함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발 예배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기 자발(라와팁) 예배 : 이 예배는 의무 예배와 전후로 연결되어 있기에, 또한 무슬림이 빠뜨리지 않는 예배이기에 라와팁(정기적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선지자ﷺ께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 "하나님을 위해 의무 예배가 아닌 자발 예배로 매일 열 두 라크아를 드리는 무슬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천국에 저택을 마련해주실 것이라."('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728)

이 열 두 라크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즈르 예배(새벽 예배) 이전의 두 라크아
2	두흐르 예배(정오 예배) 이전의 네 라크아(두 라크아 + 두 라크아), 두흐르 예배 이후의 두 라크아
3	마그립 예배(저녁 예배) 이후의 두 라크아
4	이샤 예배(밤 예배) 이후의 두 라크아

2 홀수 자발(위트르) 예배 : 이 예배는 라크아 횟수가 홀수이기에 위트르(홀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예배는 가장 좋은 자발 예배 중의 하나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 꾸란의 사람들이여! 위트르 예배를 드리라." ('앗-티르미디'(no, 453), '이븐 마자'(no.1170)이 수집한 하디쓰)

위트르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밤의 마지막 시간대(파즈르 이전 시간)입니다. 위트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이샤 예배가 끝난 후부터 파즈르 예배 시간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위트르 예배는 한 라크아만을 드려도 성립하지만, 세 라크아를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라크아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ﷺ께서는 11 라크아를 드리시곤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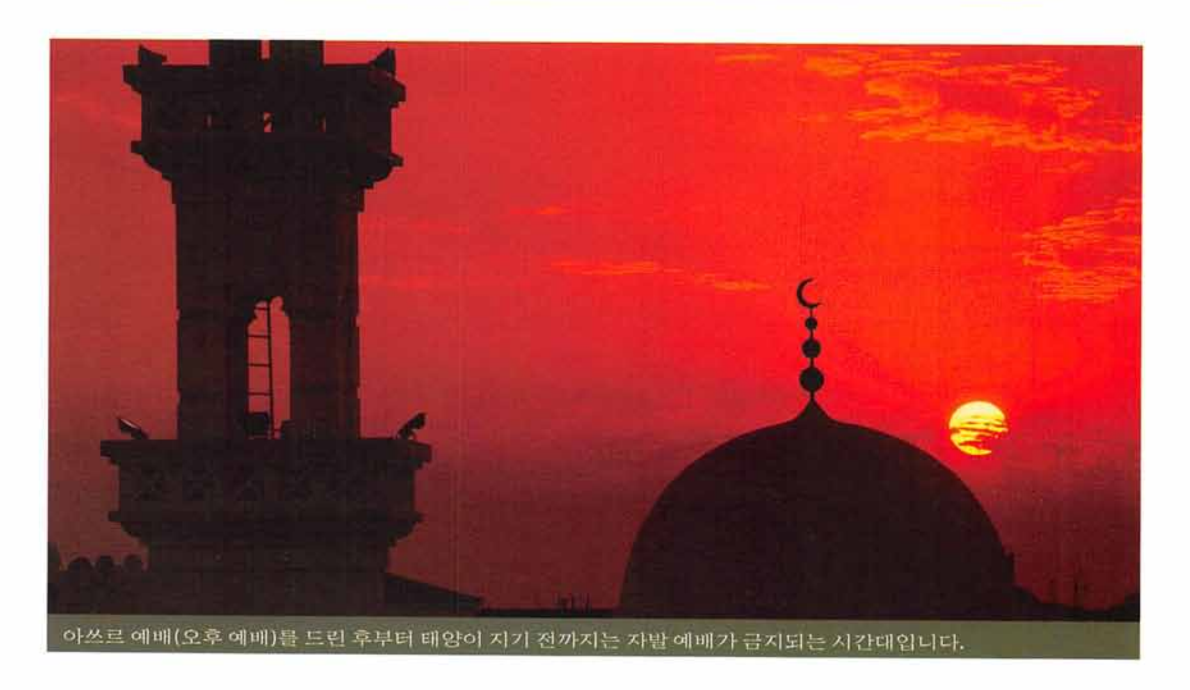
자발 예배의 기본 원칙은 두 라크아씩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매번의 두 라크아 이후 평화의 인사(앗-쌀람)를 하는 식입니다. 위트르 예배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위트르 예배를 끝내고 싶을 때는 두 라크아 후에 앗-쌀람을 하고 나서 다시 한 라크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라크아 때는 반절(루쿠으)과 부복(수주드) 사이에 서 있는 상태에서 양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두아)를 하며, 이 두아는 '꾸누트'라고 불립니다.

자발 예배가 금지된 시간 :

자발 예배는 그 어떤 시간에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이슬람이 금지하고 있는 시간대만큼은 자발 예배가 금지됩니다. 이 시간대는 불신자들이 숭배 행위를 실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시간에 드리지 못한 의무 예배를 메꾸기 위해서나, 특정한 이유가 발생하여 드리는 자발 예배, 예를 들어 타히야툴 마스지드(성원에 들어갔을 때 드리는 두 라크아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지된 시간대는 예배에만 있으며, 디크르(하나님 기억하기)나 기도(두아)에는 따로 금지된 시간대가 없습니다.

예배가 금지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즈르 예배(새벽 예배)를 실시한 이후부터 태양이 지평선에서, 무기로 쓰는 창의 길이만큼 뜰 때까지인데 일출 이후 약 20분 정도가 되면 태양이 이 높이까지 뜨게 됩니다.
2	태양이 하늘 꼭대기에 걸릴 때부터 태양이 하강하기 시작할 때까지이며, 이 시간은 두흐르 예배 시간 바로 전 시간대입니다.
3	아쓰르 예배(오후 예배)를 드린 후부터 태양이 지기 전까지.


아쓰르 예배(오후 예배)를 드린 후부터 태양이 지기 전까지는 자발 예배가 금지되는 시간대입니다.

합동 예배

하나님께서는 남성들에게 하루 다섯번 의무 예배를 합동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합동 예배의 커다른 축복에 관해 선지자ﷺ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 “합동 예배는 개인 예배보다 27배 더 많은 축복이 있노라.” (‘알-부카리’(no.619), ‘무슬림’(no.650)가 수집한 하디쓰)

합동 예배가 성립하는 최소 인원은 두 명, 즉 이맘(예배 인도자)과 마으뭄(이맘 뒤에서 예배드리는 자)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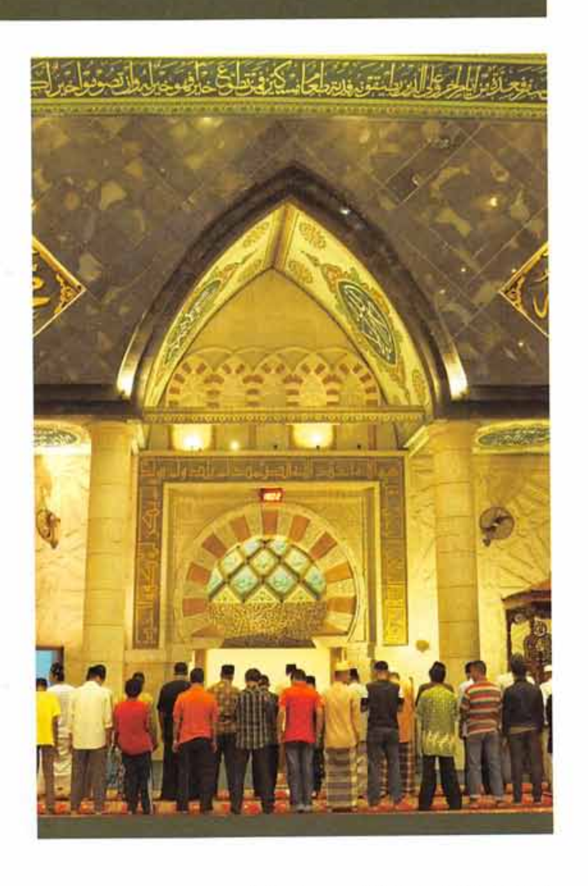
예배시 이맘을 따른다는 것은 :

우리가 이맘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맘의 반절(루쿠으)과 부복(수주드)을 따르고, 이맘의 꾸란 낭송을 잘 새겨들으며, 이맘보다 특정 행위를 먼저 실시하지 않고, 이맘이 하는 예배 행위와 다른 행위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맘이 특정 행위를 끝내면 곧바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ﷺ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이맘은 오직 따르게 위해 지정된 자라. 따라서 그가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면 그대들도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되 그가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지 말라. 그가 반절을 하면 그대들도 반절을 하되 그가 반절을 하기 전에 먼저 반절을 하지 말라. 그가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라고 말하면 그대들은 ‘랍바나 와라칼 함드’라고 말하라. 그가 부복을 하면 그대들도 부복을 하되, 그가 부복을 하기 전에 먼저 부복을 하지 말라…”(‘알-부카리’(no.701)와 ‘무슬림’(no.414)과 ‘아부 다우드’(no.603)이 수집한 하디쓰)

누가 이맘으로서 예배를 인도하는가?

꾸란을 가장 많이 외운 자가 이맘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ﷺ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꾸란을 가장 잘 낭송하는 자가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고, 만약 낭송 실력이 동일하다면 순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라…”(‘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673)



이맘과 마으뭄은 어떻게 서는가?

이맘은 마으뭄보다 앞쪽에 서야 하며, 마으뭄들은 이맘 뒤에서 어깨를 맞대어 정렬하며 도착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첫번째 줄, 두번째 줄을 만들어갑니다. 만약 마으뭄이 한 명이라면, 그는 이맘의 오른쪽에 서야 합니다.

늦게 도착하여 이맘의 예배 동작을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맘이 인도하는 예배에 늦게 동참하였다면, 줄을 맞춰선 후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를 말하여 이맘과 함께 예배를 드리되 이맘이 평화의 인사(앗-쌀람)를 끝내면, 그 때 일어나서 놓쳤던 예배 동작을 메꿉니다.

이맘과 동참하면서 했던 예배의 행위는 우리 예배 행위의 처음으로 간주되며, 이맘의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가 메꾸는 행위는 그 다음의 예배 동작으로 간주됩니다.

예배에 늦게 동참했을 때 라크아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예배는 라크아 횟수로 계산됩니다. 만약 이맘이 반절(루쿠으)에서 일어나기 전에 예배에 동참하였다면 그는 라크아를 완전히 시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맘이 반절(루쿠으)에서 일어난 후 예배에 동참했다면 그는 라크아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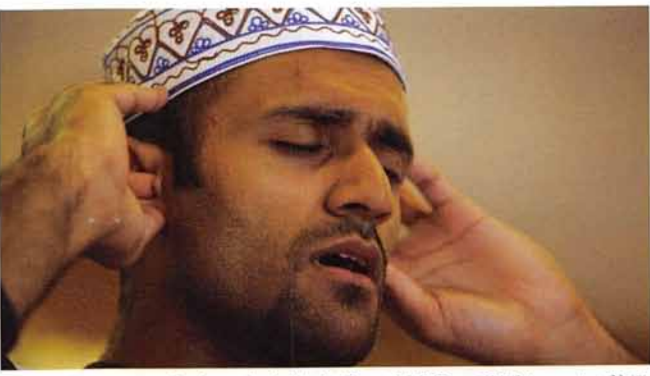
예배에 늦게 동참한 자가 예배를 마치는 법

예를 들어, 파즈르 예배(새벽 예배)시 이맘이 두번째 라크아에 있을 때 예배에 동참했다면, 이맘이 평화의 인사(앗-쌀람)를 했을 때 그는 앗-쌀람을 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에게 남아있는 두번째 라크아를 마저 실시한 후 앗-쌀람을 합니다. 파즈르 예배는 두 라크아이고, 그가 함께 한 이맘의 두번째 라크아는 그에게 있어 첫번째 라크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그립 예배(저녁 예배)시 이맘이 선지자를 위한 기도(앗-쌀라투 알란 나비)를 하고 있을 때 예배에 동참하였다면, 그는 이맘이 평화의 인사(앗-쌀람)를 끝냈을 때 일어나서 세 라크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맘이 앗-쌀라투 알란 나비를 할 때 동참했고, 라크아를 동참한 것으로 계산되려면 이맘이 반절(루쿠으)에서 일어나기 전에 예배에 동참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흐르 예배시 이맘이 세번째 루쿠으를 하고 있을 때 동참했다면, 그가 이맘과 드리는 예배는 그의 첫번째 라크아와 두번째 라크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맘이 평화의 인사(앗-쌀람)를 끝내면, 그는 그에게 남아있는 세번째 라크아와 네번째 라크아를 드리면 됩니다. 두흐르 예배는 네 라크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리(아단)



아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명예로운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이슬람법(샤리아)은 아단(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리)과 이까마(예배 시작을 알리는 소리)를 지정하였습니다. 아단은 사람들을 예배로 부르고 예배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하며 이까마는 곧 예배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단이 지정되기 전의 어느날 무슬림들은 함께 모여 있었고 그때 예배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예배 시간이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지하지 않았고 그들은 이에 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가 말했습니다 : 기독교인처럼 종을 울리자. 다른 일부가 말했습니다 :

그러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뿔을 사용하여 나팔을 불자. 이에 우마르가 말했습니다 : 지정된 사람이 사람들에게 예배하러 오라고 부르는 건 어떤가. 이에 하나님의 사도ﷺ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빌랄! 일어나서 사람들을 예배하러 오라고 부르시오." ('알-부카리'(no.579)와 '무슬림'(no.377)이 수집한 하디쓰)

아단과 이까마를 하는 방법 :

아단과 이까마는 합동 예배시에만 의무가 되며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합동 예배시 고의적으로 아단과 이까마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만 예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목청을 높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단을 불러야 하며 이는 사람들이 아단 소리를 듣고 예배장소로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지자ﷺ를 통해 알려진 아단과 이까마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단 :

1.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네 번.*
2. '아쉬하두 안라 일라하 일랄라'(나는 하나님 이외에 경배 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합니다) 두번.
3. '아쉬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수를라'(나는 무함마드께서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두번.
4. '하이야 알랏쌀라'(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오) 두번.
5. '하이야 알랄팔라흐'(어서 성공하러 오시오) 두번.
6.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두번.
7. '라 일라하 일랄라'(하나님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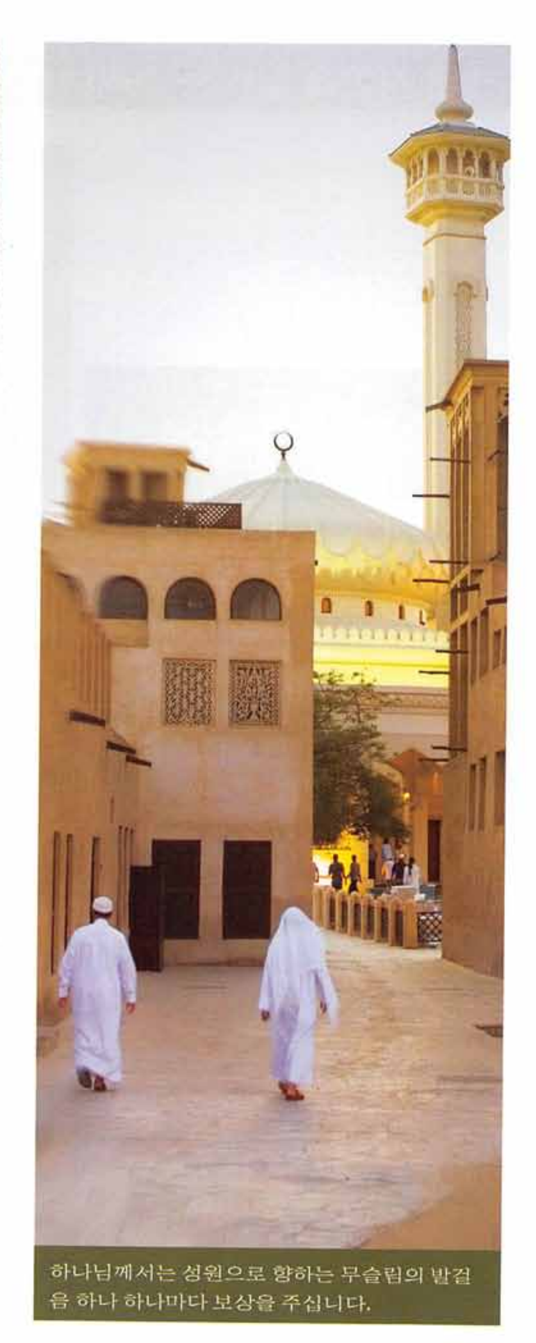
이까마 :

1.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두 번.
2. *'아쉬하두 안라 일라하 일랄라'(나는 하나님 이외에 경배 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합니다)*
3. *'아쉬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수룰라'(나는 무함마드께서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4. *'하이야 알랏쌀라'(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오)*
5. '하이야 알랄팔라흐'(어서 성공하러 오시오)
6. *'까드 까마틧쌀라투 까드 까마틧쌀라'(예배가 곧 실시됩니다. 예배가 곧 실시됩니다.)*
7.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두번.*
8. '라 일라하 일랄라'(하나님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무앗딘(아단을 부르는 사람)을 따라 말하는 것 :

아단을 들으면서 무앗딘이 말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 말하는 것은 권장사항입니다. 단, 무앗딘이 '하이야 알랍쌀라'(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오)나 '하이야 알랄팔라흐'(어서 성공하러 오시오)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다음을 말합니다. '라 하울라 와라 꾸와타 일라 빌라'(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힘도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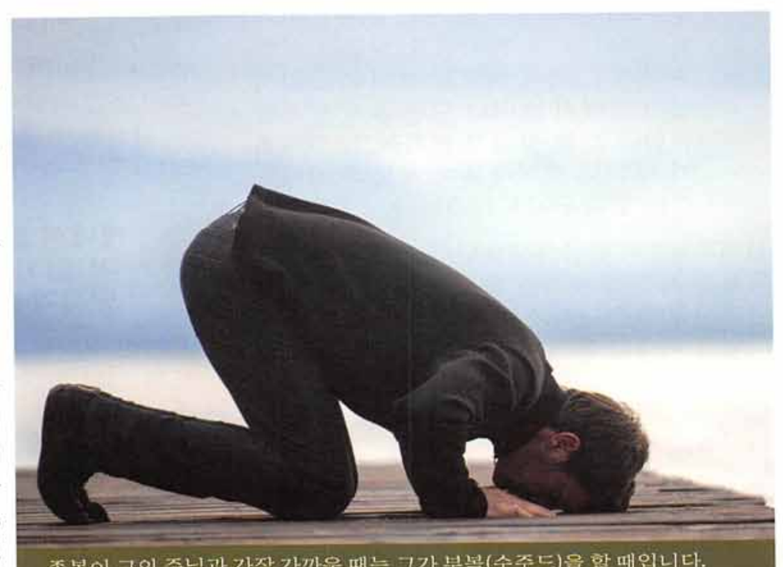
아단이 끝날 때까지 무앗딘이 말한 것을 따라 말한 후 아단이 끝나면 다음을 말합니다. '알라훔마 랍바 하디힛 다으와팃 탐마 왓쌀라틸 까이마, 아티 무함마다닐 와실라타 왈파딜라, 와브아쓰후 마까말 마흐무다닐라디 와앗타후' (이 완벽한 초대와 곧 시행될 예배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시여! 무함마드에게 (천국에서) 명예로운 높은 자리를 주시옵고, 당신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위치로 그를 올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원으로 향하는 무슬림의 발걸음 하나 하나마다 보상을 주십니다.

예배시의 집중

예배시의 집중(쿠슈으)는 예배의 실체이자 정수로서 쿠슈으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의 집중을 의미하며, 겸허함과 낮춤으로써 예배시의 꾸란 구절(아야)과 기도(두아)와 디크르(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문장)를 음미하는 것입니다.



종복이 그의 주님과 가장 가까운 때는 그가 부복(수주드)을 할 때입니다.

쿠슈으는 가장 훌륭한 경배 행위이자 가장 아름다운 복종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서에서 믿는 자의 속성으로서 쿠슈으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실로 믿는 자들은 성공하였도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하는 자들이라."(꾸란 제 23장 1~2절)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하는 자는 경배행위와 믿음(이만)의 달콤함을 맛봅니다. 따라서 선지자ﷺ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있어 예배는 즐거움(꾸르라툴 아인)이라." ('안-나사이'가 수집한 하디쓰, no.3940) '꾸르라툴 아인'은 즐거움과 기쁨, 포근함와 달콤함을 뜻합니다.

예배시의 집중(쿠슈으)을 도와주는 것들 :

예배시의 쿠슈으를 도와주는 것들은 많으나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하기 :

남성의 경우 이른 시간에 성원에 가서 의무 예배 전의 자발 예배를 드리고, 좋은 옷을 입고, 걸어갈 때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걸어갑니다.

2 집중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 멀리하기 :

예배 드릴 곳에 현란한 그림이 있다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때는 예배를 피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나 배가 고프거나 눈 앞의 먹거리와 마실 거리에 마음이 가 있을 때도 예배를 피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배자의 생각을 맑게 하고 잠시 후 있을, 위대한 명령의 실천이자 우리 주님과의 대화 시간인 예배에만 마음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3 예배에서의 평온함 :

선지자ﷺ께서는 그의 루쿠으(반절)과 수주드(부복)에서 평온히 머무르시어 모든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자에게 예배의 모든 동작에서 평온함을 갖출 것을 명령하셨고, 까마귀가 부리로 쪼아대듯이 서둘러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선지자ﷺ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가장 나쁜 도둑질은 자신의 예배를 훔치는 자라" 이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도시여! 어떻게 예배를 훔칠 수 있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예배시의 루쿠으와 수주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아흐마드'가 수집한 하디쓰, no.22642)

예배시 평온히 동작을 실시하지 않는 자에게 쿠슈으(집중)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두르면 쿠슈으가 사라지고, 까마귀가 쪼아대는 듯한 예배에는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우리가 앞에 서게 될 하나님의 위엄을 떠올리기 :

창조주의 위엄함과 장엄함,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보잘것없음을 떠올리고, 부활의 날 우리는 우리의 주님 앞에 서서 그분께 간절히 요청하게 될 것임을 떠올립니다. 또한 내세에서 믿는 자를 위해 준비해주신 하나님의 보상과 불신자에게 마련하신 그분의 벌을 떠올리고 내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예배시 이 모든 것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서에서 묘사하신 자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실로 그것(예배)은 커다란 것이라.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는 예외라. 그들은 그들의 주님을 만나뵐 것임을 그리고 그들이 그분께 돌아갈 것임을 확신하는 자들이라."(꾸란 제 2장 45~46절)

따라서, 찬미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대답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우리의 쿠슈으(집중)는 증가할 것입니다.

5 예배시 읽는 있는 꾸란 구절(아야)과 암기문의 뜻을 숙고하고 예배 동작과 언제나 소통하는 것 :

꾸란이 계시된 이유는 우리가 꾸란을 숙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내린 축복의 성서. 그들이 그것의 징표들을 숙고하고 이성을 지닌 자들이 깊이 생각하기 위함이라" (꾸란 제 38장 29절) 이러한 숙고는 우리가 읽고 있는 꾸란 구절과 암기문과 기도의 의미를 잘 알 때만 가능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현 상황에 대해 숙고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꾸란 구절과 디크르(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문장)에 대해 숙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배시의 쿠슈으(집중)와 겸허함을 얻을 수 있으며, 어쩔 때는 우리의 눈이 눈물로 가득차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꾸란 구절을 읽을 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믿는 자들을 묘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주님의 징표들이 언급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 귀머거리나 장님처럼 대하지 않더라."(꾸란 제 25장 73절)

금요 합동 예배

하나님께서는 금요 합동 예배를 의무로 두셨는데 그 시간은 두흐르 예배(정오 예배) 시간입니다. 금요 합동 예배는 이슬람의 가장 위대한 의식 중의 하나이며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금요 합동 예배를 통해 무슬림은 매주 한번 성원에 모이게 되며 그곳에서 금요 합동 예배의 이맘이 집전하는 설교를 경청합니다. 그런 후 금요 합동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일에 정신을 두지 않고 설교(쿠뜨바)를 경청하는 것은 예배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금요일의 중요성 :

금요일은 주중 가장 위대하고 명예로운 요일이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들을 제쳐두고 이 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요일에 비해 금요일에 더 많은 축복을 내리셨으니 금요일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 하나님께서는 무슬림의 공동체(움마)를 특별히 선택하셨고 금요일로써 기존 공동체와 우리 움마를 구분하셨습니다. 선지자ﷺ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전의 자들을 방황시켜 금요일에 도달치 못하도록 하셨노라.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일요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금요일로 인도하여 주셨노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856)
- 금요일은 아담이 창조된 날이며 금요일에 종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선지자ﷺ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뜨는 날 중 가장 좋은 날이 금요일이라. 이 날 아담이 창조되었으며, 이 날 아담이 천국으로 들어갔으며, 이 날 아담이 천국에서 나왔노라. 종말의 시간은 반드시 금요일에 시작될 것이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854)

금요 합동 예배는 누구에게 의무가 되는가?

다음과 같은 자들에게 의무가 됩니다 :

1. 남성 : 여성에게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2. 경배 행위가 의무가 되는 자 : 정신이상자나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이에게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3. 마을에 정착중인 자 : 장거리 이동중인 여행자나, 도시나 마을이 아닌 산간벽지에 사는 자에게는 주위에 성원이 없으므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4. 몸이 건강한 자 : 몸이 아파서 금요 합동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자에게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금요 합동 예배를 드리는 법과 그와 관련된 규정

1 금요 합동 예배 이전의 구슬(전체 세정)과, 설교(쿠뜨바)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른 시간에 성원으로 출발하는 것, 가장 좋은 옷을 입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2 무슬림들이 성원에 모여 있으면 이맘(예배 인도자)이 그들 앞으로 다가가 설교대 위로 올라선 채 무슬림들을 향합니다. 이맘은 두 번의 설교(쿠뜨바)를 실시하며, 그 둘 사이에 이맘은 짧은 시간 동안 설교대에 앉습니다. 이맘은 설교(쿠뜨바)를 통해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우고 훈시와 설교와 여러 꾸란 구절을 제시합니다.

3 예배자들은 반드시 설교(쿠뜨바)를 경청해야 합니다. 말을 한다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여 쿠뜨바를 경청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예배 카페트를 만지작거리거나 손가락이나 옷 또는 휴대폰 등으로 장난 치는 행위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4 설교가 끝나면 이맘은 설교대에서 내려와 사람들을 위해 예배를 인도하는데, 두 라크아를 실시하며 소리내어 꾸란을 낭송합니다

5 금요 합동 예배는 사람들이 합동으로 모일 때 성립되는 것이므로 혼자 있을 때는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사정이 생겨 금요 합동 예배를 놓친 자는 두흐르 예배(정오 예배)를 드려야 하며 금요 합동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6 금요 합동 예배에 늦어 두 번째 라크아 이후에 예배에 동참하였다면 그 동참한 예배 동작은 두흐르 예배로 간주되며 그 때부터 우리는 놓친 두흐르 예배를 메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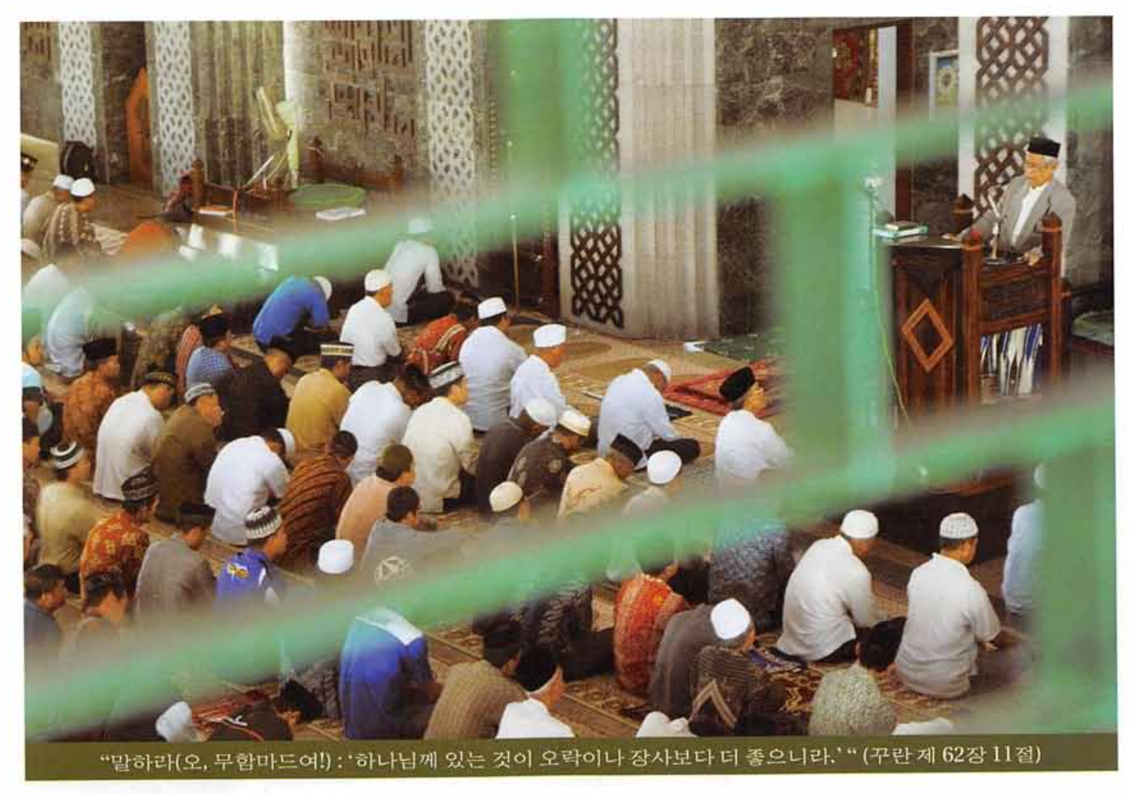
7 금요 합동 예배가 의무가 되지 않는 사람이 - 예를 들어 여성이나 장거리 이동중인 여행자의 경우- 금요 합동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는 다시 두흐르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금요 합동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자 :

이슬람법(샤리아)은 금요 합동 예배가 의무 사항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세의 일로 금요 합동 예배에 빠지는 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 믿는 자들이여! 금요일에 예배를 위한 부름이 울릴 때면 어서 하나님이 상기되는 곳으로 가되 상거래는 잠시 그만두라. 그대들이 안다면 이것이 그대들에게 더 좋은 것이라. "(꾸란 제 62장 9절)

합당한 이유가 없이 금요 합동 예배에 빠지는 자는 그의 마음이 닫히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선지자ﷺ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금요 합동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합당한 이유 없이 세 번이나 금요 합동 예배에 불참한다면 하나





"말하라(오, 무함마드여!) : '하나님께 있는 것이 오락이나 장사보다 더 좋으니라.' " (꾸란 제 62장 11절)

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닫아버릴 것이라."('아부 다우드'(no.1052)와 '아흐마드'(no.15498)이 수집한 하디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뜻은 : 그의 마음을 봉인하고 덮어버리어, 위선자와 거역자의 마음처럼 그의 마음을 무지와 메마름으로 채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금요 합동 예배 불참에 대한 합당한 이유는 : 병이나 위급상황 등, 참석했을 경우 여느 때와는 다른 견디기 힘든 여러움이 발생하거나 생활이나 건강에 심각한 해가 예상될 때입니다.

직업이 금요 합동 예배 불참의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기본 원칙은, 평상시의 업무가 금요 합동 예배 불참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길, 예배를 위해 우리의 업무를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믿는 자들이여! 금요일에 예배를 위한 부름이 울릴 때면 어서 하나님이 상기되는 곳으로 가되 상거래는 잠시 그만두라. 그대들이 안다면 이 것이 그대들에게 더 좋은 것이라." (꾸란 제 62장 9절) 무슬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의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그 직업이 다른 곳보다 보수가 적을지라도 말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분께서는 그를 위해 출구를 마련해주실 것이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양식을 제공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그는 그분만으로 충분하도다." (꾸란 제 65장 2~3절)

직업이 금요 합동 예배 불참의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경우 :

반복되는 일상 업무는 금요 합동 예배 불참의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상황은 예외가 됩니다 :

1. 그 업무를 통해 아주 중요한 유용성이 실현되는데, 그 유용성은 금요일 합동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계속 업무를 할 때만 가능하고, 그 업무를 그만둘 때는 아주 커다란 해가 초래되며, 그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예를 들면 :

-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 절도 등의 범죄 행위로부터 사람들의 거주지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이나 방범 요원.
- 대형 공장의 기계 작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업무 등 한시라도 그 업무를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경우.

2. 현재 업무가 그가 얻는 양식의 유일한 원천이고 직장의 사장이 금요 합동 예배 참석을 허락하지 않으며,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먹거리, 마실 거리 등에 대한 지출과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출이 오직 이 업무를 통해서만 가능할 때라면, 그가 다른 직장을 찾기 전까지 혹은 필수적인 경제적 지출을 메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전까지, 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금요 합동 예배에 불참하는 행위는 허락됩니다.

여행자 예배

- 여행자는, 이동 중이거나 혹은 임시 거처에 4일 미만으로 머물 때 네 라크아의 예배를 두 라크아로 줄여서 드립니다. 따라서 두흐르와 아쓰르와 이샤 예배를 네 라크아가 아닌 두 라크아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자가 아닌 사람을 이맘으로 하여 합동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해당 이맘을 따라 네 라크아를 드립니다.
- 여행자는 정기 자발(라와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순나입니다. 다만 파즈르 예배(새벽 예배) 전의 두 라크아 예배와 홀수 자발(위트르) 예배는 예외입니다.

- 여행자는 두흐르 예배 시작 시간부터 아쓰르 예배 종료 시간 사이라면 언제든지 두흐르 예배와 아쓰르 예배를 붙여서 한꺼번에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그립 예배 시작 시간부터 이샤 예배 종료 시간 사이에 마그립 예배와 이샤 예배를 붙여서 드릴 수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 중일 때는 이처럼 예배를 붙여서 한꺼번에 드릴 수 있으며 이는 여행자에 대한 자비와 배려이며 여행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병환중 예배

의무 예배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능력과 이성이 있는 무슬림에게 의무 사항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슬람은 특별한 상황과 어려운 경우를 배려하고 있으니 그 중의 하나가 병을 앓고 있을 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을 앓고 있어 일어서서 예배를 드릴 능력이 없거나, 일어설 수는 있지만 그것이 환자에게 아주 힘든 일이거나, 일어서는 일이 환자의 치유를 늦추는 이유가 될 경우 환자는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앉기도 힘들다면 그는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ﷺ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불가능하면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불가능하면 누워서 예배를 드리라."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1066)
- 루쿠으(반절)나 수주드(부복)가 불가능하다면, 능력껏 해당 동작과 유사한 동작을 취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바닥에 앉는 것이 힘들면 의자 등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 병 때문에 매 예배시 우두를 하는 것이 힘들다면 두흐르와 아쓰르 예배 시간 사이에 두 예배를 붙여서 한꺼번에 드릴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마그립과 이샤 예배 시간 사이에 두 예배를 붙여서 한꺼번에 드릴 수 있습니다.
- 병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것이 힘들면 건조세정(타얌뭄)을 한 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단식



4

하나님께서는 무슬림에게 일년에 한번, 한달 동안의 단식을 의무로 지정하셨습니다. 그 달은 축복받은 라마단 달이며 이 한달 동안의 단식은 이슬람의 다섯 가지 실천 기둥 중 네 번째 기둥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 믿는 자들이여! 그대들 이전의 자들에게 의무로 규정되었던 것처럼 그대들에게도 단식이 의무로 규정되었으니 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 (꾸란 제2장 183절)

차례 :

라마단 단식

단식의 의미

이슬람에서의 단식은 : 하나님을 경배할 목적으로 지평선에 희미한 빛줄기가 보일 때(즉, 파즈르 예배 아단이 울릴 때)부터 해가 질 때(즉, 마그립 예배 아단이 울릴 때)까지 먹거리와 마실거리와 성교 등 단식이 깨지는 모든 원인을 피하는 것입니다.

라마단 달의 축복

라마단 달은 이슬람력의 9월로서 일년 중 가장 훌륭한 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달에 여러 많은 축복을 두셨으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하나님께서는 이 달에 그분의 성서 중 가장 위대하고 명예로운 꾸란을 계시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 라마단 달은 꾸란이 내려진 달이며 꾸란은 인류를 위한 길잡이이며 명백한 증거로서 길잡이인 동시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 그러니 그대들 중 그 달을 보았다면 단식을 하도록 하라."(꾸란 제 2장 185장)

2.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라마단이 시작되면 천국의 문들이 열리고 지옥의 문들은 닫히며 사탄들은 사슬로 묶이게 되노라." ('알-부카리'(no.3103)와 '무슬림'(no.1079)이 수집한 하디쓰) 하나님께서는 라마단을 준비하시어 무슬림들이 경배 행위를 증가시키고 악행을 피할 수 있도록 하셨고 무슬림은 이를 통해 그분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라마단 낮에 단식을 하고 밤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라마단 달에 단식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알-부카리'(no.1910)와 '무슬림'(no.760)이 수집한 하디쓰) 또한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라마단 달 밤중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알-부카리'(no.1905)와 '무슬림'(no.759)이 수집한 하디쓰)

4. 라마단 달에는 그 해의 가장 훌륭한 밤이 있습니다 : 그 밤은 운명의 밤(라일라틀 까드르)이라 불리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서를 통해 알려주시길 그 밤에 행한 선행은 다른 시간에 행한 선행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의 밤은 천개월보다 더 좋으니라"(꾸란 제 97장 3절) 이 밤에 신앙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이 밤은 라마단의 마지막 10일 밤 중의 하나이지만, 정확히 몇 번째 밤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단식에 담겨진 지혜

하나님께서는 단식을 의무화함으로써 현세와 내세에서 많은 지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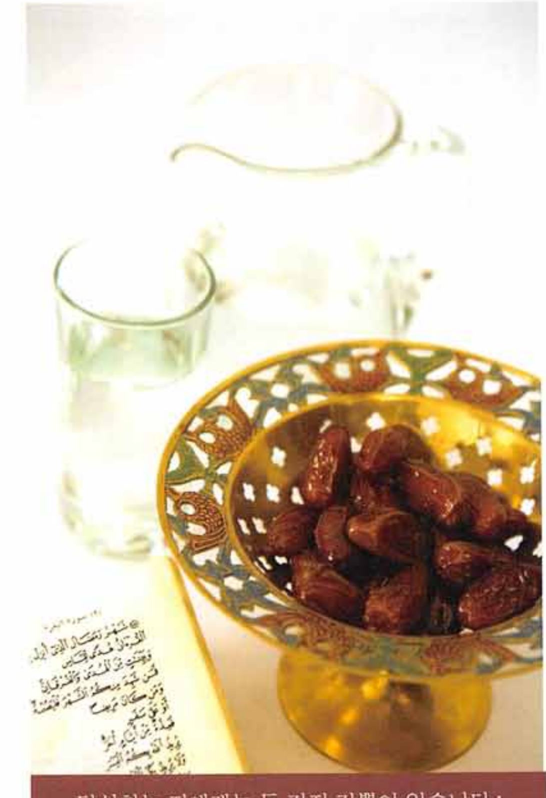
단식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삼가고 우리의 욕망을 자제함으로써 우리의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경배 행위입니다. 따라서 단식은 우리 자신에게 경외심을 부여하고, 찬미받으시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드러내고 감추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렇기에 찬미받으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 믿는 자들이여! 그대들 이전의 자들에게 의무로 규정되었던 것처럼 그대들에게도 단식이 의무로 규정되었으니 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 (꾸란 제 2장 183절)

2 악행과 죄를 단절시키기 위한 연습

단식에 임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으로써, 악행과 죄로 이끌리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으며 허위를 물리침에 있어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말과 행동을 그만두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그만두는 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노라."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1804) 즉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그만두지 않는 자는 단식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 불우한 이웃을 떠올리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단식을 통해 우리는 어렵고 배고픈 상태를 몸소 체험하게 되며 가난한 자들의 어려운 생활에 대해 떠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한 형제들을 떠올리고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며 따라서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단식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단식을 깰 때의 기쁨과 그의 주님을 만나뵙게 될 때의 기쁨이 그것입니다.

단식의 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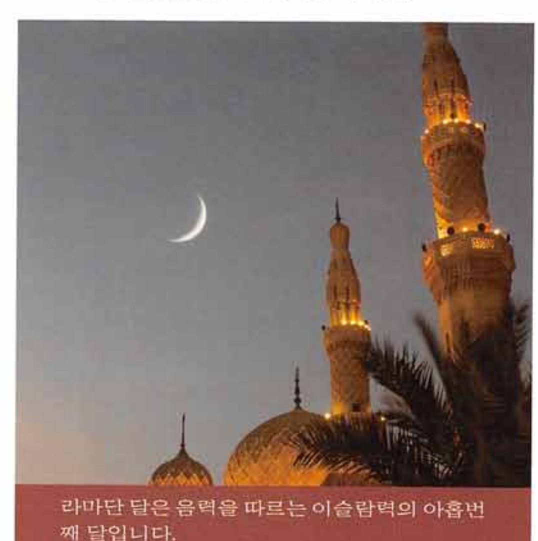
이슬람이 전하는 단식의 축복은 많지만 그 중의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을 실천하며 단식의 축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라마단 단식에 임하는 자는 그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라마단 달에 단식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알-부카리'(no.1910)와 '무슬림'(no.760)이 수집한 하디쓰)

2 단식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뵙게 될 때 크게 기뻐하게 되는데, 그가 실천한 단식으로 인해 받게 될 보상과 기쁨 때문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단식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기쁨이 있노라 : 단식을 깰 때의 기쁨과 그의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의 기쁨이 그것이라." ('알-부카리'(no.1805)와 '무슬림'(no.1151)이 수집한 하디쓰)

3 천국에는 '알-라이얀'이라 불리는 문이 있으며 오직 단식자만이 그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천국에는 '알-라이얀'이라 불리는 문이 있으니 단식을 행하던 자들은 심판의 날 그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라. 그들 이외에는 누구도 그 문을 통해 들어가지 못하노라. '단식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목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들은 일어설 것이며 그들 이외에는 누구도 그 문을 통해 들어가지 못하노라. 그들이 들어가면 문은 잠기며 그 후 누구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노라." ('알-부카리'(no.1797)와 '무슬림'(no. 1152)이 수집한 하디쓰)

4 하나님께서는 단식의 보상과 보답을 그분 자신에게로 돌리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보답과 보상이, 널리 베푸시고 위대하시며 자애로우신 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두신 것들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의 자손의 모든 행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 그러나 단식은 예외니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며 내가 그것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이라." ('알-부카리'(no.1805)와 '무슬림'(no.1151)이 수집한 하디쓰)



라마단 달은 음력을 따르는 이슬람력의 아홉번째 달입니다.

단식이 깨지는 요인

단식을 깨트리는 여러 사항들로서 단식을 하는 자가 반드시 멀리 해야 할 것들입니다. 단식이 깨지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먹거나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먹고 마시되 그대들에게 새벽빛의 하얀 실이 검은 실로부터 구분될 때까지라. 그 후 그대들은 밤이 될 때까지 단식을 지키라."(꾸란 제 2장 187절)

누군가가 깜빡 잊은 채로 먹거나 마셨다면 그의 단식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식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 먹거나 마신 자가 있다면 단식을 계속 지키도록 하라.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신 것 뿐이기 때문이라. " ('알-부카리'(no.1831)와 '무슬림'(no.1155)이 수집한 하디쓰)

2. 먹거나 마시는 것과 동일한 행위, 그 예는 ;

   - 링거액 등과 같은, 피하 혹은 정맥을 통한 영양 주사는 염분이나 영양분을 보충해줍니다. 이는 먹거나 마시는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기에 음식 섭취로 간주됩니다.
   - 환자의 수혈 ; 피는 먹고 마시는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 담배와 그와 유사한 흡연 행위 ;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신체 내에 유해 물질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성교, 즉 사정 여부와 관계 없이 남성의 귀두가 여성의 질에 삽입되었을 때 성교로 간주됩니다.

4. 애무나 자위 행위 등 자신의 선택적 행위에 의한 사정.

자면서 발생하는 몽정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식이 깨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입맞추는 행위는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면 허락됩니다.

5. 의도적인 구토.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토한 경우는 단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식 중에 어쩔 수 없이 토했을 때는 단식을 메꿀 필요가 없노라. 그러나 의도적으로 토한 자는 단식을 메꾸도록 하라." ('앗-티르미디'(no.720)와 '아부 다우드'(no.2389)가 수집한 하디쓰)

6. 생리혈이나 출산혈이 나왔을 때, 즉 해가 지기 몇 분 남지 않은 시간일지라도 생리혈이나 출산혈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여성의 단식은 깨집니다. 따라서 생리 중이던 여성이 낮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생리가 멈추었다면 후에 그 날의 단식을 메꾸어야 합니다. 또한 생리 중이던 여성이 파즈르 시간이 시작된 직후에 생리가 멈추었다면 그 날 단식은 성립되지 않으며 후에 그 날의 단식을 메꾸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리가 찾아오면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단식을 하지도 않지 않던가? "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185)

병 때문에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부정혈은 매달 특정 시기에 찾아오는 생리혈이 아니며 출산 후에 나오는 출산혈도 아니기에 단식과는 무관합니다.

단식이 면제되는 자

하나님께서는 몇몇 종류의 사람들에게 라마단 달 단식을 면제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일을 쉽게 하고 자비를 베풀기 위한 그분의 배려인 것입니다. 단식이 면제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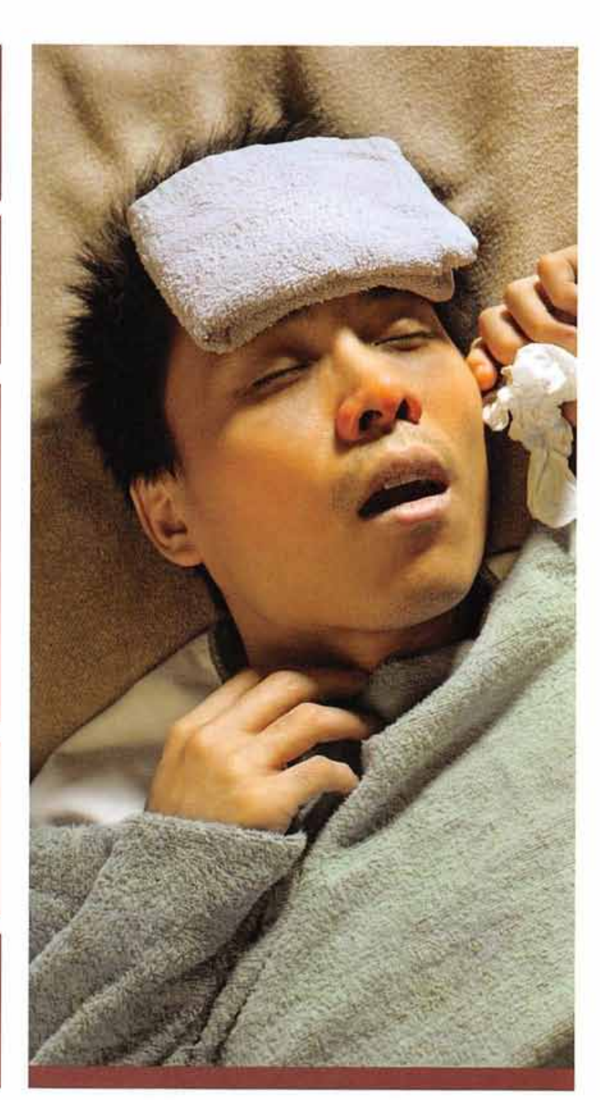
1. 단식에 임할 경우 부작용이 염려되는 환자, 이 같은 경우에는 단식을 깰 수 있으며 라마단 이후의 시기에 하지 못한 단식을 메꿉니다.

2.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어 단식할 능력이 없는 자, 이 경우 단식을 깨는 날마다 불우한 자들에게 1.5kg의 주식물(예를 들어 쌀)을 베풀어야 합니다.

3. 장거리 여행자가 여행 중일 때에,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4일 미만을 머물고자 할 때 단식을 깰 수 있으며 라마단 이후의 시기에 하지 못한 단식을 메꿉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병자이거나 장거리 이동 중일 때는 셈한 날수만큼의 다른 날들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쉬움을 원하시며 그대들에게 어려움을 원치 않으시노라."(꾸란 제 2장 185절)

4. 생리 중이거나 출산혈을 겪는 여성은 단식이 금지되며 단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마단 후에 하지 못했던 단식을 메꾸어야 합니다. (p.10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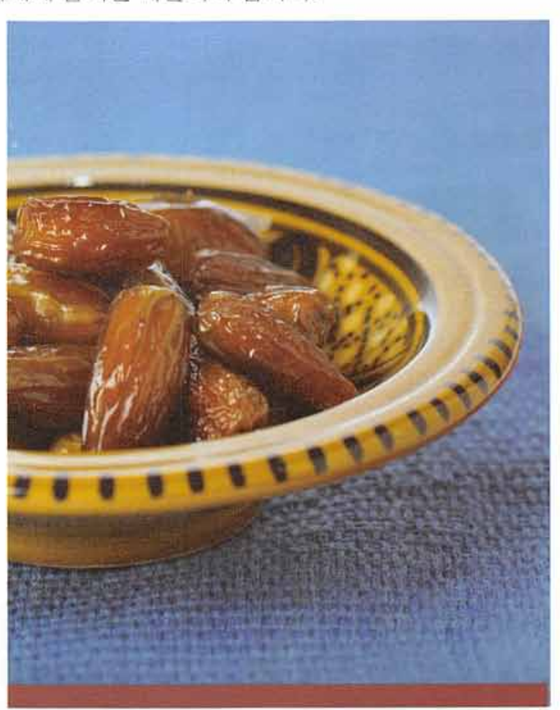
5.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이 자신에게거나 영아에게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단식을 깰 수 있으며 다른 날에 그 단식을 메꿉니다.



라마단에 단식을 깬 자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깬 자는 자신이 저지른 커다란 죄와 창조주의 명령에 대한 거역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식을 깬 날수만큼을 추가 단식으로 메꾸어야 합니다. 다만 성교 행위로 단식을 깬 자는 그날의 단식을 메꾸는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참회로서 두 달 연속 단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명의 불우한 자에게 음식을 베풀어야 합니다.

> 자발 단식



하나님께서 의무로 규정하신 단식은 일년에 오직 한달 뿐입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허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원하는 자는 추가적으로 단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발 단식이 권장되는 날들입니다:

1. 아슈라의 날과 그 앞날과 뒷날. 아슈라의 날은 이슬람력 1월인 무하람 10일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인 '무사'(모세)(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를 파라오로부터 구하신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와 그를 따르던 자들을 익사시키셨습니다. 무슬림은 '무사'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식을 실시하며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도 이 날 단식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날과 뒷날 그대들은 단식을 실시하라" ('아흐마드'가 수집한 하디쓰, no.2154) 그리고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 날의 단식에 대해 질문받으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일년 동안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1162)

2. 아라파의 날. 이 날은 이슬람력 12월인 둘 힛자 달의 9일로서 성지순례객들은 이 날 아라파 평원에 집결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이 날은 일년 중 가장 좋은 날이며 성지순례를 하지 않는 자는 이 날 단식이 권장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아라파의 날 단식에 대해 질문받으셨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이전 일년과 이후 일년 동안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1162)

3. 샤왈 달의 6일간 단식. 샤왈은 이슬람력 10월로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마단 달 단식 후에 샤왈 달 육일간을 추가로 단식한다면 그것은 마치 일년을 단식한 것과 같노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1164)

축복가득한 피뜨르 축제일(이드 알-피뜨르)

축제일(이드)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의식 중의 하나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메디나에 도착했을 때 메디나 토박이 무슬림들(알-안싸르)이 일 년에 두 날을 놀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에 말씀하셨습니다. " 이 두 날은 무엇인가?" 그들이 답했습니다. "이슬람 이전 무지의 시대 때 우리가 놀던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두 날을 더 좋은 두 날로 대체하셨도다. 그 날은 바로 알-아드하의 날과 알-피뜨르의 날이라." ('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하디쓰, no.1134) 또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축제일(이드)이 종교 의식임을 분명히 밝히신 바 있습니다. "실로 모든 무리에는 축제일이 있으며 이 날은 우리의 축제일이라." ('알-부카리'(no.909)와 '무슬림'(no.892)이 수집한 하디쓰)

이슬람의 축제일(이드)

이슬람의 축제일(이드)은 라마단 단식이라는 위대한 경배 행위를 무사히 마친 후의 기쁨의 날로서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성공케 해주신 지고하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기쁨을 선사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 좋은 옷을 입고, 필요한 자들을 도우며,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등 사람들의 마음 속에 행복감을 선사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총을 떠올리는 날입니다.

무슬림의 축제일(이드)

무슬림의 축제일은 일년에 두 번 있습니다. 이 두번의 축제일 이외에 또 다른 축제일을 만들어 그 날에 기뻐하는 행위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무슬림의 축제일(이드)은 피뜨르 축제일(이드 알-피뜨르), 즉 라마단 바로 다음달인 샤왈 달(10월) 1일과 아드하 축제일(이드 알-아드하), 즉 둘 힛자 달(12월) 10일입니다. (모두 이슬람력을 기준으로 계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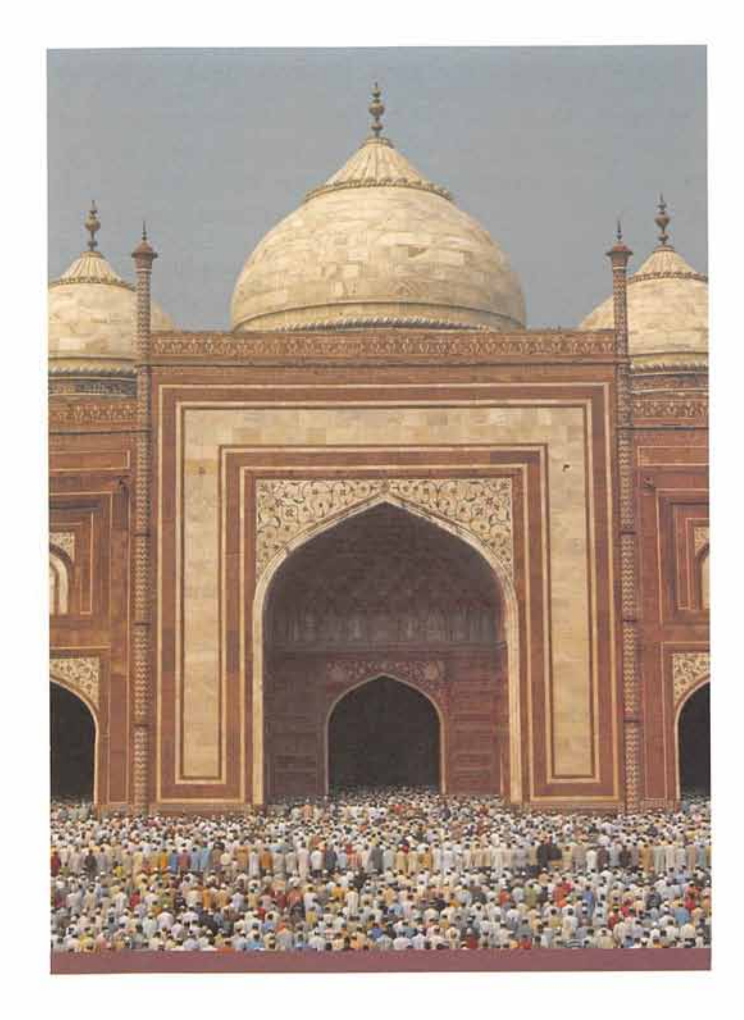
피뜨르 축제일(이드 알-피뜨르) :

이 날은 샤왈 달(이슬람력 10월)의 첫번째 날로서 라마단 마지막 밤의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렇기에 이드 알-피뜨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마단 단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한 후 이 날은 단식을 깸으로써(이프따르)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라마단 달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축제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 그리고 그대들이 셈한 날수를 채우기를 그리고 그분께서 그대들을 인도해주셨음에 그대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노라. 그리하여 그대들은 감사하게 될 것이라." (꾸란 제 2장 185절)

이드 때는 무엇을 하는가?

1 축제일(이드) 예배 : 이슬람은 이드 예배를 강조하고 있으며 여성들과 어린이들조차 집에서 나와 이드 예배에 참석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드 예배는 태양이, 무기로 쓰는 창의 길이만큼 떴을 때, 즉 지평선에서 약 1m 정도 뜬 시점에서 그 시간이 시작되며 두흐르 예배가 시작될 때 그 시간이 종료됩니다.

예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라크아를 드리며, 각 라크아마다 이맘(예배 인도자)은 소리내어 꾸란을 낭송합니다. 그 후 이맘은 두 번의 설교를 실시합니다. 이드 예배에서는 각 라크아마다 타크비르('알라후 아크바르', 즉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시다' 를 말하는 것) 횟수가 정해져있는데, 첫번째 라크아에서는 7번의 타크비르를 하며, 수주드(부복)에서 일어선 후 시작되는 두번째 라크아에서는 5번의 타크비르를 합니다.



2 **자카툴 피뜨르(피뜨르 축제일 맞이 자선 양식)**: 하나님께서는, 이드 밤과 날에 필요한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 약 3kg의 주식(예를 들어 쌀)을 불우한 무슬림에게 나눠주길 의무화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드 날에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음식값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자카툴 피뜨르로 내는 것도 허락됩니다.

자카툴 피뜨르를 내는 시간 : 라마단 마지막 날의 마그립(저녁) 시간 때부터 이드 예배가 실시되기 전까지이며 그보다 하루나 이틀 먼저 내는 것도 허락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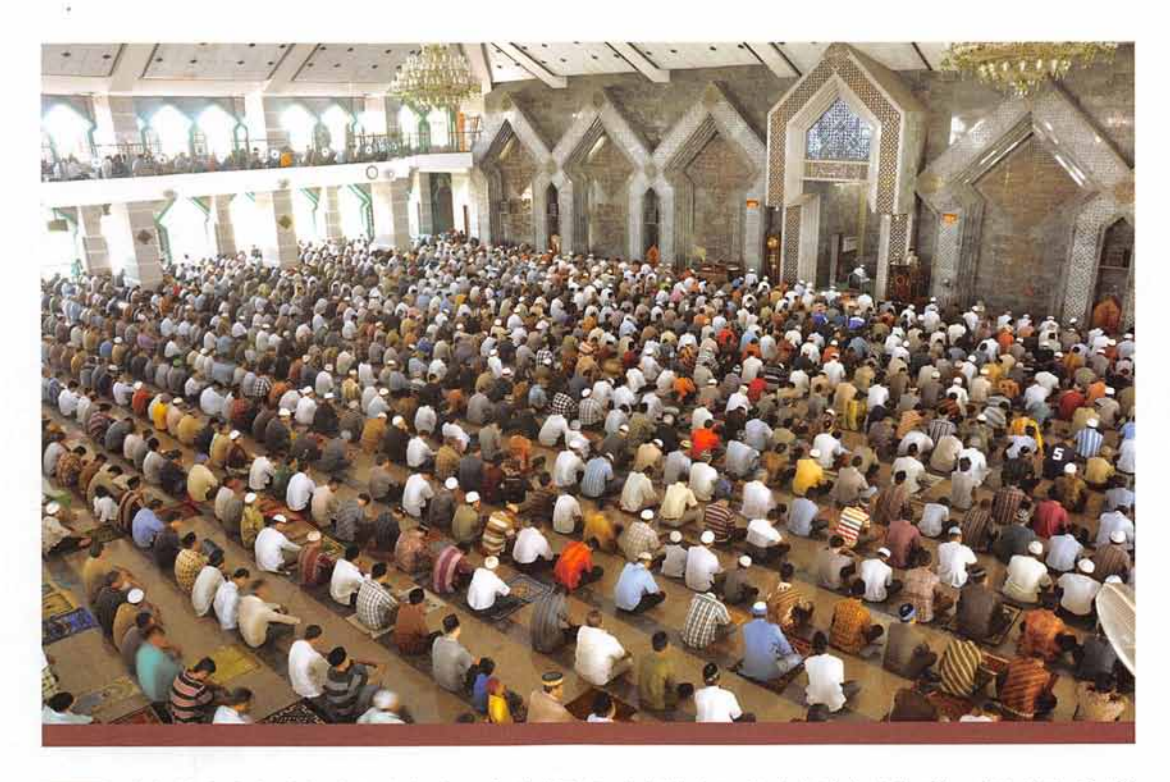
자카툴 피뜨르는 해당 지역의 사람들의 주식, 예를 들어 밀이나 쌀 또는 타무르(대추야자열매)를 '앗-싸으' 만큼 내는 것입니다. 앗-싸으는 부피 단위이며 무게 단위로 환산해보면 약 3kg에 해당합니다.

자카툴 피뜨르를 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경제적 부양을 책임져야 할 사람 예를 들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대신해서 자카툴 피뜨르를 내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를 대신해서 자카툴 피뜨르를 내는 것도 권장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식을 인당 3kg으로 계산해서 냅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자카툴 피뜨르를 의무화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식자의 실없는 말과 외설스런 말을 정화시켜주며 불우한 자를 위한 양식이 되노라. 예배 전에 내었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진 '자카'가 되며 예배 후에 내었다면 그것은 '싸다까'(희사)가 될 것이라." ('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하디쓰, no.1609)

3 **이 날은 어린이나 어른,** 남자나 여자에 관계없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퍼뜨리는 날입니다. 이 날은 좋은 옷을 입고 단식을 깨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따라서 이드 날의 단식은 금지됩니다.





4 라마단 마지막 날의 저녁부터 이드 날 예배를 드리러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 우리는 타크비르, 즉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를 외칩니다. 이를 통해 기쁨을 표출하고 축복받은 라마단 단식이 무사히 끝났음을 알리며 단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셈한 날수를 채우기를 그리고 그분께서 그대들을 인도해주셨음에 그대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노라. 그리하여 그대들은 감사하게 될 것이라." (꾸란 제 2장 185절)

축제일(이드) 때 쓰이는 타크비르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 라 일라하 일랄라 /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 와 릴라힐 함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 하나님께로 모든 찬미가 돌아갑니다.)

또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 '알라후 아크바르 카비라 / 왈함두릴라히 카씨라 / 와 수브하날라히 부크라탄 와 아씰라' (하나님은 진실로 가장 위대하십니다 / 하나님을 많이 찬미드립니다 / 밤낮으로 하나님의 완벽함을 드높입니다)

타크비르를 할 때 남성은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들을 방해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성은 조용히 목소리를 낮추어 타크비르를 합니다.


의무희사금



5

하나님께서는 자카(의무희사금)를 의무로 지정하셨으며 의무희사금(자카)은 이슬람의 다섯 가지 실천 기둥 중 세번째 기둥입니다. 의무희사금(자카)을 내지 않는 자에 대해서 엄중한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으며, 참회와 예배 실시와 의무희사금(자카) 헌납은 무슬림으로서의 형제애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뉘우치고 예배를 드리며 자카를 낸다면 그들은 종교에 있어서 그대들의 형제들이라" (꾸란 제 9장 11절)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슬람은 다섯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있노라… ; 예배를 드리는 것, 의무희사금(자카)을 내는 것"('알-부카리'(no.8)와 '무슬림'(no.16)이 수집한 하디쓰)

차례

의무희사금(자카)

의무희사금(자카)는 하나님께서 무슬림에게 의무로 지정하신 일정 비율의 희사금을 뜻하며, 가진 자들이 내는 의무희사금(자카)은 가난하고 불우한 자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안에는 다른 여러 지혜가 담겨있습니다.

의무희사금(자카)에 담긴 지혜 :

하나님께서 의무로 지정하신 자카에는 여러 위대한 지혜가 담겨있으며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물에 대한 욕심은 인간의 본능으로서, 재산을 모으고 지키기 위해 인간은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됩니다. 이에 이슬람은 자카를 의무로 지정함으로써 인색함과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현세에 대한 사랑과 집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오, 무함마드여!) 그들의 재산으로부터 희사금을 받아 그것으로써 그들을 정화하고 그들을 깨끗이 하라.” (꾸란 제 9장 103절)

2 의무희사금(자카) 헌납은 상호부조와 형제애의 초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마치 견고한 건축물이 서로를 받쳐주듯이 무슬림 사회의 구성원은 서로 서로를 사랑하고 결집하게 되며 절도나 강도, 횡령 등의 범죄행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3 의무희사금(자카)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경배와 조건없는 겸허함과 완전한 복종이 실현됩니다. 가진 자가 자기의 재산에서 의무희사금(자카)을 계산하여 헌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률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며 그분께서 내리신 은총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감사한다면 나는 실로 그대들에게 더해 줄 것이라.” (꾸란 제 14장 7절)

4 의무희사금(자카)을 냄으로써 사회 보장 정신을 실현하게 되고 경제 계층간의 불균형이 해소되며 필요한 자에게 희사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특정 계층에만 부가 집중되는 독점 현상이 해소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그대들 중 부유한 자들 사이에서만 맴도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꾸란 제 59장 7절)



재물에 대한 욕심은 인간의 본능이며 이슬람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재물에 얽매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카가 적용되는 재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해당 물품의 실제적 효용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의무회사금(자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경우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자카를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역시 아무리 비싼 고급 승용차라도 자카를 내지 않습니다. 입는 옷이나 먹거리, 마실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카를 의무로 하신 재산이란 실제로 필요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아닌, 성장이나 증가의 속성을 지니는 것들로서 다음과 같은 재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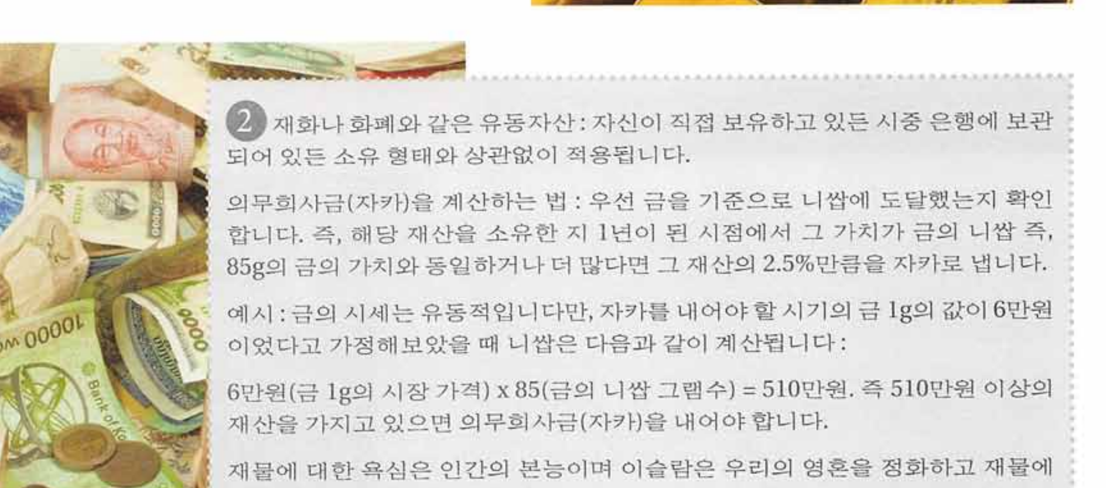
1 옷이나 장신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금이나 은:

이슬람법(샤리아)이 지정하고 있는 특정량(니쌉) 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유일로부터 이슬람력(음력) 기준으로 일년, 즉 354일이 지났을 때 의무회사금(자카)이 적용됩니다.

금과 은의 니쌉(자카가 의무화되는 특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은 85그램이며, 은은 595그램입니다.

이 무게 이상의 금이나 은을 소유한 지 1년이 지났다면 소유자는 그 가치의 2.5%를 의무회사금(자카)으로 내어야 합니다



2 재화나 화폐와 같은 유동자산: 자신이 직접 보유하고 있든 시중 은행에 보관되어 있든 소유 형태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의무회사금(자카)을 계산하는 법 : 우선 금을 기준으로 니쌉에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즉, 해당 재산을 소유한 지 1년이 된 시점에서 그 가치가 금의 니쌉 즉, 85g의 금의 가치와 동일하거나 더 많다면 그 재산의 2.5%만큼을 자카로 냅니다.

예시 : 금의 시세는 유동적입니다만, 자카를 내어야 할 시기의 금 1g의 값이 6만원이었다고 가정해보았을 때 니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6만원(금 1g의 시장 가격) x 85(금의 니쌉 그램수) = 510만원. 즉 510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의무회사금(자카)을 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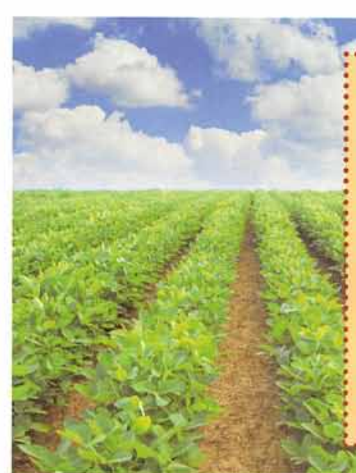
재물에 대한 욕심은 인간의 본능이며 이슬람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재물에 얽매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상거래를 위한 보유물품

그 뜻은 : 상거래를 위해서 마련된 식품이나 소비재 등의 진열품 등을 뜻합니다.

의무희사금(자카)을 계산하는 법 : 우선 소유한 지 일년이 지난 모든 보유물품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그 가치는 자카를 내고자 하는 그 날의 시장 가치로 판단합니다. 물품의 가치가 자카를 내어야 하는 금액(니쌉)에 도달했을 때 해당 금액의 2.5%가 자카가 되는 것입니다.



4 농작물이나 과일이나 곡물 등의 대지 수확물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오, 믿는 자들이여! 그대들이 얻은 좋은 것들과 내가 그대들을 위해 대지에서 꺼낸 것으로부터 희사금을 내라."(꾸란 제 2장 267장)

의무희사금(자카)이 적용되는 수확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만 모든 수확물에 자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확물이 일정량에 도달해야만 자카가 의무화됩니다.

비 또는 강 등 특정한 노력 없이 물을 대어 수확한 작물과 관개시설을 통해 수확한 작물의 의무희사금(자카) 비율이 다른데 이는 사람들의 형편을 배려한 것입니다.



5 소, 낙타, 양 등의 가축. 단 자연 방목으로 기른 경우에만 의무희사금(자카)이 적용되며 사료를 따로 준비하여 기른 경우는 제외됨.

즉, 매일 혹은 대부분의 경우 준비된 사료를 먹이로 주었을 경우에는 자카를 내지 않습니다.

자카를 내어야 할 가축의 마리수과 자카의 비율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 서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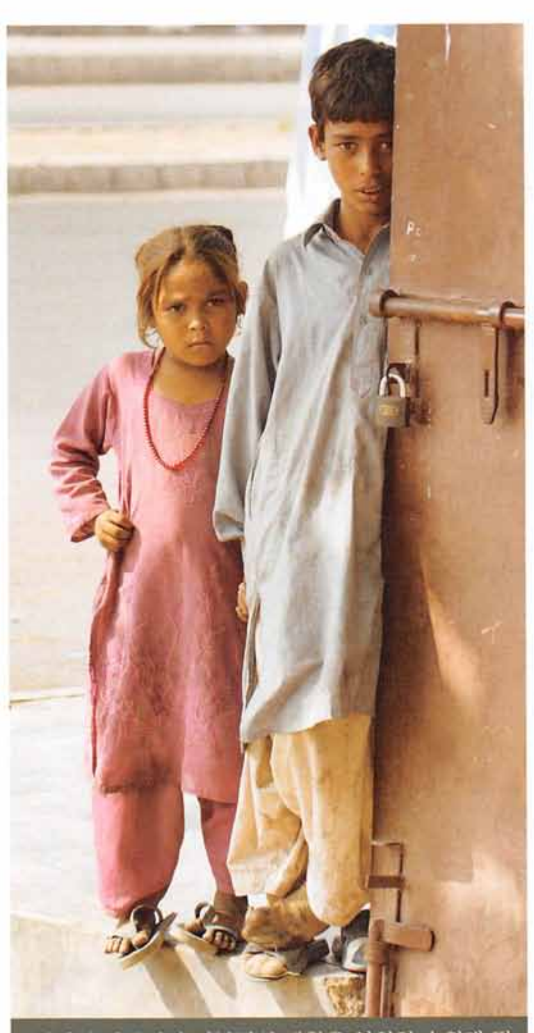
자카는 누구에게 쓰이는가?

이슬람은 자카의 수혜 대상자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자카를 한 명에게만 써도 되며 여러 명에게 써도 좋습니다. 혹은 자카 관련 기관에 자카를 맡긴다면 해당 기관이 필요한 자에게 분배를 대신해 줄 것입니다. 해외가 아닌 국내 거주 무슬림에게 자카를 쓰는 것이 우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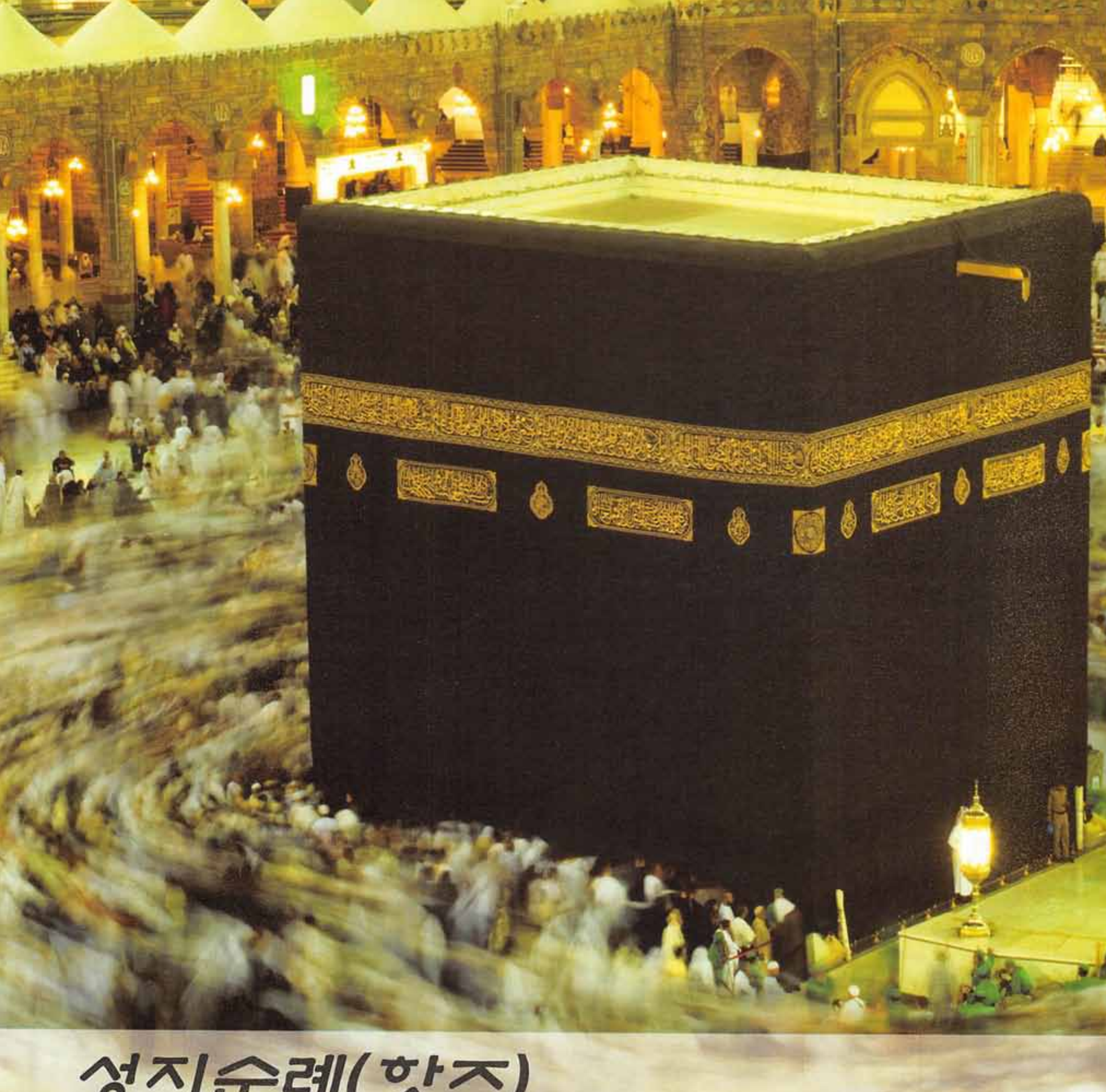
자카의 수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난한 자와 불우한 자 : 그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들입니다.
2. '자카'를 모금하는 자 : 분배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수혜의 대상이 됩니다.
3.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돈을 지불하여 해방되고자 할 때 : 자카를 통해 그가 자유인이 될 수 있게 돕습니다.
4.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 : 빚을 진 이유가 자신의 개인적 효용을 위한 것이든지 타인의 효용을 위한 것이든지에 상관없습니다.
5.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하는 자 : 그들은 종교와 이슬람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며 이슬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6. 마음이 이끌리는 자 : 불신자였다가 새로 입교한 자나 불신자이지만 입교를 고려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그들에게 자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을 대표하는 단체나 자카 관련 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7. 장거리 이동중인 자 : 가진 것이 다 떨어져 원하는 곳으로의 이동이 힘든 자는 거주지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수혜 대상자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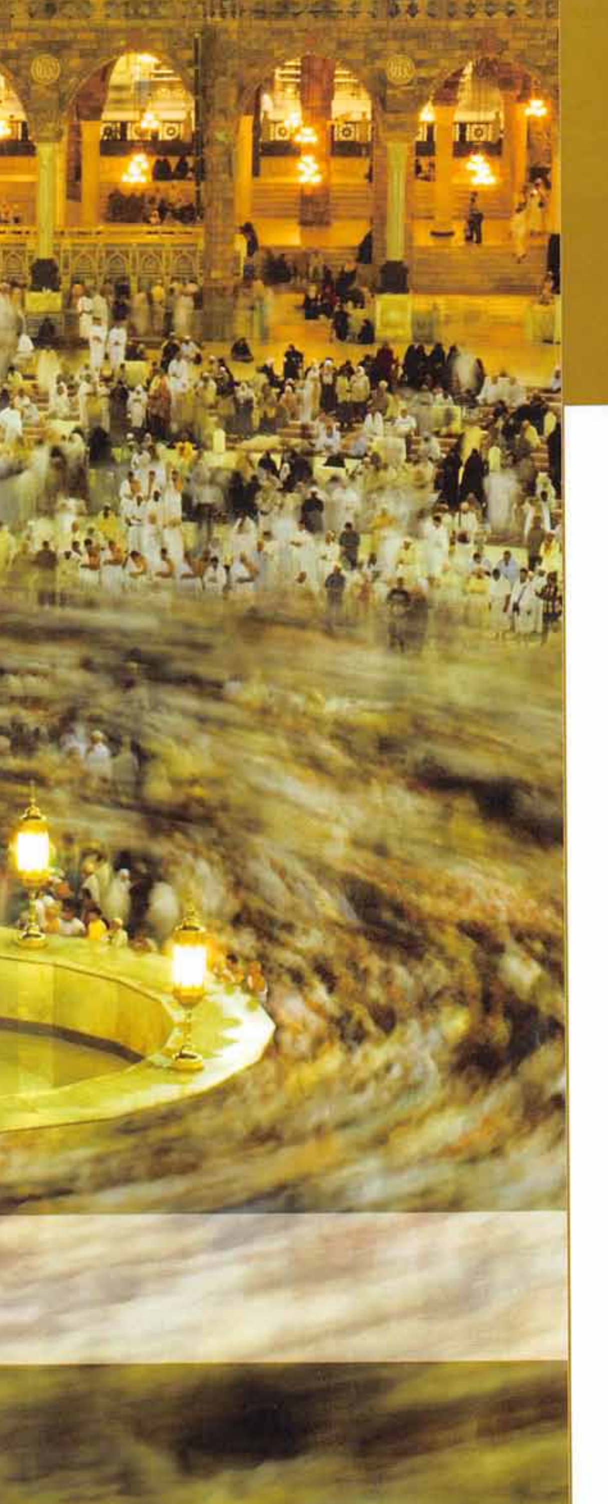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카의 수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의무)회사금은 오직 가난한 자와 불우한 자, 회사금 관련 종사자, 마음이 이끌리는 자, 그리고 해방을 바라는 노예, 빚이 있는 자,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 장거리 이동 중인 자를 위한 것이라"(꾸란 제 9장 60절)



가난한 자들이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들을 뜻합니다.



성지순례(핫즈)



6

메카로 떠나는 성지순례(핫즈)는 이슬람의 다섯 가지 실천 기둥 중 다섯번째로 몸과 마음으로써, 그리고 재산을 통해 실천하는 경배 행위입니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능력이 닿는 무슬림은 반드시 평생에 한번은 성지순례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인간에게는 카으바로의 성지순례(핫즈)가 의무화되었으니 그곳으로 떠날 능력이 허락되는 자에 한해서라. 그리고 불신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의 무엇도 필요치 않으신 분이라."(꾸란 제 3장 9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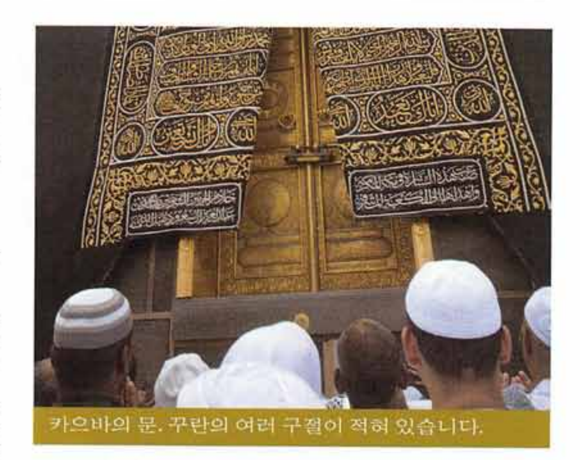
차례 :

성지순례(핫즈)

메카와 하람 성원의 축복

1 하람 성원은 아라비아 반도 서쪽에 위치한 메카(사우디아라비아 소재)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하람 성원이 가진 많은 축복 중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성원 안에는 고귀한 카으바가 있습니다:
카으바는 정육면체 건물로 메카에 있는 하람 성원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으바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예배와 기타 경배 행위시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끼블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브라힘)과 이스마엘(이스마일)이 카으바를 건축한 바 있으며 그 후 여러 번의 재건축 과정을 거쳤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아브라함(이브라힘)과 이스마엘(이스마일)이 카으바의 주춧돌을 세우니 '오, 저희들의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실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 (꾸란 제 2장 127절)
메카의 부족들이 카으바의 흑석(알-하자르 알-아스와드)을 놓을 때 선지자 무함마드(그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도 그들과 함께 한 바 있습니다.

2 이 성원은 지구 최초의 성원입니다:
아부 다르(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시길)가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여쭈었습니다 : "오, 하나님의 사도시여! 지구상에 세워진 최초의 성원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하길 : "하람 성원이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아끄싸 성원이라." "둘 사이의 간격은 얼마나 됩니까?" "사십년이라.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그대가 어디에 있든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그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라." ('알-부카리'(no.3186)와 '무슬림'(no.520)이 수집한 하디쓰)


카으바의 문. 꾸란의 여러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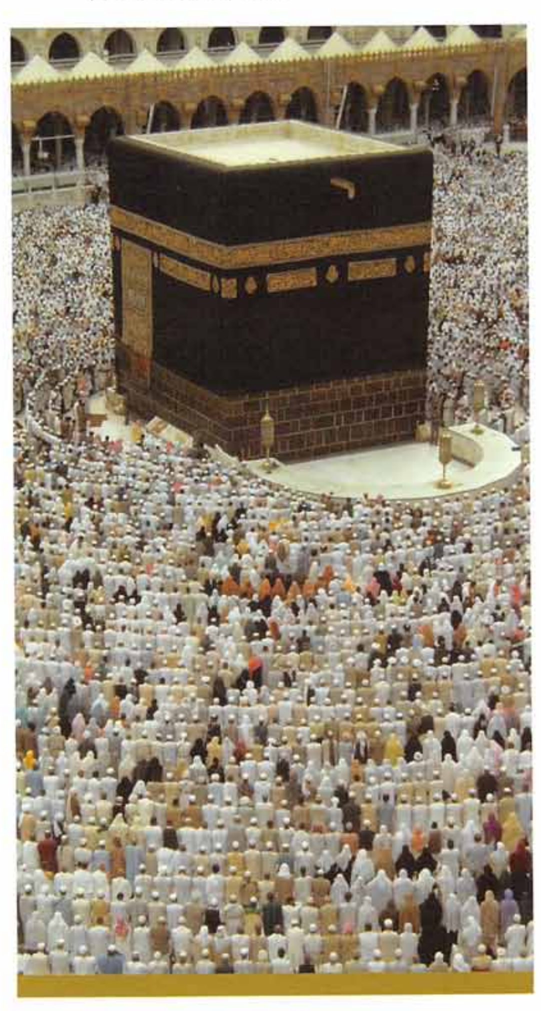
3 이 성원에서 드리는 예배의 보상은 증가됩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 "나의 이 성원-즉 선지자 성원-에서의 예배는 다른 성원에서 드리는 천 번의 예배보다 더 좋으니라. 그러나 하람 성원은 예외라. 하람 성원에서의 예배는 다른 성원에서 드리는 십만 번의 예배보다 더 좋으니라." ('이븐 마자'(no.1406)와 '아흐마드'(no.14693)가 수집한 하디쓰)

4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는 이 성원을 성역으로 두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말하라, 오, 무함마드여!) '나는 이 도시(메카)의 주님을 경배하라 명령받았을 뿐이며 그분께서는 그곳(메카)을

성역으로 두셨노라. 그리고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이며 나는 무슬림이 될 것을 명령받았도다.'"(꾸란 제 27장 91절)
즉 하나님께서는 메카를 성역으로 두시어, 그 안에서 타인의 피를 흘리게 하거나 사람을 부당히 다루거나 사냥이나 나무와 풀을 베는 행위를 금하신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실로 하나님께서는 메카를 성역으로 두셨노라. 그러나 사람들은 메카를 성역에 걸맞게 대우하지 않더라. 하나님과 최후의 날을 믿는 자라면 그 곳에서 타인의 피를 흘리게 하거나 나무를 베는 행위가 허락되지 않노라." ('알-부카리'(no.104)와 '무슬림'(no.1354)이 수집한 하디쓰)

5 이 성원이 있는 메카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있어 가장 사랑스러운 도시입니다.
한 교우(싸하바)가 전하길 : 저는 탈 것 위에서 하즈와라(메카 내의 지역 이름)에 서 계신 하나님의 사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 "하나님께 맹세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너(메카)는 가장 훌륭한 땅이며 가장 사랑스러운 땅이라. 그들이 나를 추방하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절대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 ('앗-티르미디'(no.3925)와 <알-쿠브라>의 '안-나사이'(no.4252)가 수집한 하디쓰)

6 하나님께서 능력이 허락되는 자에게 이 성원의 카으바로 성지순례를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브라힘(아브라함)(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사람들에게 성지순례를 실시하라 외쳤고, 이에 사람들은 전세계 모든 곳에서 무리를 지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그들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역시 카으바로 성지순례를 하셨습니다. 이브라힘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 이브라힘아!) 사람들에게 성지순례를 선포하라. 그들이 걸어서 그리고 멀고 깊은 산길에서 온 수척한 낙타를 타고서 그대에게 올 것이라" (꾸란 제 22장 27절)





카으바 근처를 일곱 바퀴 맴도는 것은 핫즈와 우므라의 필수 요소입니다.

성지순례의 뜻 :

성지순례(핫즈)는 여러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카으바로 순례하는 것을 뜻하며 성지순례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하신 행동과 말씀을 기초로 수행됩니다. 이흐람 상태로 들어가기, 카으바 일곱 바퀴 돌기, '싸파'와 '마르와' 동산 일곱번 왕복하기, 아라파 평원 체류, 미나에서 돌 던지기 등이 대표적인 의식들입니다.

성지순례를 통해 타우히드(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는 것)가 겉으로 표출되며, 순례객들의 죄가 용서되며, 다른 출신의 무슬림들끼리 안면을 익히고, 종교의식을 배우고 공부하는 등 핫즈를 통해 실현되는 효용은 다양합니다.

성지순례 시간 : 성지순례 대부분의 의식은 둘힛자 8일부터 13일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둘힛자는 음력에 기초한 이슬람력의 12월입니다.

성지순례가 의무가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성을 지닌 성인이면서 능력이 닿는 무슬림에게 성지순례는 의무가 됩니다.

능력이 닿는다는 것은 :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카으바로의 여행이 가능하며, 일반 여행에서 겪는 통상적인 고충보다 훨씬 더한 어려움 없이 핫즈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신과 재산의 안녕이 보장되고, 핫즈를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필요 이상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성지순례와 관련한 무슬림의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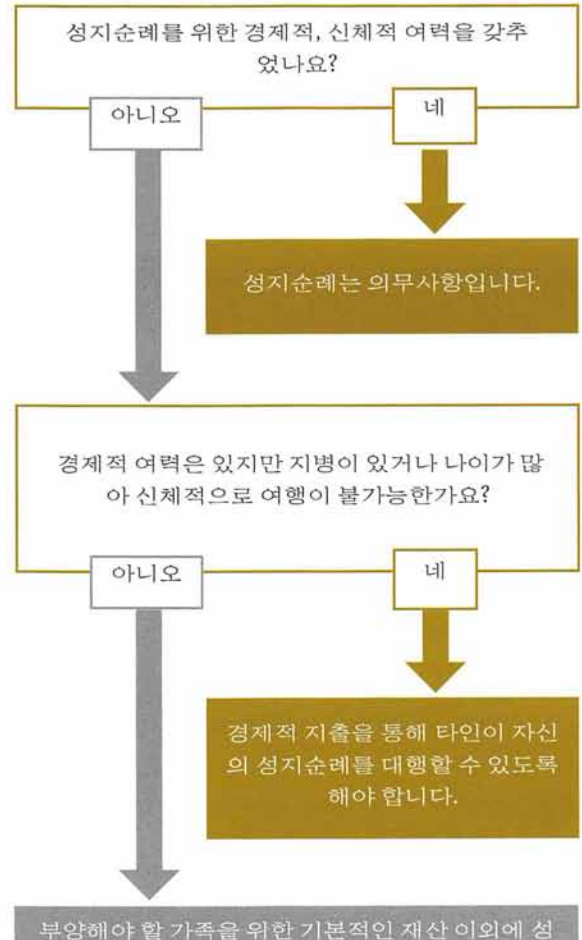
1. 자신이 직접 핫즈(성지순례)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 즉 비정상적인 어려움 없이 카으바에 도착할 수 있으며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있을 때. 이 상태에 있는 무슬림에게는 성지순례가 의무 사항이 됩니다.

2. 타인을 통해서만 성지순례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 즉 아프거나 나이가 많아 직접 성지순례를 할 수는 없으나 자신을 위해 성지순례를 대행해 줄 사람이 있고 그를 위한 경제적 지출이 가능할 때. 이 때는 경제적 지출을 통해 타인이 자신의 성지순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자신이 직접 성지순례를 수행할 수도 없으며, 타인이 대행해줄 수도 없는 상태, 이 때는 능력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성지순례가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부양을 위한 기본적인 재산 이외에 추가적인 여력이 없는 사람은 성지순례가 의무가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위해 반드시 돈을 모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여건이 허락할 때에만 성지순례가 의무가 됩니다.



여성 순례객의 선결조건인 마흐람

여성에게 성지순례가 의무가 되는 선결 조건은 그녀에게 '마흐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여행에 동반해줄 마흐람이 없다면 그녀에게 성지순례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마흐람은 남편이나 결혼이 영원히 불가능한 남성, 예를 들어 아버지나 아들, 손자, 친형제나 친형제의 아들, 삼촌이나 외삼촌 등입니다. (p.173 참조)

마흐람이 없었으나 안전함이 보장된 여행을 통해 성지순례를 실시했다면 그녀의 성지순례는 성립됩니다.

성지순례의 축복

성지순례(핫즈)와 관련된 축복과 장점은 대단히 많습니다:

1. 성지순례는 가장 좋은 선행 중의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여쭈었습니다: '어떠한 선행이 가장 좋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믿는 것이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하는 것이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여진 핫즈라." ('알-부카리'(no.1447)와 '무슬림'(no.83)이 수집한 하디쓰)

2. 용서를 위한 특별한 시기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핫즈를 하면서 외설스런 말이나 거역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마치 어머니가 그를 낳은 날로 되돌아가노라." ('알-부카리'(no.1449)와 '무슬림'(no.135)이 수집한 하디쓰) 즉, 어머니가 방금 그를 낳은 것처럼 그 어떠한 죄도 없는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3. 불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라파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복을 불지옥에서 가장 많이 해방시키는 날이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1348)

4. 성지순례의 보상은 천국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여진 핫즈에 대한 보상은 오직 천국이라." ('알-부카리'(no.1683)와 '무슬림'(no.1349)이 수집한 하디쓰)

이 모든 축복은 의도가 순수하고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제시한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지순례에 담겨진 지혜

성지순례에는 개인과 사회를 위한 여러 지혜가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흐르의 날(이슬람력 12월 10일) 그분을 위해 가축을 도살하는 자를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의 고기나 피가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이르는 것은 그대들로부터의 경외심이라."(꾸란 제 22장 37절)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카으바 주위를 돌고, 싸파와 마르와를 왕복하며, 돌을 던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라." ('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하디쓰, no.1888)

성지순례에 담겨진 지혜 :



핫즈와 우므라를 원하는 무슬림은 반드시 그와 관련된 규정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1 하나님에 대한 겸허함과 겸손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

순례자는 사치나 꾸밈을 거부하고, 간소한 이흐람 차림을 통해 주님 앞에 가난한 자신을 드러내며, 그분에 대한 진실성을 방해하는 현세의 여러 일들을 멀리합니다. 이를 통해 그분의 용서와 자비를 빌고, 아라파 평원에 서서 간절히 주님께 요청하고 그분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2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게 됩니다 :

성지순례에 대한 감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 재산이라는 은총에 대한 감사와 건강이라는 은총에 대한 감사가 그것입니다. 이 두가지는 현세의 기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지순례에는 이 두가지 커다란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주님께 복종하고 그분께 다가가기 위해 육체적으로 노력하고 재산을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에 대한 감사는 기본 상식이자 이슬람의 규정 사항이기도 합니다.

3 무슬림이 집결하게 됩니다 :

성지순례(핫즈)에서 세계 각처의 무슬림은 한 곳에 모입니다. 서로를 알게 되고 친숙해지며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이 사라집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국적과 피부색, 언어에 대한 구별이 사라지며, 무슬림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모임인 핫즈를 통해 하나가 됩니다. 신앙과 경외심, 진리와 인내에 대한 상호 권장으로써 무슬림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의 목적은 이처럼 하나님의 종교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4 최후의 날에 대해 떠올리게 됩니다 :

성지순례를 통해 무슬림은 주님과 만나게 될 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즉, 순례객은 평상복을 벗고 탈비야를 하면서 이흐람 상태로 들어간 후 아파라 평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옷은 종류가 하나이며 수의를 닮았으니 순례객은 자연스레 죽음 후에 닥치게 될 여러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현세에서 더욱 더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5 타우히드(말과 행동으로써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는 것)가 드러나게 됩니다 :

순례객의 표어는 탈비야 (랍바이칼라 훔마 랍바이크, 랍바이카 라 샤리카 라카 랍바이크, 인날 함다 완 니으마타 라카 왈 물크, 라 샤리카 라크)입니다. 따라서 교우(싸하바) 중 한 명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탈비야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습니다 : "타우히드를 높이 외치셨다"('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1218) 타우히드는 성지순례의 의식 곳곳에서 말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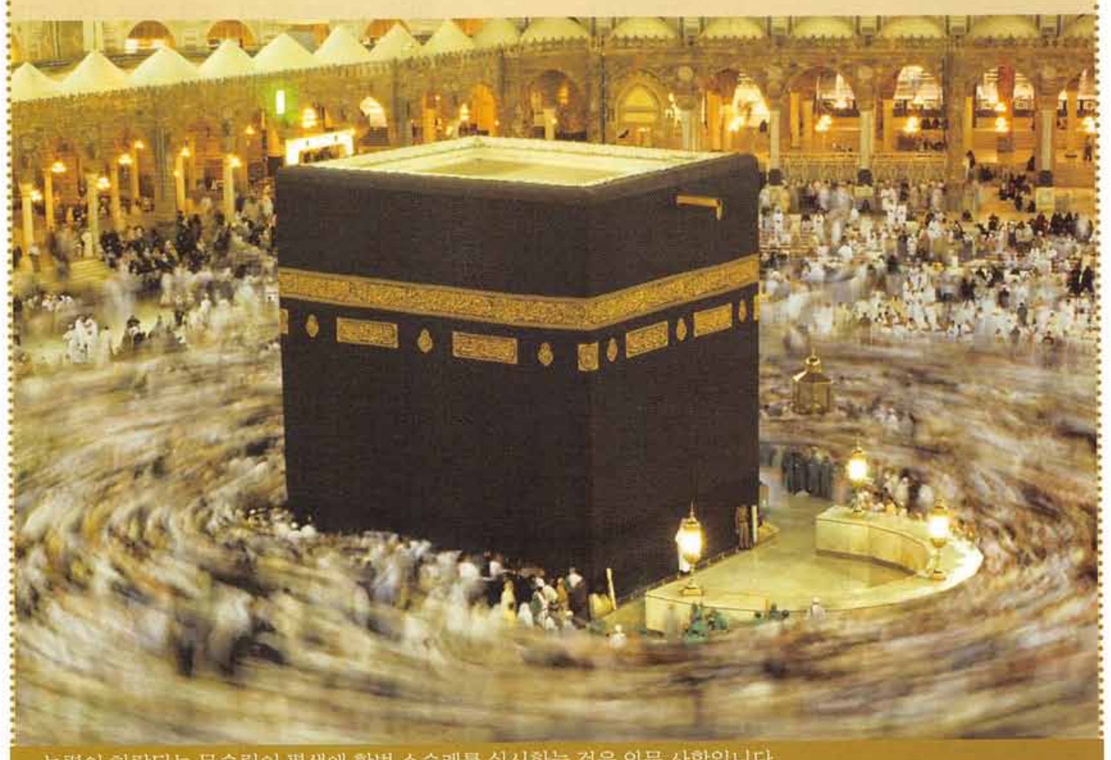
핫즈(대순례)와 우므라(소순례)를 하는 무슬림은 반드시 '싸파'와 '마르와' 사이를 왕복해야 합니다.

소순례

소순례(우므라)는 카으바 주위를 일곱 바퀴 돌고 '싸파'와 '마르와' 사이를 일곱 번 왕복한 뒤, 삭발 혹은 이발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소순례에 관한 판결 : 능력이 허락되는 무슬림이 평생에 한번 실시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며, 그 이상 반복하는 것은 권장 사항입니다.

소순례의 시간 : 일년 중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라마단 달에 하는 소순례에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라마단 달의 우므라는 핫즈와 동일하노라." ('알-부카리'(no.1764)와 '무슬림'(no.1256)이 수집한 하디쓰)



능력이 허락되는 무슬림이 평생에 한번 소순례를 실시하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축복 가득한 아드하 축제일(이드 알-아드하)

이 날은 무슬림의 두번째 축제일(이드)로서 둘 힛자(이슬람력 12월) 10일에 해당합니다. 이 날에는 많은 축복이 있으며 그 중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 날은 일년 중 가장 좋은 날,** 즉 둘 힛자의 첫번째 십일(1~10일) 중의 하나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선행은 이 십일 동안에 행하는 선행이라."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수행하는 지하드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까?" 그가 말씀하시길 "그렇노라. 하나님의 길에서 수행하는 지하드보다 이 시기의 선행이 더 좋으니라. 그렇지만, 자기 자신과 재산을 가지고 출전한 후 그 모든 것을 잃어 돌아오지 못한 경우는 예외라."(‹알-부카리›(no.926)와 ‹앗-티르미디›(no.757)가 수집한 하디쓰)

2 **이 날은 성지순례의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 이 날은 성지순례의 가장 중요한 의식들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카으바 돌기, 짐승 도살, 돌 던지기는 모두 이 날에 수행됩니다.

축제일(이드)에는 무엇을 하는가?

순례객이 아닌 일반 무슬림은 이 날, 피뜨르 축제일(이드 알-피뜨르)에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p.147). 그러나 자카툴 피뜨르는 예외로 이것은 피뜨르 축제일 때만 내는 것입니다.

아드하 축제일(이드 알-아드하)에는 특별히 짐승을 도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알-우드히야란 : 아드하 축제일 때 하나님을 경배할 목적으로 도살된 낙타나 소나 양을 뜻합니다. 도살 시간대는 둘-힛자 10일 축제일(이드) 예배 이후부터 13일 마그립 예배(저녁 예배) 시간까지입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러니 그대 주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희생물을 잡으라"(꾸란 제 108장 2절) 즉, 이드 예배를 드리고 알-우드히야를 바치라는 뜻입니다.

관련 판결 : 알-우드히야는 권장사항(순나)으로서 능력이 허락되는 자에게 적극 권장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도살을 실시합니다.

알-우드히야를 의도한 자는 둘 힛자 1일부터 도살 전까지, 머리카락이나 손발톱을 깎거나 피부에서 뭔가를 때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희생물로 쓰일 가축의 조건 :

1 가축, 즉 양(혹은 염소)이나 소나 낙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외의 동물이나 조류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희생물이 되며, 소나 낙타는 한 마리로 일곱 명까지의 도살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가축이 정해진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 양은 6개월, 염소는 1년, 소는 2년, 낙타는 5년입니다.

3 가축에 명백한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다음의 네 가지는 희생물로 쓰일 수 없노라 : 명백히 한쪽 눈이 먼 가축, 명백히 병이 있는 가축, 명백히 절름발로 걷는 가축, 여윈 나머지 골수가 텅빈 가축이 그것이라." ('안-나사이'(no.4371)와 '앗-티르미디'(no.1497)가 수집한 하디쓰)

잡은 고기는 어디에 쓰는가?

- 알-우드히야 고기의 상거래는 금지됩니다.
- 삼분의 일로 나누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즉, 삼분의 일은 자기가 먹고 삼분의 일은 선물로 쓰며, 나머지 삼분의 일은 가난한 자를 위해 희사합니다.
- 필요에 따라 알-우드히야 관련 비영리단체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도살과 고기 분배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희생물에 쓰일 가축은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메디나 방문

메디나는 메카 우상숭배자들의 박해를 피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주하신 도시의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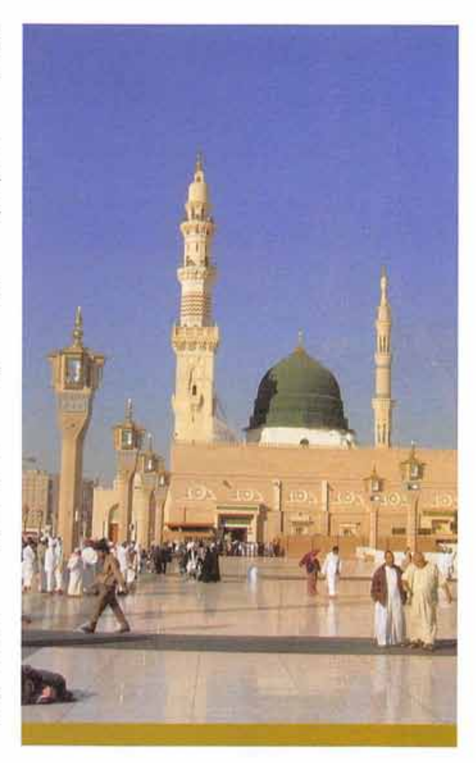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메디나에 도착하시어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의 하나는 선지자 성원(알-마스지드 안-나바위)을 지은 것이며 이 성원은 지식과 다와(선교)와 선행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습니다.

핫즈(성지순례) 기간이나 그 이외의 기간에 선지자 성원을 방문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선지자 성원의 방문은 성지순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특정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오직 세 개의 성원만이 여행의 목적이 될 수 있노라 : 하람 성원, 이 성원(선지자 성원), 그리고 아끄싸 성원이 그것이라." ('알-부카리'(no.1139), '무슬림'(no.1397), '아부 다우드'(no.2033)가 수집한 하디쓰)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 "나의 이 성원(선지자 성원)에서의 예배는 다른 성원에서 드리는 천 번의 예배보다 더 좋으니라. 그러나 하람 성원은 예외라." ('알-부카리'(no.1133)와 '무슬림'(no.1394)이 수집한 하디쓰)



메디나 방문시 무엇을 하는가?

메디나 방문의 목적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성원의 방문과 그 안에서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방문이 권장되는 메디나의 다른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라우다' 방문 : 라우다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집과 그의 설교대 사이의 장소를 뜻하며 선지자 성원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우다에서의 경배 행위는 권장 사항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나의 집과 나의 설교대 사이에는 천국의 정원에서 내려온 '라우다'(정원)가 있노라."('알-부카리'(no.1137)와 '무슬림'(no.139)이 수집한 하디쓰)

2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무덤 방문 : 메디나에 머물고 있는 무슬림은 선지자의 무덤을 방문하여 공손히 그에게 다음과 같이 평화의 인사(앗-쌀람)를 합니다. "앗쌀라무 알라이카 야 라수랄라'(오, 하나님의 사도여!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돌려보내시어 평화의 인사로써 내가 그의 인사에 답할 수 있도록 하셨노라." (' 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하디쓰, no.2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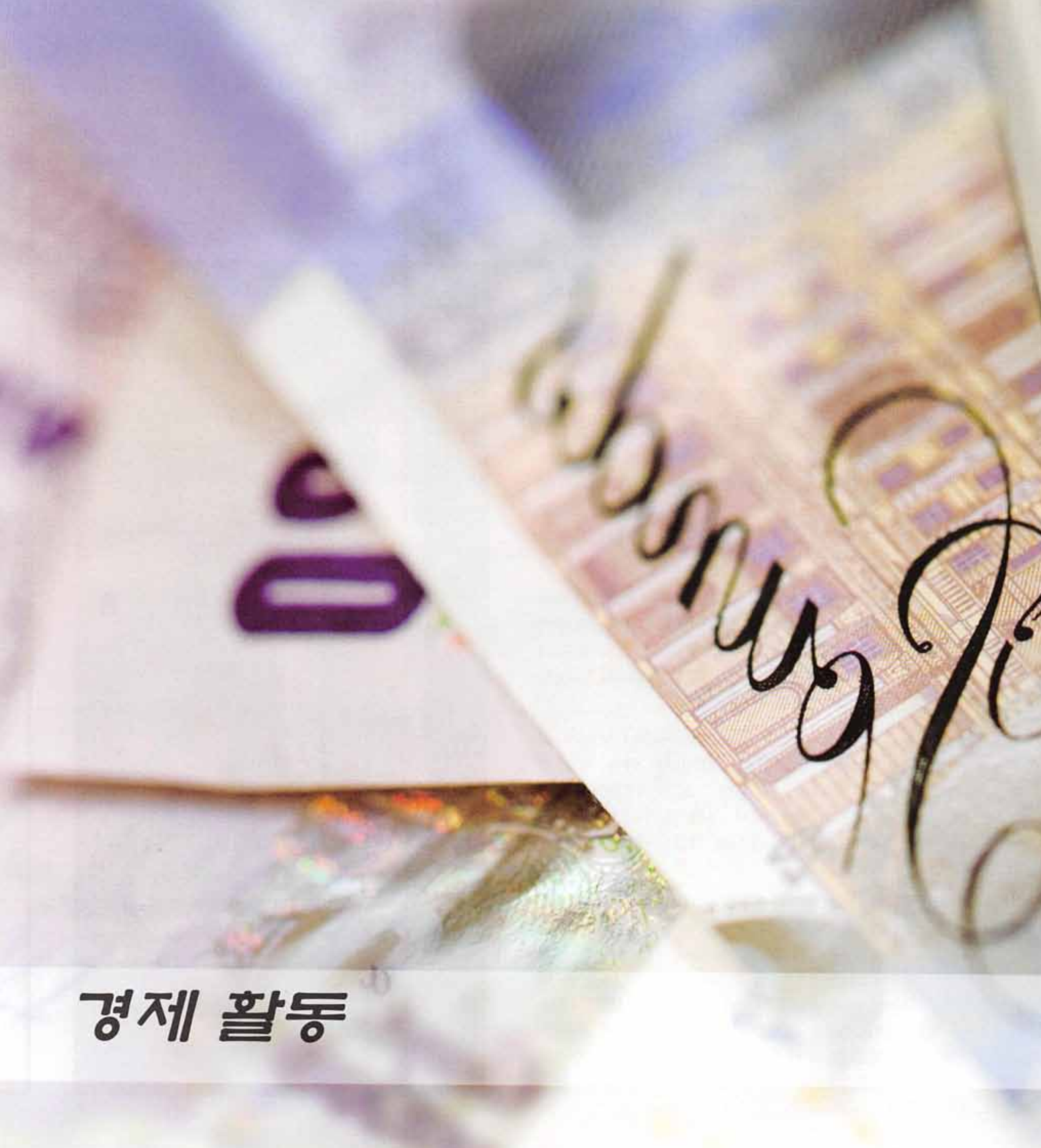
그 후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여, 선지자의 첫번째 계승자(칼리파)이자 가장 훌륭한 교우(싸하바)였던 아부 바크르 앗-씻디끄(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시길)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 후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여, 선지자의 첫번째 계승자(칼리파)이자 가장 훌륭한 교우(싸하바)이셨던 아부 바크르 앗-씻디끄(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 후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여, 선지자의 두번째 계승자(칼리파)이자 아부 바크르 이후 가장 훌륭한 교우(싸하바)이셨던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 에게도 평화의 인사를 건넵니다.

3 꾸바 성원 방문 : 이슬람에서 가장 먼저 건축된 성원이 바로 꾸바 성원이며 그 이후에 선지자 성원이 지어졌습니다. 메디나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꾸바 성원에서의 예배가 권장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이 성원을 방문하시곤 하셨으며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 "자신의 집에서 우두를 한 뒤 꾸바 성원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에게는 우므라(소순례)의 축복이 있노라" ('이븐 마자'가 수집한 하디쓰, no.1412)


꾸바 성원은 이슬람 최초로 건축된 성원입니다



경제 활동



7

이슬람은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그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 사회가 모든 영역에서 서로 단결하고 발전 및 진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차례 :

경제 활동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구걸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능력이 있는 자가 구걸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위치는 비천해지며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자는 그의 얼굴에 한점의 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 ('알-부카리'(no.1405)와 '무슬림'(no.1040)이 수집한 하디쓰)

또한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가난이 닥쳐와 그것을 사람들에게 넘긴다면 그의 가난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넘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조만간 그에게 부를 주실 것이라." ('아흐마드'(no.3869)와 '아부 다우드'(no.1645)가 수집한 하디쓰)

■ 생산업이나 서비스업, 투자업 등 모든 허락되는 직업은 명예로운 것이며 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선지자들께서도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는 양치기였노라."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2143), "자카리야(스가랴)는 목수였노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2379) 나머지 선지자들 역시도 이와 유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직업을 가짐에 있어, 자신과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타인에게 손벌리지 않으며 필요한 사람을 위해 돕겠다는 의도를 가진다면 그는 그의 직업과 일을 통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거래의 기본 원칙은 허용입니다 :

구매나 대여 등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 활동에 대한 기본 원칙은 그것이 무방하고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금지된 것이나 거래 방법이 금지된 것은 예외입니다.



허락된 직업 모두는 명예로운 것이며 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금지의 대상인 것 :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금지하신 대상은 그것의 거래나 구매나 판매 및 대여, 생산 및 유통 또한 금지됩니다.

이슬람이 그 자체를 금지한 대상은 :

- 개와 돼지.
- 동물의 시체와 그 일부분.
- 술과 알코올 음료.
- 마약 등 건강에 해를 끼치는 모든 것.
- 비디오테이프나 인터넷사이트, 포르노 잡지 등 사회에 추악함을 퍼뜨리는 도구들.
- 우상 등 하나님 이외에 경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

거래 방법으로서 금지된 것 :

대상 자체는 허용되는 것이지만,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래 방법으로 인해 금지된 것을 뜻합니다. 금지된 거래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바, 불확실성과 무지, 부당함, 도박.

아래와 같이 각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바

리바 : 부당함과 해악으로 인해 이슬람에서 금지된 이자를 뜻합니다.

리바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가장 널리 퍼져 있고 그 심각함이 막중한 리바는 대출을 통한 이자입니다. 즉, 거래나 쌍방의 물물교환을 통하지 않은 채 부과되는 원금의 증가분을 뜻하며 이 리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연체 이자 :

대출자가 지정된 만기에 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징수되는 이자를 뜻합니다.

예시 : 철수가 민수에게 100만원을 빌렸고 한달 후에 갚기로 했지만, 만기가 지나도 철수는 원금을 상환할 수 없었고, 민수는 철수에게 '지금 당장 돈을 갚으면 원금만을 내지만, 한달 후에 갚으려면 110만원을, 두달 후에 갚으려면 120만원을 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식입니다.

대출 이자 :

채무자가 은행 등의 채권자에게 연간 특정 금리의 이자로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예시 : 시가1억원의 집을 사고 싶지만 충분한 여력이 없어 은행으로부터 1억원 대출을 받으면서 5년 내에 1억 5백만원의 금액을 매달 갚아나가겠다고 합의하는 식입니다.

리바는 금지사항(하람)이며 커다란 죄 중의 하나입니다. 대출이 사업 투자를 위한 것이든 집이나 부동산 마련을 위해서이든 소비재 지출을 위한 것이든 상관없이 이자 개념이 포함된다면 그것은 리바입니다.

그러나 원가보다 비싼 가격의 물품을 할부로 구매하는 것은 리바가 아닙니다.


대출을 통해 채권자가 취하는 모든 이득은 리바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할부로 120만원에 구매하여 1년 동안 매달 10만원씩을 판매자에 지불하는 것은 허락됩니다.

리바에 관한 판결 :

리바는 꾸란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말씀(하디쓰)을 통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리바는 커다란 죄이며,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전쟁을 경고하신 죄는 오직, 리바를 취득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죄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바는 이슬람 이전의 종교에서도 금지되었지만 그 규정에 의도적 변형이 개입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분의 벌을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금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리바를 취득했기 때문이라" (꾸란 제 4장 161절)

리바에 대한 처벌

1. 리바를 다루는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와의 전쟁 속에 자신을 투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로부터의 전쟁이 있음을 확실히 알라. 그러나 그대들이 뉘우친다면 원금이 그대들의 것이니 그대들이 부당 행위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방법이라."(꾸란 제 2장 279절) 이 전쟁의 여파는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리바를 취득하며 그것을 돕는 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우울과 고뇌와 슬픔 등은 이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내세에서 느끼게 될 이 전쟁의 여파는 그렇다면 어떠할까요.

2 리바를 취득하고 그것을 다루는 자 그리고 그를 돕는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교우(싸하바) 자비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전승입니다 :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리바를 취득하는 자와 리바를 지불하는 자와 리바를 기록하는 자와 리바를 증언해준 두 명의 증인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그들은 모두 동일하도다."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1598)

3 리바를 취득하는 자는 심판의 날, 마치 미친 자가 발광하듯이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리바)이자)를 삼키는 자들은)심판의 날) 광기로 일어남에 마치 사탄이 마구 두들긴 자가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 (꾸란 제2장 275절)

4 아무리 많더라도 리바로 모은 재산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한 재산에는 안락함이나 행복,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리바(이자)의 축복을 멸하시고 희사금의 축복을 더해주시니"(꾸란 제 2장 276절)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리바의 위험성

이슬람은 리바를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리바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파괴적 부작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1 부의 불균형 분배와 경제 계층간의 편차가 심화됩니다 :

리바는 특정 소수의 손에 부를 집중시키며 나머지 대다수는 가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의 불균형 분배의 결과로 소수 집단에만 재산이 쏠리고 나머지는 가난하게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사회는 시기와 반목과 범죄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2 사치가 만연하고 근검 정신이 소멸됩니다 :

이자를 통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 돈을 낭비하게 되며 아껴 써야 함을 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돈을 빌릴 수 있기에 현재나 미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것에 돈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빚은 더욱 증가하여 결국 삶은 각박해지고 평생을 빚더미를 짊어진 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 리바로 인해, 가진 자들은 정작 사회에 유용한 투자 사업에는 망설이게 됩니다 :

부를 가진 자는 리바를 통해 고정된 금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기에 사회 발전에 필요한 농업 및 산업의 중요 프로젝트 투자에는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는 리바에 비해 얼마간의 위험성과 고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4 리바는 부에 내려진 축복이 소멸되고 경제가 붕괴되는 원인입니다 :

경제가 붕괴하고 개인 및 단체가 파산하는 이유는 그들이 금지된 리바를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희사금이 축복을 받아 증가하는 것과 달리 리바에는 커다란 부작용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 하나님께서는 리바(이자)의 축복을 멸하시고 희사금의 축복을 더해주시니" (꾸란 제 2장 276절)

입교 전에 맺은 리바 포함 계약이 입교 후에도 유효하다면?

리바가 포함된 계약이 입교 후에도 유효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1. 그가 리바를 받는 자라면 그는 입교 후 오직 원금만을 가져야 하며 이자는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뉘우친다면 원금이 그대들의 것이니 그대들이 부당 행위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방법이라"(꾸란 제 2장 279절)

2. 그가 리바를 주는 자라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만약 커다란 손실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 만약 계약 취소가 커다란 손실을 초래한다면 그는 그 계약을 준수하되 다음부터는 이러한 계약을 절대 맺지 않겠다고 굳게 결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그러니 주님의 가르침이 그에게 도달하여 (리바를) 그만둔 자 있다면 그의 과거는 용서되며 그의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노라. 그러나 다시 (리바로) 돌아가는 자 있다면 그러한 자들은 불(지옥)의 거주자들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라." (꾸란 제 2장 275절)



리바는 재산에 내려질 축복을 앗아가며 경제 붕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하셨나요?

- 예 → 원금만을 돌려받으시되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 아니오 → 이자를 지불하기로 하셨다면, 커다란 손실 없이 그 계약이 취소가 가능한가요?
  - 예 → 그렇다면 반드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 아니오 → 계약 취소가 커다란 손실을 유발한다면 그 계약을 준수하시되 다시는 이러한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셔야 합니다.

불확실성과 무지



즉, 계약 내용에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쌍방간의 이견이나 논쟁, 부당행위 등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슬람은 논쟁과 부당행위와 속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쌍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불확실성 거래를 금하신 바 있습니다.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1513)

불확실성과 무지가 포함된 거래의 예시 :

1. 나무에 열려있는 익기 전의 과일을 거래하는 것.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이를 금하신 바 있는데, 다 익기 전에 과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상자 안에 값진 물품이 들었는지 가치없는 것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상자를 돈을 주고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을 팔거나, 인도나 납품이 불가능한 물품을 파는 것.

무지는 언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려면 불확실성이나 무지의 정도가 심해야 하며, 그것이 계약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부수적인 측면에서 발견되는 것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건축과 도료에 어떤 재료를 썼는지 몰라도 거래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한 무지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계약의 부수적인 측면이며 근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당함과 불법적 재산 취득

부당함은 이슬람이 경고하고 있는 가장 혐오스런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 "부당함은 부활의 날의 어둠이라"('알-부카리'(no.2315)와 '무슬림'(no.2579)이 수집한 하디쓰) 그리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것이 조그만 것일지라도 아주 커다란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뼘의 땅을 부당히 가진 자가 있다면 부활의 날 그의 목에는 일



불법 재산 취득은 비록 취득물이 조그만 것일지라도 아주 커다란 죄에 해당합니다.

곱 개의 대지가 멍에로 씌워질 것이라." ('알-부카리'(no.2321)와 '무슬림'(no.161)이 수집한 하디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함의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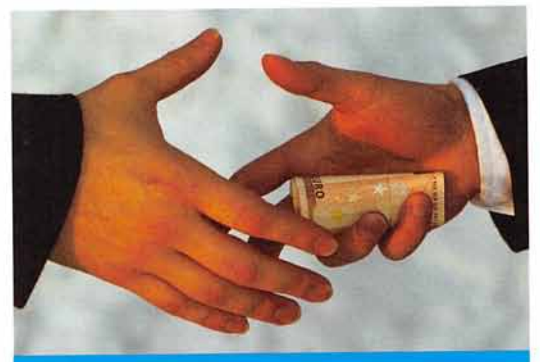
1 **강제** :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종류의 강제나 강요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계약은 상호 만족이 있을 때만 성립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래는 상호 만족이 있을 때만 성립하노라." ('이븐 마자'가 수집한 하디쓰, no.2185)

2 **속임수와 기만** : 사람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저지르는 속임수는 커다란 죄 중의 하나닙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우리를 속이는 자는 우리 구성원이 아니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101) 선지자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느날 선지자께서 시장에 가셨는데 거기서 곡물 더미를 보았고, 그 더미에 손을 넣어보니 곡물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오, 곡물의 주인이여. 이것은 무엇인가?" 그가 답하길 "비를 맞아서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도시여!" 그가 말씀하시길 "그것을 위에다 놓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는 우리 구성원이 아니라." ('앗-티르미디'가 수집한 하디쓰, no.1315)

3 **실정법을 교묘히 위반하는 것** : 불법적으로 부당히 사람들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이러한 행위는 금지됩니다. 머리를 굴려 실정법을 교묘히 빠져나가 법률상 하자가 없었다 할지라도 재판관의 판결은 거짓을 진실로 바꾸지 못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면 그대들은 나에게 올 것이지만, 나 역시 사람일 뿐이라. 그래서, 그대들 중의 일부는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난 말솜씨로 유리한 증거를 댈 것이며 나는 들은 대로만 판결할 것이니, 만약 내가 다른 형제의 정당한 권리를 착취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실로 나의 이 판결은 그에게 불지옥의 일부를 건네준 것에 다름아니라. 그러니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알-부카리'(no.6748)와 '무슬림'(no.1713)이 수집한 하디쓰)

4 **뇌물** : 뇌물이란 자신의 권리가 아닌 것을 획득하기 위해 돈이나 서비스를 지불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가장 혐오스런 부당 행위이며 커다란 죄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저주하신 바 있습니다. ('앗-티르미디'가 수집한 하디쓰, no.1337)

뇌물이 퍼지면 퍼질수록 그 사회는 부패하고 분열되며 그 번영과 성장이 지연됩니다.



하나님의 사도께서는 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를 저주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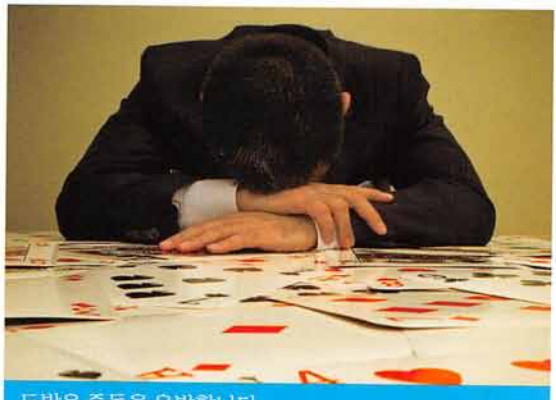
새로 입교한 자가 입교 전에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입교 이전에 절도나 횡령 등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챙겼다면 그는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고 커다란 어려움 없이 주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불법 부당한 재산 취득이 이슬람 이전에 발생하였더라도 그 재산은 계속해서 자신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능력이 허락한다면 해당 재산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실로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명령하시길 맡겨진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며"(꾸란 제 4장 58절)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돈을 이슬람을 위해 좋은 곳에 써야 합니다.

도박



도박은 중독을 유발합니다.

도박이란 무엇인가?

도박은 놀이나 내기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걸어 이긴 사람이 그 돈을 차지하고 진 자는 그 돈을 잃는 사행 행위를 뜻합니다.

도박에 관한 판결 :

도박은 금지 행위(하람)이며, 꾸란과 순나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통해 도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1. 하나님께서는 도박을 하는 자를 죄인으로 규정하셨으며 도박은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지고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 "그들이 그대에게 술과 도박에 대해 물으니 말하라(오, 무함마드여!) : '그 둘에는 커다란 죄가 있고 인간을 위한 효용이 있으나 그 둘의 죄가 그 둘의 효용보다 더 크도다.' "(꾸란 제 2장 219절)

2.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하시어 도박을 불결한 것으로 판결하셨고 그것을 멀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도박을 의견분열과 적의의 원인이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원인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 오, 믿는 자들이여! 술과 도박과 ‹안쌉›(우상에게 바칠 가축이 도살되던 제단)과 ‹아즐람›(점을 치기 위한 쓰이던 화살)은 오직 사탄의 추악한 짓일 뿐이니 그것을 멀리하라, 그대들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 술과 도박을 통해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오직 그대들 사이에 적의와 증오를 심는 것 뿐이며 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 그러니 그대들은 그만두지 않겠는가?"(꾸란 제 5장 90~91절)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도박의 폐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도박의 폐해는 심각하며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은 적의와 증오를 유발합니다. 도박의 대부분은 친구나 지인과 하는 것이고, 이긴 자가 모든 돈을 가지기에 진 사람들은 당연히 화가 나고 원한을 품게 되며, 마음 속에 적의와 시기의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손실을 되갚기 위해 이긴 자에게 속임수를 써서라도 해악을 끼치려 합니다. 이는 실제로 모든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현상입니다. 술과 도박을 통해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오직 그대들 사이에 적의와 증오를 심는 것 뿐이라. 또한 도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정된 의무 사항과 예배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술과 도박은 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노라.

2. 도박을 통해 개인은 파산에 직면하며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됩니다.

3. 도박은 중독을 유발합니다. 즉 만약 이겨서 큰 돈을 벌었다면, 도박에 대한 탐욕은 더욱 커져서 금지된 재산 취득을 계속하게 됩니다. 만약 져서 손실을 보았다면 어떻게든 원금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도박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도박의 종류

예나 지금이나 도박의 종류는 다양합니다만, 현재 관찰되는 도박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이기는 자가 지는 자의 돈을 가지는 모든 종류의 노름. 예를 들어 참가자 모두가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건 후 이긴 사람이 돈을 다 가지는 것(카지노 게임).

2. 스포츠 도박과 그와 유사한 노름. 참가자 모두가 승리를 예상하는 팀이나 선수에게 돈을 건 후 승리자를 맞춘 사람이 나머지 참가자의 돈을 모두 갖는 것.

3. 복권. 예를 들어 천원짜리 복권을 산 후 당첨이 되면 일억원을 갖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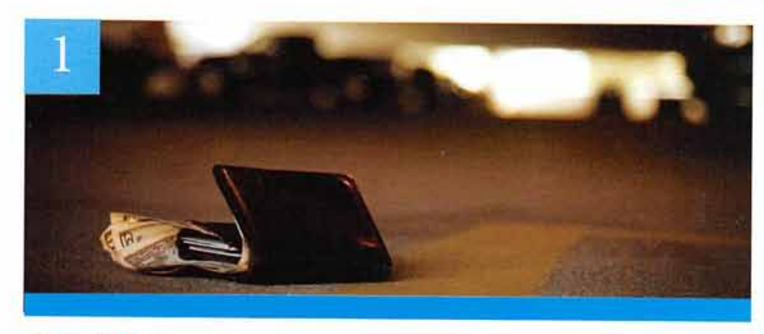
4. 돈을 따거나 잃는 모든 종류의 오락실 게임, 전자 게임, 온라인 게임.



사행성 전자 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이며 커다란 죄 중의 하나입니다.

이슬람은 거래에 있어 훌륭한 성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거래에 있어 여러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은 거래시 갖추어야 할 여러 예절과 품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책임 의식 :

거래 상대방이 무슬림이건 비무슬림이건 상거래에 있어서의 책임 의식은 하나님의 법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슬림의 성품 중의 하나입니다. 책임 의식은 다음과 같은 여러 구절을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

■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실로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명령하시길 맡겨진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며"(꾸란 제 4장 58절)

■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책임을 져버리고 배반하는 행위를 위선의 징표로 간주하셨습니다. "위선자의 징표는 세가지라.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할 때마다 어기며, 무엇가를 맡을 때마다 배반하는 것이라." ('알-부카리'(no.33)와 '무슬림'(no.59)이 수집한 하디쓰)

■ 책임 의식은 신앙인의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실로 믿는 자들은 성공하였도다…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것과 그들의 계약을 중요시하는 자들이라."(꾸란 제 23장 1, 8절)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책임을 배반하는 자의 신앙을 부정하신 바 있습니다. "책임 의식이 없는 자에게 신앙은 없노라." ('아흐마드'가 수집한 하디쓰, no.12567)

■ 사도직을 부여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호칭은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거래에 있어 책임 의식의 표본이었기 때문입니다.


먹거리와 마실 거리



정직성 :

정직성과 명백함은 이슬람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 성품 중의 하나입니다 :

▪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판매자와 구매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둘 모두가 정직했고 명백히 밝혔다면 그들의 거래에는 축복이 내려질 것이라. 그러나 둘 모두가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들의 거래에는 축복이 없노라." ('알-부카리'(no.1973)와 '무슬림'(no.1532)이 수집한 하디쓰)

▪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들은 정직해야 하노라. 왜냐하면 정직을 통해 신앙으로 인도되며 신앙을 통해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려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기록될 것이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2607)

▪ 자신이 팔고 싶은 물건을 칭찬하면서 거짓말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자는 커다른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세 부류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날 그들에게 말씀을 건내지 않으시며 그들을 쳐다보지도, 정화하지도 않으실 것이라." 그들 중의 하나는 "자신의 물품에 대고 거짓말로 맹세하는 자"입니다.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106)



일에 최선을 추구하는 것 :

직업에 있어 무슬림이 가져야 할 원칙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완전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찬미받으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최선을 추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얼핏 보았을 때 최선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냥이나 도살에서도 최선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최선을 의무로 하셨노라. 따라서 살해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도살할 때도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칼날을 잘 갈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1955)

▪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한 장례식에 참석하셨고 그의 교우들에게 무덤을 팔 때 바닥을 고르게 하여 잘 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향한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고인에게 효용이 되거나 해가 되지는 않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할 것을 의무화하셨노라." (<슈아붤 이만>의 '알-바이하끼'가 수집한 하디쓰, no.5315) 다른 전승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일을 할 때면 빈틈없이 잘 해내는 것을 사랑하시노라.» ('아부 야을라'(no.4386), <슈아붤 이만>(no.5312)) (나머지 품성들은 p.185참조)



8

허용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허용된 음식을 섭취할 때만이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재산과 가족에 축복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용된 음식이란 허락된 방법으로 구한 허락된 먹거리이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착취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 아닌 허용된 재산으로써 구한 음식을 뜻합니다.

차례 :

먹거리와 마실 거리

먹거리의 기본 원칙 :
모든 먹거리와 마실 거리의 기본 원칙은 허락되고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건강과 성품과 종교에 해를 끼치는 것은 예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부여하시어 그들이 효용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금지하신 것은 예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위해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꾸란 제 2장 29절)

재배 작물과 과일

사람이 재배하거나 야생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 열매, 목초, 버섯 등 모든 종류의 식물은 먹거리로 허용됩니다. 단,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술이나 마약과 같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은 제외되며 그것이 가진 해악으로 인해 식용이 금지됩니다.



주류와 알코올

이슬람에서의 술(카므르)이란 이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성을 마비시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은 술이며 모든 술은 금지되노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2003) 그것이 포도주나 사과주 등의 과실주든, 맥주나 막걸리 등의 곡주든, 꿀로 만든 밀주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모든 것은 술로서, 명칭이 무엇이든 생김새가 어떻든 그 섭취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주스나 사탕, 초컬릿 등에 첨가된 술 역시 금지됩니다.

이성 보호 :

위대한 종교 이슬람은 현세와 내세에서 인간을 위한 효용을 실현하기 위해 도래하였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섯 가지 중요 사안(이슬람, 생명, 이성, 재산, 건전한 혈통)이 있습니다.

그 중 이성은 경배 행위가 비롯되는 원인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특별히 부여하신 명예입니다. 따라서 이슬람은 이성을 파괴하거나 쇠퇴시키는 모든 종류의 원인으로부터 무슬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이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원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술에 관한 판결 :

술을 마시는 것은 커다란 중대 죄이며 꾸란과 순나(선지자의 행위와 말씀)는 엄격히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 오, 믿는 자들이여! 술과 도박과 '안쌉'(우상에게 바칠 가축이 도살되던 제단)과 '아즐람'(점을 치기 위한 쓰이던 화살)은 오직 사탄의 추악한 짓일 뿐이니 그것을 멀리하라, 그대들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꾸란 제 5장 9절) 즉, 술은 추악한 것이며 사탄의 짓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을 원하다면 술을 멀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은 술이며 모든 술은 금지되노라. 현세에서 술을 마신 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술을 끊지 않고 뉘우치지 않았다면 그는 내세에서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라."('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2003)
-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는 믿음(이만)과 배치되며 믿음을 감소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술을 마실 때의 무슬림은 믿는 자가 아니라." ('알-부카리'(no.5256)와 '무슬림'(no.56)이 수집한 하디쓰)

- 이슬람은 술을 마시는 자에게 형벌을 두고 있기에 형벌을 받은 그의 명예는 손상된 것이며 공동체 사회에서 가지는 그의 값어치는 감소하는 것입니다.
-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고통스런 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실로 하나님께는 술을 마시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 그분께서 그에게 '띠나툴 카발'을 마시도록 할 것이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2002) '띠나툴 카발'은 지옥의 거주자의 음료로서, 그들의 배설물과 고름과 피고름을 뜻합니다.
-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술마시는 일에 동참하거나 돕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경고가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 " 하나님의 사도께서는 술과 관련된 열명을 저주하셨다 : 술을 빚는 자, 술이 빚어지는 원인이 되는 자, 술을 마시는 자, 술을 운반하는 자, 그에게로 술이 운반되어지는 자, 술을 따르는 자, 술을 파는 자, 술값을 취득하는 자, 술을 구매하는 자, 술 구매의 원인이 되는 자. ('앗-티르미디'가 수집한 하디쓰, no.1295)

마약

천연 재료나 인공 재료든 그 원료에 상관없이, 흡입이든 삼킴이든 주사든 그 방법에 상관없이 마약 섭취는 가장 커다란 죄이자 거역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마약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신경계를 파괴하며 여러 신경계적, 정신적 질병을 유발합니다. 마약 복용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그대들 자신을 죽이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라" (꾸란 제 4장 29절)

해산물

해산물이란, 대부분을 바다에서 살며 육지에서 머무는 경우가 드문 해물의 먹거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란 방대한 양의 물을 뜻하며 따라서 강이나 호수 등에 사는 동식물 역시 해산물에 속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냥을 통해서든 죽어있는 상태에서 발견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해산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단, 몸에 해로운 성분을 지닌 것은 예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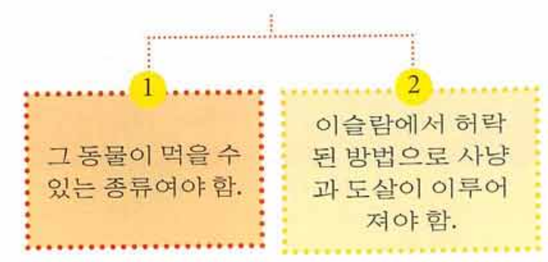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들에게 바다에서의 사냥물과 바다 먹거리가 허락되었으니"(꾸란 제 5장 96절)

여기서 말하는 사냥물은 산 채로 포획된 것을 뜻하며, 바다 먹거리란 바다 속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을 뜻합니다.



육지 동물

육지 동물이 음식으로 허락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먹을 수 있는 육지 동물은 무엇인가?

기본 원칙은 모든 동물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꾸란과 순나(선지자의 행동과 말씀)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예외입니다.

식용이 금지된 동물의 예시 :

1. **돼지** : 이슬람에서 금지된 불결한 동물로 돼지에서 나오는 살코기, 가죽 등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찬미받으시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들에게 동물의 시체와 피와 돼지고기가 금지되었노라" (꾸란 제 5장 3절), 또한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돼지고기가 금지되었으니 그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이라."(꾸란 제 6장 145절)

2. **송곳니를 가진 짐승** : 즉 육식을 하는 모든 동물을 뜻합니다. 사자나 호랑이 등과 같이 몸집이 크든 고양이 등과 같이 몸집이 작든 모두 이에 포함되며 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조류** : 즉 육식을 하는 모든 조류를 뜻합니다. 매나 독수리, 올빼미 등이 있습니다.

4. **곤충** : 육지의 모든 곤충류는 도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예외가 되는 것은 메뚜기로, 메뚜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죽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것으로는 두 가지가 있노라 : 물고기와 메뚜기가 그것이라." ('이븐 마자'가 수집한 하디쓰, no.3218)

5. **뱀과 쥐** : 뱀과 쥐는 먹을 수 없으며 뱀과 쥐를 보면 죽여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성역(하람) 밖이든 안에서든 살해되는 다섯 가지 해로운 동물이 있노라 : 뱀, 잿빛까마귀, 쥐, 광견, 솔개." ('알-부카리'(no.3136)와 '무슬림'(no.1198)이 수집한 하디쓰)



꾸란과 순나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동물이 아닌 이상 모든 동물의 고기는 도살 후에 섭취가 가능합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종류 :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허락하신 동물은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야생에서 거주하고 사람을 보면 도망가며 도살을 위해 고정시키기가 힘든 동물 : 이슬람에서 규정한 사냥 방식을 거쳤을 때 먹거리로 허용됩니다.

- 사람과 친하여 고정시킬 수 있는 동물 : 반드시 이슬람식 도살을 거쳐야 먹을 수 있습니다.

도살법 :

수평도살이나 수직도살을 뜻하며 이슬람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도살의 선결 조건 :

1. 도살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도살해야 합니다. 즉, 이성을 갖추고 도살을 의도할 수 있는 무슬림이나 성서의 사람들(유대교인,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2. 도살의 도구가 칼처럼 동물의 피를 뽑아내고 그 날카로움으로써 도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거운 중량이나 충격으로써 -예를 들어 전기 충격- 도살된 것은 먹거리로 금지됩니다.
3. 도살을 위해 손을 움직일 때 '비스밀라'(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해야 합니다.
4. 절단 부위, 즉 식도와 기도, 목 주위의 두 개의 대동맥 중 세 개 이상이 절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을 때 그 고기는 섭취 가능하며, 이 중 하나라도 조건이 만족되지 못했을 때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이슬람식 도살법을 거쳐 동물을 도살했을 경우 그 고기를 허락하신 바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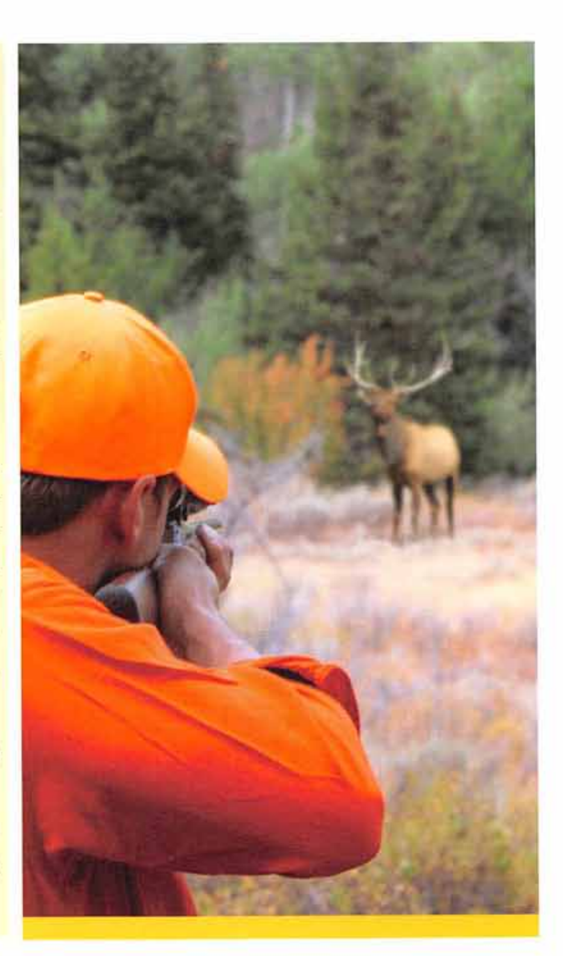
1. 무슬림도 아니고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도 아닌, 예를 들어 불교신자나 힌두교신자나 종교가 없는 자가 잡은 고기는 금지됩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민이 무슬림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도 아닐 때 그 국가에서의 음식점이나 정육점의 고기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금지됩니다.
2. 무슬림이나 유대인, 기독교인이 이슬람식 도살법을 거쳐 도살한 경우 그 고기는 허락됩니다.
3. 무슬림이나 유대인, 기독교인더라도 비이슬람식 도살법, 예를 들어 때리거나 익사시켜 동물을 죽였다면 그 고기는 금지됩니다.
4.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도살했지만 그 세부 방법을 알지 못할 때나, 그들이 음식점이나 정육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기의 경우, 우리는 그것을 그들이 도살한 고기로 간주해야 하며, 가장 정확한 의견은 그러한 고기는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었는지 확인하고 허락된(할랄) 고기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냥

먹을 수 있는 종류의 동물과 조류이지만, 도살을 위해 잡기가 힘든 경우 사냥으로써 도살이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 육식을 하는 조류가 아닌 초식성 조류나 사슴, 토끼 등은 사냥이 가능합니다.

사냥은 다음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온전한 이성을 지니어 사냥을 의도할 수 있는 무슬림이나 성서의 사람들이어야 하며, 따라서 우상숭배자나 정신병자의 사냥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2. 해당 동물이 항상 도망을 치기에 도살을 위해 고정시키기가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살을 위해 고정시키기가 쉬운 닭이나 양, 소 등은 사냥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3. 사냥 도구가 그 날카로움으로써 동물을 죽이는 것, 예를 들어 화살이나 총알 등이어야 합니다. 돌맹이 같이 그 무거움으로써 동물을 죽인다면 그 사냥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그 동물을 잡아 도살을 실시했을 경우 그 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4. 사냥 도구를 발사하면서 '비스밀라'(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해야 합니다.
5. 사냥으로써 잡은 동물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반드시 도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6. 식용이 목적이 아니라면 사냥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레저나 유희를 목적으로 한 사냥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음식 예절



하나님께서는 먹거리와 마실 거리에 다양한 예절을 두시어 그분의 지혜가 실현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절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하고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며 과소비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 예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거나** 그것으로 코팅이 된 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것은 과소비이자 도를 지나친 일이며 가난한 자들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된 컵으로 마시지 말며 그것으로 만들어진 그릇으로 먹지 말라. 그것은 현세에서 그들의 것이나, 내세에서는 우리의 것이라." ('알-부카리'(no.5110)와 '무슬림'(no.2067)이 수집한 하디쓰)

2. **손에 오물이나 음식** 등이 묻어있을 때는 손을 씻은 후에 먹어야 합니다.

3. **먹기 전에 '비스밀라'**(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잊고서 말을 하지 않았다가 다시 생각났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스밀라 아우왈라후 와 아키라후'(처음과 마지막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한 아이가 제대로 예절을 갖추지 않은 채 먹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오, 소년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오른손으로 먹으라. 그리고 네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먹으라." ('알-부카리'(no.5061)와 '무슬림'(no.2022)이 수집한 하디쓰)

4. **오른손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들은 왼손으로 먹지 말라. 왜냐하면 사탄이 왼손으로 먹기 때문이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2019)

5 **선 채로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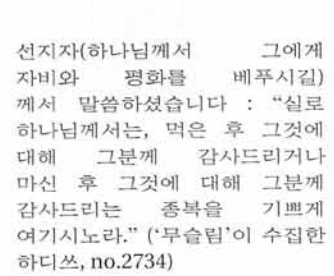
6 **가까이에 있는 음식부터 먹으며,** 타인의 자리에 있는 것부터 먹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부터 먹는 것은 좋지 않은 예절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먹으라"

7 **음식이 떨어졌을 경우,** 다시 주워서 붙어있는 것을 털어낸 후 먹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이는 붙어있는 것을 제거할 수 있을 때에 한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음식을 보존합니다.

8 **음식에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흉보지 않습니다.** 음식을 칭찬하거나, 내키지 않아 먹지 않을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한번도 음식을 흉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드시고 싶으면 드셨고, 내키지 않으시면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알-부카리'(no.5093)와 '무슬림'(no.2064)가 수집한 하디쓰)

9 **물릴 때까지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많이 먹어 질병과 게으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적절함이 모든 일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인간이 채우는 가장 나쁜 그릇은 위장이라. 아담의 자손은 자신을 일으켜 세울 만큼의 몇 조각 음식으로 충분하노라.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위의 삼분의 일은 먹거리로, 삼분의 일은 마실 거리로, 삼분의 일은 숨으로 채우라." ('앗-티르미디(no.2380)와 '이븐 마자'(no.3349)가 수집한 하디쓰)

10 **다 먹었으면 '알함두릴라'(찬미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지만 나에게 이러한 음식이 주어졌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길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알함두릴라디 아뜨아마니 하다 와 라자까니히 민 가이리 하울리 민니 와 라꾸와'(이렇게 나를 먹여주시고 양식을 제공해주신 하나님께 찬미드리니 이는 나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실로 하나님께서는, 먹은 후 그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리거나 마신 후 그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리는 종복을 기쁘게 여기시노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2734)




옷



9

옷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총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담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그대들에게 그대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옷과 아름다운 의상을 내렸노라. 그리고 경외심의 옷 그것이 더 좋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징표 중의 일부이니 그들이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라." (꾸란 제 7장 26절)

차례

이슬람에서의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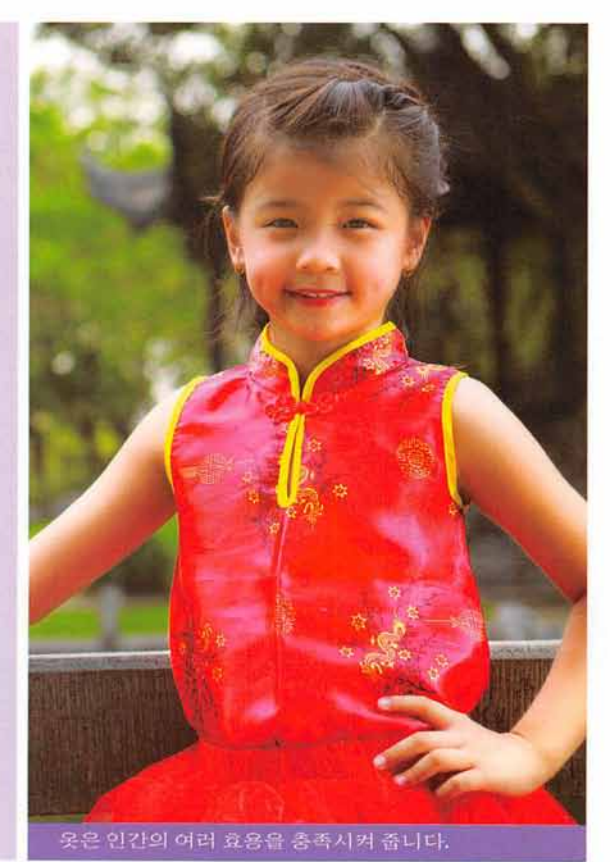
믿는 자의 옷은 곱고 깨끗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교류시나 예배시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 오, 아담의 자손들이여! (예배를 위해)성원에 있을 때면 항상 그대들의 옷을 입으라."(꾸란 제 7장 31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옷과 외모를 훌륭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말하라(오, 무함마드여!) :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복들을 위해 내어주신 그분의 아름다움과 좋은 양식을 금한 자가 누구인가?' 말하라(오, 무함마드여!) : '그것은 현세의 삶에서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며, 부활의 날에는 오직 그들만의 것이라.' 이렇게 나는 아는 자들을 위해 징표들을 자세히 설명하노라." (꾸란 제 7장 32절)

옷은 다음과 같은 필요를 충족시켜 줍니다 :

1 옷은 신체의 특정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데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인 부끄러움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 오, 아담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그대들에게 그대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옷을 내렸노라."(꾸란 제 7장 26절)

2 옷은 추위나 더위, 그리고 해로움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합니다. 추위나 더위는 날씨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며, 해로움은 우리 신체에 가해지는 공격을 뜻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옷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위해 더위로부터 그대들을 보호하는 의복과 그대들의 전쟁으로부터 그대들을 보호하는 의복을 두셨노라. 이렇게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위한 그분의 은총을 완전히 하시니 그대들이 복종하게 될 것이라"(꾸란 제 16장 81절)



옷은 인간의 여러 효용을 충족시켜 줍니다.

옷에 관한 기본 원칙



> 이슬람은 입어야 할 특정 종류의 옷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을 입는 것이 우선이며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슬람은 입어야 할 특정 종류의 옷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을 입는 것이 우선이며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슬람은 본성의 종교이며 이슬람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창조본성과 건전한 이성과 상식에 부합합니다.

무슬림의 옷과 의상에 관한 기본 원칙은 허용입니다.

즉, 이슬람은 특정 종류의 옷을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종류의 옷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그 당시 시대의 옷을 입었고, 특정 종류의 옷을 명령하거나 금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옷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기초하여 그 옷을 금하신 것입니다. 사회활동(옷 포함)에 관한 기본 원칙은 허용이기에 금지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경배 활동은 그 반대로 기본 원칙은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고, 근거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들은 먹고, 희사금을 내고, 옷을 입으라. 그러나 도를 지나치지 말고 거만함을 부리지 말라." ('안-나사이'가 수집한 하디쓰, no.2559)

금지된 옷 :

1. 가려야 할 부분(아우라)이 드러나는 옷 : 무슬림은 반드시 아우라를 가려야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실로 나는 그대들에게 그대들의 부끄러운 부

분을 가리는 옷을 내렸노라."(꾸란 제 7장 26절)

이슬람은 남성과 여성의 아우라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아우라는 배꼽부터 무릎까지이며, 외간 남자 앞에서의 여성의 아우라는 얼굴과 손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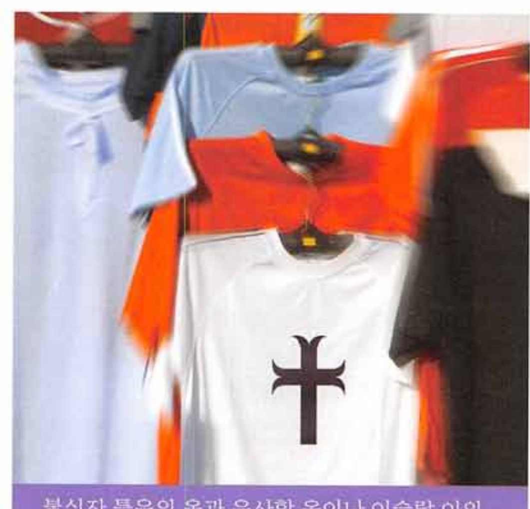
따라서 몸매를 드러내는 타이트한 옷은 허용되지 않으며 피부가 비치는 옷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아우라를 드러내는 옷을 입는 자에 대해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 "두 종류의 불지옥의 거주자". 그 후 "입었지만 벗은 여성들"을 언급하셨습니다.

2 이성이 입는 옷과 유사한 옷 : 즉, 남성이 여성의 옷과 유사한 옷을 입고, 여성이 남성의 옷과 유사한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지 행위로서 커다란 죄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화의 어조나 걸음걸이, 행동거지 역시 이성과 닮아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도께서는 여성의 옷을 입는 남성과 남성의 옷을 입는 여성을 저주하신 바 있습니다('아부 다우드', no.4098). 또한 사도께서는 여성을 닮으려는 남성과 남성을 닮으려는 여성을 저주하셨습니다('알-부카리', no.5546). (저주란 하나님의 자비를 박탈당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슬람은 남성이 본성 그대로를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것이며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인간 고유의 창조본성과 일반 상식과 부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 불신자들 특유의 옷. 예를 들어 신부나 목사의 옷이라든지 십자가가 그려진 옷 등 특정 종교와 연관된 옷이라면 착용이 금지됩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어떤 무리를 닮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 무리의 일부라." ('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하디쓰, no.4031) 무리를 닮는다는 것에는, 이슬람 이외 종교의 특정 상징물이 새겨진 옷을 입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옷을 착용하는 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과 부족한 자부심을 드러낼 뿐입니다.

해당 나라에 널리 퍼져있는 옷이라면, 그 옷이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입는 옷일지라도 그 착용이 허용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특별한 금지 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꾸라이쉬 부족의 우상숭배자들이 입었던 옷 그대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4 거만함과 오만함으로 입는 옷.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마음 속에 티끌만한 거만함이라도 있는 자는



불신자 특유의 옷과 유사한 옷이나 이슬람 이외의 종교적 상징이 들어간 옷은 금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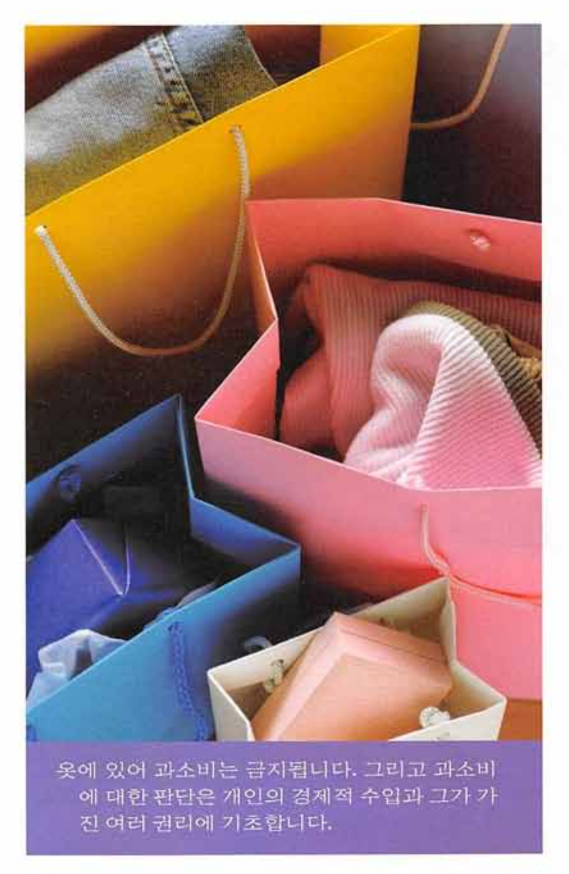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노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91)

따라서 이슬람은 남자의 경우 복숭아뼈 아래로까지 바지를 내려 입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만함과 오만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거만함으로 바지를 땅에 끄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날 그를 쳐다보지 않으실 것이라."('알-부카리'(no.3465)와 '무슬림'(no.2085)이 수집한 하디쓰)

그리고 이슬람은 유별난 옷(싸우붓 슈흐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별난 옷이란 그것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옷으로, 이 옷을 입는 자는 그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집니다. 이러한 옷은 모양새나 색깔이 이례적이라 사람들에게 낯설고 거북스럽기에 혹은 그것을 입는 자가 거만함을 느끼게 되기에 금지되는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현세에서 유별난 옷을 입는 자가 있다면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굴욕의 옷을 입게 하실 것이라." ('아흐마드'(no.5664)와 '이븐 마자'(no.3607)가 수집한 하디쓰)

5 옷에 금이나 천연 비단이 사용된 경우 이슬람은 남성에 한해 이러한 옷을 금하고 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금과 비단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실로 이 둘은 우리 공동체의 남성들에게 금지되었으며 여성들에게만 허용되었노라." ('아부 다우드'(no.4057)와 '이븐 마자'(no.3595)가 수집한 하디쓰)

남성에게 금지된 비단이란 : 누에고치에서 뽑은 천연 비단을 뜻합니다.



옷에 있어 과소비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과소비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경제적 수입과 그가 가진 여러 권리에 기초합니다.

6 과소비적인 옷.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들은 먹고, 희사금을 내고, 옷을 입으라. 그러나 도를 지나치지 말고 거만함을 부리지 말라." ('안-나사이'가 수집한 하디쓰, no.2559)

과소비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즉 월급과 경제적 사정과 다른 여러 권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살 만한 값비싼 옷을 사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옷이지만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는 과소비가 되고, 부자인 자에게는 과소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10

이슬람은 가족 관계를 돈독히 하고 충실히 함에 아주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가족 관계를 해치고 위협하는 요소를 적극 차단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건전할 때만이 개인과 사회 전반이 건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례 :

이슬람에서의 가족의 중요성

이슬람은 다음과 같이 가족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1 이슬람은 결혼의 시작과 가족의 형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결혼은 선행이자 사도들의 전통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식을 하지만 단식을 하지 않기도 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잠을 자기도 하며 결혼을 하노라. 그러니 나의 순나(전통)를 싫어하는 자는 나의 일부가 아니라." ('알-부카리'(no.4776)와 '무슬림'(no.1401)이 수집한 하디쓰)

- 꾸란에서 언급되길,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여하신 편안함과 사랑, 자애와 친절은 그분의 가장 위대한 은총과 징표 중의 하나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분의 징표들 중의 일부는 그분께서 그대들 자신으로부터 배우자를 창조하시니 그대들이 그녀에게서 편안함을 찾는 것이며 또한 그분께서 그대들 사이에 사랑과 자애를 불어넣으신 것이라." (꾸란 제 30장 21절)
- 이슬람은 결혼을 쉽게 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결혼을 원하는 자를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 반드시 도움을 주라고 하셨노라" 그 중의 하나는 "순결을 지키기 위해 결혼을 원하는 자" 입니다. ('앗-티르미디'가 수집한 하디쓰, no.1655)
- 이슬람은 충동과 격정에 차 있는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내면의 휴식과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결혼은 그들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꾸란은 배우자 사이에서의 편안함과 사랑, 자애를 가장 커다란 은총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2 이슬람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족 구성원 모두를 존중합니다:

이슬람은 어머니와 어버지에 자식 교육이라는 중요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압둘라 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여기시길)는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대들 모두는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떼에 책임이 있노라. 지도자는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떼에 책임이 있노라. 가족과 관련하여 남자는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떼에 책임이 있노라. 남편의 집과 관련하여 여자는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떼에 책임이 있노라. 주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하인은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떼에 책임이 있노라." ('알-부카리'(no.853)와 '무슬림'(no.1829)이 수집한 하디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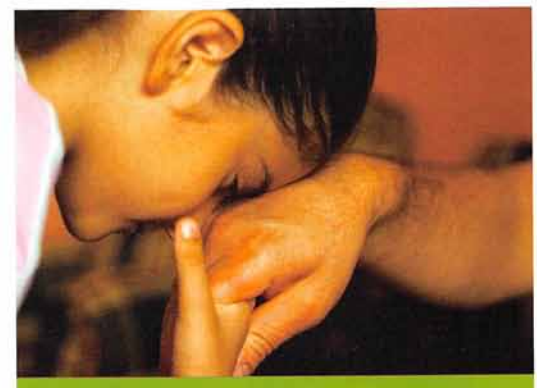
3 이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아주 중요시하며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을 돌보고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얼마나 많건 상관없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며 그분들께 잘해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효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 행위입니다. 이슬람은 부모님 앞에서 도를 넘어선 말과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미받으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그대의 주님께서 명하시길 그대들은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며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라. 그대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 중 하나가 혹은 둘 모두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둘에게 짜증섞인 목소리를 내지 말며 그 둘을 질책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 둘에게 명예로운 말을 하라." (꾸란 제 17장 23절)

4 이슬람은 아들과 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 사이에 공정을 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5 친척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무슬림에게 의무 사항입니다 : 즉, 친가와 외가 친척들과 연락하면서 그들을 훌륭히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친형제와 친자매, 삼촌과 고모, 외삼촌과 이모와 조카와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유지는 가장 중요한 경배 행위 중의 하나이며, 친척 관계를 끊거나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커다란 죄 중의 하나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친척 관계를 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노라." ('알-부카리'(no.5638)와 '무슬림'(no.2556)이 수집한 하디쓰)



이슬람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의 여성의 위치

이슬람은 여성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있으며 남성에 대한 노예적 위치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고 있으며 여성이 값싼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명예를 지켜주는 이슬람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 이슬람은 유산 상속시, 여성이 공정히 유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양을 분배받기도 하며 다른 경우에는 그 분배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는 유산 배분시 고인과의 가까운 정도, 부담져야 할 경제적 지출량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 많은 다양한 상황에 있어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판결이 적용되며, 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여성은 남성과

다름없노라." ('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하디쓰, no.236)

- 이슬람은 여성에게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은 여성에게 자식 교육에 있어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남편의 집과 관련하여 여자는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떼에 책임이 있노라." ('알-부카리'(no.853)와 '무슬림'(no.1829)이 수집한 하디쓰)

- 여성의 성명은 바뀌지 않으며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 이름이 변경되지 않으며 아버지와 가족의 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 남성은 여성에 대한 배려와 경제적 지출이 의무화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어머니와 딸의 경우 남성은 그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책임져야 합니다.

- 이슬람은 돌봐줄 자가 없는 연약한 여성에 대한 도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친척 관계가 아닐지라도 그녀를 도와주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선행 중의 하나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남편을 잃은 여성과 불우한 자를 위해 노력하는 자는 마치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하는 자와 같으며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자와 같으며 단식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단식하는 자와 같노라." ('알-부카리'(no.5661)와 '무슬림'(no.2982)이 수집한 하디쓰)

이슬람이 특별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는 여성들 :

어머니 :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시길)의 전승입니다 : 한 남자가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로 와서 말했습니다 : '오, 하나님의 사도시여! 제가 함께 있을 때 가장 잘해드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가 답하셨습니다 : "그대의 어머니라." '그 후에는 누구입니까?' "그 후에도 그대의 어머니라." '그 후에는 누구입니까?' "그 후에도 그대의 어머니라." '그 후에는 누구입니까?' "그 후에는 그대의 아버지라." ('알-부카리'(no.5626)와 '무슬림'(no.2548)이 수집한 하디쓰)

딸 : 우끄바 븐 아미르(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시길)의 전승입니다 : 나는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 "세 명의 딸을 두어 그녀들에 대해 인내하고, 가진 것으로써 그녀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힌 자가 있다면 심판의 날 그녀들은 그를 위해 불지옥에 대한 방어막이 될 것이라." ('이븐 마자'가 수집한 하디쓰, no.3669)

아내 :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쁘게 여기시길)의 전승입니다 :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는 아내를 가장 훌륭히 대하는 자라. 그리고 나는 아내에 관해 그대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앗-티르미디'가 수집한 하디쓰, no.3895)

이슬람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상호 보완의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꿔줍니다.

양성 대결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양성 대결은, 이슬람 이전 무지의 시절 남성이 여성 위에 군림함으로써 혹은 하나님의 법률이 잊혀진 일부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본성을 거스른 채 반항함으로써 종료되곤 했습니다.

이모든것은가장훌륭한판결자이신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축복가득하시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들 중 일부에게만 더해 베푸신 것을 탐내지 말라. 남성에게는 그들이 얻은 몫이 있으며 여성에게는 그들이 얻은 몫이 있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 (꾸란 제 4장 32절) 즉,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특정한 역할와 명예가 있으며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법(샤리아)은 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성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인류와 무슬림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슬람에는 남성과 여성의 갈등과 대결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세의 이득을 위한 경쟁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이슬람은 여성에 대한 공격이나 남성에 대한 공격을 바라지 않으며, 서로 빼앗거나 비난하거나 단점을 캐내는 행위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익하며, 각각의 성에 주어진 고유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남성 입장에서의 여성의 종류

남성의 입장에서 살펴본 여성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신의 아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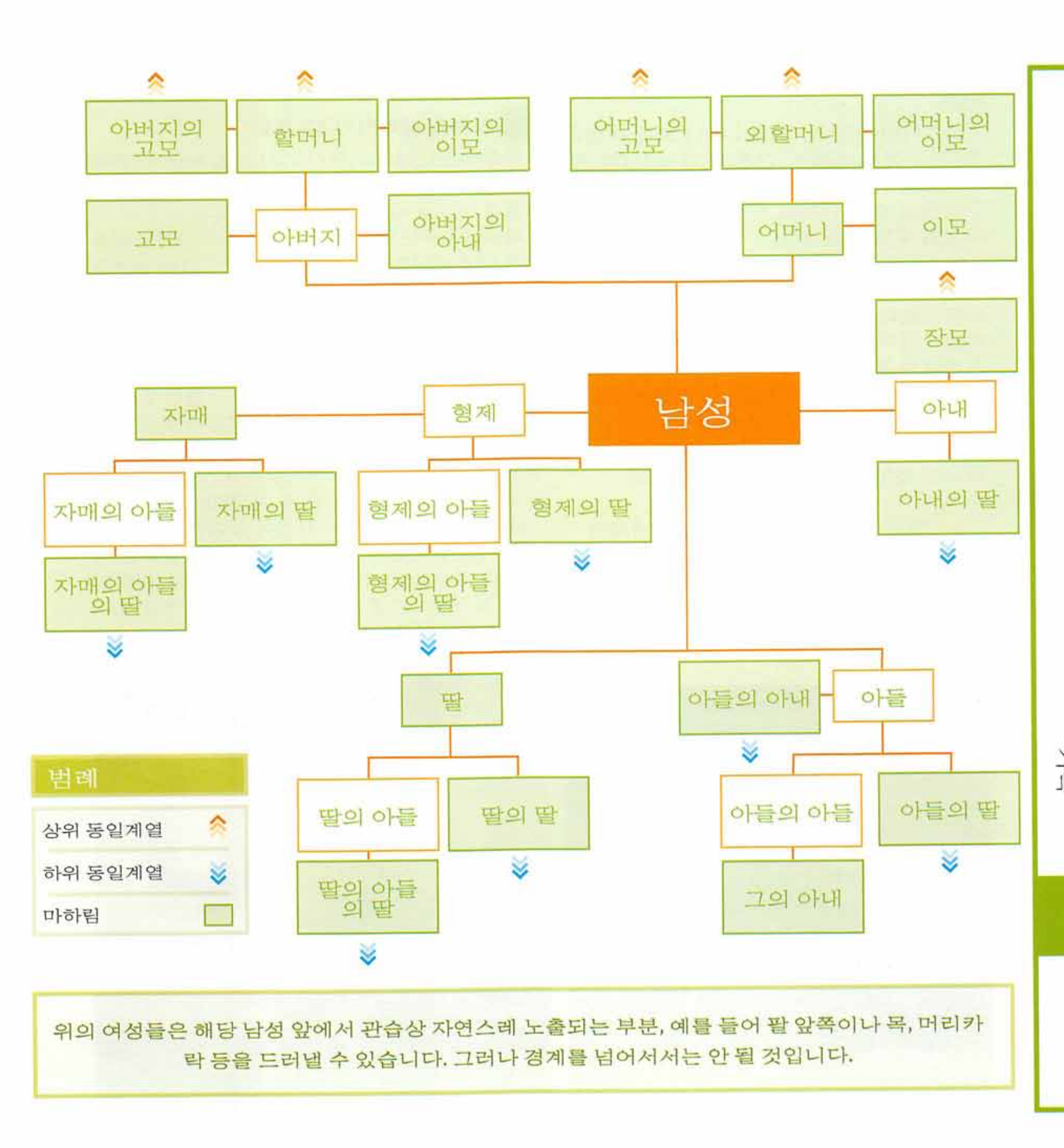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볼 수 있으며 그녀를 통해 원하는 대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자도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동일한 것이

허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옷으로, 아내를 남편의 옷으로 비유하신 바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과 감정과 육체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들은 그대들의 옷이며 그대들도 그녀들의 옷이라."(꾸란 제 2장 187절)

2 자신과의 결혼이 불가능한 여성(마하림):

'마하림'이란 남성이 영원히 결혼할 수 없는 여성을 뜻하며 마하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어머니나,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증조할머니나 외증조할머니와 그 위의 동일계열.
2. 친딸이나, 손녀, 증손녀와 그 아래의 동일계열.
3. 친자매나 이복자매나 이부자매.
4. 친고모나 이복고모나 이부고모.
5. 친이모나 이복이모나 이부이모.
6. 친형제의 조카딸이나 이복조카딸이나 이부조카딸과 친형제 조카의 딸처럼 그 아래의 동일계열.
7. 친자매의 조카딸이나 이복조카딸이나 이부조카딸과 친자매 조카딸의 딸처럼 그 아래의 동일계열.
8. 장모님. 아내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으며 장모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임.
9. 이전 남편에서 생긴 아내의 딸.
10. 며느리와 조카며느리처럼 그 아래의 동일계열.
11. 아버지의 배우자와 할아버지의 배우자처럼 그 위의 동일계열.
12. 젖어머니. 아기가 태어난 지 2년 이내에 5번의 배부를 만큼의 수유가 실시된 경우 아기와 유모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를 일컬으며 이슬람은 젖어머니에 대한 권리를 두고 있음.
13. 젖어머니 자매. 젖어머니의 딸을 뜻하며 이처럼 수유에 의해 형성된 다른 친척관계, 예를 들어 고모나 이모, 형제 조카딸이나 자매 조카딸 등도 마하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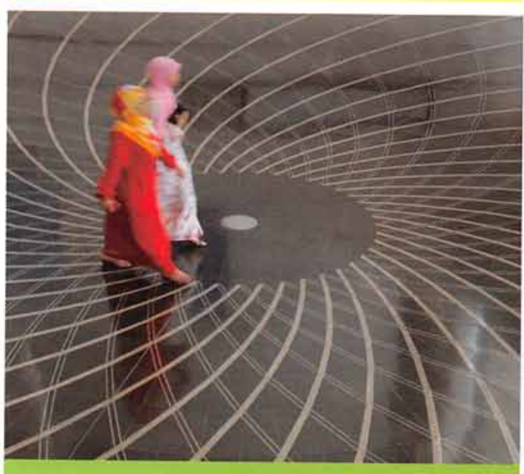
위의 여성들은 해당 남성 앞에서 관습상 자연스레 노출되는 부분, 예를 들어 팔 앞쪽이나 목, 머리카락 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이성으로서의 여성(아즈나비야) :

아즈나비야'란 마하림이 아닌 모든 여성을 뜻하며, 친척 중에서 삼촌의 딸, 고모의 딸, 외삼촌의 딸, 이모의 딸, 형제의 아내 등 친척 구성원일 수도 있으며 친척관계가 없는 보통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은 남성과 이성으로서의 여성간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탄의 유혹으로터 인간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야말로 인간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창조하신 그분께서 알지 못한단 말인가? 그분은 가장 자상하신 분이며 모든 것에 밝으신 분이시라." (꾸란 제 67장 14절)

'많은 공동체 사회는 여러 종류의 보고서와 통계를 통해 매일같이 강간과 성범죄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회가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이성을 대할 때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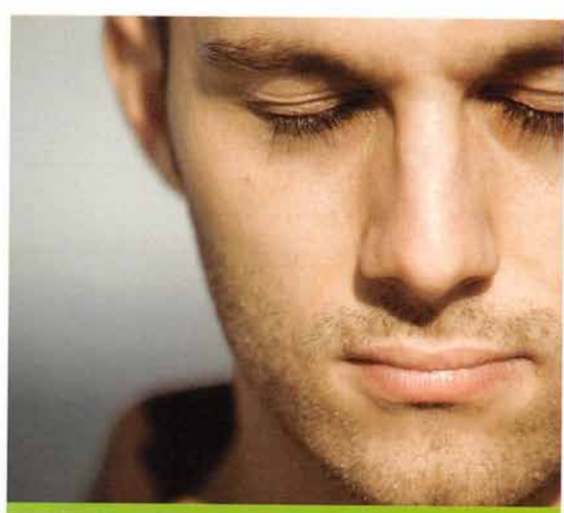
이성을 대할 때의 기본 지침

1 시선을 낮추어야 합니다 :

무슬림은 타인의 아우라(가려야 할 부분)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을 보아서는 안 되며 필요없이 여성을 바라보아서도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시선을 낮출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순결과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시선을 남용하는 일은 죄가 되며 추악한 행위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오, 무함마드여!) 믿는 남성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낮추고 그들의 순결을 지키라고 말하라. 이것이 그들에게 더 깨끗한 것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에 가장 밝으신 분이라. 그리고 (오, 무함마드여!) 믿는 여성들에게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그녀들의 순결을 지키라고 말하라. "(꾸란 제 24장 30-31절)

금지된 것으로 우연히 시선이 갔다면 곧바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시선을 낮추는 일은 모든 종류의 미디어 매체와 인터넷 등을 포함합니다. 자극적이고 흥분을 유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무슬림은 시선을 멀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에 대해 시선을 낮추는 것은 자신의 순결과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2 예절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남성이 여성과 이야기할 때나 여성이 남성과 이야기할 때는 예의와 예절을 지켜 상대방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 하나님께서는 여성이 외간 남성과 이야기할 때 애교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셨으며 분명한 어조로 말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러니 마음에 병이 있는 자가 욕구를 품지 않게 나긋이 말하지 말라. 그리고 잘 알려진 말만 하라." (꾸란 제 33장 32절)
- 그분께서는 여성에게 또한 유혹적인 걸음걸이나 아름다운 장신구를 드러내는 몸동작을 금하셨습니다. 지고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숨기던 그녀들의 아름다움이 알려지지 않게 세차게 걷지 않도록 하라."(꾸란 제 24장 31절)

3 이성끼리 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

즉,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남성과 외간 여성 둘만 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슬람은 이러한 경우를 금하고 있는데 사탄이 이를 통해 추악한 행위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남성이 여성과 함께 홀로 있으면 제 삼자는 바로 사탄이 아니던가!" ('앗-티르미디'가 수집한 하디쓰, no.2165)

4 히잡을 착용해야 합니다 :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셨습니다. 여성에게서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매력은 남성에게 커다란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무화하신 히잡에는 여러



지혜가 숨어있습니다:

- 여성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서 주어진 학문적, 실천적 사명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명예와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유혹과 자극의 소지를 낮추어 공동체 사회를 청결히 지켜나가고 여성의 존엄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게 될 때 순결과 자기자제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며, 욕망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문화적, 지식적 파트너로서 여성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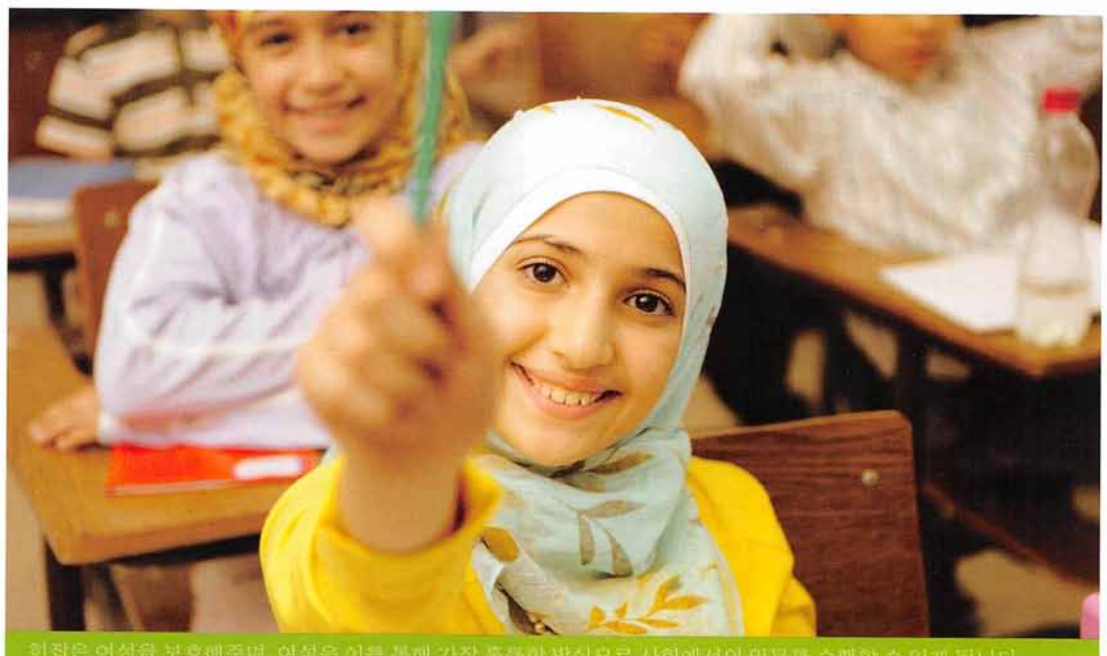
히잡의 착용 범위: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외간 남성 앞에서 얼굴과 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가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고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녀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제외라."(꾸란 제 24장 32절)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란: 얼굴과 양손을 뜻합니다. 그러나 얼굴과 양손을 드러냄으로써 유혹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그 때는 얼굴과 양손도 가려야 합니다.

히잡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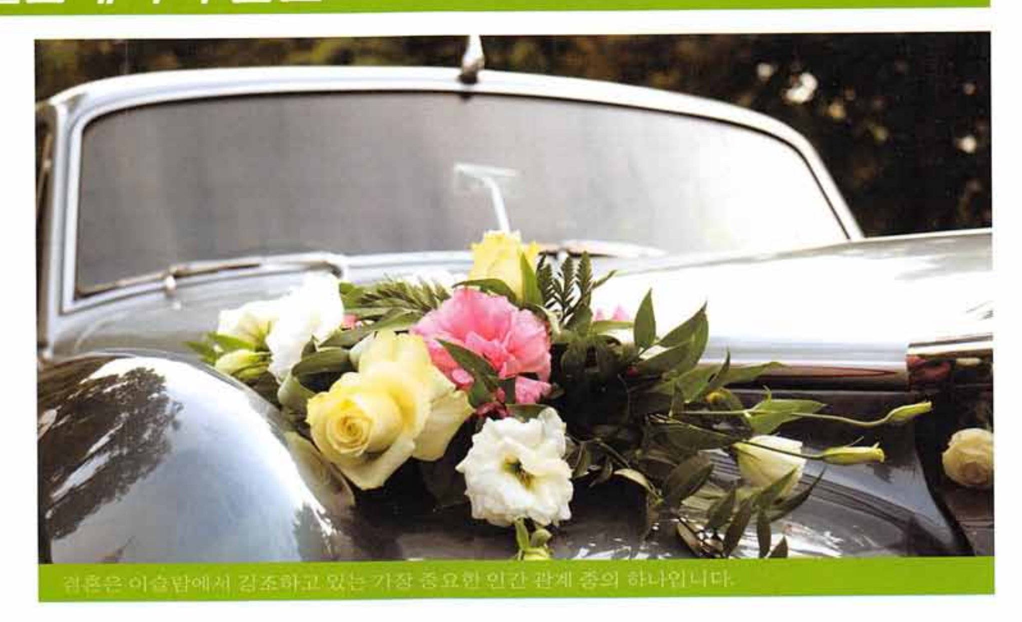
여성은 원하는 모양새와 색깔로 히잡을 착용할 수 있으나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려야 할 부분을 가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2. 헐렁하고 넓어야 하며 신체의 윤곽이 드러나는 달라붙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3. 신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비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히잡은 여성을 보호해주며, 여성은 이를 통해 가장 훌륭한 방식으로 사회에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슬람에서의 결혼



결혼은 이슬람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간 관계 중의 하나입니다.

결혼은 이슬람에서 강조하고 권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중의 하나로서 하나님의 사도들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p.200 참조)

이슬람은 결혼과 관련한 규정과 예절, 배우자의 권리 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슬림의 가족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은 안정된 자아와 굳건한 종교 의식을 가지게 되며 사회 생활 모든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아내와 관련한 조건 :

1. 아내는 무슬림 혹은 성서의 사람들(유대인 혹은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종교를 실천하는 무슬림과의 결혼을 더욱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자식을 가르치는 어머니이자 선행과 종교 실천에 있어서의 조력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러니 신앙심을 가진 여성을 구하라. 그대가 성공할 것이라." ('알-부카리'(no.4802)와 '무슬림'(no.1466)이 수집한 하디쓰)

2 **아내는 순결을 지키는 정숙한 여성이어야 합니다.** 문란한 성생활로 잘 알려진 여성과의 결혼은 금지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결혼이 허락된 여성은) 믿는 여성 중에서 정숙한 여성과 성서를 받은 자들 중에서 정숙한 여성이라." (꾸란 제 5장 5절)

3 **아내는 결혼이 영원히 금지된 마하림이어서는 안됩니다.** (p.172참조) 친자매간의 두 여성과 동시에 결혼할 수 없으며 아내의 고모나 이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관련한 조건 :

남편은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하며, 여성 무슬림은 불신자(유대인, 기독교인, 불교인, 무신론자 등)와의 결혼이 금지됩니다. 이슬람은 다음 두 가지 속성을 지닌 무슬림과의 결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 종교에 충실한 자.
- 성품이 훌륭한 자.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누군가가 결혼 승낙을 요청했을 때 그대들이 그의 종교와 품성에 만족한다면 그를 결혼시키도록 하라." ('앗-티르미디'(no.1084)와 '이븐 마자'(no.1967)가 수집한 하디쓰)

남편과 아내의 권리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권리를 수여하셨고, 그분께서는 배우자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권장하셨습니다. 따라서 둘 모두에게는 책임이 부여되며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에게 능력 밖의 일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그녀들에게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녀들에게는 합당한 권리가 있노라."(꾸란 제 2장 228절)

아내의 권리 :

1 경제적 부양과 거처 제공 :

- 남편은 아내에게 먹거리, 마실 거리, 옷 등을 제공해야 하며, 그녀에게 적당한 살 곳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녀가 아무리 잘 살더라도 이러한 부양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 지출 수준 : 경제적 지출은 합당한 수준에서,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과소비도 인색함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풍족한 자는 그의 풍족함으로 부양하고, 양식이 한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으로 부양토록 하라."(꾸란 제 65장 7절)

- 남편이 자신의 경제적 부양을 아내에게 은근히 자랑하거나 그로써 그녀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양을 합당하고 적합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지출은 추가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닌 아내의 정당한 권리이자 남편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 아내와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에는 커다란 축복이 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무슬림이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면서 그의 가족을 부양한다면 그의 부양은 희사금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알-부카리'(no.5036)와 '무슬림'(no.1002)이 수집한 하디쓰). 그(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



남편은 합당한 수준으로 아내와 자식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길) 의 다른 말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면서 지출하는 모든 것에는 보상이 있으니 그대 아내 입에 넣어주는 한 조각의 음식에도 보상이 있노라." ('알-부카리'(no.56)와 '무슬림'(no.1628)이 수집한 하디쓰). 능력이 있으면서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자는 커다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자신에게 의존하는 자를 소홀히 대하는 사람의 죄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도다. " ('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하디쓰, no.1692)

2 친절한 대우

친절한 대우란 : 예절, 상냥함, 부드러운 말, 인간이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실수나 결점에 대한 아량 등을 뜻합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그대들은 그녀들과 함께 살면서 친절히 대하라. 만약 그대들이 그녀들을

싫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싫어하는 그 무엇에 좋은 것을 많이 두셨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꾸란 제 4장 19절)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가장 높은 신앙을 지닌 신앙인은 가장 뛰어난 성품을 지닌 자이며 그대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는 자신의 아내를 가장 훌륭한 성품으로 대하는 자라."('앗-티르미디'가 수집한 하디쓰, no.1162)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가장 높은 신앙을 지닌 신앙인은 가장 훌륭한 성품을 지닌 자이며 아내에게 가장 자상한 자라." ('앗-티르미디'(no.2612)와 '아흐마드'(no.24677)가 수집한 하디쓰)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는 아내를 가장 훌륭히 대하는 자라. 그리고 나는 아내에 관해 그대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앗-티르미디'가 수집한 하디쓰, no.3895)

한 교우가 하나님의 사도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 '오, 하나님의 사도시여! 우리에 관한 아내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하시길 : "그대가 먹을 때 그녀도 먹는 것이며, 그대가 입을 때 그녀도 입는 것이며, 얼굴을 때리지 않고, 그녀를 욕하지 않으며, 그녀를 냉담히 대하고자 할 때는 오직 집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라." ('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하디쓰, no.2142)

3 예의갖춤과 상호인내 :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여성의 본성과 남성의 본성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인내와 긍정적 사고방식은 필수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바라보는 긍정적 사고 방식에 대해 일깨워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그대들 사이의 아량을 잊지 말라." (꾸란 제 2장 237절)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믿는 남성은 믿는 여성을 싫어해서는 안되노라. 그녀의 어떤 성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녀의 다른 성품에 기뻐할 것이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1469)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여성과 함께 삶에 있어 그녀를 배려하고 친절히 대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여성의 본능과 감성은 남성과 다르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다름은 가족 관계에 있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며, 이러한 다름이 갈등과 이혼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아내들에게 친절하라. 여성은 갈비뼈로부터 창조되었으니 그대를 위해 결코 바르게 펴지지 않을 것이라. 그녀로부터 즐거움을 얻었다면 그녀의 구부러진 상태에서 즐거움을 얻은 것이라. 그녀를 바로잡으려 한다면 그대는 그녀를 부러뜨릴 것이니, 그녀를 부러뜨리는 것은 그녀와 이혼하는 것이라."('알-부카리'(no.3153)와 '무슬림'(no.1468)이 수집한 하디쓰)

4 잠자리 :

남편은 아내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야 하며 사일 이상을 집 밖에서 자서는 안됩니다. 만약 한 명 이상의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라면 반드시 아내들 사이에 공평을 기해야 합니다.

5 보호받을 권리. 아내는 남편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

남성이 여성과 결혼을 하였으면 이제 그녀는 그의 명예이자 자부심이 됩니다.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아내를 보호하다 살해된 자는 순교

자라." ('앗-티르미디'(no.1421)와 '아부 다우드'(no.4772)가 수집한 하디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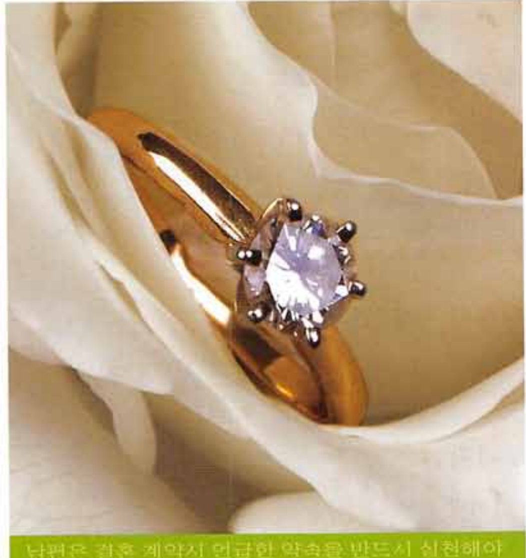
6 성적인 비밀이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

부부 사이의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부활의 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악한 지위에 있는 자는, 그가 아내와 정을 나누고 아내도 그와 정을 나눈 뒤에 아내의 비밀을 퍼뜨리는 자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1437)

7 아내에 대한 적의적 행동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

이슬람은 부부간의 문제에 관한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조언과 대화 및 충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결혼 계약시 언급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 남편은 삼일 이하의 기간동안 아내에게 침묵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잠자리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사도께서는 아내나 종을 한번도 때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하셨습니다."

8 교육 및 조언받을 권리 :

남편은 아내에게 충고하고 악행을 제지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충고 및 권장 사항을 실천하고 금지된 사항을 멀리하여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불지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조언하고 선행을 제시하며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야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 오, 믿는 자들이여! 불(지옥)로부터 그대들 자신과 가족들을 구하라."(꾸란 제 66장 6절)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 가족과 관련하여 남자는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떼에 책임이 있노라." ('알-부카리'(no.2416)와 '무슬림'(no.1829)이 수집한 하디쓰)

9 결혼시의 약속사항을 준수받을 권리 :

결혼 계약시 조건으로 건 사항, 예를 들어 특정 종류의 집이나 경제적 지출 등을 남성이 받아들였다면 남편은 반드시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약속은 가장 중요한 약속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계약은 가장 엄중한 약속으로 선지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그대들이 실행해야 할 가장 엄중한 계약은 그것으로써 순결이 허락되는 계약(결혼 계약)이라." ('알-부카리'(no.4856)와 '무슬림'(no.1418)이 수집한 하디쓰)

남편의 권리 :

1 아내는 남편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

하나님께서는 남성을 여성의 통솔자로 두셨습니다. 즉, 마치 지도자가 일반 구성원을 책임지듯이 남성은 여성의 제반 사항과 그녀에 대한 충고와 배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성에게만 베푼 여러 특장점과 남성에게만 부과된 경제적 책임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남성은 여성의 통솔자니 하나님께서 그들 중 일부에게만 더해 베푸신 것 때문이며 그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실시한 부양 때문이라." (꾸란 제 4장 34절)

2 원할 때 부부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리는 그녀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부부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내의 권장 사항은 남편을 위해 아름답게 꾸미고 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커다란 죄입니다. 그러나 생리, 의무 단식, 병환 등은 부부관계를 미루는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니다 : "남편이 침대로 아내를 불렀는데도 아내가 거부하여 남편이 화가 난 채 밤을 보냈다면 천사들은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녀를 저주할 것이라." ('알-부카리'(no.3060)와 '무슬림'(no.1436)이 수집한 하디쓰)

3 원하는 않는 자는 집으로 들여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아내에 관한 남편의 권리 중의 하나는 아내가 남편이 꺼려하는 자를 집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남편이 있을 때 단식을 하고 싶다면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누군가를 집으로 들여보낼 때도 반드시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노라."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4899)

4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허락에 의해서만 외출이 가능합니다 :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리는, 아내가 외출시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로 인한 외출이나 일상적인 외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 아내는 남편을 위해 집안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혼

이슬람은 배우자 관계 유지를 장려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이슬람은 이혼 절차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죽음이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을 때까지 둘의 관계가 항상 원만히 지속되길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엄숙한 성약이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결혼이 끝날 시간을 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사람들간의 서로 다른 개성과 성격을 고려하여 결혼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동거가 불가능하고 그 어떤 수단으로도 중재가 소용이 없을 때 이슬람은 실제 발생한 일을 고려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공정을 기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갈등와 그 이유, 왜 이혼이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살펴보며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둘을 통해 가족과 사회가 영속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태의 결혼은 초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기에 이별이 존속보다 그 해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돌파구로서 이혼이 허락되며 쌍방은 이를 통해 다른 배우자를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배우자에게서 기존의 배우자에게는 없었던 것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둘이 헤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족함으로써 모두를 충족시켜 주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가 드넓은 분이시며 가장 현명하신 분이시라." (꾸란 제 4장 130절)

그러나 이슬람은 여러 규정과 법조항을 두어 이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이혼은 여성이 아닌 남성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아내가 더 이상 남편과의 동거를 원치 않으나 남편측에서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여성은 재판관에게 이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정당하다면 재판관은 둘을 이혼시킬 수 있습니다.
- 남편은 이혼한 후 두번까지 전 아내와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번째 이혼 후에는 그녀와의 재혼이 불가능합니다. 단, 그녀가 타인과 완전한 결혼 생활을 이룬 후 이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아내가 생리 기간이 아닐 때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성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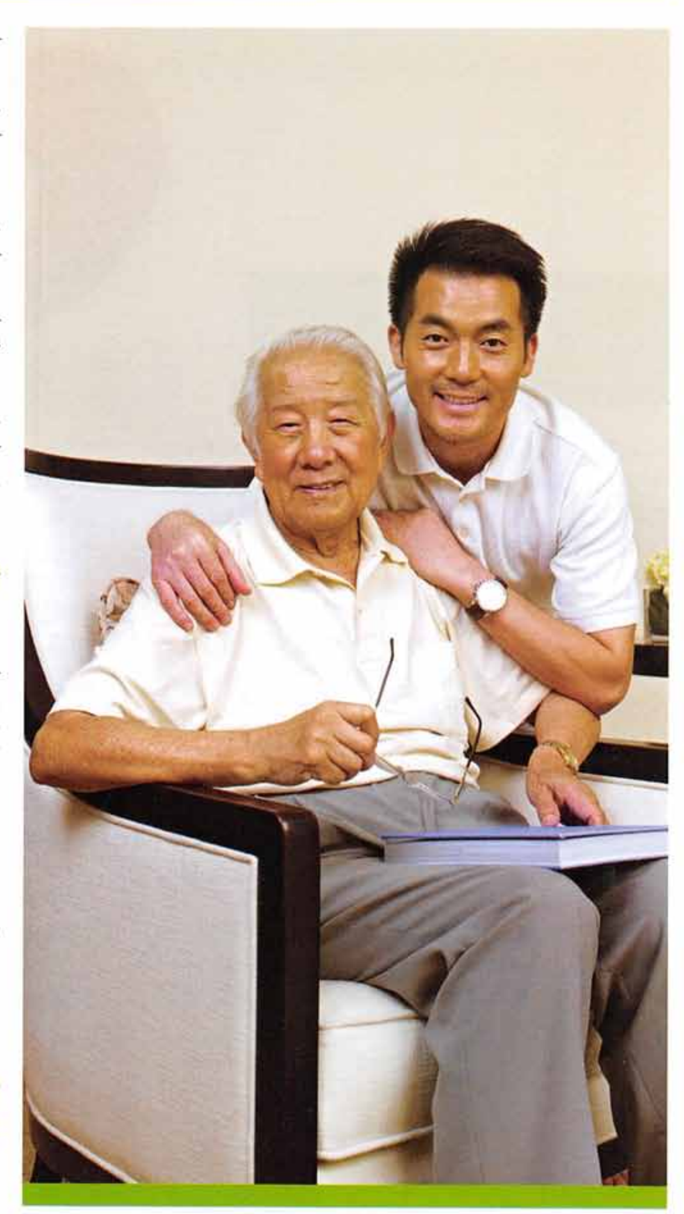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극진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선행 중의 하나이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효도와 경배 행위를 서로 연관지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로 두셨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천국에 있는 가장 가운데의 문이라. 그러니 원한다면 그 문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그 문을 보호하라." ('앗-티르미디'가 수집한 하디쓰, no.1900)

• 부모님에 대한 불효와 소홀함에 대한 경고:

이전의 종교들도 만장일치로 금지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죄 중의 하나는 부모님에 대한 불효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의 교우들(싸하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가장 커다란 죄를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들이 말하길: "네, 말씀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도시여!" 그가 말하길: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는 것과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라."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5918)

• 하나님에 대한 거역행위와 관련해서는 부모님에 대한 복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행위를 명령한다면 우리는 이를 따라서는 안됩니다. 피조물에 대한 복종이 창조주에 대한 거역행위로 이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간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라 분부하였도다. 그러나 그 둘(부모님)이 그대에게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써 나에게 대등한 존재를 두기를 종용한다면 그 둘을 따르지 말라."(꾸란 제 29장 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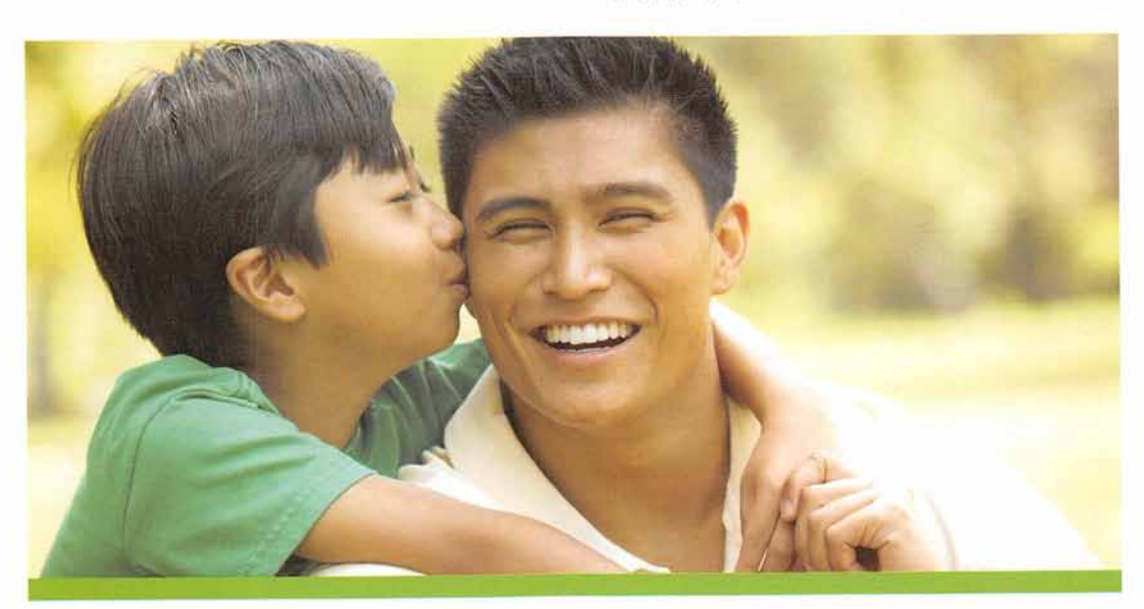
•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특히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더욱 중요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그대의 주님께서 명하시길 그대들은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며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라. 그대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 중 하나가 혹은 둘 모두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둘에게 짜증섞인 목소리를 내지 말며 그 둘을 질책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 둘에게 명예로운 말을 하라."(꾸란 제 17장 23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따를 것을 의무화하셨으며 그들을 질책하거나 그들에게 짜증을 내는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특히 그들이 나이가 들어 허약해졌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굳이 말이 아니더라도 짜증을 나타내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 부모님이 불신자인 경우:

부모님이 불신자일 경우에도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들의 말을 잘 따라야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러나 그 둘(부모님)이 그대에게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써 나에게 대등한 존재를 두기를 종용한다면 그 둘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현세에서 그 둘을 친절히 대하라." (꾸란 제 31장 15절) 그리고 가장 첫째가는 효도는 지혜와 자상함으로써 그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권리

• 신앙심있는 여성을 어머니로 선택하는 것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합니다. 이름은 항상 자식과 함께 하는 명칭이 되기 때문입니다.

• 자식을 잘 기르고 이슬람의 기본을 가르치며 자식이 이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 모두는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떼에 책임이 있노라.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양치기이며 그들에 대해 책임이 있노라. 집 안의 가족과 관련하여 남자는 양치기이며 그들에 대해 책임이 있노라. 그대들 모두는 이처럼 양치기가 아니던가. 그대들 모두는 자신의 양떼에 책임이 있노라." ('알-부카리'(no.2416)와 '무슬림'(no.1829)이 수집한 하디쓰)





• **경제적 부양 :** 아버지는,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들에게 대한 경제적 부양이 의무입니다. 부양에 대한 게으름이나 소홀함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 한도 내에게 가장 훌륭한 방식으로 경제적 부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자신에게 의존하는 자를 소홀히 대하는 사람의 죄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도다." ('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하디쓰, no.1692)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특별히 딸들에 대한 배려와 부양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저 딸들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가 그녀들을 훌륭히 대해준다면 그녀들은 불지옥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는 방어막이 될 것이라." ('알-부카리'(no.5649)와 '무슬림'(no.2629)이 수집한 하디쓰)

•**남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들 사이에 공평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식들을 공평히 대하라." ('알-부카리'(no.2447)와 '무슬림'(no.1624)이 수집한 하디쓰) 따라서 아들보다 딸에게 더 잘해주거나 딸보다 아들에게 더 잘해주는 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성품



11

이슬람에서의 성품은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종교의 모든 면에 있어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훌륭한 성품은 이슬람에서 가장 위대한 지위와 가장 높은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품의 중요성은 이슬람의 모든 판결과 법률에서 명백히 드러나며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훌륭한 성품을 완성하기 위해 사도로서 보내지신 것입니다.

차례 :

이슬람에서의 성품의 위치

1 성품은 선지자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사도로서 인간에게 보내진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 그리고 그분은 문맹들에게 그들 중의 사도를 보낸 분이시니 그가 그들에게 그분의 징표들을 낭송하고 그들을 깨끗이 하더라."(꾸란 제 62장 2절) 즉,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분의 사도를 보내셨고 이는 그들에게 꾸란을 가르치고 그들을 깨끗이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깨끗이 한다는 것은 우상숭배나 미움, 시기의 감정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하고 기존의 좋지 못한 예절과 관습으로부터 말과 행동을 정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신 바 있습니다 : "내가 사도로 보내짐은 오직 훌륭한 성품을 완성하기 위함이라." ('알-바이하끼'가 수집한 하디쓰, no.21301)

2 성품은 믿음과 신조의 확고한 일부분입니다: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믿는 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누구인지 질문받으셨고 이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그들 중에 가장 성품이 훌륭한 자라." ('앗-티르미디'(no.1162)와 '아부 다우드'(no.4682)가 수집한 하디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비르'(선)으로 칭하신 바 있습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들의 얼굴을 동쪽과 서쪽으로 돌리는 것이 선이 아니니라. 그러나 선이란, 하나님과 최후의 날과 천사들과 성서와 선지자들을 믿는 자(의 선이)라."(꾸란 제 2장 177절) 비르(선)는 훌륭한 성품과 말과 행동 등 좋은 것 모두를 총칭하는 명사입니다.



성품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보내진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선이란 훌륭한 성품이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2553)

믿음과 성품과의 관계는 다음의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말씀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 "믿음은 약 육십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노라. 그 중 가장 훌륭한 것은 '라일라하 일랄라'(하나님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다)는 말이며, 그 중 가장 낮은 것은 길거리의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라. 그리고 부끄러움(하야)은 믿음의 가지 중의 하나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35)

3 성품은 모든 종류의 경배 행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 행위를 명령하면서, 성품이나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그 이유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 예배 :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실로 예배는 추악한 행위나 비난받을 행위를 예방하노라" (꾸란 제 29장 45절)

의무희사금(자카) : "(오, 무함마드여!) 그들의 재산으로부터 희사금을 받아 그것으로써 그들을 정화하고 그들을 깨끗이 하라."(꾸란 제 9장 103절) 자카의 실체는 사람들을 돕고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또한 거기에는 영혼을 순화하고 나쁜 성품을 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식 : "오, 믿는 자들이여! 그대들 이전의 자들에게 의무로 규정되었던 것처럼 그대들에게도 단식이 의무로 규정되었으니 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꾸란 제 2장 183절) 즉 단식의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분께서 금지한 것을 멀리함으로써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 "거짓된 말과 행동을 그만두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그만두는 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노라."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1804) 즉 단식이 그의 영혼과 성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그는 단식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 훌륭한 성품을 갖춘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커다란 은혜와 보상이 있습니다:

꾸란과 순나에서 제시된 구절들이 그 근거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훌륭한 성품은 부활의 날, 저울에 놓일 가장 무거운 선행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 "저울에 놓이는 것 중 훌륭한 성품보다 더 무거운 것이란 없노라. 실로 훌륭한 성품을 지닌 자는 단식하고 예배드린 자의 위치에 도달할 것이라. " ('앗-티르미디'가 수집한 하디쓰, no.2003)

- 훌륭한 성품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훌륭한 성품이라." ('앗-티르미디'(no.2004)와 '이븐 마자'(no.4246)가 수집한 하디쓰)

- 훌륭한 성품을 지닌 자는 부활의 날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실로, 나에게 있어 가장 사랑스러운 자이자 부활의 날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될 자는 그대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성품을 지닌 자들이라." ('앗-티르미디'가 수집한 하디쓰, no.2018)

-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는 천국의 가장 높은 단계에 있게 될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보장하시고 재차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훌륭한 성품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행이며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슬람에서의 성품의 독특한 점

이슬람에서의 성품에는 다양한 특징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훌륭한 성품은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심에 서로 다른 모습과 피부색과 언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은 그 누구도 선호하지 않으며 오직 신앙심과 경외심으로 평가될 뿐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오, 사람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남자와 여자로부터 창조하셨고 그대들이 서로를 알 수 있도록 그대들을 민족과 부족으로 두었노라. 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대들 중 가장 명예로운 자는 가장 높은 경외심을 지닌 자라."(꾸란 제 49장 13절)

훌륭한 성품이란 무슬림과 모든 이와의 관계이며, 부자와 가난한 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 흑인과 백인, 아랍인과 비아랍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무슬림과의 예의범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를 훌륭한 품성으로 대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며, 몸가짐과 말을 통해 드러나는 무슬림의 품성인 공평함, 최선, 자애는 무슬림과 불신자 모두와의 교류시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훌륭한 품성이 비무슬림을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이유로 그대들과 싸우지 않았고 그대들의 거주지로부터 그대들을 추방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대들이 좋게 대하고 그들에게 공정을 기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시노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자들을 사랑하시노라."(꾸란 제 60장 8절)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은 그들을 조력자로 삼고 그들의 불신과 우상숭배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금한 것은 단지, 종교를 이유로 그대들과 싸웠고 그대들의 거주지로부터 그대들을 추방하였으며 그대들의 추방을 도운 자들을 교우로 두는 것이라. 그들을 교우로 두는 자가 있다면 그러한 자들, 그들은 부당한 자들이라."(꾸란 제 60절 9절)



무슬림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훌륭한 성품으로 대해야 합니다.

2. 훌륭한 성품은 인간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을 대할 때의 성품 :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암코양이를 가두어 배고파 죽게 만든 여자가 지옥에 들어갔음을 알려주셨고, 갈증으로 목말라하는 개에게 물을 준 남자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한 여자가 암코양이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갔노라. 그녀는 암코양이를 묶어둔 후 먹이를 주지도 않았고 암코양이가 대지의 해충을 잡아먹도록 풀어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라." ('알-부카리'(no.3140)와 '무슬림'(no.2619)이 수집한 하디쓰)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길을 걷고 있던 한 남자에게 갈증이 심해질 때쯤 그는 우물을 발견하였고 우물 밑으로 내려가 물을 마셨노라. 그 후 우물에서 나오니, 개가 갈증 때문에 흙을 핥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자가 말하길 : '나에게 왔던 갈증이 이 개에게도 왔구나.' 따라서 남자는 우물로 내려가 신발에 물을 채운 후 신발을 입으로 문 채 기어올라와 개에게 물을 주었노라.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보상하였으니 그를 용서하였도다." 교우들이 말하길 : '오, 하나님의 사도시여! 동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상을 얻는단 말입니까?' 그가 대답하시길 : "촉촉한 간을 지닌 모든 동물을 통해 보상을 얻을 수 있노라." ('알-부카리'(no.5663)와 '무슬림'(no.2244)이 수집한 하디쓰)

환경 보존과 관련한 성품 :

이슬람은 대지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문명을 발달시키는 동시에 이 은총을 잘 보존할 것을 명령하고있습니다.그리고대지에해악을퍼트리거나자원을낭비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습니다. 그 행위가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면 이슬람은 그것을 거부하며 따라서 이는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찬미받으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해악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하나님은 해악을 사랑하지 않으시노라."(꾸란 제 2장 205절)

이와 같은 중요성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조언에서도 발견되는데, 무슬림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서조차 선행과 대지의 경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 " 종말의 날이 시작되려는 순간 자신의 손에 묘목이 있어 종말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심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 ('아흐마드'가 수집한 하디쓰, no.12981)



이슬람은 환경 보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훌륭한 성품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

가족 :

이슬람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 대한 훌륭한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는 아내를 가장 훌륭히 대하는 자라. 그리고 나는 아내에 관해 그대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앗-티르미디›가 수집한 하디쓰, no.3895)"



-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집안일을 거들고 가족의 크고 작은 일을 도우심에 있어 가장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의 아내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 "그는 가족의 집안일을 돌보시곤 하셨습니다."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5048) 즉, 그들을 거드시고 그들의 집안일을 손수 하셨던 것입니다.
- 그는 가족에게 농담을 건내고 같이 놀기도 하셨습니다. 그의 아내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께서 전하길 : "제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데 그 때 저는 소녀였고 살이 많이 없었고 몸이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했고 그들은 먼저 갔습니다. 그 후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리와보오. 누가 빨리 뛰나 내기합시다." 그래서 제가 뛰어가 그를 이기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 후 제 몸에 살이 붙어 몸이 무거워졌고 잊은 채로 있다가 다시 그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먼저 갔습니다. 그 후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리와보오. 누가 빨리 뛰나 내기합시다." 그래서 제가 뛰어갔지만 이번에는 그가 저를 이겼습니다. 그가 웃기 시작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전에 대한 복수라네." ('아흐마드'가 수집한 하디쓰, no.26277)

상업 :

인간은 재물에 대한 사랑에 압도된 나머지 경계를 벗어나 금지된 행위에 빠져들 수도 있지만 이슬람은 훌륭한 성품을 통해 이를 미연에 예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그 예입니다 :

- 이슬람은 무게와 부피 측정시의 부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축복가득하시고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게 주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도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부피를 측정받을 때면 확실히 잴 것을 요구하나 그들이 그들(사람들)에게 부피를 재거나 무게를 달 때면 감소시키더라." (꾸란 제 83장 1-3절)
- 사고 팔 때의 관용과 친절이 권장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 하나님께서는, 물건을 팔 때나 살 때나 판결을 내릴 때 관용을 보이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노라."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1970)

공업 :
이슬람은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여러 품성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을 야무지게 처리하고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는 것.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일을 할 때 빈틈없이 잘 해내는 것을 사랑하시노라." ('아부 야을라'(no.4386)와 <슈아불 이만>의 '알-바이하끼'(no.5313)가 수집한 하디쓰)

■ 사람들과 약속한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는 것.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위선자의 징표는 셋이라." 그 중 다음을 언급하셨습니다:"약속을 할 때마다 깨는 것이라."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33)

4. 훌륭한 성품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이슬람에서 성품에 관한 예외사항은 없으며 무슬림은 전쟁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률을 실천하였는지, 훌륭한 성품을 보였는지 질문을 받습니다. 선한 의도와 목적이 악한 수단과 그 그릇됨과 방황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슬람은 적의와 전쟁 상황에서도 무슬림을 판결하고 규율하는 여러 원칙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본능이나 분노, 편협을 따르지 않게 되며 증오나 무자비함, 이기심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전쟁시 갖추어야 할 이슬람의 예절 :

1. 적들에 대해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며 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금지됩니다 :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대들이 공평을 기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 공평하라, 그것이 경외심에 더 가까운 것이라."(꾸란 제 ٥장 ٨절) 즉, 적에 대한 미움으로 그대들이 경계를 넘어서 부당히 행동하지 말며, 그대들의 말과 행동에 공정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2. 비무슬림에 대한 배반과 배신은 금지됩니다 :

비무슬림일지라도 그들에 대한 배반과 배신은 금지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실로 하나님께서는 배반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노라." (꾸란 제 8장 58절)

3. 고문이나 시체 훼손은 금지됩니다 :

죽은 자의 신체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들은 시체를 훼손하지 말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1731)

4.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종교인에 대한 살해나 대지나 자연에 해악을 퍼뜨리는 일은 금지됩니다 :

선지자의 첫번째 계승자로서 가장 훌륭한 교우였던 '아부 바크르 앗-씻디끄'(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께서는 '우사마 빈 자이드'를 '샴' 지역 출정군의 지도자로 보낼 때 다음과 같이 조언하셨습니다 : "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여성을 살해하지 말라. 대추야자나무를 베거나 태우지 말라. 열매가 달린 나무를 베지 말라. 양이나 소나 낙타를 죽이지 말라. 그러나 먹기 위한 것은 제외라. 그대들은 예배당에서 경배행위에만 전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라. 그들을 놓아두고 그들이 전념하는 것을 놓아두라." ('이븐 아사키르' 2/50)

선지자의 삶에서 발견되는 훌륭한 성품 :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꾸란은 그의 성품을 '위대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그의 아내인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쁘게 여기시길)는 그의 성품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 "그의 성품은 꾸란 그 자체였다." 즉 꾸란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품이 그대로 반영된 실천 귀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가장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겸손함 :

-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누군가가 자신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의 교우들(싸하바)에게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셨습니다. 사도에 대한 깊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은 그가 나타났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도께서 그러한 행위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아흐마드'(no.12345)와 '알-밧자르'(no.6637)가 수집한 하디쓰)
-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아디 븐 하팀'(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은 아랍 부족의 지도자 중의 하나였으며,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에게는 한 여자와 아이들 혹은 아이 한명이 있었습니다.-그 후 그들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언급하였다- 따라서 나는 (그의 겸허한 행동가짐으로 인해) 그가 키스라(페르시아의 왕)나 시저(로마의 왕)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흐마드'가 수집한 하디쓰, no.19381)
- 그가 교우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과 다를 바 없었고 다른 이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앉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본 적이 없는 이방인은 모임에서 그와 교우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묻곤 했습니다. "그대들 중 누가 무함마드오?"('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63)
- '아나스 븐 말리크'(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께서 말했습니다 : "메디나 주민의 여자 노예 중 한 여종은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손을 잡고선 그녀가 원하는 곳으로 그를 데려가곤 하였습니다."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5724) 손을 잡아주었다는 것은 어리고 연약한 존재에 대한 친절함과 유순함을 뜻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겸손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가, 자유인이 아닌 노예가 필요한 대로 그를 데리고 다녔으니 말입니다.

•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마음 속에 티끌 만큼의 거만함이라도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노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91)

자애로움 :

•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자애로운 자들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서 그들에게 자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러니 그대들은 땅에 있는 자들에게 자애를 베풀라.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그대들에게 자애를 베푸실 것이라." ('앗-티르미디'(no.1924)와 '아부 다우드'(no.4941)가 수집한 하디쓰)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자애로움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됩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들에 대한 자애 :

• 사막 유목민 한명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와서는 말했습니다 : '당신들은 어린이들에게 입을 맞춘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입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에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하나님께서 그대 마음 속에서 자애를 앗아간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리오?"('알-부카리'(no.5652)와 '무슬림'(no.2317)이 수집한 하디쓰) 다른 전승에 의하면, 선지자께서 알리의 아들 알-하산에게 입을 맞추자 사막 유목민이 말했습니다 : '실로 저에게는 열 명의 자식이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입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에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자애를 베풀지 않는 자는 자애를 받지 못할 것이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2318)

•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한번은 그의 손녀 '우마마 빈트 자이납'을 든 채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부복할 때는 그녀를 놓았고 일어설 때는 다시 그녀를 드셨습니다. ('알-부카리'(no.494)와 '무슬림'(no.543)이 수집한 하디쓰)

• 선지자께서는 예배를 시작하신 후에 어린이의 울음 소리를 드리면 예배를 짧게 끝내시곤 하셨습니다. 아부 까타다가 전하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말씀입니다 : "실로 나는 예배를 길게 드리고자 예배를 시작하지만, 어린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면 내 예배를 짧게 하니, 그의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 ('알-부카리'(no.675)와 '무슬림'(no.470)이 수집한 하디쓰)



여성에 대한 자애 :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딸들에 대한 배려와 훌륭한 대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저 딸들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가 그녀들을 훌륭히 대해준다면 그녀들은 불지옥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는 방어막이 될 것이라." ('알-부카리'(no.5649)와 '무슬림'(no.2629)이 수집한 하디쓰)

실로 선지자께서는 아내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녀를 챙기고 배려해주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셨으며, 무슬림들이 이 사항을 서로 조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아내들에게 친절하라."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4890)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가족에 대한 친절에 있어 감명적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내 싸피야(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쁘게 여기시길)가 낙타에 탈 수 있도록 그는 낙타 근처에 꿇어 앉아 무릎을 대어주셨고, 그녀는 그의 무릎을 계단삼아 낙타에 올라탔습니다.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2120) 그의 딸 파띠마가 그에게로 올 때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녀에게 뽀뽀를 해주셨으며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그녀를 앉히셨습니다. ('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하디쓰, no.5217)

약자에 대한 자애 :

-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사람들에게 고아를 돌볼 것을 장려하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나와 고아를 돌보는 자는 천국에서 이처럼 될 것이라." 그리고 검지와 엄지 사이를 조금 벌리셨습니다.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4998)

- 남편을 잃은 여성과 불우한 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하는 자와 같으며 낮에는 단식하고 밤에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알-부카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남편을 잃은 여성과 불우한 자들에게 잘해주는 자를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하는 자와 동일히 두셨습니다.

리'(no.5661)와 '무슬림'(no.2982)이 수집한 하디쓰)

• 약자에 대한 친절과 그들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은 양식이 증가하고 적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는 원인이 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나를 위해 약자들을 불러오라. 그대들은 오직 약자들로 인해 승리하고 양식을 제공받는 것이라." ('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하디쓰, no.2594)

■ 동물에 대한 자애 :

• 선지자께서는 동물을 자애로써 대하고, 힘이 부칠 정도록 너무 많은 짐을 싣지 말며, 동물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 것을 장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최선을 의무로 하셨노라. 따라서 살해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도살할 때도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칼날을 잘 갈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1955)

• 교우(싸하바)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 선지자께서 우리가 태워버린 개미집을 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 "누가 이것을 태웠는가?" 우리가 말하길 :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 "불로써 벌을 가하는 것은 불의 주님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합당치 않노라." ('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하디쓰, no.2675)

공평함 :

•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하나님의 법률을 실천함에 - 가장 가까운 친척일지라도 - 공평하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의



일부 교우가 새끼 새를 잡아갔고 어미가 새끼를 찾으며 불안해하며 퍼덕이는 것을 보자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누가 새끼 잃은 이 새를 슬프게 하였는가? 새끼를 어미에게로 돌려보내라."

명령을 지키신 것입니다. "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서 공정함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이 그대들 자신과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불리할지라도 마찬가지리라."(꾸란 제 4장 13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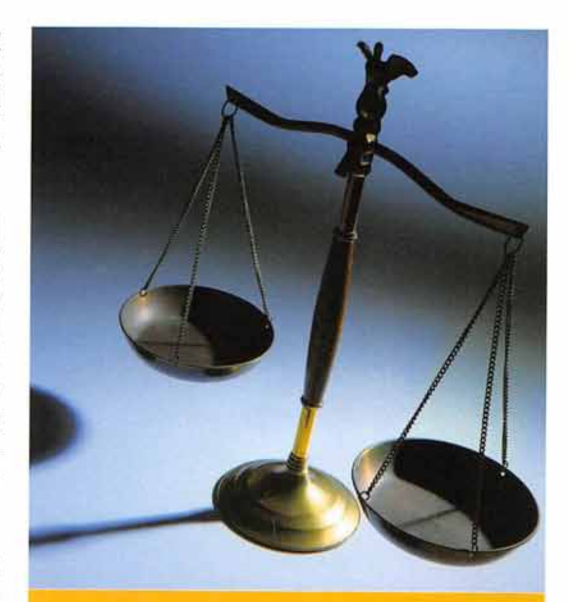
- 부족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한 여성이 도둑질을 하였고, 이에 한 교우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로 찾아가 그녀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재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 "무함마드의 영혼을 손에 쥐고 계신 분께 맹세코! 무함마드의 딸 파띠마가 도둑질을 했더라도 나는 그녀의 손을 절단했을 것이라." ('알-부카리'(no.4053)와 '무슬림'(no.1688)이 수집한 하디쓰)

- 이자(리바)가 금지되었을 때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처음으로 그것을 적용한 대상은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 즉 그의 삼촌인 압바스였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가장 먼저 폐지하는 리바는 우리의 리바, 즉 압바스 븐 압둘 뭇딸립의 리바라. 모든 리바가 폐지되었도다."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1218)

-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공동체 문명의 발전 정도의 기준을, 약자가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두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 "약자가 어려움없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숭고하지 못한 것이라." ('이븐 마자'가 수집한 하디쓰, no.2426)

너그러움 :

-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널리 베푸는 분이셨고 특히 라마단 기간에 지브릴(가브리엘) 천사를 만날 때 그의 관대함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가장 공평한 분이셨으며 공평함에 있어 친척이나 적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절정에 이르곤 했습니다. 지브릴 천사는 라마단 매일 밤 그를 만나 아침이 찾아올 때까지 그와 함께 있었고 그는 지브릴 천사 앞에서 꾸란을 낭송하셨습니다. 그가 지브릴 천사를 만날 때는 자선을 베풂에 있어 세찬 바람보다 더 빨랐습니다. ('알-부카리'(no.1803)와 '무슬림'(no.2308)이 수집한 하디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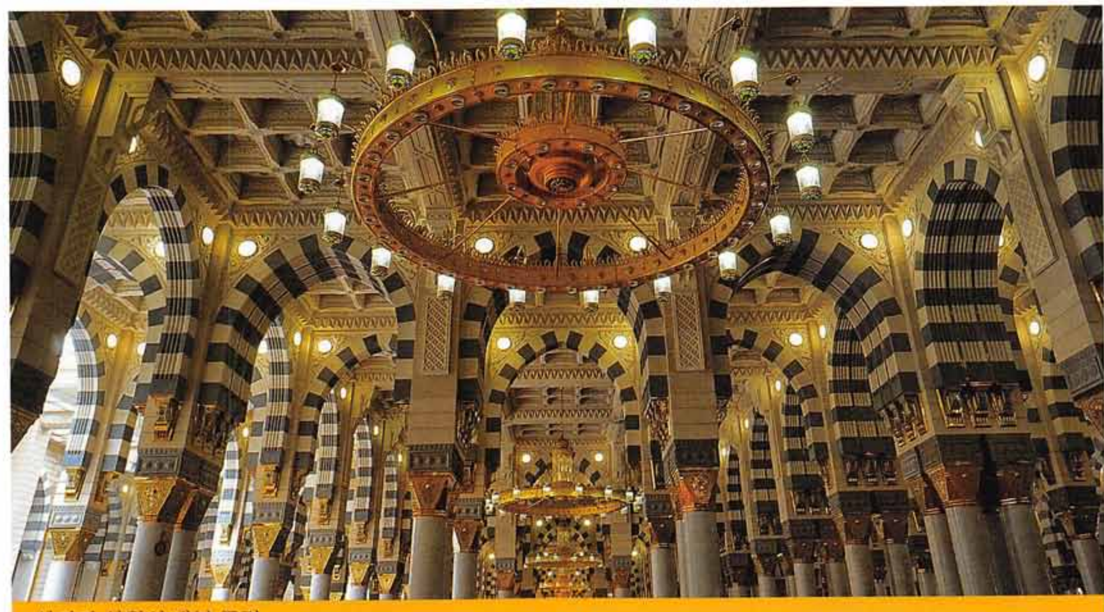
- 선지자께서는 달라고 하면 언제나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한 남자가 찾아왔기에 그에게 계곡 사이에 있는 양떼를 주셨고 그는 돌아가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 '사람들이여! 이슬람으로 입교하시오. 실로 무함마드는 베풀면서도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라오.'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2312)

- 선지자께서는 80,000 디르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는 그것을 바닥에 놓은 채 나누어주셨고, 그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달라고 하는 자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알-하킴'이 수집한 하디쓰, no. 5423)

- 한 남자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고 이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소. 그렇지만 내 이름으로 물건을 사시오. 우리에게 뭔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것이오." (즉 그가 원하는 걸 사고, 돈은 선지자께서 낼 것이라는 뜻) 이에 우마르가 말했습니다 : '오, 하나님의 사도시여! 하나님께서는 당신 능력 밖의 일을 짐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이에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 "희사하시고, 권좌를 지니신 그분으로부터 인색함을 두려워 마십시오." 이에 선자자께서는 미소를 지으셨고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드러났습니다. (알-아하디쓰 알-무크타라 : 88)

-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후나인' 전투에서 돌아오실 때,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막 유목민들이 그에게 찾아와 전리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들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바람에 그가 나무까지 몰리고 그의 윗옷이 분실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도께서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 "나의 윗옷을 주시오. 나에게 이 나무들 개수만큼의 낙타가 있더라도 그대들에게 다 나누어주었을 것이오. 내가 구두쇠도 거짓말쟁이도 겁쟁이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오."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2979)

이처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감동적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 성원의 내부 풍경



새로운 삶



새내기 무슬림이 이슬람으로 입교하는 순간은 그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이며 그는 새롭게 탄생한 것과도 같습니다. 입교 후에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이슬람에 부합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차례 :

이슬람으로 입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슬람으로의 입교는 샤하다(신앙증언)라는 아랍어 문장을 말함으로써 가능하며, 그 의미를 알고 확신하며 그것이 뜻하는 바를 따르고자 할 때 비로소 입교가 성립합니다. 샤하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슈하두 안라 일라하 일랄라'(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합니다) 즉 그분 한분만을 경배하며 그분과 대등한 존재를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2.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수룰라'(나는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즉 사도로서의 무함마드가 명령한 것을 따르고 그가 금지한 것을 멀리하며 그가 보여준 모범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뜻입니다.* *(p.32-37 참조)*



새내기 무슬림의 샤워 :

이슬람으로 입교하는 순간은 삶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며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현세에서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입교 후에 전신 샤워를 함으로써, 내면의 불신과 죄를 정화하고 외면을 깨끗이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아랍인의 지도자 중의 하나였던 한 교우가 입교를 원할 때 그에게 샤워를 실시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알-바이하끼'가 수집한 하디쓰, no.837)

참회

참회는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뜻합니다. 자신이 이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회입니다.

무슬림에게 참회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상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는 실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께 참회해야 합니다.

진정한 참회의 조건은 무엇인가?

불신,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를 두는 행위(쉬르크) 등 기존의 죄로부터 참회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음: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실시하는 참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참회한 후에 다시 그 죄를 범했다면 이전의 참회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다시 새로운 참회를 해야 합니다.

2 이전의 죄에 대한 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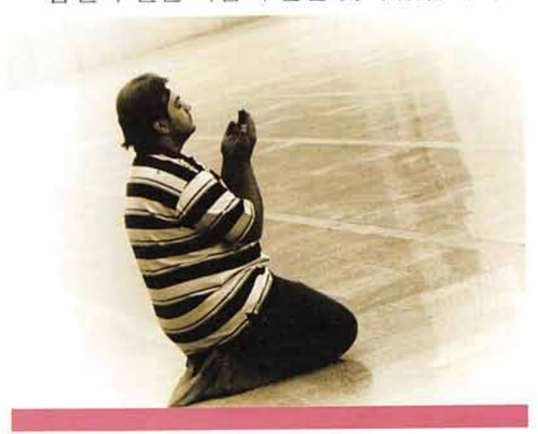
참회하는 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안타까워하지도 않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보란 듯이 그 죄를 드러내는 자는 후회하는 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참회라." ('이븐 마자'가 수집한 하디쓰, no.4252)

3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

참회 이후에 다시 그 죄로 돌아가겠다고 의도하는 자의 참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결심을 위한 발걸음:

- 사정이 무엇이든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단 한 순간이라도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자신과 약속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신앙의 달콤함을 맛볼 것이라." 그 중 다음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신 후,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만큼 혐오스런 것이라 느끼는 것."
- 자신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죄를 짓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친구나 장소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 죽음이 도래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종교를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떤 문장이나 언어로도 기도가 가능하며 꾸란과 순나에 언급된 구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오, 저희들의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저희들을 인도해주셨으니 그 후에 저희들의 마음을 어긋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꾸란 제 3장 8절)*

- *"오,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시여! 저의 마음이 당신의 종교에 대한 확고함으로 가득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앗-티르미디'가 수집한 하디쓰, no.2140)*

참회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정으로 참회하고 뉘우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막중한지에 상관없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모든것을 아우릅니다. 지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말하라 : '자신에 대해 도를 지나쳤던 오, 나의 종복들이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체념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노라. 진실로 그분은 너그러이 용서하는 분이시며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시라.' "(꾸란 제 39장 53절)

진실된 참회 후에 무슬림에게는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겸손해하며 진실되게 후회하는 자에게 특별한 보상을 마련하셨습니다. 즉, 그분께서는 그의 죄를 선행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찬미받으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뉘우치고 믿고 선행을 실천하는 자는 예외로 그러한 자들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선행으로 대체하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시라."(꾸란 제 25장 70절)

따라서 우리는 참회하면서 더 이상 사탄의 올가미에 빠져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의 달콤함 :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과 이슬람을 실천하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며, 불신과 우상숭배와 방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마치 불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싫어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마음속에서 신앙의 달콤함과 맛깔스러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과 평안함을 찾고, 자신을 인도해주신 그분의 은총에 대한 행복감 및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신앙의 달콤함을 맛볼 것이라 :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그 어떤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함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불신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신 후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만큼 혐오스런 것이라 느끼는 것."('알-부카리'(no.21)와 '무슬림'(no.43)이 수집한 하디쓰)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만큼 혐오스런 것이라 느낄 때 우리는 신앙의 달콤함을 맛볼 것입니다.

인도와 용서라는 은총에 대한 감사

무슬림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인도와 용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

1 종교를 꾸준히 실천하며 이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인내하는 것 :

손에 보물을 쥔 자는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 그것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철학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며 이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 지침을 제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에 축복가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도에게 이슬람과 꾸란을 확고히 움켜잡고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슬람은 올곧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대에게 계시된 것을 확고히 붙잡으라. 실로 그대는 올곧은 길 위에 있도다."(꾸란 제 43장 43절)

우리는 이슬람 입교 후에 겪는 고충에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섭리입니다. 우리들 중 가장 훌륭한 자들은 가장 심한 고충을 겪었고 그러나 그들은 잘 인내하고 분투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바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가장 가까운 자들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고 믿음을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독자님께서 겪는 시련은 독자님의 신앙의 정직성과 확신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을 굳건히 견뎌내시고 이슬람을 움켜쥐십시오.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하셨던 다음 기도로써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시여! 저의 마음이 당신의 종교에 대한 확고함으로 가득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앗-티르미디›가 수집한 하디쓰, no.2140) "

동일한 맥락에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 "사람들은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내버려진 채 시험받지 않으리라 생각했단 말인가? 진실로 나는 그들 이전의 자들을 시험하였으니 실로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드러내시고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시노라. "(꾸란 제 29장 2-3절)

2 지혜와 아름다운 설교로써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

이슬람으로의 초대(다와)는 자신이 받은 은총에 대해 감사하는 방법 중 가장 훌륭한 수단이자 하나님의 종교를 꾸준히 실천하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불치의 병에 걸려 밤낮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웠다가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이 치유법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가족과 친척, 사랑하는 이들에게 먼저 이 치유법을 가르쳐 주려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슬람으로의 초대

하나님으로의 초대에 대한 축복 :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초대하는 일은 가장 훌륭한 선행이자 경배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꾸란과 순나에 언급된 다와(이슬람으로의 초대)의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와는 현세와 내세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 중 한 무리가 있어 그들이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며 선을 권하고 악을 금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러한 자들, 그들은 성공한 자들이라."(꾸란 제 3장 104절)

2 **다와를 하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하고 사랑스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을 칭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에게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선행을 하면서 '실로 나는 무슬림 중의 한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보다 더 훌륭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꾸란 제 41장 33절) 따라서 그가 하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으니,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주님이자 창조자이며 조력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조언이며 그분께서는 우상숭배라는 암흑에서 믿음이라는 광명으로 사람들을 구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 **다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실천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는 지혜와 훌륭한 설교로써 그대 주님의 길로 초대하라.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써 그들과 논하라."(꾸란 제 16장 125절) 따라서 우리는 지혜와 적절한 대처로써 다와를 실시해야 하며 다와의 대상이 되는 자를 잘 알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훌륭하고 감동적인 말과 가장 부드럽고 다가가기 쉬운 방식으로써 그들이 인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다와는 사도들의 공통된 임무였으며,** 그들의 지도자는 우리의 사도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도로 보내셨고 따라서 그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었고, 믿는 자에게는 천국와 보상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으며, 불신자와 악행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불지옥과 엄벌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초대하여 널리 빛을 퍼뜨렸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 오, 선지자여! 실로 나는 그대를 사도로 보냈으니, 그대는 증인이자 기쁜 소식의 전달자이며 경고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그분으로의 초대자이자 빛나는 등불이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커다란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 "(꾸란 제 33장 45-47절)

5 **다와는 끊기지 않는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즉,** 누군가가 우리의 다와를 받아들여 우리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다면 그의 예배와 경배 행위,

사람들에 대한 교육 등에서 비롯되는 모든 보상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은 얼마나 위대한지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게서 말씀하셨습니다:"인도의 길로 초대하는 자가 가질 보상은 그 초대를 따르는 자의 보상과 유사하노라.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그 누구의 보상도 감소되지 않노라."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2674)

6 **하나님으로의 초대를 실시하는 자가 가질 보상은 현세의 모든 향락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가 가질 보상은 하나님에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며 가장 훌륭히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크나큰 보상을 선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선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한 적이 없노라. 나의 보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나는 무슬림 중의 한 명이 되기를 명령받았도다."(꾸란 제 10장 72절)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하나님께서 그대의 손을 통해 누군가를 인도하셨다면 그것은 그대가 붉은 낙타들을 가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 ('알-부카리'(no.2847)와 '무슬림'(no.2406)이 수집한 하디쓰)

정확한 다와 방법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다와를 묘사하신 바 있으며 정확한 다와의 속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1 확실한 증거와 지식:

다와를 하는 자는 반드시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말하라(오, 무함마드여!):'이것이 나의 길이며, 나는 확실한 증거로써 하나님에게로 (사람들을) 초대하니, 나와 나를 따르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꾸란 제 12장 108절)

하나님으로의 초대를 위해서 무슬림이 반드시 깊은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규정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



웠다면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장점을 배웠다면 그것을 알리는 것이며, 꾸란의 한 구절이라도 알았다면 그것을 알려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들은 나를 대신해서 꾸란의 한 구절이라도 전하라."('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3274)

사도의 교우들(싸하바)(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여기시길)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통해 입교를 하여 이슬람의 기초를 배웠고 그 후 자신의 부족 구성원들에게 이슬람을 알리고 입교를 권유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입교 동기는 그들의 훌륭한 성품이었습니다.

2 지혜 :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는 지혜와 훌륭한 설교로써 그대 주님의 길로 초대하라.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써 그들과 논하라."(꾸란 제 16장 125절) 여기서 지혜란 : 적합한 행동 양식과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성격이 다르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계기도 다릅니다. 그들의 이해력 역시 서로 상이하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골라 가장 효과가 큰 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와는 친절함, 훌륭한 설교, 자애와 자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미움이나 적의를 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사람들에 대한 친절함과 관용이라는 성품을 주셨고 만약 그가 엄격하고 가혹했더라면 사람들은 그에서 멀어졌을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비에 의해 그대는 그들을 친절히 대하였도다. 만약 그대가 가혹하고 마음이 모질었다면 실로 그들은 그대 주위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것이라." (꾸란 제 3장 15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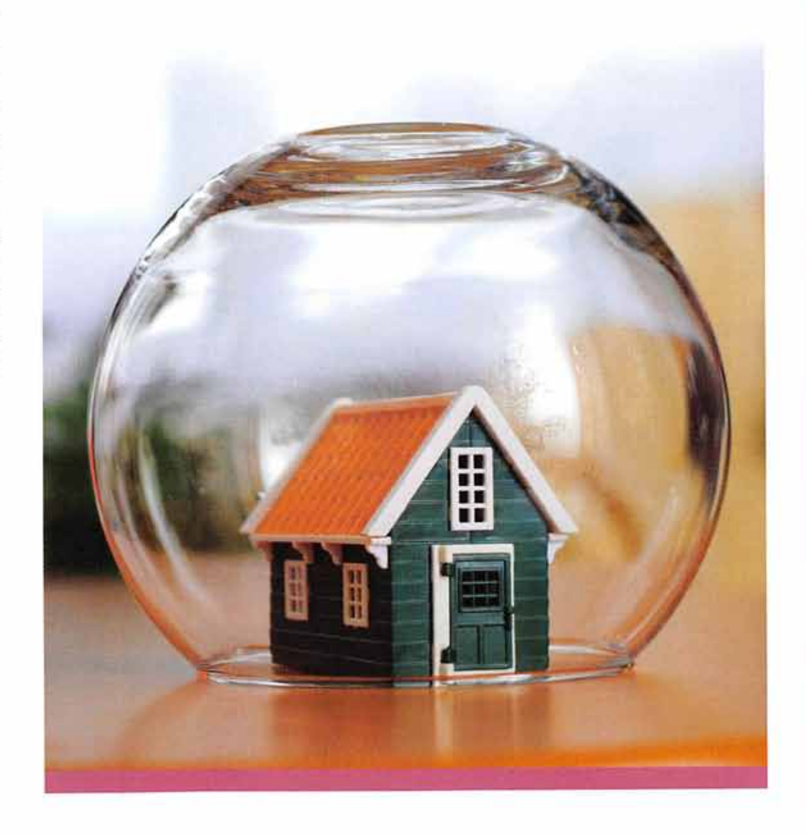
가족 선교 :

이슬람 입교라는 은총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과 가까운 친척을 이슬람으로 초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고초를 인내하고 초대를 위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축복가득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의 가족에게 예배를 명령하고 그것(예배)에 인내하라." (꾸란 제 20장 132절)

다와에 임하는 어떤 사람들은, 먼 타인들만 그의 초대에 응하고 정작 가까운 사람들은 그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아 비탄하면서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다와란 최선을 다하면서 그 방법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의 삼촌 아부 딸립은

꾸라이쉬 부족 앞에서 그를 돕고 변호하였지만 이슬람으로의 입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께서는 삼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이슬람으로 초대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 "삼촌, '라 일라하 일랄라'(하나님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다)고 말하세요. (심판의 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로 삼촌을 변호하겠습니다." ('알-부카리'(no.3671)와 '무슬림'(no.24)이 수집한 하디쓰) 그러나 그의 삼촌은 그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고 불신자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음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 "실로 그대는 그대가 사랑하는 자를 인도하지 못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원하는 자를 인도하시니 그분께서는 인도받은 자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노라."(꾸란 제 28장 56절) 따라서 다와에 임하는 자는 최선을 다해 이슬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알려주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원하는 자를 올곧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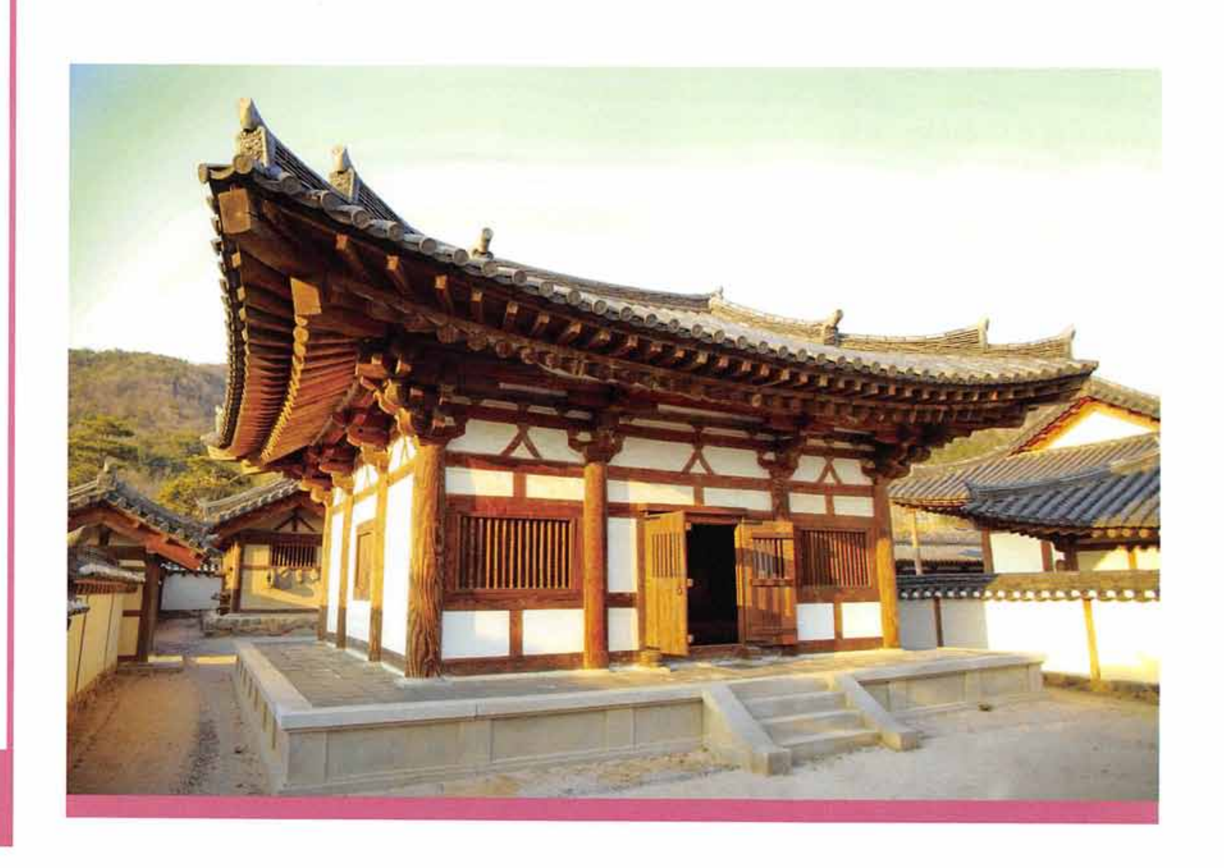
가족 환경

새내기 무슬림은 입교 이후부터 인간관계를 공고히 하고 가까운 지인과 친척들에게 훌륭한 성품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슬람은 고독이나 격리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훌륭한 성품으로써 그들과 교류하는 것이야말로 이슬람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사도로 보내진 것은 인간의 성품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훌륭한 성품과 너그러움을 실천하는 가장 첫번째 시작점은 바로 가족들이어야 합니다(p.185참조).

다음은 가족 관계에 있어 새내기 무슬림이 필요로 하는 이슬람의 여러 규정들입니다.



이슬람 입교 후의 배우자 관계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입교한 경우 :

• 부부가 동시에 입교한 경우 그들의 결혼은 여전히 유효하며 결혼 서약과 관련하여 그 어떤 수정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1 **어머니나 이모, 고모** 등과 같이 배우자가 자신의 마하림일 경우 그들과는 이혼을 해야 합니다(p.173 참조).

2 **두 명의 친자매,** 한 여성과 그녀의 고모, 한 여성과 그녀의 이모와 동시에 결혼한 경우 둘 중 한 명과는 이혼해야 합니다.

3 **입교시 아내들의 수가 네 명을 초과**한 경우 : 그들 중 네 명을 선택하며 결혼 관계를 지속하며 나머지 아내들과는 이혼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입교했는데 아내가 입교하지 않았다면?

아내의 종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그녀가 유대인나 기독교인처럼 성서의 사람들 출신이거나, 혹은 성서의 사람들이 아닌 예를 들어 불교인, 힌두교인, 우상숭배인, 무교인일 수 있습니다.

1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인 경우 :

남편이 입교하였으나 아내는 성서의 사람들(유대인과 기독교인) 출신인 경우 그 결혼 관계는 지속됩니다. 무슬림이 성서의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은 계속해서 유효한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오늘 그대들에게 좋고 깨끗한 것들이 허락되었도다. 성서를 받은 자들의 음식이 그대들에게 허락된 것이며 그대들의 음식도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라. (결혼이 가능한 여성은)믿는 여성 중에서 정숙한 여성과 성서를 받은 자들 중에서 정숙한 여성이라."(꾸란 제 5장 5절)

그러나 그는 아내를 이슬람으로 초대하고 인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2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아닌 경우 :

남편이 입교하였지만 아내는 이슬람을 거부하였고, 그녀가 성서의 사람들(유대인이나 기독교인) 출신이 아니라 불교인이나 힌두교인, 우상숭배자이거나 믿는 종교가 없을 때 :

우선, 이혼 지정기간(잇다) 동안을 기다립니다. '잇다'의 기간은 다음 페이지에 게시된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기간동안 아내가 입교한다면, 그녀는 남편의 아내로서 유효하며 결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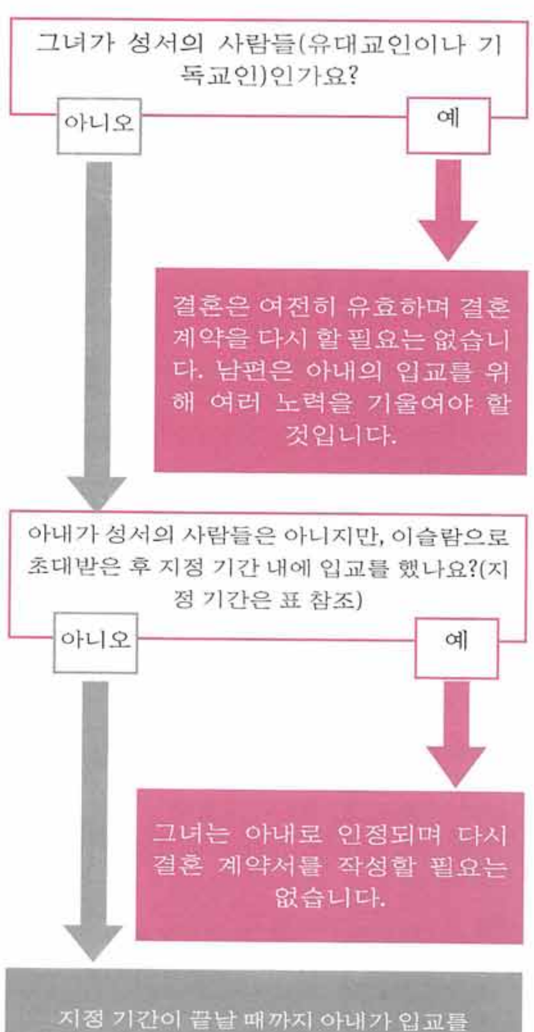
• '잇다'가 끝날 때까지 아내가 입교하지 않을 경우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잇다'가 끝난 후 아내가 입교하였다면, 남편은 원할 경우 그녀에게 다시 청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불신자 여성들과의 결혼 계약을 붙잡지 말라."(꾸란 제 60장 10절) 즉, 입교 후에는 성서의 사람들 출신이 아닌 불신자 여성을 아내로 존속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혼 여성의 지정 기간(잇다) :

1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첫날밤을 보내지 않은 경우(즉,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거나 둘이서만 한 방에 있지 않은 경우) : 이혼(여기서는 남편의 이슬람 입교)으로써 그 둘은 완전히 분리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오, 믿는 자들이여! 그대들이 믿는 여성들과 결혼한 후 그녀들과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혼하였다면 그대들은 그녀들에 관해 지정 기간을 셀 필요가 없노라."(꾸란 제 33장 49절)
2	임신 여성의 지정 기간 : 임신 기간이 길든 짧든 출산을 하면 지정 기간이 종료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임신한 여성은 태아를 낳을 때까지가 그녀의 기간이라."(꾸란 제 65장 4절)
3	임신 여성이 아니며 생리를 하는 여성인 경우 : 이혼 혹은 남편의 입교 후의 지정 기간은 세 번의 생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녀에게 생리가 온 후 완전히 멈추고, 그 뒤 생리가 온 후 완전히 멈추고, 그 후 생리가 온 후 완전히 멈추었을 때 세 번의 생리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생리 사이의 기간이 길든 짧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번의 생리가 완전히 끝나면 그녀의 지정 기간은 종료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이혼 여성은 세 번의 생리까지 기다려야 하노라." (꾸란 제 2장 228절)
4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은 나이가 적어 생리가 없거나, 나이가 많아 폐경을 맞이했거나, 지병을 앓아 지속적인 이유로 생리가 없을 경우이며 그녀의 지정 기간은 이혼 혹은 남편의 입교 후 삼개월까지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그대들의 아내 중 생리에 관해 단념한 여성은, 그대들이 의심이 든다면, 그녀의 지정 기간은 삼개월이며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도 마찬가지라."(꾸란 제 65장 4절)

아내가 입교하지 않았을 때 :



아내만 입교하고 남편이 입교하지 않았다면?

두 명 모두 불신자였다가 동시에 입교한 경우 : 결혼은 여전히 유효하며, 아내가 친자매나 고모나 이모 등 마하림일 경우에는 결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p.172참조).

아내가 입교하였지만 남편이 입교를 거부한 경우 :

아내가 입교하는 순간 결혼 계약은 취소가 가능한 비의무 계약으로 바뀝니다. 아내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남편이 입교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를 위해 이슬람의 진정한 메시지를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이 지났을지라도 만약 그가 입교한다면, 기존의 결혼 계약으로써 그녀는 다시 그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교하기 전까지 남편은 아내와 성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 남편의 입교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아내가 원할 경우 이혼을 요청하여 결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불신자 남편은 입교하기 전까지 무슬림 아내와 성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하여 그녀들이 믿는 여성들이라는 것을 그대들이 알았다면 그녀들을 불신자들에게로 돌려보내지 말라. 그녀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존재가 아니며 그들도 그녀들에게 허락되지 않노라."(꾸란 제 60장 10절)

따라서 아내는 입교 후에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

1. 아내는 입교 후 곧바로 남편을 이슬람으로 초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지혜와 아름다운 설교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슬람을 원하지 않고 설득에 성공하지 못하여 체념 상태에 이르렀다면 : 아내는 이혼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이혼 절차를 밟는 기간 -그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의 결혼 계약은 허락된 계약으로 간주되며 이혼 절차 기간 -지정 기간(잇다)이 지났더라도 - 내에 남편이 입교하였다면 기존의 결혼 계약으로써 결혼 생활이 유지됩니다. 이혼 절차가 종료되는 순간부터 결혼 계약은 파기됩니다.
4. 이혼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내가 남편의 집에서 머무는 것은 허락되지만, 부부간의 성관계는 금지됩니다.

어린이의 입교 :

인간은 이슬람의 본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타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와 교육의 영향 탓입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창조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노라. 그러나 부모가 그를 유대교인으로 만들고 기독교인으로 만들며 조로아스터교인으로 만드는 것이라." ('알-부카리'(no.1292)와 '무슬림'(no.2658)이 수집한 하디쓰)

불신자 부모를 둔 어린이가 죽었다면 우리는 현세에서 일단 그 어린이를 불신자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것과 드러내는 것 모두를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부당히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심판의 날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험을 준비하셨고 그 시험에서 어린이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천국, 하나님을 거역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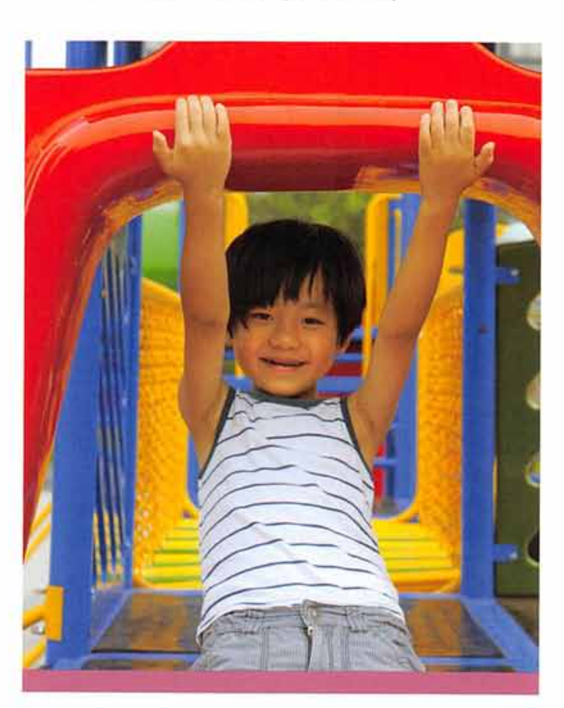
우상숭배자의 어린이에 관해 질문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그분께서 가장 잘 아시노라."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1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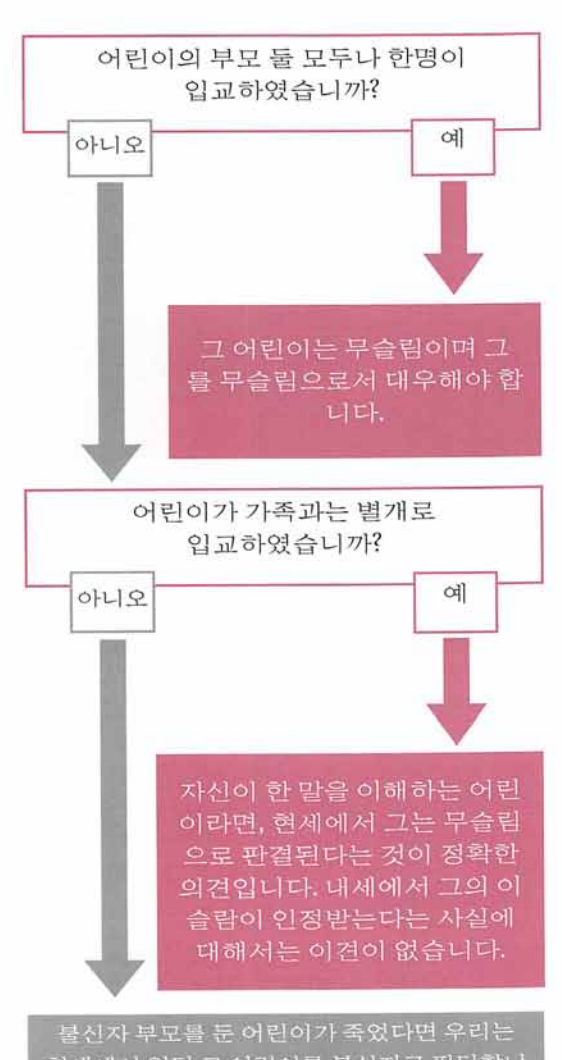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현세에서 어린이를 무슬림으로 판단하는가?

어린이를 무슬림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부모 둘 모두가 입교했거나 한 명만 입교했을 때. 왜냐하면 어린이는 부모가 가진 종교 중 가장 좋은 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2. 부모가 입교하지 않았고 성인으로서의 나이가 차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력을 지닌 어린이가 입교했을 때.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시중들던 유대인 꼬마가 있었는데 꼬마가 병이 나자 선지자께서 그를 병문안한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께서는 꼬마 머리맡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 "이슬람으로 입교하라." 꼬마는 자신의 아버지를 쳐다보았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 "아불 까심(알-까심의 아버지, 즉 선지자)를 따르라." 이에 꼬마는 입교하였고 선지자께서는 나가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꼬마를 불지옥으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1290)





불신자 부모를 둔 어린이가 죽었다면 우리는 현세에서 일단 그 어린이를 불신자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것과 드러내는 것 모두를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부당히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심판의 날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험을 준비하셨고 그 시험에서 어린이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천국, 그분을 거역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슬람 이후 이름을 바꾸는 것이 권장사항인가?



기본 원칙은 입교 후에도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교우들(싸하바)(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여기시길) 시절에는 이 같은 개명이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입교했지만 비아랍어 이름을 가진 그들의 이름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름이 나쁜 의미를 지녔다면 그 좋지 않은 의미가 원인이 되어 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하나님 이외의 존재를 숭배하는 의미를 지닌 이름이라 이슬람의 믿음에 배치되는 경우 :

예를 들어 압둘 마시흐(예수의 노예), 압둔 나비(선지자의 노예) 같은 이름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세누다 같은 이름은 이슬람의 믿음과 배치되기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유 속성을 뜻하는 이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말리쿨 물루크(왕중의 왕)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으로서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2 이름이,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상 거부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뜻을 지녔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먹거리와 마실거리와 현세의 모든 일에 있어서 추하고 더러운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따라서 입교 이후에 이 같은 뜻을 지닌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이후의 거역이란 얼마나 사악한 이름인가."(꾸란 제 49장 11절)

3 비무슬림 사이에 종교적인 이름으로 알려진 이름이나 타종교인들 사이에 종교적 상징으로 자리잡은 이름일 경우.

예를 들어 : 기독교인 사이에 쓰이는 피터, 조지, 바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바꿀 시에는 위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지 않은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종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은 이슬람의 의무 사항이며, 그러한 이름을 가지는 것은 불신자들을 닮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개명이 권장되는 경우 :

압둘라나 압둘라흐만과 같은 이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으로서 무슬림의 새로운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슬람 입교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이름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아랍어 이름을 아랍어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권장 사항은 아니며, 이슬람 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름이 이슬람의 믿음과 배치되는 의미를 지니나요?

아니오 / 예

예 → 그러한 의미를 지니는 이름은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아니오 →

이름이 비무슬림들 사이에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나요?

아니오 / 예

예 → 의혹을 불식하고 불신자를 닮지 않기 위해 이름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아니오 →

이름에 나쁜 의미가 있나요?

아니오 / 예

예 → 이슬람을 받아들인 사실에 걸맞게 이름도 좋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니오 → 이슬람 초기에 많은 비아랍인이 입교했지만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이유 없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락되는 일이며, 압둘라나 압둘라흐만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런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은 권장됩니다.

수나눌 피뜨라 (본성적 관습)



이슬람은 무슬림이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있기를 원합니다.

수나눌 피뜨라는 무엇을 뜻하는가?

수나눌 피뜨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 주신 창조 본성에서 비롯된 관습을 뜻하며 이를 통해 무슬림은 더욱 훌륭한 모습과 아름다운 상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이슬람은, 무슬림이 외면과 내면의 단정함 모두를 가질 수 있도록 미적인 측면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창조본성(피뜨라)은 다음 다섯 가지라 : 할례, 음모 제거, 콧수염 깍기, 손발톱 깍기, 겨드랑이털 뽑기." ('알-부카리'(no.5552)와 '무슬림'(no.257)이 수집한 하디쓰)

할례란 : 음경 귀두부의 꺼풀을 잘라내는 것을 뜻하며 보통 아기가 태어난 후에 실시합니다.

할례는 권장 사항이며 남성을 위한 수나눌 피뜨라입니다. 할례에는 여러 의학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입교의 전제 조건은 아니며 고통이 두렵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할례를 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음모 제거란 : 면도나 기타 방법을 통해 성기 주위의 거친 털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콧수염 깍기 : 콧수염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무슬림이 콧수염을 길게 길러서는 안 되며, 콧수염을 관리하고 짧게 깍아야 합니다.

턱수염 기르기 : 이슬람은 남성이 턱수염을 기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턱수염이란 아래턱 전반에 자라나는 수염을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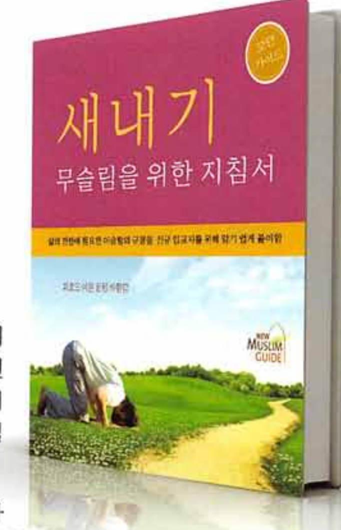
턱수염을 기른다는 것은 턱수염을 그대로 놓아둔 채 자르지 않음으로써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를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손발톱 깎기 : 무슬림은 손발톱을 짧게 정리함으로써 그 안에 오물이 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겨드랑이털 뽑기 : 무슬림은 겨드랑이 털을 뽑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거함으로써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맺는 말



이후 단계는 무엇인가?

이 책을 다 읽으셨다면 독자님은 종교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한 첫번째 단계를 끝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배운 것을 실천하고 삶 속에 체화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심판의 날 고통의 원인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지식일지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독자님은 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심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계없이 무슬림은 항상 더 인도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시 항상 낭송하는 '알-파티하' 장(꾸란 제 1장)에 다음의 구절이 언급되어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들을 올곧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꾸란 제 1장 6절)

능력껏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

이 책을 포함한 그 어떤 서적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과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을 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선 지식을 갖춘 자에게 질문을 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최대한 능력껏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의 능력껏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꾸란 제 64장 16절)



형제 무슬림들과 교류하고 친해지십시오 :

형제 무슬림들과 친하게 지내고 이슬람 센터를 자주 방문하십시오. 그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신앙을 지녔던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교우들(싸하바)과 함께 하면서 인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 "그리고 그대는, 아침 저녁으로 자신들의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는 자들과 함께 그대 자신을 인내하라."(꾸란 제 18장 28절)

마찬가지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무슬림이 공동체와 멀어지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마치 양떼에서 벗어난 양이 늑대의 표적이 되는 것처럼, 그것은 방황과 어긋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들은 공동체와 함께 하라. 늑대의 먹이감이 되는 것은 오직 멀리 떨어진 양이기 때문이라." ('알-무스타드라크', no.567)

따라서 무슬림이 형제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선과 인도와 굳건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새내기 무슬림은 처음 길을 나섰기에 자신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도움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여러분의 종교를 굳건히 해주시고 독자님께 그분의 은총을 내려주시길…





새내기 무슬림을 위한 지침서 웹사이트

종류

웹사이트

언어

다국어

링크

www.newmuslim-guide.com

이 웹사이트는 입교 첫날부터 시작하여 새내기 무슬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각 주제는 단순하면서도 흥미로운 방식으로 독자들 앞에 전개됩니다.

설명

* 멋진 레이아웃
* 독특한 일러스트레이션
* 우두(세정)법과 예배법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세요
* 16개 언어 지원



새내기 무슬림을 위한 지침서 스토어

종류

스토어

언어

다국어

링크

www.newmuslim-guide.com/store

이 스토어는 모던 가이드 출판사의 모든 서적과 App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토어를 통해 해당 서적과 App의 설명을 보실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링크도 확인 가능합니다.

설명

* 멋진 레이아웃
* 독특한 일러스트레이션
* 다국어 지원
* 언어별, 운영체제별 검색 가능
* 다양한 무료 서적과 App 보유





دليل المسلم الجديد

The New Muslim **Guide**

Guide du converti musulman

ለአዲስ ሰለምቴዎች መመሪያ

Ang Gabay Para sa Bagong Muslim

Vodič novom muslimanu

新改宗者のためのガイドブック

La guida del nuovo musulmano

새내기 무슬림을 위한 지침서

Handbuch für den neuen Muslim

नव मुस्लिम मार्गदर्शिका

Guia para o novo muçulmano

新穆斯林指南

Руководство для принявшего ислам

Guía para el Nuevo Musulmán

U.K - Birmingham
B11 1AR
Tel : +441214399144

K.S.A - Riyadh
Tel : +96614486000
Fax: +96614482181



www.newmuslim-guide.com
www.guide-muslim.com
info@modern-guide.com

Korean

밑음(이만)



따하라
(예배를 위한 청결)



예배



단식



의무희사금



성지순례(핫즈)



경제 활동



먹거리와
마실 거리



옷



가족



성품



새로운 삶





ISBN. 978-603-01-1620-1

새내기 무슬림을 위한 지침서

이 책은 독자분(새내기 무슬림)에게 이 위대한 종교, 인류에게 내려진 가장 커다란 축복인 이슬람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살아가면서 타인과 어떻게 교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여러분이 주위에서 일어난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하고 쉽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제공된 이러한 정보들은 꾸란(하나님의 마지막 성서)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그의 행위와 말씀)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해당 주제에 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을 위해 참고 서적 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특정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와 관련된 근거는 무엇인지, 독자님께서는 참고 서적을 통해 상기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www.newmuslim-guide.com





